

수능완성



국어영역 |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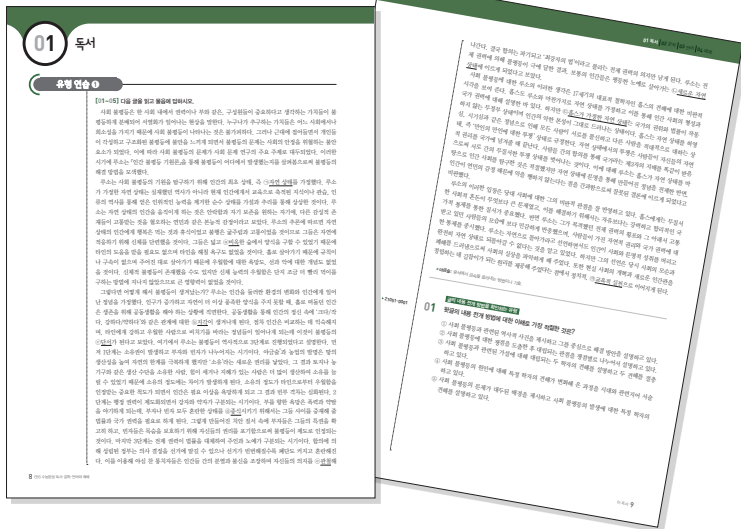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유형편

수능완성 <유형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에 대비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출제 유형을 독서, 문학, 언어, 매체 영역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영역별로 정리된 유형별 문항을 풀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취약한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유형 설명과 정답 해설로 보다 정확한 유형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형 연습

유형 연습은 독서, 문학, 언어, 매체 영역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한 코너입니다. 꼭 알아 두어야 할 영역별 필수 유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전과 유사한 문항 풀이를 통해 자신의 유형 이해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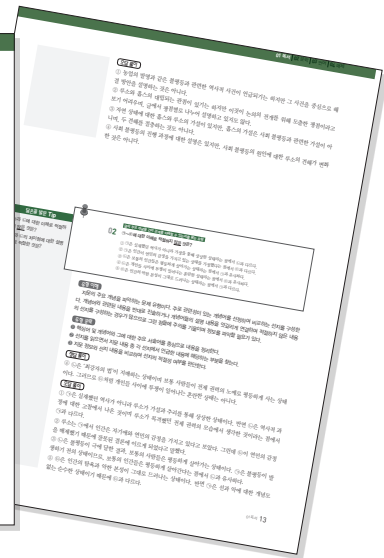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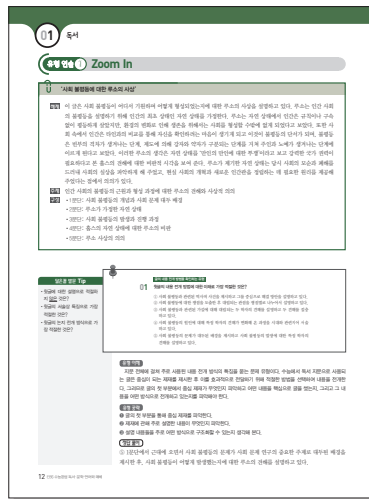


Zoom In 유형 연습

유형 연습을 통해 제시된 문항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Zoom In하여 꼼꼼하게 분석한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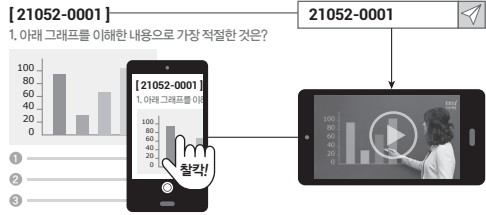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유형 이해'는 물론, 실전에서 필요한 '유형 공략'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뎀은꼴 발문 Tip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학생 EBS 교재 문제 검색

EBS 단추에서 문항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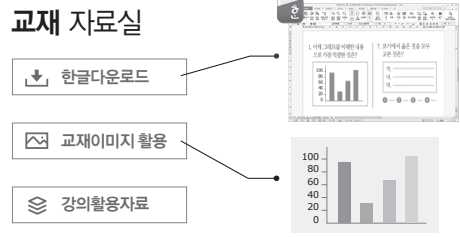


※ EBS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고교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유형편

01 독서	유형 연습 ①	8
	유형 연습 ②	17
	유형 연습 ③	26
	유형 연습 ④	34
02 문학	유형 연습 ①	46
	유형 연습 ②	54
	유형 연습 ③	62
	유형 연습 ④	71
	유형 연습 ⑤	82

03 언어	유형 연습 ①	92
	유형 연습 ②	95
	유형 연습 ③	101
	유형 연습 ④	106
04 매체	유형 연습 ①	110
	유형 연습 ②	115
	유형 연습 ③	122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01 **독서**

02 **문학**

03 **언어**

04 **매체**



유형 연습 ①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 불평등은 한 사회 내에서 권력이나 부와 같은,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서열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누구나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개인들이 각성하고 구조화된 불평등에 불만을 느끼게 되면서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 연구의 주요 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통해 불평등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불평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루소는 사회 불평등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 인간의 최초 상태, 즉 ㉠자연 상태를 가정했다. 루소가 가정한 자연 상태는 실재했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인간에게서 교육으로 축적된 지식이나 관습, 인류의 역사를 통해 얻은 인위적인 능력을 제거한 순수 상태를 가설과 추리를 통해 상상한 것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안락함과 자기 보존을 원하는 자기에, 다른 감성적 존재들이 고통받는 것을 혐오하는 연민과 같은 본능적 감정이라고 보았다. 루소의 추론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행복은 먹는 것과 휴식이었고 불행은 굶주림과 고통이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를 단련했을 것이다. 그들은 넓고 ㉡비옥한 숲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타인을 해칠 욕구도 없었을 것이다.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규칙이나 구속이 없으며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월함에 대한 욕망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것이다. 신체적 불평등이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신체 능력의 우월함은 단지 조금 더 빨리 먹이를 구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큰 영향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불평등이 생겨났는가? 루소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인간에게 일어난 정념을 가정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이 더 이상 풍족한 양식을 주지 못할 때, 홀로 떠돌던 인간은 생존을 위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공동생활을 통해 인간의 정신 속에 ‘크다/작다, 강하다/약하다’와 같은 관계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게 된다. 점차 인간은 비교하는 데 익숙해지며, 타인에게 강하고 우월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는 정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불평등의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루소는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3단계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먼저 1단계는 소유권이 발생하고 부자와 빈자가 나누어지는 시기이다. 야금술*과 농업의 발명은 땅의 생산성을 높여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게 했지만 ‘소유’라는 새로운 권리를 낳았다. 그 결과 토지나 농기구와 같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 힘이 세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생산하여 소유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유의 정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소유의 정도가 타인으로부터 우월함을 인정받는 중요한 척도가 되면서 인간은 필요 이상을 욕망하게 되고 그 결과 빈부 격차는 심화된다. 2단계는 행정 권력이 제도화되면서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는 시기이다. 부를 향한 욕망은 폭력과 약탈을 야기하게 되는데, 부자나 빈자 모두 혼란한 상태를 ㉤중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를 중재해 줄 법률과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치안 질서 속에 부자들은 그들의 특권을 확고히 하고, 빈자들은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불평등이 제도로 인정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전제 권력이 법률을 대체하여 주인과 노예가 구분되는 시기이다. 합의에 의해 성립된 정부는 의사 결정을 선거에 맡길 수 있으나 선거가 빈번해질수록 폐단도 커지고 혼란해진다. 이를 이용해 야심 찬 통치자들은 인간들 간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며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해

나간다. 결국 합의는 파기되고 ‘최강자의 법’이라고 불리는 전제 권력의 의지만 남게 된다. 루소는 전제 권력에 의해 불평등이 극에 달한 결과,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한 노예로 살아가는 ㉔새로운 자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루소의 이러한 생각은 17세기의 대표적 철학자인 홉스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홉스도 루소와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를 가정하고 이를 통해 인간 사회의 형성과 국가 권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㉕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는 국가의 권위와 법률이 작동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며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허영심, 시기심과 같은 정념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서로를 불신하고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상태,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규정한다. 자연 상태에서의 투쟁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적 권리를 국가에 넘겨줄 때 끝난다.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 국가라는 제3자의 지배를 똑같이 받으므로 서로 간의 무질서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루소는 홉스가 자연 상태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탐구한 것은 적절했지만 자연 상태에 문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념을 전제한 반면, 인간이 연민의 감정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루소의 이러한 입장은 당대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홉스에게는 무질서한 사회적 혼돈이 무엇보다 큰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보다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국가적 통제를 통한 질서가 중요했다. 반면 루소는 그가 목격했던 전제 권력의 횡포와 그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사람들이 가진 자연적 권리와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를 중시했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하면서도 인간이 사회와 문명적 성취를 버리고 완전히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선언은 당시 사회의 모순과 폐해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게 해 주었다. 또한 현실 사회의 개혁과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하는 데 길잡이가 되는 원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㉖교육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금술: 광석에서 금속을 골라내는 방법이나 기술.

글의 내용 전개 방법을 확인하는 유형

▶ 21051-0001

01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사회 불평등에 대한 쟁점을 도출한 후 대립되는 관점을 쟁점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③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가설에 대해 대립되는 두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 ④ 사회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특정 학자의 견해가 변화해 온 과정을 시대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된 배경을 제시하고 사회 불평등의 발생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 21051-0002

글의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실재했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을 통해 상상한 상태라는 점에서 ㉡과 다르다.
- ② ㉡은 인간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정했다는 점에서 ㉣과 다르다.
- ③ ㉢은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하게 살아가는 상태라는 점에서 ㉠과 유사하다.
- ④ ㉠은 개인들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는 혼란한 상태라는 점에서 ㉣과 유사하다.
- ⑤ ㉣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라는 점에서 ㉡과 다르다.

▶ 21051-0003

글의 내용과 사례를 연결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3

〈보기〉는 ㉡와 관련된 루소의 견해이다. 뒷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야기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욕망을 따라가면 이미 지나온 나라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갈 나라는 계속 커지고 넓어진다. 결국 사람은 지쳐 버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쾌락을 맛볼수록 행복은 멀어진다. 반면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능력과 욕망의 차이가 작아져 행복에서 멀어지는 일이 적어진다. 불행은 결핍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느끼게 하는 욕망 속에 있는 것이다. <중략>

사람들이 아이의 교육에 손을 댄 이래 아이들을 지도하는 수단으로는 경쟁심, 질투심, 선망, 허영심, 탐욕, 공포심과 같은 것만 사용해 왔다. 그러한 정념은 어느 것이나 모두 상당히 위험하여 육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정신을 부패시킨다. 아이의 머릿속에 선과 악에 대한 교훈을 집어넣으려 함으로써 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 ① 루소는 아이들에게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불평등과 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악덕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루소는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우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여 주고 그를 부러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교육에 대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보겠군.
- ③ 루소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겠군.
- ④ 루소는 아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보다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가진 성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 정립을 위한 방향이라고 보겠군.
- ⑤ 루소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 주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겠군.

▶ 21051-0004

글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유형

04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본 ‘홉스’와 ‘루소’의 가상 대담이다. 발언 내용 중 두 사람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보기

- 루소: 지금 전제 군주는 권력을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①
- 홉스: 그래도 예전에 무질서할 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②
- 루소: 국가 권력이 폭력과 약탈을 막아 낸 것은 맞지만 불평등을 제도화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③
- 홉스: 국가 권력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④
- 루소: 지금 국가 권력은 국민들을 지배할 뿐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도 필요합니다. ⑤

▶ 21051-0005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0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땅이 걸고 기름짐.
- ② ㉡: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 ③ ㉢: 어떤 일의 시초.
- ④ ㉣: 한때 매우 성하던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
- ⑤ ㉤: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함.

유형 연습 1 Zoom In

'사회 불평등에 대한 루소의 사상'

예제 이 글은 사회 불평등이 어디서 기원하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루소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루소는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최초 상태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규칙이나 구속 없이 평등하게 살았지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불평등의 단서가 되며, 불평등은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는 단계, 제도에 의해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는 단계를 거쳐 주인과 노예가 생겨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루소의 생각은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고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본 홉스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루소가 제기한 자연 상태는 당시 사회의 모순과 폐해를 드러내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게 해 주었고, 현실 사회의 개혁과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인간 사회의 불평등의 근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루소의 견해와 사상적 의의

- 구성**
- 1문단: 사회 불평등의 개념과 사회 문제 대두 배경
 - 2문단: 루소가 가정한 자연 상태
 - 3문단: 사회 불평등의 발생과 진행 과정
 - 4문단: 홉스의 자연 상태에 대한 루소의 비판
 - 5문단: 루소 사상의 의의

짧은골 발문 Tip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내용 전개 방법을 확인하는 유형

01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사회 불평등에 대한 쟁점을 도출한 후 대립되는 관점을 쟁점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③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가설에 대해 대립되는 두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 ④ 사회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특정 학자의 견해가 변화해 온 과정을 시대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된 배경을 제시하고 사회 불평등의 발생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유형 이해

지문 전체에 걸쳐 주로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수능에서 독서 지문으로 사용되는 글은 중심이 되는 제재를 제시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내용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글의 첫 부분에서 중심 제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글을 썼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글의 첫 부분을 통해 중심 제재를 파악한다.
- ② 제재에 관해 주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③ 설명 내용들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정답 풀이

⑤ 1문단에서 근대에 오면서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대두된 배경을 제시한 후, 사회 불평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루소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농업의 발명과 같은 불평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루소와 홉스의 대립되는 관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논의의 전개를 위해 도출한 쟁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글에서 쟁점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③ 자연 상태에 대한 홉스와 루소의 가설이 있지만, 홉스의 가설은 사회 불평등과 관련한 가설이 아니며, 두 견해를 절충하는 것도 아니다.
- ④ 사회 불평등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사회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루소의 견해가 변화한 것은 아니다.

짧은골 발문 Tip

-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과 ㉡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글의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실재했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을 통해 상상한 상태라는 점에서 ㉡과 다르다.
- ② ㉠은 인간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정했다는 점에서 ㉡과 다르다.
- ③ ㉠은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하게 살아가는 상태라는 점에서 ㉠과 유사하다.
- ④ ㉠은 개인들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는 혼란한 상태라는 점에서 ㉡과 유사하다.
- ⑤ ㉠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라는 점에서 ㉠과 다르다.

유형 이해

지문의 주요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주로 관련성이 있는 개념어를 선정하여 비교하는 선지를 구성한다. 개념어와 관련된 내용을 반대로 진술하거나 개념어들의 설명 내용을 엇갈리게 연결하여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핵심어 및 개념어와 그에 대한 주요 서술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 ② 선지를 읽으면서 지문 내용 중 각 선지에서 언급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다.
- ③ 지문 정보와 선지 내용을 비교하여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은 '최강자의 법'이 지배하는 상태이며 보통 사람들이 전제 권력의 노예로 평등하게 사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처럼 개인들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는 혼란한 상태는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은 실재했던 역사가 아니라 루소가 가설과 추리를 통해 상상한 상태이다. 반면 ㉡은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나온 것이며 루소가 목격했던 전제 권력의 모습에서 생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 다르다.
- ② 루소는 ㉠에서 인간은 자기애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연민의 감정을 배제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 ③ ㉠은 불평등이 극에 달한 결과, 보통의 사람들은 평등하게 살아가는 상태이다. ㉠은 불평등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이므로, 보통의 인간들은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점에서 ㉡과 유사하다.
- ⑤ ㉡은 인간의 탐욕과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이다. 반면 ㉠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없는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 다르다.

답은골 발문 Tip

-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내용과 사례를 연결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3

<보기>는 ㉠과 관련된 루소의 견해이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야기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욕망을 따라가면 이미 지나온 나라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갈 나라는 계속 커지고 넓어진다. 결국 사람은 지쳐 버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쾌락을 맛볼수록 행복은 멀어져 간다. 반면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능력과 욕망의 차이가 작아져 행복에서 멀어지는 일이 적어진다. 불행은 결핍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느끼게 하는 욕망 속에 있는 것이다. <중략>

사람들이 아이의 교육에 손을 댄 이래 아이들을 지도하는 수단으로는 경쟁심, 질투심, 선망, 허영심, 탐욕, 공포심과 같은 것만 사용해 왔다. 그러한 정념은 어느 것이나 모두 상당히 위험하여 육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정신을 부패시킨다. 아이의 머릿속에 선과 악에 대한 교훈을 집어넣으려 함으로써 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 ① 루소는 아이들에게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불평등과 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악덕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루소는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우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여 주고 그를 부러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교육에 대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보겠군.
- ③ 루소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겠군.
- ④ 루소는 아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보다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가진 성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 정립을 위한 방향이라고 보겠군.
- ⑤ 루소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 주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겠군.

유형 이해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지문과 자료를 연결하여 사례에 대해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제시된 <보기>는 대개 지문에서 소개한 주요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우선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어떤 정보와 연관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지문의 핵심어나 개념어가 <보기>에 사용된 맥락을 살펴보면서 선지에 제시된 사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의 내용을 해석하고 지문의 어떤 정보와 관련된 것인지 파악한다.
- ② 지문의 핵심어나 개념어가 <보기>에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한다.
- ③ 선지에서 제시한 사례가 지문과 <보기>의 어떤 입장과 관련되는지에 유의하며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⑤ 3문단에서 루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월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정념이 자연 상태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보기>에서도 정념은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하는 것은 정념을 부추기는 것이므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에서 악덕이 없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변하게 만든 것은 정념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도 교사들이 정념을 불러일으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다.
- ② 3문단을 통해 보면 사회에서 우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념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 교사들이 선망과 같은 정념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행복은 먹는 것과 휴식이었다고 했으며, <보기>에서 인간은 욕망이 커지면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루소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5문단에서 자연 상태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하는 데 길잡이가 되었다고 했으며,

〈보기〉에서 욕망이 커질수록 능력과 욕망의 차이로 인해 불행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루소는 새로운 인간관의 정립을 위해 욕망을 자극하기보다 자연 상태의 성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답은꼴 발문 Tip

- 윗글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의 인물들이 〈보기〉의 ‘학생’에게 조언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유형

04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본 ‘홉스’와 ‘루소’의 가상 대담이다. 발문 내용 중 두 사람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보기

- 루소: 지금 전제 군주는 권력을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①
- 홉스: 그래도 예전에 무질서할 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②
- 루소: 국가 권력이 폭력과 약탈을 막아 낸 것은 맞지만 불평등을 제도화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③
- 홉스: 국가 권력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④
- 루소: 지금 국가 권력은 국민들을 지배할 뿐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도 필요합니다. ⑤

유형 이해

지문의 내용을 가상의 대담이나 소설 등의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내용이 지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하지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선지가 인물들의 가상 대담이나 토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쟁점에 대한 인물들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점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는 관점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다. 글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론해서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점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나타난 인물들의 관점을 파악한다.
- ②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인물들의 관점을 적용한다.
- ③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된 관점을 적용하여 정오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4문단에 따르면 홉스가 생각한 국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끝내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자연적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성립된다. 5문단에 따르면 홉스는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강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통한 질서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볼 때 홉스가 중시한 것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질서였으므로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은 홉스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에 따르면 루소는 전제 군주가 지배를 하면서 불평등을 고착화한다고 보았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홉스는 인간 사회의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루소는 인간 사회의 혼란을 종식시킨 법과 권력이 불평등을 제도화했다고 보았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루소는 홉스와 달리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자연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도 중시했다.

답은골 발문 Tip

-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0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땅이 걸고 기름짐.
- ② ㉡: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 ③ ㉢: 어떤 일의 시초.
- ④ ㉣: 한때 매우 성하던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
- ⑤ ㉤: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함.

유형 이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평소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단어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평소 알고 있던 해당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여 선지와 비교한다.
- ②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고려하며 그 의미를 추론한다.

정답 풀이

⑤ ‘관철(貫徹)’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을 나타내는 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함.’은 ‘관통(貫通)’의 의미이다.

오답 풀이

㉠~㉣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적절하다.

01

독서

유형 연습 ②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법 제33장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公然)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명예’인데, 이는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명예에 대해서는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라는 관점도 있지만, 명예가 사회생활을 통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본다. 명예에 관한 죄는 모욕죄와 명예 훼손죄가 있으며, 명예 훼손죄는 단순 명예 훼손죄를 바탕으로 감경 유형과 가중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없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한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행위, 비꼬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모욕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에는 ‘경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 일반의 기준에서 경멸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불친절, 불손, 무례에서 오는 불쾌감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공연히’는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예 주체를 가리키는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단순 명예 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죄 성립의 요건인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며, 진실하지만 명예 주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지만 명예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 해당되지 않는다. 공연성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 모욕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소수의 특정인에게 사실을 전파한 경우라도 특정인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단순 명예 훼손죄의 명예 주체는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명예 주체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는 모욕죄와 달리 단순 명예 훼손죄는 명예 주체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명예 주체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다른 유형의 명예 훼손죄에도 적용된다. 단순 명예 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명예 훼손죄에서 내용상 처벌이 가중되는 유형으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있고, 감경되는 유형으로는 ‘사자(死者)의 명예 훼손죄’가 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는 행위자가 ㉢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적시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행위자의 착오로 인해 진실로 알고 적시했지만 허위로 밝혀진 경우나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했지만 진실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단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일어난 피해와 고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자의 명예 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때만 적용되며, ㉣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는 사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자의 명예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적시 방법에 따른 가중 유형으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있다. ㉤ 형법 제309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해 단순 명예 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판물의 전파력이 크며, 그에 따라 명예 훼손의 피해도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매체들은 전파력이 크지만 형법 제309조에는 이러한 매체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도 ‘출판물’에서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있지만, 형법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대신 이들 매체들을 이용한 명예 훼손에 대한 별칙 규정이 있는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 제70조를 적용한다. 정보 통신망법 제70조의 별칙은 형법 제309조와 비슷하지만 벌금이 단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할 때 3천만 원 이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할 때 5천만 원 이하로 형법 제309조보다 무겁다.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한다.

명예 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는 보호할 수 있으나 진실이 은폐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은 헌법적 가치와도 상충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형법 제310조에는 단순 명예 훼손 행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 세부적인 오류나 과장이 있더라도 중심적인 내용은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며, 부분적 진실을 침소봉대하여 전체 내용을 왜곡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목적과 영향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때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잘못된 언론 보도의 경우 개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 검증을 위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거나 선입견을 가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 21051-0006

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명예 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
- ②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
- ③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사실의 적시 없이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비방한 경우에 회사는 명예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⑤ 식당에서 종업원의 불친절로 인해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경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 21051-0007

02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

〈보기〉는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들이다. 모두 법률에서 규정한 최고액이 선고 되었다고 할 때, 벌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단, 모두 하나의 조항만 적용되었으며, 사실 여부 인지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었다.)

보기

- ㄱ. 유명 야구 선수에 대한 인터넷 기사마다 욕설과 조롱의 댓글을 씀.
- ㄴ. 강연에서 죽은 재벌 회장에게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 ㄷ.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함.
- ㄹ. 회고록을 출판하면서 유명 작가인 친구에게 숨겨 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힘.
- ㅁ. 유명한 치킨집에서 폐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누리 소통망[SNS]에 올림.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 21051-0008

03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 ② ㉠에 해당하는 죄라도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 ③ ㉢의 적용 범위에는 ㉠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된다.
- ④ ㉣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었을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다.
- ⑤ ㉤은 공익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1051-0009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반듯한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인 A는 매니저 ‘갑’의 일 처리가 미숙하여 이에 대한 지적을 했다. ‘갑’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말을 외치고 왔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을’은 친구인 ‘병’에게 연예인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연예인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병’은 그 연예인이 A라고 단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 블로그에 ‘A의 폭언에 시달린 매니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을’이 한 이야기를 올렸다. 이 글로 인해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A는 ‘을’과 ‘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 ① A에게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는 것은 A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근거가 될 수 있겠군.
- ② ‘갑’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찾아가서 혼자 외친 행위는 적시된 내용과 공연성을 판단할 때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겠군.
- ③ ‘을’이 ‘병’에게 전달한 이야기에 연예인이라는 것 외에 명예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면 ‘을’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겠군.
- ④ ‘을’이 ‘병’에게 전달한 이야기에 A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본 것을 진실로 믿었다면 ‘을’과 ‘병’은 모두 형법상 단순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겠군.
- ⑤ ‘을’이 ‘병’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전파한 행위이지만 ‘병’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을’의 행위도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21051-0010

문맥을 파악하고 적절한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 ②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 ③ ㉢: 고의로 거짓을
- ④ ㉣: 사실의 적시가 없는
- ⑤ ㉤: 진실이 아닌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유형 연습 2 Zoom In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

예제 이 글은 형법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명예에 관한 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모욕죄와 사실의 적시가 있는 명예 훼손죄가 있다.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 앞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명예 주체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명예 훼손죄에서 내용상 가중 유형으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있고 감경 유형으로는 사자의 명예 훼손죄가 있다. 적시 방법상 가중 유형으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있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하는 대신 정보 통신방법을 적용한다. 명예 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의 가치와 상충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제 명예에 관한 죄의 범죄 성립 요건과 유형 및 위법성의 배제

- 구성**
- 1문단: 명예에 관한 죄의 개념과 종류
 - 2문단: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 3문단: 단순 명예 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모욕죄와의 차이
 - 4문단: 적시 내용에 따른 가중 유형과 감경 유형
 - 5문단: 적시 방법에 따른 가중 유형
 - 6문단: 명예 훼손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짧은글 발문 Tip

- <보기>의 사례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명예 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
- ②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
- ③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사실의 적시 없이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비방한 경우에 회사는 명예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⑤ 식당에서 종업원의 불친절로 인해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경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유형 이해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동시에 글의 정보를 사례에 적용해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정보 파악과 사례에 대한 연결, 판단까지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형태는 단순하지만 난도는 높은 유형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지에 제시된 사례가 지문에 있는 어떤 정보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에 따라 선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 제시된 사례를 파악한다.
- ② 선지의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 지문의 정보를 파악한다.
- ③ 지문 내용에 따라 선지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한다.

정답 풀이

④ 3문단에서 명예 훼손죄의 명예 주체는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고 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명예 주체가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에 따르면 명예 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명예 주체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명예 훼손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고발할 수 있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명예 훼손죄는 명예 주체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 ③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전파하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하며, 비하하는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경멸의 의사가 없는 단순 불친절에서 오는 불쾌감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의 ㉠~㉣ 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 헤드의 위치가 트랙 0번이고 현재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을 처리한다고 할 때, 각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

02

<보기>는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들이다. 모두 법률에서 규정한 최고액이 선고되었다고 할 때, 벌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단, 모두 하나의 조항만 적용되었으며, 사실 여부 인지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었다.)

보기

- ㉠. 유명 야구 선수에 대한 인터넷 기사마다 욕설과 조롱의 댓글을 씀.
- ㉡. 강연에서 죽은 재벌 회장에게 거액의 비자금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함.
- ㉢.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함.
- ㉣. 회고록을 출판하면서 유명 작가인 친구에게 숨겨 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힘.
- ㉤. 유명한 치킨집에서 폐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누리 소통망(SNS)에 올림.

- ① ㉠ ② ㉡ ③ ㉢ ④ ㉣ ⑤ ㉤

유형 이해

선지의 사례들을 지문의 정보와 연결하고 정보들 간의 관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보통 가장 큰 것이나 가장 작은 것을 찾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지만 최근에는 ‘두 번째’를 찾으라는 유형도 출제가 된다. 이 경우 직관적으로 가장 큰 값이나 작은 값 하나를 찾던 것과는 달리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서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유형이다. 일일이 대조를 하면서 순서를 정해 가는 방법도 있지만, 기준이 되는 가장 큰 값을 중심으로 순서를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요구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

유형 공략

- ① 사례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찾는다.
- ② 정보들 중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다.
- ③ 가장 큰 값과 조건이 비슷한 것들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한다.

정답 풀이

- ③ ㉠. 욕설과 조롱을 했다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된다.
 - ㉡. 허위 사실을 적시했지만 감경 유형인 사자의 명예 훼손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500만 원의 벌금형이 된다.
 - ㉢.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내용상으로 가중되지만 적시 방법으로는 가중되지 않는다. 이 경우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된다.
 - ㉣. 단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만 출판물을 이용했으므로 적시 방법으로 가중된다. 이 경우 700만 원의 벌금형이 된다.
 - ㉤. 허위 사실이므로 내용상으로 가중되고 누리 소통망을 이용했으므로 적시 방법으로도 가중된다. 이 경우 정보 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5천만 원의 벌금형이 된다.
- 그러므로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은 ㉤이고, ㉢이 그다음이다.

답은꼴 발문 Tip

-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 ② ㉠에 해당하는 죄라도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 ③ ㉡의 적용 범위에는 ㉠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된다.
- ④ ㉡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었을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다.
- ⑤ ㉢은 공익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 이해

지문의 정보를 세부적인 수준까지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 ㉡, ㉢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같이 묶어 놓았을 때는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표시된 부분들의 관계, 차이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표시된 부분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는다.
- ② 표시된 부분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③ 표시된 부분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③ ㉡의 적용 범위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 훼손을 행한 경우이다.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 훼손의 경우는 ㉡을 적용하지 않고 ㉠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의 적용 범위에 ㉠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은 형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
- ② ㉠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는 단순 명예 훼손죄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있다. ㉢은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단순 명예 훼손죄의 경우 오로지 공익에 부합할 때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 ④ ㉡은 단순 명예 훼손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었을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다.
- ⑤ ㉢은 단순 명예 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공익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답은꼴 발문 Tip

-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반듯한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인 A는 매니저 '갑'의 일 처리가 미숙하여 이에 대한 지적을 했다. '갑'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말을 외치고 왔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을'은 친구인 '병'에게 연예인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연예인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병'은 그 연예인이 A라고 단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 블로그에 'A의 폭언에 시달린 매니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을'이 한 이야기를 올렸다. 이 글로 인해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A는 '을'과 '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 ① A에게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는 것은 A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이므로 명예 훼손의 근거가 될 수 있겠군.
- ② '갑'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찾아가서 혼자 외친 행위는 적시된 내용과 공연성을 판단할 때 명예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겠군.
- ③ '을'이 '병'에게 전달한 이야기에 연예인이라는 것 외에 명예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면 '을'의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겠군.
- ④ '을'이 '병'에게 전달한 이야기에 A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본 것을 진실로 믿었다면 '을'과 '병'은 모두 형법상 단순 명예 훼손죄의 적용을 받게군.
- ⑤ '을'이 '병'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전파한 행위이지만 '병'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을'의 행위도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유형 이해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례를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제시된 사례는 대개 지문에서 설명한 개념을 구현한 것이므로 사례의 내용이 지문의 어떤 정보와 연결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문-<보기>-선지를 모두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보기>에서 지문의 개념과 연결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해 두면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유형 공략

- ① <보기>를 읽고 제시된 사례가 지문의 어느 부분과 연관된 것인지 파악한다.
- ② <보기>에 제시된 사례의 세부 내용들과 관련되는 지문의 정보를 찾아 메모한다.
- ③ 선지에서 말한 반응이나 해석이 지문과 <보기>에 있는 내용과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을'이 '병'에게 전달한 내용은 '갑'의 행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오해한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면 4문단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형법상 단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병'은 들은 내용을 뉴스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에 형법상 단순 명예 훼손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받는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 따르면 명예는 일반적으로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리킨다. 반듯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던 A에게 비난이 쏟아진다는 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갑'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찾은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내용도 자신에 대해 자책하는 것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명예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단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을'이 말한 내용 중에 명예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면 '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소수의 특정인에게 사실을 전파한 경우라도 특정인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병'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문맥상 ㉠을 대체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를 바꾸어 쓴 것 중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맥을 파악하고 적절한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단순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지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 ㉢: 고의로 거짓을
- ㉣: 사실의 적시가 없는
- ㉤: 진실이 아닌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유형 이해

최근에 출제되기 시작한 유형으로, 단어의 의미와 글의 문맥을 함께 파악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선지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은 바꾸어 쓸 때 문맥에서 답의 근거가 명확히 나오는 경우이다. 그래서 주로 비교나 대조가 되는 부분에서 앞과 다르게 표현한 부분, 지시하는 부분 등에서 출제가 된다. 앞뒤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유형 공략

- 1 표시된 부분과 비교나 대조가 되는 맥락을 파악한다.
- 2 표시된 부분이 지시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 3 단어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 검토한다.
- 4 바꾸어 표현했을 때 원래의 문장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검토한다.

정답 풀이

㉣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1 ㉠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2 ㉡는 모욕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기준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3 ㉢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적시를 했다는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이 되므로 ‘고의로 거짓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4 ㉤에서 오류나 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뒤에 나오는 ‘중심적인 내용은 진실’이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 ‘진실이 아닌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유형 연습 ③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빅뱅 이론’은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발표한 관측 결과가 단서가 되었다. 허블은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에서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많이 적색으로 치우쳤는데 이는 은하들이 지구에서 일정한 비율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 즉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로 해석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지 가모프는 우주의 시간을 뒤돌려 보면 우주는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는 한 점이 팽창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했고, 이 이론은 빅뱅 이론으로 불리게 되었다. 1964년에 벨 연구소의 과학자인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약 2.7K의 마이크로파 노이즈를 검출했다. 접시 안테나의 방향과 상관없이 발견되었던 이 마이크로파는 빅뱅 이론에서 예견했던 우주 배경 복사, 즉 초기 우주에서 방출된 빛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가모프의 이론은 표준 빅뱅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나) 그런데 표준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였던 우주 배경 복사는 새로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펜지어스와 윌슨 이후 인공위성을 통한 정밀한 관측 결과 우주 배경 복사는 전체 하늘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것을 관측해도 똑같이 $2.726 \pm 0.001\text{K}$ 였다. 이처럼 관찰하는 방향이 달라져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등방성(等方性)이라고 한다. 표준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낮아져 온도가 3,000K 정도로 내려가게 되자 전자-양성자 플라스마에서 광자가 빠져나와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이렇게 우주 전체로부터 등방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가 오고 있다는 것은 표준 빅뱅 이론과 잘 부합했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가 등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측의 한계인 우주 지평선 너머의 우주에도 같은 특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난제를 안겨 주었다.

(다) 예를 들어 우리가 12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보고, 그와 반대 방향으로 12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고 하자. 우리는 두 은하를 볼 수 있지만 두 은하에서는 서로를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 은하는 240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현재의 추정으로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은하는 서로에게 우주 지평선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상대론에 따르면 어떤 정보도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란 어떤 종류의 물리적 상호 작용을 이른다. 예를 들어 열이 뜨거운 지점에서 차가운 지점으로 흐르면 이것은 일종의 정보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 지평선 밖에 있는 지점과는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 교환이 없었던 격리된 구역들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질 가능성은 없다. 이것은 마치 ㉠전혀 교류가 없는 두 나라에서,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이 ㉢한국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등방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초기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앨런 구스는 이러한 우주론의 난제를 가장 작은 입자를 다루는 입자 물리학과 연결시킴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는 빅뱅 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엄청나게 커지는 급팽창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입자 물리학에서는 온도가 10^{28}K

이상 올라가면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힘인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통합될 것으로 예측했다. 구스는 빅뱅 후 10^{-35} 초경 우주의 온도가 10^{28} K 이하로 내려갈 때,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분리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고, 이에 따라 우주는 기존의 빅뱅 이론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고 보았다. 그는 10^{-35} 초일 때 직경이 10^{-23} cm이던 우주는 10^{-32} 초에는 10cm로 팽창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우주 자체가 광속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한 것이지만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는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한다고 해서 물체나 정보가 광속보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팽창에 따라 같은 기원을 가지는 구역들이 우주 지평선 밖으로 밀려났고 이 구역들은 같은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우주는 균질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마) 표준 빅뱅 이론으로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균질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우주를 가로질러 광속의 100배의 속력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급팽창 이론에서는 급팽창의 시기를 상정함으로써 이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다. 급팽창 이론에서는 우주의 시발점이 표준 빅뱅 우주론에서 상정한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구역, 즉 양성자의 수십억 분의 일에 버금가는 작은 구역에서 시작했다고 본다. 우리의 우주가 될 그 구역이 엄청나게 작았지만 그곳에서는 균질한 온도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일단 이러한 균질 상태에 도달해 있을 때 이 작은 구역이 급속하게 팽창했고 나중에는 우주 지평선 너머까지 포함할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급팽창 이론은 상대론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우주 배경 복사가 등방성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확인하는 유형

▶ 21051-0011

0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표준 빅뱅 이론의 정립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나): (가)에서 제시한 빅뱅 이론의 근거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다): (나)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예시와 비유를 통해 상술하고 있다.
- ④ (라): (다)에서와 다른 정보 전달 속도를 전제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됨을 증명하고 있다.
- ⑤ (마): (라)에서 설명한 이론이 기존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글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

▶ 21051-0012

02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주 배경 복사가 방향에 따라 다른 값을 가졌다면 표준 빅뱅 이론은 부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 ②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10^{-35} 초에 방출된 빛이 현재에 남아 있는 것이다.
- ③ 급팽창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상 실험을 통해 재현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온도를 10^{28} K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④ 상대론에 따르면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 있고 방향은 반대인 두 은하는 지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 ⑤ 급팽창 이론에서 예측한 우주의 시작점은 표준 빅뱅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충분히 컸기 때문에 우주 지평선 너머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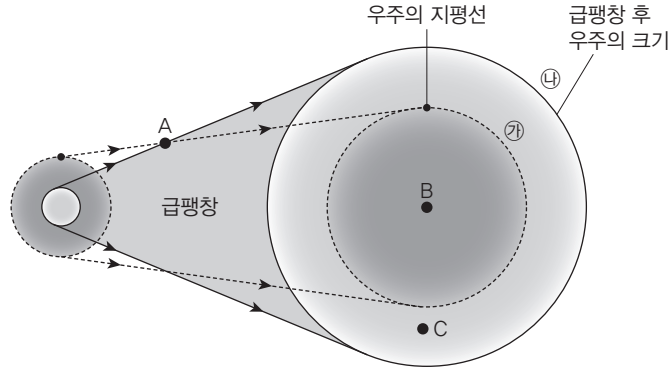
▶ 21051-0013

글의 내용을 시각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3

〈보기〉는 뒷글을 읽은 학생이 자료를 사용하여 친구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위의 그림은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했을 때와 급팽창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 원은 광속으로 우주가 팽창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 ㉡ 원 안에서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 ㉣ 원은 우주의 지평선 밖에도 우주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급팽창 이론에서는 A점에서 광속과 팽창 속도가 같아지면서 같은 기원을 가지는 구역이 우주 지평선 밖으로 나간다고 설명합니다. ㉥ 표준 빅뱅 이론에서는 B와 C 지점이 정보를 공유하려면 정보가 광속보다 빨리 전달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일어나지만, ㉦ 급팽창 이론에서는 B와 C 지점이 과거에 동일한 기원을 가지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정보의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1051-0014

비유적 표현과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유형

04

㉠~㉥에 대응되는 내용끼리 연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
①	137억 광년 넘게 떨어진 두 구역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는 두 지점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에너지
②	137억 광년 넘게 떨어진 두 구역	접촉이 있었던 두 지점	우주 배경 복사
③	지구에서 관측되지 않는 두 은하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는 두 지점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에너지
④	우주의 진화 초기에 생성된 두 은하	접촉이 있었던 두 지점	일정한 온도의 마이크로파
⑤	서로에게 우주 지평선 바깥에 있는 두 구역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는 두 지점	우주 배경 복사

유형 연습 ③ Zoom In



‘등방성의 문제와 급팽창 이론’

예제 이 글은 빅뱅 이론의 근거인 동시에 표준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문제인 우주 배경 복사의 등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급팽창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멀어지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우주의 시작이 한 점에서 팽창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빅뱅 이론에서 예측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되면서 빅뱅 이론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주 배경 복사가 가진 등방성은 빛의 속도로는 정보의 교환이 불가능한 우주 지평선 너머의 구역에서도 같은 특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이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입자 물리학의 성과를 연결시킨 급팽창 이론이다. 급팽창 이론에서는 빅뱅 초기에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했기 때문에 우주 지평선 밖으로 나간 구역과도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본다. 급팽창 이론에서는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는 상대론과 모순되지 않는다.

주제 우주 배경 복사의 등방성에 내포된 문제와 급팽창 이론

- 구성**
- (가): 표준 빅뱅 이론의 성립 과정
 - (나): 우주 배경 복사의 등방성과 내포된 문제점
 - (다): 상대론의 법칙과 모순이 되는 등방성의 문제
 - (라): 등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팽창 이론
 - (마): 급팽창 이론의 타당성

답은골 발문 Tip

-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마)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확인하는 유형

0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표준 빅뱅 이론의 정립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나): (가)에서 제시한 빅뱅 이론의 근거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다): (나)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예시와 비유를 통해 상술하고 있다.
- ④ (라): (다)에서와 다른 정보 전달 속도를 전제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됨을 증명하고 있다.
- ⑤ (마): (라)에서 설명한 이론이 기존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유형 이해

지문을 문단별로 분리하여 글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으로, 세부 내용 파악과 서술상의 특징을 융합하여 선지를 만들 수 있는 유형이다. 이 문제에서는 각 문단이 다른 문단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지에서 다른 문단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단별 중심 화제와 논지를 파악하고 문단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통시적', '상술'과 같은 단어의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문단별 핵심어를 파악한다.
- ② 문단별 논지와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 ③ 문단 연결 부분을 통해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급팽창 이론에서는 공간 자체가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한다고 했지만 정보가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라)에서 (다)와 다른 정보 전달 속도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빅뱅 이론의 정립 과정을 허블부터 펜지어스와 윌슨까지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표준 빅뱅 이론이 우주 지평선 너머의 우주에도 같은 특성을 가진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우주 지평선의 문제를 지구를 중심으로 반대편에 있는 두 은하의 예를 통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주 배경 복사가 같은 온도를 가지는 것을 교류가 없는 두 사람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라)에서 설명한 급팽창 이론으로 상대론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뒷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

02 뒷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주 배경 복사가 방향에 따라 다른 값을 가졌다면 표준 빅뱅 이론은 부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 ②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10^{-35} 초에 방출된 빛이 현재에 남아 있는 것이다.
- ③ 급팽창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상 실험을 통해 재현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온도를 10^{28} K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④ 상대론에 따르면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 있고 방향은 반대인 두 은하는 지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 ⑤ 급팽창 이론에서 예측한 우주의 시작점은 표준 빅뱅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충분히 컸기 때문에 우주 지평선 너머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유형 이해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지문의 정보를 찾고 선지와 대응시켜 보면 되지만, 이 유형에서는 선지와 지문의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논지 이해와 지문에서 생략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 ②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③ 정보들 간의 관계에서 생략된 정보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③ 급팽창 이론에서는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분리가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급팽창이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급팽창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온도를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통합되는 10^{28} K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나)에 따르면 우주 배경 복사의 등방성이 표준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임을 알 수 있다. 우주에서 오는 복사가 방향에 따라 다른 값을 가졌다면 우주 배경 복사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으로 오히려 표준 빅뱅 이론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 ② (나)에 따르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떨어져 $3,000$ K 정도의 온도에 도달했을 때 방출된 빛이다. 빅뱅 후 10^{-35} 초는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간이며, $3,000$ K보다 훨씬 더 고온 상태이다.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시간은 아니다.
- ④ (다)에 제시된 상대론에 따르면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 있고 방향은 반대인 두 은하는 서로에게 우주의 지평선 밖에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수 없지만, 각각의 은하는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하므로 지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⑤ (마)에 따르면 급팽창 이론에서는 우주의 시작점이 표준 빅뱅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더 작은 구역이라고 본다.

답은꼴 발문 Tip

- <그림>의 곡선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래프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내용을 시각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

0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자료를 사용하여 친구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위의 그림은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했을 때와 급팽창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 원은 광속으로 우주가 팽창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 ㉡ 원 안에서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 ㉣ 원은 우주의 지평선 밖에도 우주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급팽창 이론에서는 A점에서 광속과 팽창 속도가 같아지면서 같은 기원을 가지는 구역이 우주 지평선 밖으로 나간다고 설명합니다. ㉥ 표준 빅뱅 이론에서는 B와 C 지점이 정보를 공유하려면 정보가 광속보다 빨리 전달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일어나지만, ㉦ 급팽창 이론에서는 B와 C 지점이 과거에 동일한 기원을 가지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정보의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유형 이해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그래프나 시각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나 시각 자료의 각 영역이나 지점, 수치 등을 지문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문을 읽으면서 <보기>의 각 부분에 관련 내용을 메모하면서 읽는 것도 적절한 풀이법이 될 수 있다.

유형 공략

- 1 시각 자료의 각 부분과 지문의 연결을 확인한다.
- 2 시각 자료에서 영역이나 특정 지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 3 선지와 대조하며 정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③ A점은 광속과 팽창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아니라 더 작은 구역이 광속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면서 광속으로 팽창했을 때와 공간의 크기가 같아지는 때이다.

오답 풀이

- 1 ㉠ 원은 광속으로 팽창한 우주이며, 광속으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범위이므로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상대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 2 ㉡ 원은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넓은 공간을 상정한 것으로 우주의 지평선 밖에도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3 B와 C는 서로에게 우주의 지평선 밖에 있는 두 지점으로, 두 지점이 정보를 공유하려면 정보가 광속보다 빨리 전달되어야 한다. 표준 빅뱅 이론으로는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팽창 이론이 등장했다.
- 4 B와 C는 서로에게 우주의 지평선 밖에 있는 지점이지만 급팽창 이론에서는 과거에 정보 교환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답은골 발문 Tip

- ㉠ :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뒷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비유적 표현과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유형

04 ㉠~㉢에 대응되는 내용끼리 연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
①	137억 광년 넘게 떨어진 두 구역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는 두 지점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에너지
②	137억 광년 넘게 떨어진 두 구역	접촉이 있었던 두 지점	우주 배경 복사
③	지구에서 관측되지 않는 두 은하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는 두 지점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에너지
④	우주의 진화 초기에 생성된 두 은하	접촉이 있었던 두 지점	일정한 온도의 마이크로파
⑤	서로에게 우주 지평선 바깥에 있는 두 구역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는 두 지점	우주 배경 복사

유형 이해

비유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원래의 개념에 대응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 유형을 해결하려면 먼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비유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정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각 부분의 유추적 관계를 파악하여 각 부분을 대응시켜야 한다.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보통 선지를 소거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같은 의미를 가진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형 공략

- 1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비유를 통해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2 각 부분 간의 유추적 관계를 파악한다.
- 3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선지에 유의하며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⑤ ‘전혀 교류가 없는 두 나라’는 현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두 구역, 즉 ‘서로에게 우주 지평선 바깥에 있는 두 구역’을 의미하며,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은 과거에도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는 두 지점’을 의미한다. ‘한국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같다는 것은 우주에서 온 정보, 즉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과 ㉡은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지만, ㉢이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에너지’와는 관련이 없다.
- ② ㉠과 ㉢은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지만, ㉡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은 두 은하끼리는 우주의 지평선 안에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도 적절하지 않다.
- ④ ㉢은 적절하지만 ㉠이 우주의 지평선 밖에 있는 것과 상관이 없으며, ㉡도 적절하지 않다.

유형 연습 ④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8세기 유럽 사회에서는 데카르트와 뉴턴이 쌓아 올린 합리주의적 사고와 과학적 경험주의가 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음악 이론가인 라모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음악에도 적용하여 ‘음악계의 뉴턴’으로 추앙받았다. 그는 화성(harmony)이 음악을 생성시키는 근원이라고 보고, 자연 과학적 법칙으로 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전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라모가 음악의 핵심으로 본 화성 개념은 협화음과 불협화음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피타고라스는 같은 힘으로 당겨진 동일한 재질과 굵기의 두 현의 길이의 비가 1:2(옥타브), 2:3(5도), 3:4(4도), 1:4(두 옥타브)일 때 듣기 좋은 협화음이 발생한다고 했다. 피타고라스는 1, 2, 3, 4 네 수를 모두 더하면 10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특별하게 ‘테트락티스(tetractys)’라고 부르며 우주의 완전성과 같은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다.

16세기 후반부터는 소리에 대한 과학적 접근도 시작되었는데, 베네데티는 음이 일정한 주기를 가진 파동이며 높은음일수록 진동수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메르센은 실험을 통해 현의 진동수가 현의 길이에 반비례하고, 장력의 제곱근에 비례하며 선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수학적 관계를 수립하여 베네데티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소피르는 17세기 말에 어떤 악기의 소리가 f의 진동수를 가지는 음으로 들리면, 그 안에는 f, 2f, 3f, 4f, 5f, …… 등과 같은 자연수 배의 진동수를 가지는 음들이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f의 진동수를 가지는 음을 기본음, 나머지 음들을 배음이라고 부르며, 기본음과 배음을 통칭해서 부분음이라고 했다.

[A] 라모는 이러한 음향학적 성과들과 자연의 법칙을 끌어들이어 화성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려고 했다. 그는 다성 음악에서 성부*들 모두를 총괄하는 것이 화성이라고 보고 선율에 대한 화성의 우위를 주장하며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원리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는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원리를 소피르가 발견했던 기본음과 그 배음들의 진동수가 이루는 수열, 즉 배음렬에서 찾아냈다. 그는 음들의 진동수 비가 1:2(옥타브), 2:3(5도), 3:4(4도), 4:5(장3도), 5:6(단3도) 등일 때 사람의 귀에는 아름답고 조화롭게 들린다고 했다. 피타고라스가 현의 길이를 분할해서 음을 만들고 길이의 비에서 협화음을 파악한 것과 달리 라모는 진동수의 비를 통해 협화음을 설명한 것이다.

라모는 이를 토대로 화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 3화음을 설명했다. 그는 기본 3화음이 기저 저음이라 불리는 가장 아래 음 위에 음을 쌓아 올린 것이라고 보았다. 으뜸화음(도-미-솔)은 ‘도’를 기저 저음으로 하여 3도 위의 ‘미’, 5도 위의 ‘솔’로 구성되는 화음인데 ‘도-미’ 사이 음정은 진동수 비로 4:5를 이루고 ‘도-솔’ 사이의 음정은 2:3이 된다. 으뜸화음에서 형성되는 또 다른 음정은 ‘미-솔’인데 이것은 5:6이 된다. 으뜸화음 속에 형성된 음정은 4:5:6의 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협화음이 잘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원리로 ‘파’를 기저 저음으로 하는 버금딸림화음(파-라-도*), ‘솔’을 기저 저음으로 하는 딸림화음(솔-시-레)의 진동수 비도 4:5:6으로 같은 협화도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렇게 라모는 화음의 협화도를 바탕으로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규정하고, 조성 음악*도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했다. 그는 협화음은 역학적 평형 상태로 안정 상태에 대응되며, 불협화음은 안정 상태를 바꾸려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음정의 단계적인 변화를 중시하는 선율 중심에서 화성 중심으로 음악의 문법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라모는 조성 음악이 가지는 음악적 구조에 맞게 작곡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고 당시 대위법*이 주를 이루던 작곡 교육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선밀도**: 실이나 철사 따위의 가늘고 긴 물체가 지나는 단위 길이의 질량.

***성부**: 다성 음악을 구성하는 각 부분.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또는 고음부·저음부 등으로 나누어짐.

***'**: 한 옥타브 높은 음임을 의미하는 표시.

***조성 음악**: 화성이나 선율이 하나의 음 또는 화음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음악.

***대위법**: 둘 이상의 독립된 선율이나 성부를 동시에 결합시켜 곡을 만드는 복음악(複音樂)의 작곡법.

(나) 19세기 말엽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대중문화의 확산, 과학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간 소외 현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예술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 시기에는 과학적 사고나 사물에 대한 객관적 묘사보다 인간의 내면 깊숙이 억압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중시했던 표현주의 예술 사조가 등장했는데, 무조 음악은 표현주의의 경향을 음악 분야에서 실천한 것이었다.

①무조 음악은 조성 음악의 전통을 ㉠해체하려고 한 것이다. 조성 음악에서는 모든 음이나 화음은 중심음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부여되지만 무조 음악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고, 각 음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구성된다. 무조 음악을 대표하는 인물인 쇤베르크는 전통적인 7음 기법이 아닌 12음 기법을 사용하면서 1옥타브 안의 12개 음에 모두 동등한 자격을 주어 이를 일정한 산술적 규칙에 따라 배열했다. 화음 구성도 3도의 누적을 사용하지 않고 4도의 누적을 사용했으며, 2도, 7도 음정을 많이 사용하여 조성감을 약화시켰다. 쇤베르크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특정 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조성 음악을 통해서는 자유로운 표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조 음악은 일반 감상자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매우 당혹스럽고 난해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반응은 ㉢표현주의 미술에 대한 반응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표현주의 미술에서는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사물의 겉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감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표현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칸딘스키는 선, 면, 색의 다양한 ㉣조합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으며, 그 결과 그의 작품 세계는 점차 추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이 일정한 형체에서 구상적 미를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럽고 난해하게 느껴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조 음악 역시 전통적인 미의 관념을 해체하고 현대 사회의 모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반영하려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진 것이다.

▶ 21051-0015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비교하는 유형

01 다음은 학생이 (가)와 (나)를 읽고 작성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중심 화제	라모의 화성 이론	무조 음악 ①
내용 전개의 공통점	중심 화제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제시함.	 ②
	새로운 이론이나 사조가 등장하는 데 영향을 준 인물들을 제시함.	 ③
내용 전개의 차이점	중심 화제에 영향을 준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설명함.	중심 화제와 공시성이 있는 다른 분야를 예로 들어 설명함. ④
내용 간의 관계	(가)에 제시된 이론이 (나)에서 해체하려고 했던 기존의 이론임.	 ⑤

▶ 21051-0016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2 (가)에 나타난 '라모'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특정 진동수의 음이 있다.
- ② 작곡을 할 때는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기본음을 기저 저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 ④ 으뜸화음은 딸림화음의 역학적 안정 상태를 바꾸려는 힘으로 작용한다.
- ⑤ 버금딸림화음은 으뜸화음뿐만 아니라 딸림화음과도 같은 협화도를 가지고 있다.

▶ 21051-0017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

03 <보기>는 진동수 f의 배음렬을 나타낸 것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2f와 3f뿐만 아니라 4f와 6f 사이의 음정도 5도이다.
- ② f와 2f뿐만 아니라 3f와 6f 사이의 음정도 옥타브이다.
- ③ 2f로 들리는 음이 있을 때 3f와 4f도 배음으로 들어 있다.
- ④ f의 소리가 나는 현을 반으로 잘랐을 때 장력이 이전과 같다면 2f의 소리가 난다.
- ⑤ 6f의 소리가 나는 현에서 현의 길이를 그대로 둔 채 더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는 현의 장력을 높여야 한다.

▶ 21051-0018

04

외부의 자료를 활용한 상호 텍스트적 이해를 묻는 유형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협화음을 구성하는 현의 길이의 비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에 피타고라스가 제시한 네 개 외에 5와 6을 추가하여 '누메로 세나리오(Numero Senario)'라고 불렀다. 그는 숫자 6에 신비주의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에 따르면 하늘의 행성은 6개이고, 창조에는 6일이 걸렸으며 가장 안정한 입체 도형은 정6면체이고, 처음 세 자연수의 합(1+2+3)이나 곱(1×2×3)은 모두 6이라는 것이다. 차를리노의 기준에 따르면 장3도(4:5), 단3도(5:6), 장6도(3:5)도 모두 협화음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차를리노는 새로운 다성 음악에서 5도나 6도가 널리 활용되던 시기에 5도와 6도를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이론과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누메로 세나리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 ① 차를리노는 피타고라스와 마찬가지로 협화음을 구성하는 수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했군.
- ② '누메로 세나리오'는 '테트라티스'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협화음의 범주를 넓히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군.
- ③ 차를리노는 라모와 마찬가지로 으뜸화음에서 기저 저음과 다른 음들의 진동수 비가 협화음에 해당한다고 보았겠군.
- ④ 모든 조건이 같고 길이만 각각 3cm, 6cm인 두 현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피타고라스, 차를리노 모두 협화음으로 보았군.
- ⑤ 차를리노는 라모와 마찬가지로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은 상대적인 관계이며 협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군.

▶ 21051-00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독서 방법에 대해 묻는 유형

05 다음은 작곡가를 희망하는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의 과정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사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확인	독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
↓	
탐색하기	문제 해결에 적합한 글 찾기
↓	
㉠ 분석적 읽기	글을 읽으면서 관점, 내용, 주제 등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	
㉣ 비판적 수용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에 비추어 내용 평가 및 비판적 수용
↓	
㉡ 대안 찾기	글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독서 계획 수립

- ① ㉠: 라모는 작곡을 할 때 화성을 중시했지만, 쇤베르크는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했군.
- ② ㉠: 기저 저음에서 3도씩 음을 쌓아 올렸을 때가 4도씩 음을 쌓아 올렸을 때보다 협화음이 잘 형성되겠군.
- ③ ㉣: 작곡가들 중에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선율을 중심으로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의 작곡법은 라모가 제시한 방법과는 다르겠군.
- ④ ㉣: 배음들은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라고 알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 배음들에서 협화음이 발생한다는 라모의 의견은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 무조 음악의 12음 기법에 사용하는 산술적 규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찾아봐야겠군.

▶ 21051-0020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설명하는 유형

06 ㉠~㉣을 활용하여 ㉠, ㉡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 ㉡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미의 관념을 해체하려고 했다.
- ② ㉡: ㉡은 구상의 미가 아닌 부정의 형체에서 미를 찾으려 했다.
- ③ ㉢: ㉢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 ④ ㉣: ㉣은 의도적으로 협화음을 형성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 ⑤ ㉣: ㉣의 작품에 나타난 형체는 전통적 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진다.

유형 연습 4 Zoom In



(가) '라모의 과학적 화성 이론'

예제 이 글은 과학적 방법으로 음악 이론을 구축한 라모의 화성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라모는 화성을 음악의 핵심으로 보고 이전의 음향학적 성과들과 자연의 법칙을 음악에 끌어들이어 화성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했다. 라모는 화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 3화음의 진동수 비가 4 : 5 : 6의 협화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협화도를 중심으로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구분하고 협화음은 역학적 안정 상태에 대응되며, 불협화음은 이를 변화시키려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라모의 이론은 선율 중심에서 화성 중심으로 음악의 문법을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제 과학적 방법으로 화성 이론을 체계화한 라모의 이론

- 구성**
- 1문단: 라모의 음악론이 나오게 된 배경
 - 2문단: 협화음과 불협화음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이론
 - 3문단: 소리에 대한 음향학적 연구 성과들
 - 4문단: 음향학적 연구 성과를 수용한 라모의 이론
 - 5문단: 화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 3화음의 원리
 - 6문단: 라모의 화성 이론의 의의 및 영향



(나) '무조 음악'

예제 이 글은 과학 문명의 합리성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표현주의 사조의 경향을 음악 분야에서 실천한 무조 음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조 음악은 전통적인 조성 음악에서 중시하던 중심음과의 관계를 해체하고 모든 음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매우 거슬리고 난해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반응은 칸딘스키의 작품에 대한 반응과도 비슷한데, 무조 음악은 전통적인 미의 관념을 해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다.

주제 조성 음악의 전통을 해체하려고 한 무조 음악

- 구성**
- 1문단: 표현주의와 무조 음악의 등장 배경
 - 2문단: 쇤베르크의 무조 음악 작곡 방법
 - 3문단: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진 무조 음악

답은골 발문 Tip

-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비교하는 유형

01 다음은 학생이 (가)와 (나)를 읽고 작성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중심 화제	라모의 화성 이론	무조 음악 ①
내용 전개의 공통점	중심 화제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제시함.	 ②
	새로운 이론이나 사조가 등장하는 데 영향을 준 인물들을 제시함.	 ③
내용 전개의 차이점	중심 화제에 영향을 준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설명함.	중심 화제와 공시성이 있는 다른 분야를 예로 들어 설명함. ④
내용 간의 관계	(가)에 제시된 이론이 (나)에서 해체하려고 했던 기존의 이론임.	 ⑤

유형 이해

학습지의 형태로 글의 중심 화제와 내용 전개 방법, 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중심 화제를 파악하고, 중심 화제에 대해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와 (나)로 묶은 글이 공통된 화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두 글의 접점이 되는 화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중심 화제와 두 글의 접점이 되는 화제를 파악한다.
- ② 각각의 논지와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 ③ 두 글을 비교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③ (가)에서는 라모의 이론이 등장하는 데 영향을 준 베네데티, 메르센, 소피르와 같은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새로운 사조인 무조 음악이나 표현주의 예술이 등장하는 데 영향을 준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라모의 화성 이론이고, (나)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조 음악이다.
-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합리주의적 사고와 과학적 경험주의가 사회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고 라모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음악 이론을 만들었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과학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간 소외 현상이 대두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무조 음악이 나오게 되었다.
- ④ (가)에서는 피타고라스부터 베네데티, 메르센, 소피르 등 라모의 이론에 영향을 준 이론가들의 이론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나)에서는 무조 음악과 같은 시기의 표현주의 미술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나)에서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화음을 중시하고, 중심음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과 같은 조성 음악의 전통이다. 이는 (가)에서 이야기한 라모의 이론이다.

짧은골 발문 Tip

-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은?
- 윗글로 미루어 볼 때,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2 (가)에 나타난 '라모'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특정 진동수의 음이 있다.
- ② 작곡을 할 때는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기본음을 기저 저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 ④ 으뜸화음은 딸림화음의 역학적 안정 상태를 바꾸려는 힘으로 작용한다.
- ⑤ 버금딸림화음은 으뜸화음뿐만 아니라 딸림화음과도 같은 협화도를 가지고 있다.

유형 이해

여러 사람의 이론이 제시되어 있는 글에서 특정인의 관점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관점을 적용하는 문제 유형이다. 지문에 있는 정보가 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관점에 해당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찾으라는 방식으로 발문을 변형할 수도 있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서 특정인의 관점을 파악한다.
- ② 특정인의 관점을 선지의 내용에 적용한다.

정답 풀이

⑤ 5문단에 따르면 라모는 으뜸화음 속에 형성된 음정이 4 : 5 : 6의 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버금딸림화음과 딸림화음의 음정도 4 : 5 : 6으로 같은 협화도를 가진다고 보았다.

오답 풀이

- ① 라모는 배음렬을 이루는 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음정이 사람의 귀에는 아름답고 조화롭게 들린다고 했지만, 아름답게 들리는 특정 진동수의 음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 ② 라모는 불협화음이 안정 상태를 바꾸려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므로 불협화음을 작곡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③ 라모는 기본 3화음이 기저 저음에 3도씩 음을 쌓아 올린 것이라고 보았지만, 기본음을 기저 저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하지는 않았다.
- ④ 으뜸화음은 역학적 안정 상태를 바꾸려는 힘으로 작용하는 불협화음이 아니라 딸림화음과 같은 협화도를 가진 협화음이다.

답은꼴 발문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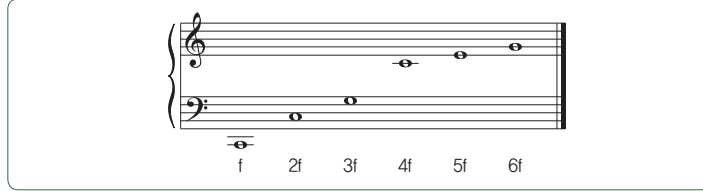
-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

03

<보기>는 진동수 f 의 배음렬을 나타낸 것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2f와 3f뿐만 아니라 4f와 6f 사이의 음정도 5도이다.
- ② f와 2f뿐만 아니라 3f와 6f 사이의 음정도 옥타브이다.
- ③ 2f로 들리는 음이 있을 때 3f와 4f도 배음으로 들어 있다.
- ④ f의 소리가 나는 현을 반으로 잘랐을 때 장력이 이전과 같다면 2f의 소리가 난다.
- ⑤ 6f의 소리가 나는 현에서 현의 길이를 그대로 둔 채 더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는 현의 장력을 높여야 한다.

유형 이해

지문의 일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고 추론하는 문제 유형이다. 좁은 범위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보통 이 유형에서는 정의와 핵심 원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다.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유형 공략

- ① 개념 정의와 원리가 되는 내용을 파악한다.
- ②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을 정리한다.
- ③ 선지의 조건을 대입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③ 2f의 진동수로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의 배음은 4f, 6f, 8f, ……가 된다. 그러므로 3f는 기본음 2f의 배음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2f와 3f, 4f와 6f 사이도 5도 음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에 근거하더라도 4 : 6은 2 : 3이므로 같은 5도 음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f와 2f, 3f와 6f 사이가 옥타브(8도)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에 근거하더라도 3 : 6은 1 : 2이므로 옥타브의 음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음의 높이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진동수는 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므로 장력이 같은 상태에서 현의 길이가 반이 되면 진동수는 2배가 된다.
- ⑤ 현의 진동수는 장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음의 높이를 높이려면 장력을 높여야 한다.

답은골 발문 Tip

- 윗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의 ㉔가 윗글의 ㉑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부의 자료를 활용한 상호 텍스트적 이해를 묻는 유형

04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협화음을 구성하는 현의 길이의 비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에 피타고라스가 제시한 네 개 외에 5와 6을 추가하여 ‘누메로 세나리오(numero senario)’라고 불렀다. 그는 숫자 6에 신비주의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에 따르면 하늘의 행성은 6개이고, 창조에는 6일이 걸렸으며 가장 안정한 입체 도형은 정6면체이고, 처음 세 자연수의 합(1+2+3)이나 곱(1×2×3)은 모두 6이라는 것이다. 차를리노의 기준에 따르면 장3도(4 : 5), 단3도(5 : 6), 장6도(3 : 5)도 모두 협화음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차를리노는 새로운 다성 음악에서 5도나 6도가 널리 활용되던 시기에 5도와 6도를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이론과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누메로 세나리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 ① 차를리노는 피타고라스와 마찬가지로 협화음을 구성하는 수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했군.
- ② ‘누메로 세나리오’는 ‘테트라티스’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협화음의 범주를 넓히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군.
- ③ 차를리노는 라모와 마찬가지로 으뜸화음에서 기저 저음과 다른 음들의 진동수 비가 협화음에 해당한다고 보았겠군.
- ④ 모든 조건이 같고 길이만 각각 3cm, 6cm인 두 현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피타고라스, 차를리노 모두 협화음으로 보았군.
- ⑤ 차를리노는 라모와 마찬가지로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은 상대적인 관계이며 협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군.

유형 이해

<보기>에 새로운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지문의 내용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새로운 정보를 읽어 내야 하고 지문과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난도도 매우 높은 유형이다.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보기>를 읽을 때 연결되는 지문의 내용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문의 내용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도 선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선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게 잡고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답을 찾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를 읽으면서 연관 내용을 환기한다.
- ② <보기>와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 ③ 선지의 내용이 글과 맞지 않거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다.

정답 풀이

⑤ 차를리노는 협화음을 구성하는 현의 길이의 비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6개라고 보았다. 6개에 해당하면 협화음이고, 그 외에는 불협화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이 상대적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차를리노의 ‘누메로 세나리오’나 피타고라스의 ‘테트라티스’는 모두 협화음을 구성하는 수에 우주의 원리와 같은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 ② ‘누메로 세나리오’는 ‘테트라티스’에 포함되지 않는 5와 6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당시 널리 쓰이던 5도와 6도 음정도 협화음의 범주에 넣기 위한 것이었다.
- ③ 라모는 으뜸화음에서 기저 저음과 다른 음들의 음정은 4 : 5 : 6의 진동수 비를 이루기 때문에 협화음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진동수는 현의 길이와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4, 5, 6은 ‘누메로 세나리오’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차를리노 역시 협화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 ④ 모든 조건이 같고 길이만 각각 3cm, 6cm인 두 현의 비는 1 : 2이다. 1, 2는 모두 ‘테트라티스’와 ‘누메로 세나리오’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화음의 범주에 든다.

답은골 발문 Tip

-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는 글을 읽는 학생의 사고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독서 방법에 대해 묻는 유형

05 다음은 작곡가를 희망하는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의 과정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사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확인	독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
↓	
탐색하기	문제 해결에 적합한 글 찾기
↓	
㉠ 분석적 읽기	글을 읽으면서 관점, 내용, 주제 등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	
㉡ 비판적 수용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에 비추어 내용 평가 및 비판적 수용
↓	
㉢ 대안 찾기	글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독서 계획 수립

- ① ㉠: 라모는 작곡을 할 때 화성을 중시했지만, 쇤베르크는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했군.
- ② ㉡: 기저 저음에서 3도씩 음을 쌓아 올렸을 때가 4도씩 음을 쌓아 올렸을 때보다 협화음이 잘 형성되었군.
- ③ ㉢: 작곡가들 중에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선율을 중심으로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의 작곡법은 라모가 제시한 방법과는 다르겠군.
- ④ ㉣: 배음들은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라고 알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 배음들에서 협화음이 발생한다는 라모의 의견은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 무조 음악의 12음 기법에 사용하는 산술적 규칙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찾아봐야겠군.

유형 이해

독서 활동의 과정을 제시하고 각 단계에 맞는 활동과 사고의 내용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가)와 (나)에 나타난 정보들을 파악하면서 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적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와 같다. 그러나 이 유형의 문제는 지문에 답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발문에서 제시한 독서 상황 맥락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형 공략

- 1 발문에 제시된 독서 상황 맥락을 확인한다.
- 2 지문에 근거가 있는 선지는 지문과 대조한다.
- 3 지문에 근거가 없는 선지는 상황 맥락에 비추어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라모는 귀에 들리지 않는 배음들에서 협화음이 발생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배음렬에서 진동수 비가 1:2, 2:3, 3:4 등을 이룰 때 협화음이 발생한다고 했다. 라모의 이론을 들리지 않는 배음들에서 협화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순이라고 비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라모는 화성을 중심으로 음악 이론을 전개한다고 했으며, (나)에서 쇤베르크는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다고 했다.
- ② (가)에서 라모는 기저 저음에 3도의 음을 쌓아서 협화음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나)에서 쇤베르크는 3도의 누적을 사용하지 않고 4도의 누적을 사용했으며, 2도, 7도 음정을 많이 사용하여 조성감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따라서 3도의 음을 쌓아 올렸을 때가 4도의 음을 쌓아 올렸을 때보다 협화음이 잘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라모는 선율 중심에서 화성 중심으로 음악의 문법을 바꾸었다고 했으므로, 학생이 선율을 위주로 작곡하는 사람들의 작곡법과 라모의 방법이 다르다고 반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반응이다.
- ⑤ (나)에서 무조 음악의 12음 기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글을 찾아보겠다는 것은 독서 계획 수립 내용으로 적절하다.

답은꼴 발문 Tip

-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은?
-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설명하는 유형

@~@를 활용하여 ㉠, ㉡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 ㉡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미의 관념을 해체하려고 했다.
- ② ㉠: ㉠은 구상의 미가 아닌 부정의 형체에서 미를 찾으려 했다.
- ③ ㉠: ㉠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 ④ ㉠: ㉠은 의도적으로 협화음을 형성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 ⑤ ㉠: ㉠의 작품에 나타난 형체는 전통적 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진다.

유형 이해

단어의 의미만 묻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함께 묻는 문제 유형이다.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답은 내용과 맞지 않게 단어를 사용하거나 동음이의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파악한다.
- ② 선지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한다.
- ③ 동음이의어가 아닌지를 검토한다.

정답 풀이

② ㉠ ‘부정(否定)’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구상의 미가 아닌 부정의 형체’에 사용된 ‘부정(不定)’은 ‘일정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 ‘해체(解體)’의 사전적 의미는 철학적으로 ‘단순한 부정이나 파괴가 아니라 토대를 흔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숨겨져 있는 의미와 성질을 발견함.’이다. 무조 음악과 표현주의 미술이 전통적 미의 관념을 해체하려 했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③ ㉠ ‘조합(組合)’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이다. 무조 음악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④ ㉠ ‘경향(傾向)’의 사전적 의미는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이다. 무조 음악이 의도적으로 협화음을 형성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⑤ ㉠ ‘생소(生疏)’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 친숙하지 못하고 낯이 썩.’이다. 표현주의 미술이 전통적인 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유형 연습 ①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티뜨린다

- 고재중, 「첫사랑」

(나) 여름 한낮

비름잎에
꽃힌 땀별이
이웃 마을
돌담 위
연시(軟梯)로 익다
한쪽 볼
㉠서리에 묻고
깊은 잠 자다
눈 오는 어느 날
깨어나
제상(祭床) 아래
심지 머금은
종발*로 빛나다.

- 박용래, 「연시」

*종발: 종발보다는 작고, 종지보다는 조금 넓고 평평한 그릇.

▶ 21051-0021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

- ① 유사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하강의 이미지가 상승의 이미지로 전환되면서 역동성이 부여되고 있다.

▶ 21051-0022

0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유형

- ① 1연에서 '나뭇가지'의 '흔들'림은 2연의 '눈'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이유가 된다.
- ② 1연의 '도전'의 모습은 2연에서 '두드려 보았겠지'와 '춤추었겠지'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③ 1연의 '꽃'과 관련지을 때 4연의 '아름다운 상처'는 나뭇가지 위에 핀 봄꽃을 의미한다.
- ④ 3연에서 화자가 자연물에 대해 가진 거리감은 4연에서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극복된다.
- ⑤ 1연에서 4연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 21051-002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3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절하게 한 학생끼리 골라 묶은 것은?

보기

선생님: (나)는 유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유기적 세계관이란 우주를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우주 그 자체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주 내 만물들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 부분적 독자성을 지니면서도 서로 간의 연관 관계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만물들은 생명체로서 서로 교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감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감을 통해 완숙한 경지의 존재로 거듭난 자연물은 인간의 외경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해 볼까요?

학생 1: 여름 한낮 내리쬐는 ‘땡볕’과 돌담 위에서 익고 있는 ‘연시’는 각자 부분적 독자성을 지닌 존재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2: ‘비름잎’과 ‘이웃 마을’은 연시가 익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 교감한다는 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관 관계를 가지는 존재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3: ‘여름’ → ‘서리’ → ‘눈’의 순서로 계절의 흐름을 제시하여 연시가 완숙한 경지의 존재가 되는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학생 4: ‘돌담 위’는 ‘제상 아래’와 달리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연시’에 대한 화자의 외경이 형성되는 곳으로 생명체 간의 교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학생 1, 학생 2 ② 학생 1, 학생 3 ③ 학생 2, 학생 3
 ④ 학생 2, 학생 4 ⑤ 학생 3, 학생 4

▶ 21051-0024

시어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04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존재이다.
 ② ㉠과 ㉡은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로 작용한다.
 ③ ㉠은 화자의 삶과 대비되는 존재인 반면, ㉡은 화자의 삶이 투영된 존재이다.
 ④ ㉠은 시적 대상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이고, ㉡은 시적 대상의 성숙을 이끄는 존재이다.
 ⑤ ㉠은 시적 대상의 아픔을 심화하는 존재인 반면, ㉡은 시적 대상의 아픔을 해소하는 존재이다.

유형 연습 1 Zoom In



(가) 고재종, 「첫사랑」

예제 이 작품은 나뭇가지를 향한 눈의 헌신적 사랑을 그리고 있다. 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지라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헌신적 노력으로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낸다. 이를 통해 헌신적으로 피워 낸 사랑의 고귀함을 전달하고 있다.

주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위한 시련과 고난

- 구성**
- 1연: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 2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이루려는 눈의 헌신적 노력
 - 3연: 도전 끝에 눈이 이룬 결실
 - 4연: 봄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난 봄꽃



(나) 박용래, 「연시」

예제 이 작품은 하나의 꽃과일이었던 감이 한여름 땡볕 속에서 익어 서리 속에서 연시로 성숙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연시로 익은 후 제상 아래 놓이게 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오묘한 조화와 인간과 자연의 만남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주제 감이 연시로 익어 제상 아래 놓이기까지의 오묘한 과정

- 구성**
- 1~6행: 여름의 땡볕에 익어 가는 연시
 - 7~14행: 서리를 맞으며 익은 후 제상 아래 놓인 연시

답은골 발문 Tip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가)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하강의 이미지가 상승의 이미지로 전환되면서 역동성이 부여되고 있다.

유형 이해

시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표현상의 특징은 시와 다른 갈래의 문학을 구별 짓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묻는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두 작품을 제시할 경우에는 두 작품의 표현상 특징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묻는 방식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에는 시에 활용된 문학적 수사법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시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 ② 각각의 표현상의 특징이 작품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해한다.
- ③ 두 작품을 비교하여 표현상의 특징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가)는 ‘두드려 보았겠지’, ‘춤추었겠지’, ‘햇숨 같은 마음’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자연물인 ‘눈’에 인격을 부여하여 첫사랑이라는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연시’라는 자연물의 모습을 ‘한쪽 볼 / 서리에 묻고’, ‘깊은 잠 자다’ 등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역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을 활용해 성숙이라는 시적 의미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짜그락 짜그락’, ‘난분분 난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유사한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찾을 수 없다.
- ② (가)에서는 ‘~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3연의 ‘저 황홀 보아라’에서 명령형 어조가 활용되고 있으나, (나)에서는 명령형 어조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 ⑤ (가)에서는 하강의 이미지가 상승의 이미지로 전환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깊은 잠 자다’에서의 하강의 이미지가 ‘깨어나’에서 상승의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연시를 움직임이 있는 대상으로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동성이 부여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은골 발문 Tip

-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의 시상의 흐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를 시상 전개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유형

0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나뭇가지'의 '흔들'림은 2연의 '눈'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이유가 된다.
- ② 1연의 '도전'의 모습은 2연에서 '두드려 보았겠지'와 '춤추었겠지'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③ 1연의 '꽃'과 관련지을 때 4연의 '아름다운 상처'는 나뭇가지 위에 핀 봄꽃을 의미한다.
- ④ 3연에서 화자가 자연물에 대해 가진 거리감은 4연에서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극복된다.
- ⑤ 1연에서 4연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유형 이해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작가는 일정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시상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상의 전개 방식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또한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어나 시구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적 의미를 구현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작품 감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시상 전개의 흐름을 작품 전체의 맥락을 통해 파악한다.
- ② 시상 전개의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3연에서는 아름답게 피어난 눈꽃을 보면서 감탄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자연물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4연에서 거리감이 극복된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1연의 '나뭇가지'의 '흔들'림은 2연의 '눈'이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지 못하고 수백 번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이유가 된다.
- ② 1연의 눈이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기 위한 '도전'을 2연에서 '두드려 보았겠지'와 '춤추었겠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③ 1연에서는 눈이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4연에서는 '봄'이라는 시간 배경과 '터뜨린다'라는 서술어를 제시했다. 이로 보아 '아름다운 상처'는 나뭇가지 위에 핀 봄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1연에서 4연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흐름이 드러난다. 이러한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나뭇가지 위에 눈이 내려앉은 모습에서 봄에 꽃이 피는 모습까지를 그려내고 있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3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절하게 한 학생끼리 골라 묶은 것은?

보기

선생님: (나)는 유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유기적 세계관이란 우주를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우주 그 자체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주 내 만물들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 부분적 독자성을 지니면서도 서로 간의 연관 관계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만물들은 생명체로서 서로 교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감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감을 통해 완숙한 경지의 존재로 거듭난 자연물은 인간의 외경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해 볼까요?

학생 1: 여름 한낮 내리쬐는 '땡볕'과 돌담 위에서 익고 있는 '연시'는 각자 부분적 독자성을 지닌 존재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2: '비름잎'과 '이웃 마을'은 연시가 익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 교감한다는 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관 관계를 가지는 존재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3: '여름' → '서리' → '눈'의 순서로 계절의 흐름을 제시하여 연시가 완숙한 경지의 존재가 되는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학생 4: '돌담 위'는 '제상 아래'와 달리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연시'에 대한 화자의 외경이 형성되는 곳으로 생명체 간의 교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학생 1, 학생 2

② 학생 1, 학생 3

③ 학생 2, 학생 3

④ 학생 2, 학생 4

⑤ 학생 3, 학생 4

유형 이해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 활용되는 <보기>에는 주로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학 이론이나 작품과 관련된 내재적, 외재적 정보 등이 제시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에 제시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② <보기>에 제시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 ③ 선지에 제시된 내용이 <보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② 학생 1: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땡볕'과 '연시'는 각자 부분적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자연물이지만 서로 간의 연관 관계 속에 교감하는 존재들로 볼 수 있다.

학생 3: 감이 한여름 땡볕에 익고, 서리 속에서 연시로 완숙되어 눈이 오는 겨울에 제상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과 '서리'가 상징하는 가을, '눈'이 상징하는 겨울을 거쳐 생명체 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학생 2: '비름잎'은 땡볕이 꽃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웃 마을'은 작품에서 큰 의미가 부여된 공간은 아니다. 따라서 비름잎과 이웃 마을이 연시가 익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 교감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 둘이 유기적으로 연관 관계를 가진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지 않다.

학생 4: '돌담 위'는 연시가 익어 가는 공간이고, '제상 아래'는 서리 속에서 성숙한 연시가 제사 음식으로 올라온 공간이다. '제상 아래'와 달리 '돌담 위'는 화자의 외경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감이 여름 땡볕을 받아 익어 가다가 연시가 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돌담 위'를 생명체 간의 교감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곳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은골 발문 Tip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와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04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존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은 화자의 삶과 대비되는 존재인 반면, ㉢은 화자의 삶이 투영된 존재이다.
- ④ ㉠은 시적 대상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이고, ㉢은 시적 대상의 성숙을 이끄는 존재이다.
- ⑤ ㉠은 시적 대상의 아픔을 심화하는 존재인 반면, ㉢은 시적 대상의 아픔을 해소하는 존재이다.

유형 이해

시에 제시된 소재가 시적 대상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의 전후 맥락을 바탕으로 특정한 소재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시상의 흐름 속에서 소재가 시적 대상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 ② 특정한 소재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재가 가진 의미나 역할을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가)에서 눈은 바람으로 인해 나뭇가지에 앉으려는 시도가 좌절되거나 이미 앉은 이후에도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지게 되므로, ‘바람’은 눈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나)에서 연시는 서리 속에서 익어 가므로 ‘서리’는 연시의 성숙을 이끄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화자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위에 있던 눈이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바람’을 ‘눈’에게 시련을 주는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화자는 서리에 한쪽 볼을 묻고 연시가 익어 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나)의 화자가 ‘서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가)의 화자나 (나)의 화자는 모두 작품에서 대상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으므로 ‘바람’과 ‘서리’가 화자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의 화자가 자신의 삶과 대비되는 존재로 ‘바람’을 설정했다거나, (나)의 화자가 자신의 삶이 투영된 존재로 ‘서리’를 설정했다는 설명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의 ‘바람’은 눈을 날려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게 하므로 눈의 아픔을 심화하는 존재로 볼 수 있지만, (나)의 ‘서리’는 연시의 성숙을 이끄는 존재이므로 연시의 아픔을 해소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형 연습 2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군데군데 찢어진 정성드 못한 눈썹이 울울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 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뺨뚫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죄던 눈엔 눈물이 끈 듯 삼십 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십 년가량은 늙어진 듯하였다.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지요?”

하고, 그는 매달리는 듯이 또 채쳤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히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шат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 [A] 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던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엔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형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B] 가며 거친 땅을 팔 수가 있으랴. 남의 밭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는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께서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그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찰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돈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규슈 탄광에 있어도 보고, 오사카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율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시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꽤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던 말씀이요?”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 만 담만 준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오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구경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푹푹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우!”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 푹푹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푹푹히 본 듯싶었다.

- 현진건, 「고향」

*채웠다: 일을 재촉하여 다그쳤다.

*신신하다: 마음에 들게 시원스럽다.

*주점: 한때 머물러 살.

*주추: 기둥 밑에 끼는 돌 따위의 물건.

▶ 21051-0025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의 신산스러운 표정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와의 대화를 여전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 ② ‘나’는 ‘그’에게 냉랭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고도, ‘그’에게 그러한 태도를 드러낸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 ③ ‘나’는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일자리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 주지 않는다.
- ④ ‘그’는 한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는 떠돌이의 삶을 살았지만,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 ⑤ ‘그’는 자신의 고향이 폐허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드러내지만,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까닭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고 있다.

▶ 21051-0026

구절의 의미 이해를 묻는 유형**02** **그의 신세타령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 때를 더 평화로운 농촌이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민 수탈이 심화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이다.
- ② ‘그’가 고향에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는데 서간도로 이주하여 가혹한 삶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세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다가 불우한 삶을 경험하게 된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 ③ ‘그’가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는 중간 소작인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착취 구조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 ④ ‘그’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이주민의 이주 요인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 ⑤ ‘그’가 자신이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진 것을 한탄하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농촌의 붕괴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 21051-0027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0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에서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주변 인물의 부정한 행태를 드러낸다.
- ② [B]와 달리 [A]에서는 작중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시선이 드러난다.
- ③ [A]와 [B]는 모두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부각한다.
- ④ [A]와 [B]는 모두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신산스러운 삶을 드러낸다.
- ⑤ [A]는 인물의 내적 독백을 중심으로, [B]는 공간 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21051-0028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보기**

「고향」에서 형상화된 주인공 ‘그’의 유랑의 행로는 일제 강점기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그’의 참혹한 인생 그 자체를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는 ‘그’의 삶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고향」에서는 우월한 입장에서 민중을 계몽하려 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고향」에서는 일제 강점기 민중의 열악한 현실을 지식인인 ‘나’의 시선을 통해 포착하지만, ‘나’는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감정을 공유하려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 ① ‘나’가 ‘그’에게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라며 응대하는 것에서 민중이 처한 현실을 헤쳐 나갈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몽적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나’가 ‘그’와 더불어 술을 ‘차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는 것에서 민중과 더불어 감정을 공유하려는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그’가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러 다녔다는 것에서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의 참혹한 인생 그 자체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그’가 고향을 둘러보고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형상화된 것에서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는 일제 강점기 민중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군.
- ⑤ ‘그’가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라며 되뇌는 것에서 지식인인 ‘나’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일제 강점기 민중의 열악한 현실이 환기되는군.

유형 연습 2 Zoom In

현진건, 「고향」

예제 이 작품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농토를 빼앗긴 농민의 참상과 농촌의 붕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일제의 수탈과 농촌의 붕괴, 더불어 하층민의 열악한 삶의 실상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일제 강점기 농촌의 붕괴와 하층민의 열악한 삶의 실상

전체 줄거리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그'를 만난다. 처음에는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가 서간도와 일본으로 유랑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내력을 듣게 된 후 점차 '그'에 대한 반감이 풀리게 된다. '나'는 '그'가 자신의 고향이 폐허가 된 것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의 얼굴에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읽는다.

짧은골 발문 Tip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의 신산스러운 표정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와의 대화를 여전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 ② '나'는 '그'에게 냉랭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고도, '그'에게 그러한 태도를 드러낸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 ③ '나'는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일자리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 주지 않는다.
- ④ '그'는 한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는 떠돌이의 삶을 살았지만,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 ⑤ '그'는 자신의 고향이 폐허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드러내지만,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까닭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고 있다.

유형 이해

지문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정리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후 선지의 서술 내용과 비교한다. 선지의 서술 내용은 단순한 내용 일치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므로, 지문의 정보를 토대로 선지에 담겨 있는 추론적 내용까지 고려하여 제시된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담겨 있는 사실적 정보를 파악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한다.
- ② 지문에 담겨 있는 사실적 정보와 선지의 서술 내용을 비교하여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는 한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유랑의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또한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를 통해 '그'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그'의 '신산스러운 표정'은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이 풀리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의 대화를 계속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 ② 이 글의 '나'가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라고 한 데에서, '나'는

‘그’에게 냉랭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을 죄송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라는 표현을 보면, ‘나’는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지요?”라며 한탄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자신의 고향이 폐허가 된 상황에 대해 납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짧은골 발문 Tip

-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집**과 **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절의 의미 이해를 묻는 유형

02 [그의 신세타령]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 때를 더 평화로운 농촌이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민 수탈이 심화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이다.
- ② ‘그’가 고향에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는데 서간도로 이주하여 가혹한 삶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세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다가 불우한 삶을 경험하게 된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 ③ ‘그’가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는’ 중간 소작인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착취 구조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 ④ ‘그’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이주민의 이주 요인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 ⑤ ‘그’가 자신이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진 것을 한탄하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농촌의 붕괴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유형 이해

지문에 제시된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하여 특정 어구의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문의 세부 정보와 특정 어구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읽어 내는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하게 제시된 선지들의 의미를 특정 어구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하여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의 세부 정보와 맥락을 근거로 하여 특정 어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 ② 지문의 세부 정보와 맥락을 근거로 하여 파악한 특정 어구의 의미와 선지의 내용을 비교하여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② ‘그’의 동리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평화로운 농촌에서 가혹한 삶을 경험해야 하는 동리로 변화한 것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 구조 때문이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서간도로 이주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세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오답 풀이

- ① 역둔토를 부쳐 먹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신세타령’은 일제 강점기에 역둔토가 동양 척식 회사로 들어가고 농민의 삶이 더욱 열악하게 된 현실을 다룬 이야기로 볼 수 있다.
- ③ 일제의 동척과 중간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가혹하게 빼앗기는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신세타령’은 일제 강점기 농민 수탈의 구조와 관련한 ‘그’의 인식을 담아낸 이야기로 볼 수 있다.
- ④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신세타령’은 일제 강점기 이주민들의 이주 요인이 ‘생존의 환경’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 ⑤ ‘그’가 구 년 동안의 유랑 끝에 찾은 고향이 폐허가 되어 있고 그것을 한탄하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신세타령’은 일제 강점기 농촌의 붕괴와 관련한 회한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유형

0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에서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주변 인물의 부정한 행태를 드러낸다.
- ② [B]와 달리 [A]에서는 작중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시선이 드러난다.
- ③ [A]와 [B]는 모두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부각한다.
- ④ [A]와 [B]는 모두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신산스러운 삶을 드러낸다.
- ⑤ [A]는 인물의 내적 독백을 중심으로, [B]는 공간 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유형 이해

지문을 근거로 하여 작품의 다양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지문에 나타난 시점, 구성, 문체, 서술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 ② 지문 속에서 선지에서 설명한 서술상의 특징을 찾아본다.
- ③ 지문의 서술상의 특징과 선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A]의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 남부여대하고 타차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를 보면 서술자의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간도로 이주하기 전의 ‘그’의 힘든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에서도 서술자의 요약적 서술을 통해 ‘그’의 가족의 서간도에서의 고달픈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와 [B]에서는 모두 서술자가 ‘그’의 삶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서술할 뿐,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그’의 주변 인물의 부정한 행태를 서술하지는 않는다.
- ② [A]에는 ‘그’가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B]에는 이주 후의 ‘그’의 참혹한 삶이 서술자의 서술로 드러날 뿐, ‘그’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시선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A]와 [B]는 모두 장면에 따른 서술자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동일한 서술자가 ‘그’의 가족과 ‘그’가 겪은 사건을 서술하여 사건의 함축적 의미를 드러낸다.
- ⑤ [A]에는 인물의 내적 독백이 나타나지 않으며, [B]에는 공간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A]와 [B]는 모두 서술자의 전지적 서술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향」에서 형상화된 주인공 ‘그’의 유랑의 행로는 일제 강점기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그’의 참혹한 인생 그 자체를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는 ‘그’의 삶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고향」에서는 우월한 입장에서 민중을 계몽하려 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고향」에서는 일제 강점기 민중의 열악한 현실을 지식인인 ‘나’의 시선을 통해 포착하지만, ‘나’는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감정을 공유하려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 ㉠ ‘나’가 ‘그’에게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라며 응대하는 것에서 민중이 처한 현실을 헤쳐 나갈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몽적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 ‘나’가 ‘그’와 더불어 술을 ‘차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는 것에서 민중과 더불어 감정을 공유하려는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 ‘그’가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러 다녔다는 것에서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의 참혹한 인생 그 자체를 확인할 수 있겠군.
- ㉣ ‘그’가 고향을 둘러보고 일자리를 구하려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형상화된 것에서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는 일제 강점기 민중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군.
- ㉤ ‘그’가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라며 되뇌는 것에서 지식인인 ‘나’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일제 강점기 민중의 열악한 현실이 환기되는군.

유형 이해

<보기>의 서술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하였는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문의 세부 맥락과 전체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읽어 내는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하게 제시되는 각각의 선지의 의미를 지문의 맥락과 비교하여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1 지문의 맥락과 세부 내용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지문 속의 맥락과 선지의 감상 내용을 비교하여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 ‘나’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그’에게 ‘노동 숙박소’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러나 ‘나’가 ‘그’에게 정보를 준 이유는 ‘그’의 참혹한 삶에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지, ‘그’가 직면한 현실을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로 보면, ‘나’는 우월한 위치에서 민중을 계몽하고자 하는 계몽적 지식인의 유형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 ‘나’가 친구들이 준 술을 ‘그’와 더불어 마시는 것에서 일제 강점기 민중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감정을 공유하려는 지식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 ‘그’가 신의주와 안동현 등으로 유랑하면서 삶을 유지한 것 자체가 일제 강점기 민중의 참혹한 인생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그’가 고향을 둘러보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의 함축적 의미는 일제 강점기 민중의 비참한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생존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일제 강점기 민중의 삶의 의지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그’가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라며 되뇌는 장면에서 서술자인 지식인 ‘나’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일제 강점기 민중의 열악한 삶, 곧 일제 강점기 농촌의 붕괴에 직면한 민중의 열악한 삶이 환기되고 있다.

유형 연습 ③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군은(亦君恩)’이란 강호지락(江湖之樂)을 노래한 고전 문학에서, 충군(忠君)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관습적 표현이다. 대체로 자연이나 귀거래(歸去來)*와 관련한 내용 뒤에 쓰여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는데, ‘역군은’의 표현은 특히 시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 강호(江湖)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흔 강파(江波)는 보내는 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 희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가)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이다. 총 4수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각 수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안분지족하는 은사(隱士)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제시하고, 종장에서 ‘이 몸이 ~ 희움도 역군은 이샷다’라는 표현을 통해 강호에서의 삶을 임금에 향한 충의의 정신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해 준다.

그런데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의 공간에서 유유자적하는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여기에 임금의 은혜를 등장시키는 표현은 자칫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자연과의 병치 속에서 군은이 등장하다 보니, 자연이 가져다주는 풍류, 귀거래가 갖는 여유 등과 충군의 관념 사이에 거리감이 발생한다. 이 같은 거리감을 해소하고 자연 친화와 충군을 결합하기 위해 ‘군은’ 앞에 ‘또한’, ‘역시’의 의미를 함의하는 ‘역(亦)’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이다. 이는 사대부들이 외견상 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임금의 은혜와 연결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치인(治人)과 치국(治國)이 아닌 은거와 귀향까지도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유교적 충(忠) 이념을 바탕으로 임금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드러낸 결과인 것이다.

(나) ①공명(功名)이 그지 이실가 수요(壽夭)*도 천정(天定)이라
 금서(金犀)의 구분 허리에 팔십 봉춘(八十逢春) 그 몇 희오
 연년(年年)에 오듯 나리 역군은(亦君恩)이샷다

(나)는 이현보가 귀향한 지 10년 만인 87세의 생일날 읊은 작품으로 ‘생일가’로 불린다. 팔십 세가 넘게 사는 동안 맞이한 여러 해의 봄을 모두 임금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 초장에서 수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노년에 맞이하는 봄조차 모두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의 중장에 언급된 고위 관원(官員)이 공복(公服)에 두르는 띠인 ‘금서띠’는 공명의 보람으로 임금의 은혜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지만, 화자의 장수(長壽)와 임금은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대부의 의식 속에서 장수와 임금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즉 정계를 떠나 귀향한 후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며 장수하는 근원을 임금의 은혜라고 보는 인식이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역군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 창작된 일부 시조의 ‘역군은’ 표현은 임진왜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작가들의 생애, 창작 배경과 관련지어 볼 때 ‘역군은’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 ㉠공명(功名)이 그 무엇고 헌신히 버스 니로다
전원(田園)에 도라오니 미록(麋鹿)이 벗이로다
백 년(百年)을 이리 지냄도 역군은(亦君恩)이로다

(다)에서 공명을 버리고 전원에 돌아왔다는 귀거래의 내용은 (가), (나)의 세계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고라니와 사슴을 가리키는 미록과 같은 소재 또한 전원을 속세와 대립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작가인 신희의 생애와 관련된 이해가 덧붙여지면 다른 방향으로 ‘역군은’을 해석할 수도 있다. 신희가 대북파*의 핍박으로 김포로 쫓겨나 불안과 근심의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 3년여 만에 춘천으로 유배를 당한 상황에서 이 시조가 창작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방옹시여서(放翁詩餘序)」의 기록은 이 시조의 창작 배경과 작가 의식을 보여 준다. “내 이미 전원에 돌아오매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 또한 세상사에 고달픔을 느꼈다. 되돌아보면 지난날의 영화와 현달은 한갓 쪽정리와 두엄풀같이 쓸데없는 것이어서, 오직 물(物)을 만나면 노래로 읊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신희가 전원으로 귀거래한 계기이다. 세상이 버렸다는 진술은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라 계축옥사*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신희가 겪은 정치적 좌절과 그에 따른 울분, 통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의 ‘백 년을 이리 지냄도 역군은이로다’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신희가 겪은 갈등과 고민을 염두에 둔다면, ‘백 년을 이리 지냄’은 벗어나야 할 상황이지 결코 임금에게 감사해야 할 내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다)의 ‘역군은’은 표면적으로는 충군의 수사(修辭)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임금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임금의 은혜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파의 전횡과 핍박에 대한 작가의 불만과 불안감을 풍자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는 (다)를 당쟁을 거치며 변화한 사대부의 가치관을 담은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아히야 죽조반 다오 남묘(南畝)*의 일 만해라
서루룬 싸부*를 놀 마조 자부려노
두어라 성세 궁경(聖世躬耕)*도 역군은(亦君恩)이시니라

(라)는 초장의 첫 구가 ‘아히야’로 시작되기 때문에 ‘호아곡(呼兒曲)’으로 불리는 조존성의 연시조 중 한 수이다. 남묘에 일이 많다고 ‘죽조반’을 달라고 하거나 ‘싸부’를 마주 잡으려 하는 등 서투기는 하지만 작품 속에서 직접 농사짓는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호아곡」은 조존성이 계축옥사 직후에 지은 것으로, 인륜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전원생활을 하며 대안적 삶을 살 때 창작한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라)의 ‘역군은’이 의미하는 바는 임금의 은혜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다. 작가가 극도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고 전원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표현한 (라)의 ‘역군은’이 이면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면 여기에서의 ‘역군은’은 임금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아니라 정쟁으로 얼룩진 혼란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귀거래: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감.

*수요: 수명, 오래 삶과 일찍 죽음.

*대북파: 조선 시대에 북인(北人) 가운데 흥여순, 이산해 등을 중심으로 한 분파. 광해군 때 집권당임.

*계축옥사: 조선 광해군 5년(1613)에, 대북파가 광해군의 이복동생 영창 대군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

*남묘: 남쪽에 있는 밭.

*싸부: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성세 궁경: 태평한 시절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음.

▶ 21051-0029

01 **작품의 특성 및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유형** 01 **윗글에 따라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대부들의 유교적 충(忠) 이념을 바탕으로 곁으로 보기에 연관성이 없는 자연 속의 즐거움까지도 임금의 배려라고 여기는 발상을 담고 있군.
- ② (나)는 생일을 맞이하여 귀향 전의 벼슬살이와 관련한 소재를 제시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군.
- ③ (가)와 (나)는 모두 자연이나 귀거래가 군은과 병치되는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해 화자를 작품 표면에 등장시켜 유기적인 통일성을 얻고 있군.
- ④ (다)와 (라)는 모두 정치적 좌절과 불안 속에서 창작된 것이므로 충군의 수사에는 이면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
- ⑤ (가)의 공간은 즐겁게 흥취를 누리는 장소이고, (라)의 공간은 농사를 지으며 노동을 하는 장소로 볼 수 있겠군.

▶ 21051-0030

02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유형** 0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장에서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초장에서 자연 속의 한가한 모습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중장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종장에서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내면적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종장에서 화자의 인식과 연결하여 특정한 대상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드러내고 있다.

▶ 21051-0031

03 **시어의 기능 및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03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자극하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임금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은 화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의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이, ㉡은 화자의 지난 삶에 대한 허무감이 담긴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세속적 가치에 대한 체념적 태도를, ㉡은 화자의 세속적 가치에 대한 달관적 태도를 드러낸 소재이다.

▶ 21051-0032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가)~(라)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에는 ‘천하의 모든 땅이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모든 백성이 왕의 신하가 아닌 이가 없다.’라는 보편적 관념이 존재했다. 군주의 절대적인 특권을 인정하며 군신의 수직적 관계를 당연시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사대부들의 신분적 정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대부들은 시가를 창작할 때 자기 검열을 통해 군주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회피했다. 그래서 그들은 정쟁으로 인해 유배를 당하거나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속마음과는 달리 작품 표면에서 관습적으로 임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 ① (가)의 ‘강호’와 ‘초당’은 조선 시대의 보편적 관념에 따르면 임금이 소유한 땅의 일부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수요도 천정이라’는 군신의 수직적 관계를 당연하게 수용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의 ‘전원에 도라오니’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인해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라)의 ‘성세 궁경’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군주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다)의 ‘역군은이로다’와 (라)의 ‘역군은이시니라’는 사대부들이 관습에 따라 임금에게 표면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유형 연습 3 Zoom In

고전 시가의 '역군은' 표현

예제 고전 시가에서 '역군은'은 강호지락을 노래한 작품에서 충군(忠君)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관습적 표현이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사대부들이 유교적 충(忠) 이념을 바탕으로 임금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담아 은거와 귀향까지도 임금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역군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지어진 일부 시조의 경우 그 창작 배경을 살펴볼 때 '역군은'이라는 표현은 표면적인 충군의 수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당쟁을 거치면서 정치적 좌절과 고통을 겪은 사대부들의 작품에서 언급한 '역군은'이라는 표현은 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제 관습적 표현인 '역군은'의 의미와 변용된 이면적 의미

- 구성**
- 1문단: 충군의 관습적 표현인 '역군은'
 - 2문단: 작품에 유기적인 통일성을 부여하는 「강호사시가」의 구조
 - 3문단: '군은' 앞에 '역(亦)'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
 - 4문단: 이현보의 시조에 나타난 '역군은'의 의미
 - 5문단: 임진왜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일부 시조들의 '역군은'
 - 6문단: 신희의 시조와 관련한 창작 배경과 작가 의식
 - 7문단: 신희의 시조에 담긴 '역군은'의 이면적 의미
 - 8문단: 조준성의 시조에 담긴 '역군은'의 이면적 의미

뎡은꼴 발문 Tip

- (가), (다), (라)의 향유 양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의 특성 및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유형

01 윗글에 따라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대부들의 유교적 충(忠) 이념을 바탕으로 곁으로 보기에 연관성이 없는 자연 속의 즐거움까지도 임금의 배려라고 여기는 발상을 담고 있군.
- ② (나)는 생일을 맞이하여 귀향 전의 벼슬살이와 관련한 소재를 제시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군.
- ③ (가)와 (나)는 모두 자연이나 귀거래가 군은과 병치되는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해 화자를 작품 표면에 등장시켜 유기적인 통일성을 얻고 있군.
- ④ (다)와 (라)는 모두 정치적 좌절과 불안 속에서 창작된 것이므로 충군의 수사에는 이면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
- ⑤ (가)의 공간은 즐겁게 흥취를 누리는 장소이고, (라)의 공간은 농사를 지으며 노동을 하는 장소로 볼 수 있겠군.

유형 이해

고전 시가와 관련한 학술적인 글을 읽고 관련된 작품들을 감상하는 문제 유형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당 작품들의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각 작품의 발상, 배경, 소재, 구절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제시된 이론을 읽고 작품에 적용하여 각 작품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 ② 작품의 주제나 구절의 의미가 작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한 후, 선지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③ 3문단의 ‘즉 자연과의 병치 속에서 군은이 등장하다 보니, 자연이 가져다주는 풍류, 귀거래가 갖는 여유 등과 충군의 관념 사이에 거리감이 발생한다. 이 같은 거리감을 해소하고 자연 친화와 충군을 결합하기 위해 ‘군은’ 앞에 ‘또한’, ‘역시’의 의미를 함의하는 ‘역(亦)’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이다.’로 볼 때, (가)와 (나)는 자연이나 귀거래가 군은과 병치되는 논리적인 어색함을 보완하기 위해 ‘군은’ 앞에 ‘역’이라는 글자를 붙여 ‘역군은’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의 종장을 보면 ‘이 몸이’라는 시어가 나타나므로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는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유교적 충(忠) 이념을 바탕으로 임금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드러낸 결과인 것이다.’를 통해 (가)가 사대부들의 유교적 충(忠)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안분지족하는 은사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제시하고, 종장에서 ‘이 몸이 ~희움도 역군은이 샅다’라는 표현을 통해 강호에서의 삶을 임금을 향한 충의의 정신과 연결하고 있다.’를 통해 겉으로 보기에 연관성이 없는 자연의 공간에서 유유자적하는 즐거움까지도 임금의 배려라고 여기는 발상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귀향한 작가가 87세의 생일을 맞이하여 지은 작품으로 귀향 전 벼슬살이와 관련한 ‘금서썩’라는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④ (다)와 (라)는 모두 계축옥사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좌절과 불안 속에서 창작된 것이다. ‘이런 까닭에 (다)의 ‘역군은’은 표면적으로는 충군의 수사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가 극도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고 전원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표현한 (라)의 ‘역군은’이 이면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면 여기에서의 ‘역군은’은 임금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아니라 정쟁으로 얼룩진 혼란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를 통해 (다)와 (라)의 ‘역군은’에 이면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⑤ (가)는 자연의 공간에서 유유자적하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가)의 공간은 즐겁게 흥취를 누리는 장소로 볼 수 있다. (라)는 전원에서 직접 농사짓는 생활을 노래한 것이므로, (라)의 공간은 농사를 지으며 노동을 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답은꼴 발문 Tip

-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유형

0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장에서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초장에서 자연 속의 한가한 모습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중장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종장에서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내면적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종장에서 화자의 인식과 연결하여 특정한 대상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드러내고 있다.

유형 이해

고전 시가에 사용된 표현 방식과 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문제 유형이다. 고전 시가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방식과 그 효과,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작품 이해와 감상의 기본이다. 따라서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시상을 전개하거나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표현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자의 심리나 태도가 어떤 시적 상황과 관련된 것인지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 제시된 표현 방식을 각 작품에서 확인한다.
- ② 화자의 심리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적 상황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④ (가)의 종장에서 ‘서늘 희움’을 촉각적 이미지로 볼 수는 있으나 감각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의 종장에 쓰인 ‘역군은이샷다’는 임금에 대한 신뢰, 존중과 화자의 내면적 감흥이 어우러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초장에서 ‘너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초당에 일이 엷다’를 통해 화자의 한가한 모습을 알 수 있다.
- ③ ‘유신히 강파’는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이 몸이 서늘 희움’은 화자가 여름날에도 시원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역군은이샷다’라고 표현하여 임금이라는 특정한 대상의 은혜와 연결하고 있다.

답은꼴 발문 Tip

-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의 ㉠과 (나)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중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시어의 기능 및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03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자극하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임금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은 화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의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이, ㉡은 화자의 지난 삶에 대한 허무감이 담긴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세속적 가치에 대한 체념적 태도를, ㉡은 화자의 세속적 가치에 대한 달관적 태도를 드러낸 소재이다.

유형 이해

고전 시가에 쓰인 시어의 기능 및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시어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하고 무슨 효과를 얻는지 파악해야 한다. 시어는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 화자의 정서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작용을 하므로,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시어의 기능 및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해당 시어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 ② 각 작품 속에서 해당 시어가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나)의 화자는 과거에 고위 관원으로 재직하며 공복에 ‘금서씩’을 들렀던 사람이다. 그가 생일날 공명의 보람인 ‘금서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은 화자의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의 화자는 초장에서 공명을 헌신짝에 빚대고 있고, 「방옹시여서」의 기록에서 ‘지난날의 영화와 현달은 한갓 쪽정이와 두엄풀같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은 화자의 지난 삶에 대한 허무감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작가가 대북과의 핍박 속에서 불안과 근심의 시절을 보내야 했고 결국 3년여 만에 춘천으로 유배를 당한 상황에서 (다)를 창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계를 떠나 귀향한 후 편안하게 살아가며 장수하는 상황 속에서 창작한 (나)의 ㉠은 화자의 내적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
- ② (나)와 (다)의 화자가 ㉠과 ㉡으로 인해 임금에게 복종한다는 내용은 (나)와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③ ㉠은 화자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화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다)의 화자는 공명을 멀리하는 삶을 헌신짝을 벗은 것이라 하고 있으므로, ㉡은 화자의 세속적 가치에 대한 달관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화자의 세속적 가치에 대한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뒷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가)~(라)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에는 '천하의 모든 땅이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모든 백성이 왕의 신하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보편적 관념이 존재했다. 군주의 절대적인 특권을 인정하며 군신의 수직적 관계를 당연시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사대부들의 신분적 정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대부들은 시가를 창작할 때 자기 검열을 통해 군주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회피했다. 그래서 그들은 정쟁으로 인해 유배를 당하거나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속마음과는 달리 작품 표면에서 관습적으로 임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 ① (가)의 '강호'와 '초당'은 조선 시대의 보편적 관념에 따르면 임금이 소유한 땅의 일부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수요도 천정이라'는 군신의 수직적 관계를 당연하게 수용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의 '전원에 도라오니'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인해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라)의 '성세 궁경'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군주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다)의 '역군은이로다'와 (라)의 '역군은이시니라'는 사대부들이 관습에 따라 임금에게 표면적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유형 이해

지문의 내용과 <보기>로 제시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보기>의 자료가 작품 감상의 기본 틀이 된다. 그러므로 지문과 <보기>의 내용에 근거하여 작품의 전체적 맥락이나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 ② '<보기>-작품-선지'의 연관성을 살피며 선지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 ③ 작품과 <보기>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② (나)의 '수요도 천정이라'는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는 일종의 운명론적 생각이다. 화자가 <보기>에서 언급한 군신의 수직적 관계를 당연하게 수용하는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천하의 모든 땅이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라는 보편적 관념으로 볼 때, 자연을 상징하는 '강호'와 역새나 짚 따위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체인 '초당'은 임금이 소유한 땅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다)는 '신흙이 대북과의 퍽박으로 김포로 쫓겨나 불안과 근심의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 3년여 만에 춘천으로 유배를 당한 상황'에서 창작되었으므로, '전원에 도라오니'는 <보기>의 정쟁으로 인해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라)는 작가가 계축옥사라는 '인륜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전원생활을 하며 대안적 삶을 살 때 창작한 것'이므로, 당대의 현실은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인 '성세'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라)의 성세에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성세 궁경'의 표현은 사대부인 작가가 당대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군주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이 글을 통해 (다)와 (라)가 <보기>의 '정쟁으로 인해 유배를 당하거나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창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와 (라)의 '역군은'은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정쟁으로 얼룩진 혼란한 현실에 대한 이면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의 '역군은이로다'와 (라)의 '역군은이시니라'는 <보기>의 '속마음과는 달리 작품 표면에서 관습적으로 임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02

문학

유형 연습 ④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배가 곡도(鵠島)에 닿으니 풍랑이 크게 일어났으므로 열흘 이상이나 묵게 되었다. 양패공(良貝公)은 이를 근심하여 사람을 시켜 이 일을 점치게 했다.

“섬에 신지(神池)가 있으니 그곳에 제사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못 위에서 제물을 차려 놓으니 못물이 한 길 남짓이나 높이 치솟았다. 그날 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공에게 말했다.

㉠“활 잘 쏘는 사람 하나를 이 섬 안에 남겨 두면 순풍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은 꿈을 깨어 그 일을 좌우 사람들에게 물었다.

“누구를 남겨 두면 좋겠는가?”

여러 사람들이 대답했다.

“나뭇조각 50쪽에 저희 궁수들 이름을 각각 써서 물속에 가라앉게 함으로써 제비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공은 그 말에 따랐다. 궁수 중에 거타지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물속에 가라앉았다. 그를 남겨 두니 순풍이 문득 일어나 배는 지체 없이 잘 갔다.

거타지가 근심에 잠겨 섬에 서 있으니 갑자기 한 노인이 못 속으로부터 나와 말했다.

“나는 서쪽 바다의 신이오. ㉡매양 한 중이 해 뜰 때면 하늘에서 내려와 다라니 주문을 외우고 이 못을 세 번 돌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물 위에 뜨게 되는데, 중은 내 자손의 간장을 빼 먹곤 하오.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내일 아침에 또 반드시 올 것이니 그대는 중을 활로 쏘아 주시오.”

“활 쏘는 일은 저의 장기(長技)니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고맙다 하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거타지는 숨어서 기다렸다. 이튿날 동쪽에서 해가 뜨니 과연 중이 와서 그전처럼 주문을 외우면서 늙은 용의 간을 빼려 했다. 이때 거타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맞히니 중은 즉시 늙은 여우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에 노인이 물속에서 나와 치사했다.

“공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전하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공에게 아내로 드리겠소.”

“저에게 따남을 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니 원하던 바입니다.”

노인은 그 딸을 한 송이 꽃으로 변하게 하여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 주고 이내 두 용을 시켜 거타지를 받들고 사신의 배를 따라가서 그 배를 호위하여 당나라 지경에 들어가게 했다. 당나라 사람은 신라의 배를 두 용이 받들고 있음을 보고 사실대로 황제에게 아뢰었다. 황제는 말했다.

“신라의 사신은 정녕코 비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여러 신하들의 윗자리에 앉히고 금과 비단을 후히 주었다. 고국에 돌아오자 거타지는 꽃가지를 내어 여자로 변하게 한 다음 함께 살았다.

- 작자 미상, 「거타지 설화」

(나)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졸을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걸었다. 노인은 수재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는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섰는데, 바다 위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녔다. 수재는 화살을 메기고 시위를 잔뜩 당겨 부인을 쏘려 했지만, 부인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차마 활을

쓸 수가 없었다. 수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건 사람이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리될 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싸 죽여야 되겠는가?’

결국 활을 쏠지 못한 채 시위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었다. 곧이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노인은 수재를 보고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끝내 활을 쏠지 않다니, 수재는 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거요?”

수재가 말했다.

“그 얼굴을 보니 이는 사람이니 결코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수재가 만일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모셔 온 뜻이 없지 않겠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거요. 내게는 늦게 본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나이가 열여섯이지만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소. 수재가 내 말대로 요망한 여우를 활로 싸 죽여 준다면 내 딸을 아내로 삼게 해 주겠소.”

㉔ 수재는 이곳에 올 때 보았던 처녀의 아리따운 자태를 가슴속 깊이 흠모하여 잊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의 말에 의심되는 바가 있으므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속세의 천한 사람이고 따님은 용궁의 귀인이신데, 어찌 감히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또 물속 세계와 땅 위 세계가 다르고 사람과 용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이니, 비록 선생의 허락이 있다 한들 제 생각엔 인연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수재는 그런 걱정 말고 우선 내 골칫거리부터 없애 주시오.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A] 닷새 뒤에 요망한 여우가 또 와서 싸움을 걸었다. 노인은 튼튼한 활과 독화살을 수재에게 내주며 다시 신신당부를 하고 싸움을 하러 바다 위로 나섰다. 이윽고 먹구름이 가득 끼고 광풍이 불며, 천둥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뜩였다. 천지가 암흑 속에 휩싸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데, 용과 여우가 쟁패를 벌여 엇치락뒤치락하며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었다. 수재는 정신을 하나로 모아 화살을 메기고 시위를 당긴 채 여우 부인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그때 까마귀가 울며 보름달이 떠올랐다. 갑자기 활시위 소리가 나더니 화살이 유성처럼 날아가 여우 부인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다. 여우는 한바탕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다가 파도 위에 쓰러져 죽었다.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늙은 여우였다. 어여쁘게 단장하고 분을 바른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새끼 여우로 변했다. 그러자 구름이 사라지고 바람이 그치며 천지가 환해졌고 파도도 멈추었다. 노인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와 수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㉕ “수재의 신묘한 활 솜씨 덕분에 이 늙은이의 큰 골칫거리가 사라졌으니,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소이다. 내가 백 살 노인이긴 하나 어찌 감히 식언을 할 수 있겠소?”

그러고는 수재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딸에게 말했다.

“이 수재는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시다. 너와 평생의 짝으로 백년가약을 맺고 부부간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용녀(龍女)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왕수재는 노인이 끌고 온 소를 타고 아내와 육지로 이동한다. 송악산 아래 집을 짓고 자리를 잡은 왕수재는 큰 부자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칠패로 만든 두건에 베풀어 입은 도사 한 사람이 손에 육환장을 들고 어깨에 바랑을 메고 와서는 왕생에게 절을 했다. 왕생이 물었다.

“뉘시오?”

도사가 대답했다.

“저는 산인^{*}입니다. 산수를 좋아해서, 기러기가 남북으로 오가고 뜬구름이 동서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방을 유유히 다니고 있지요. 그러다 이곳에 이르러 댁의 집터를 보니 참으로 천하의 명승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1년 안에 성인이 태어나시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인공께서는 소중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왕생이 말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소리군요. 부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기 바라오. 그런데 그대의 성명을 알 수 있겠소?”

도사가 대답했다.

“제 이름은 도선^{*}으로, 중국 사람 일행(一行)^{*}의 제자입니다.”

도사가 절하고 물러갔다. 왕생은 도사의 말을 듣고 혼자 속으로 기뻐하며 큰 자부심을 가졌다.

이달부터 문득 아내에게 태기가 있더니 열 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콧대가 우뚝 솟고 용과 같은 제왕의 상에 이마가 흰하고 눈은 새벽처럼 빛났으며, 상서로운 광채가 은은히 비치고 기상이 엄숙했다. 왕생은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3년 뒤 과연 도사가 다시 찾아와 왕생에게 축하 인사를 올렸다.

“주인장께서 성인을 낳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잘 기르시면, 흉악한 무리들을 모조리 평정하고 삼한(三韓)을 통일하여 도탄에 빠진 만백성을 구하고 후세에 큰 이름을 남길 분이 되실 것입니다.”

—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王秀才娶得龍女說)』

*산인: 산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승려나 도사를 이르는 말.

*도선: 통일 신라 말기의 승려. 풍수지리설의 대가. 일찍이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과 그의 건국을 예언했다고 함.

▶ 21051-0033

작품의 내용 이해를 묻는 유형

01 (가)와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노인이 양패공의 꿈속에 나타난 것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 ② (가)의 거타지가 섬에 남은 것은 양패공이 꿈에서 만난 노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 ③ (나)의 왕수재가 처음에 활을 쏘지 못한 것은 여우의 외모를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④ (나)의 여우가 노인에게 계속 싸움을 건 것은 왕수재가 노인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⑤ (나)의 왕수재가 도선에게 자신에게 한 예언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가족이 해를 입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 21051-0034

구절의 의미 이해를 묻는 유형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인이 자기의 요구 사항과 그것을 수용할 경우의 혜택을 밝히고 있다.
- ② ㉡: 노인이 늙은 여우의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를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③ ㉢: 왕수재가 노인의 딸에게 반한 계기와 그녀와의 재회를 확신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노인이 왕수재의 공을 인정하며 그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태어난 아기의 외양을 묘사하여 왕수재의 아들이 비범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 21051-003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유형

03 <보기>와 같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 문학사를 살펴보면 특정한 근원 설화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후대의 설화나 고전 소설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서사의 원천이 되는 근원 설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여 완성됩니다. (가)는 『삼국유사』에 실린 「거타지 설화」로 이후 『고려사』의 「작제건 설화」의 원형이 됩니다. 「작제건 설화」는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제건이 주인공인데, 그는 당나라 상선을 타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섬에 남게 되고, 서해 용왕의 부탁으로 늙은 여우를 화살로 쏘아 죽이고 용녀(龍女)를 취하여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가)는 고려 왕실의 조상을 신성시하는 작품들의 근원 설화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원 설화인 (가)와 이를 바탕으로 왕수재의 비범한 능력과 왕건의 탄생을 다룬 고전 소설인 (나)를 비교하면서, (나)에서 (가)의 내용이 유지된 것과 (가)의 내용이 바뀌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을 살펴봅시다.

(가)의 내용 유지	(가)의 내용 변경
학생 1: 주인공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사악한 요물을 퇴치하는 내용은 유지했어요. ㉠ 학생 2: 인간인 주인공과 용녀의 결연(結緣)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노인이 은혜를 갚으려고 주인공을 사위로 맞이하는 내용은 유지했어요. ㉡	학생 3: 건국의 시조 탄생을 알리기 위해 특정한 인물의 예언과, 그가 시조 탄생 후에 경하의 말을 건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 학생 4: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과의 화합 대신에 민족적 자존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꿨어요. ㉣ 학생 5: 주인공이 노인의 부탁대로 활을 쏘게 된 구체적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 노인이 주인공을 위협하는 내용과 보상을 약속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051-0036

감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4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을 돕는 천상계의 조력자를 등장시켜 주인공의 고귀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주인공의 복잡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주인공의 곤란한 처지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한 후 이와 조응하는 자연적 배경을 묘사하여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주인공과 주변 인물에게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역전적으로 제시하여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유형 연습 4 Zoom In

U (가) 작자 미상, 「거타지 설화」

예제 이 작품은 『삼국유사』 〈기이편〉에 수록된 신라 진성 여왕 때의 명궁(名弓) 거타지에 관한 설화이다. 이 설화는 영웅이 요물을 퇴치하고 용을 구출하는 것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에서 『고려사』에 실린 「작제건 설화」와 유사하다. 그리고 거타지가 궁수 중에서 뽑혀 섬에 남게 되는 것은 인신 공희(人身供犧) 모티브와 관계가 있고, 용녀가 꽃으로 변하여 거타지의 품속에 들어 있다가 어여쁜 처녀로 다시 변하는 점은 고전 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이 연꽃 속에서 나와 황후가 되는 내용으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거타지의 뛰어난 활 솜씨와 요물 퇴치

전체 줄거리 진성 여왕의 막내아들인 아찬 양패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는데, 거타지도 궁수로 뽑혀 따라가게 된다. 사신 일행은 당나라로 가는 도중에 곡도에서 풍랑을 만나고, 양패는 꿈에 나타난 노인의 말에 따라 제비를 뽑아 거타지를 섬에 남기고 떠난다. 거타지가 홀로 섬에 남아 수심에 싸여 있을 때 서해의 신인 노인이 나타나 자신의 자손들을 해치는 중을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한다. 거타지는 숨어 있다가 다음 날 중이 내려와 주문을 외우고 늙은 용의 간을 먹으려 할 때 활을 쏘아 중을 맞히니, 중은 늙은 여우로 변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다. 노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거타지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고는 딸을 꽃가지로 변하게 하여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 주고, 두 마리 용에게 명하여 거타지를 받들고 사신 일행이 타고 가는 배를 따라가 호위하게 한다. 이로 인해 사신 일행은 당나라 황제의 환대를 받았고, 고국에 돌아온 거타지는 꽃가지를 다시 여자로 변하게 하여 그녀와 행복하게 산다.

U (나)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

예제 이 작품은 고려 태조 왕건의 부친을 ‘왕수재’라는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 활약상을 나타낸 소설로 『삼국유사』에 실린 「거타지 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수재가 여우를 활로 죽이고 보답으로 용녀와 부부가 되는 것, 왕수재의 아들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도사가 출현하는 것, 아내(용녀)의 변신과 관련한 금기를 위반하여 아내와 이별하는 것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모티브들이 이어지면서 서사적 흥미를 주는 작품이다. 전통적 설화를 전승하며 변용한 작품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후손이라는 신성성을 부각한 소설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고소설』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는데, 작자·연대 미상이며 한문 필사본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주제 왕수재의 영웅적 능력과 활약상

전체 줄거리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인 왕수재는 어려서 돌림병으로 부모를 잃고 양어머니가 거두어 기른다. 스무 살이 되어 뛰어난 활 솜씨를 지니게 된 왕수재는 사절단의 상사를 만나 자신의 영웅적 자질을 보이고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 남경을 향해 출발한다. 바다를 건너던 도중, 갑자기 배가 제자리를 맴돌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변고가 일어난다. 이에 왕수재는 해신이 꺼리는 불결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일행과 떨어져 홀로 섬에 남게 된다. 이때 서해 용왕의 아들인 노인이 나타나서 왕수재에게 자신의 승천을 방해하는 3천 년 묵은 구미호를 죽여 달라고 부탁한다. 왕수재는 활을 쏘아 여우를 죽이고, 노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왕수재에게 자신의 딸(용녀)을 아내로 준다. 육지로 돌아온 왕수재는 송악산 아래 집을 짓고 큰 부자가 되고, 아내는 미래에 나라의 주인이 될 왕건을 낳는다. 그 뒤 용의 자손으로 인간 세상에서 생활하며 건강이 나빠진 아내는 왕수재에게 치료를 위해 가꿈 변신을 해야 하니 자기 방을 출입할 때 미리 통지를 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던 어느 날 왕수재는 실수로 통지 없이 아내 방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용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 대한 정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자 아내는 왕수재가 신의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떠나간다.

답은꼴 발문 Tip

-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뒷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뒷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의 내용 이해를 묻는 유형

01 (가)와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노인이 양패공의 꿈속에 나타난 것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 ② (가)의 거타지가 섬에 남은 것은 양패공이 꿈에서 만난 노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 ③ (나)의 왕수재가 처음에 활을 쏠 수 없었던 것은 여우의 외모를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④ (나)의 여우가 노인에게 계속 싸움을 건 것은 왕수재가 노인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⑤ (나)의 왕수재가 도선에게 자신에게 한 예언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가족이 해를 입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유형 이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언행을 통해,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들의 언행에 담긴 심리나 의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인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한 후, 인물이 특정한 발화나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유형 공략

- ①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파악한다.
- ② 선지에 제시된 인물의 언행과 관련된 정보를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확인해 본다.
- ③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건과 그에 대한 인물의 심리 또는 태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나)에서 여우가 닷새 뒤에 다시 싸움을 건 것으로 보아 노인에게 계속 싸움을 건 것은 맞지만, 여우가 왕수재의 존재를 인지했거나 그가 노인을 도울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양패공은 꿈속에서 노인의 계시를 들었고 그 결과 거타지는 섬에 남아 요물을 퇴치했다. 이로 인해 노인과 가족이 안전하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양패공은 꿈에 나타난 노인의 말을 믿고 주위 사람들에게 “누구를 남겨 두면 좋겠는가?”라고 묻고 제비뽑기를 통해 거타지를 섬에 남도록 했다. 이에 거타지는 섬에 남아 요물을 퇴치했으므로 적절한 이해로 볼 수 있다.
- ③ (나)의 ‘저건 사람이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리될 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싸 죽여야 되겠는가?’, “그 얼굴을 보니 이는 사람이지 결코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⑤ (나)에서 왕수재는 나라의 주인이 될 성인이 태어난다는 도선의 예언을 듣고 “참으로 위험천만한 소리군요. 부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기 바라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도선의 예언이 퍼져 자신이나 가족이 해를 입을까 염려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절의 의미 이해를 묻는 유형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노인이 자기의 요구 사항과 그것을 수용할 경우의 혜택을 밝히고 있다.
- ㉡: 노인이 늙은 여우의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를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 왕수재가 노인의 딸에게 반한 계기와 그녀와의 재회를 확신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 노인이 왕수재의 공을 인정하며 그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태어난 아기의 외양을 묘사하여 왕수재의 아들이 비범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유형 이해

구절 속에 담긴 세부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앞뒤 문맥을 탐색하여 작중 상황을 이해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유형 공략

- 1 사건 전개 과정에 따라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 2 작중 상황을 이해한 후, 구절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 3 지문에 선지에서 진술한 내용의 근거가 있는지 찾아본다.

정답 풀이

㉢ ‘이곳에 올 때 보았던 처녀의 아리따운 자태를 가슴속 깊이 흠모하여 잊지 못하고 있었기에’를 통해 왕수재가 노인의 딸에게 반한 계기는 알 수 있다. 그러나 ㉣ 다음에 이어지는 “제 생각엔 인연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왕수재가 처녀와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 (가)의 노인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신 일행의 항해를 방해하거나 돕는 인물이다. 노인은 ‘활 잘 쓰는 사람 하나를 이 섬 안에 남겨’ 달라는 요구와 그것을 수용하면 순풍이 불게 하겠다는 혜택을 밝히고 있다.
- ㉡ 노인은 ㉡에서 중(늙은 여우)이 어떤 주술적 행동을 통해 노인의 자손을 해쳤는가를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 노인은 ㉣에서 ‘큰 골칫거리가 사라졌으니,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며 왕수재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찌 감히 식언을 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콧대가 우뚝 솟고’, ‘이마가 흰하고 눈은 샛별처럼 빛났으며’, ‘상서로운 광채가 은은히 비치고’ 등의 외양 묘사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비범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유형

03 <보기>와 같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 문학사를 살펴보면 특정한 근원 설화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후대의 설화나 고전 소설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서사의 원천이 되는 근원 설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여 완성됩니다. (가)는 「삼국유사」에 실린 「거타지 설화」로 이후 「고려사」의 「작제건 설화」의 원형이 됩니다. 「작제건 설화」는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제건이 주인공인데, 그는 당나라 상선을 타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섬에 남게 되고, 서해 용왕의 부탁으로 늙은 여우를 화살로 쏘아 죽이고 용녀(龍女)를 취하여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가)는 고려 왕실의 조상을 신성시하는 작품들의 근원 설화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원 설화인 (가)와 이를 바탕으로 왕수재의 비범한 능력과 왕건의 탄생을 다룬 고전 소설인 (나)를 비교하면서, (나)에서 (가)의 내용이 유지된 것과 (가)의 내용이 바뀌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을 살펴봅시다.

(가)의 내용 유지	(가)의 내용 변경
학생 1: 주인공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사악한 요물을 퇴치하는 내용은 유지했어요. ㉠	학생 3: 건국의 시조 탄생을 알리기 위해 특정한 인물의 예언과, 그가 시조 탄생 후에 경하의 말을 건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
학생 2: 인간인 주인공과 용녀의 결연(結緣) 이 유를 제시하기 위해 노인이 은혜를 갚으려고 주인공을 사위로 맞아들이는 내용은 유지했어요. ㉡	학생 4: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과의 화합 대신에 민족적 자존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꿨어요. ㉣
	학생 5: 주인공이 노인의 부탁대로 활을 쏘게 된 구체적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 노인이 주인공을 위협하는 내용과 보상을 약속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유형 이해

<보기>에 제시된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준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근원 설화가 고전 소설 작품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며 근원 설화와 고전 소설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적 준거에서 제시된 정보에 따라 (가)와 (나)의 내용을 이해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에 제시된 작품 이해와 감상의 준거를 파악한다.
- ② (가)와 (나)에서 비교할 내용을 파악하고 지문에서 관련 내용을 찾는다.
- ③ 작품의 해당 내용과 선지가 적절하게 연결되었는지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나)에 민족적 자존 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가)에서 당나라 황제가 “신라의 사신은 정녕코 비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는 부분을 민족적 자존 의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주인공이 뛰어난 활 솜씨를 발휘하여 사악한 요물인 여우를 퇴치하는 내용은 (가)와 (나)에 모두 나타난다.
- ② (가)의 ‘노인’은 ‘서쪽 바다의 신’이고, (나)의 ‘노인’은 ‘바다 위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니는 용궁의 인물’이므로, 모두 신이한 존재로 볼 수 있다. (가)의 “공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전하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공에게 아내로 드리겠소.”와 (나)의 “이 수재는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시다. 너와 평생의 짝으로 백년가약을 맺고 부부간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한다.”를 통해 (가)와 (나)의 ‘노인’이 모두 보은을 위해 인간인 주인공을 사위로 맞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도선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1년 안에 성인이 태어나시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하며 건국 시조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으며, “주인장께서 성인을

낳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잘 기르시면, 흉악한 무리들을 모조리 평정하고 삼한을 통일하여 도탄에 빠진 만백성을 구하고 후세에 큰 이름을 남길 분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하며 시조의 탄생을 경하하고 있다.

⑤ (가)와 달리 (나)의 왕수재는 노인의 부탁을 받은 후의 싸움에서 곧바로 요물을 활로 쏘지 않는다. 그는 “수재가 만일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모셔 온 뜻이 없지 않겠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거요. 내게는 늦게 본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나이가 열여섯이지만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소. 수재가 내 말대로 요망한 여우를 활로 쏘 죽여 준다면 내 딸을 아내로 삼게 해 주겠소.”, “수재는 그런 걱정 말고 우선 내 골칫거리부터 없애 주시오.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겠소.”라는 노인의 말을 들은 후에야 요물을 활로 쏘아 죽인다. 즉 노인의 위협과 보상 약속은 주인공이 노인의 부탁대로 활을 쏘게 된 구체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4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을 돕는 천상계의 조력자를 등장시켜 주인공의 고귀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주인공의 복잡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주인공의 곤란한 처지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한 후 이와 조응하는 자연적 배경을 묘사하여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주인공과 주변 인물에게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역전적으로 제시하여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유형 이해

작품 전개 과정에서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심층적 감상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인물, 배경, 서술 방식,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으로, 해당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소설에서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므로, 각 선지에서 진술한 바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그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유형 공략

- ① 작품 속에서 해당 장면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 ② 해당 장면에서 선지에 제시된 요소들을 찾아 타당성을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④ [A]에서는 왕수재가 요물인 여우를 활로 쏘아 죽여 문제를 해결한 후의 자연적 배경을 ‘구름이 사라지고 바람이 그치며 천지가 환해졌고 파도도 멈추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상황의 변화를 이에 조응하는 자연적 배경을 통해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A]의 노인은 여우와 맞서 싸우는 신이한 존재이나 왕수재에게 도움을 청한 대상이므로 조력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노인의 등장이 왕수재의 고귀함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 ② 이율배반이란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A]에 왕수재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A]에 왕수재의 곤란한 처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도 찾을 수 없다.
- ⑤ [A]에 노인과 여우의 대결과 왕수재가 여우를 활로 쏘아 죽이는 사건의 진행 과정은 나타나지만, 사건의 발생 원인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A]에서 시간 순서를 뒤바꾸어 사건을 역전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유형 연습 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동쪽 나라의 순진한 농군인 오장군은 마을의 동명이인에게 온 징집영장을 받고 입대하게 된다. 훈련소에 들어간 오장군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온갖 질책을 받으면서 무시를 당하게 되고 사령관의 어깨나 주무르는 사병이 된다.

10경 동쪽 나라 사령관실

정보 참모: (서류를 내밀며) 역정보 공작에 투입할 장교의 인사 기록입니다.

사령관: (물리치며) 내가 직접 선발했네. 방금 나간 병사에 대해 귀관은 너무 무관심하더군.

정보 참모: ㉠그 병사를…….

사령관: 영감을 주는 얼굴이야. 그 얼굴을 보는 동안 난 또 하나의 도박을 생각해 냈다. 아니, 이건 도박이랄 수도 없지. 아무리 유능하고 강직한 정보 장교를 역정보 공작에 투입한다고 해도 위험률은 매우 높다. 적의 정보 장교들도 바보는 아닐 테니까……. 그 병사로 하여금 자신이 역정보 공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적에게 포로가 되도록 꾸미는 거야. 이제부터 참모 회의 때마다 그 병사는 내 어깨를 주무르면서 나와 함께 ㉡브리핑을 받게 된다. 물론 그 브리핑 내용은 모두 거짓이지. 그 거짓 브리핑 내용은 그 병사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고스란히 적에게 제공되는 거야. (㉢정보 참모를 지그시 본다.)

(클라리넷…….)

11경 동쪽 나라 사령관실

(사령관과 정보 참모, 수색 중대장이 그들 앞에 서 있다.)

사령관: 적은 공격을 앞두고 아군에 대한 보다 광범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군 장병을 사로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수색 중대장은 적의 관측소에서 잘 보이는 곳에 그 겹쟁이 병사를 팽개쳐 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다.

중대장: 그곳에 혼자 남겨 놓고 오면 도망할 텐데요.

사령관: 도망하는 데도 최소한의 용기는 필요한 거다. 또 다른 질문은?

중대장: 없습니다.

사령관: 그럼 그 병사를 불러들일 테니까, 시나리오대로 잘해 보세. 전속 부관, 오장군 이등병을 들여 보내게.

전속 부관: (밖에서) 옛.

사령관: 정보 참모는 눈에 안 띄는 게 좋겠군.

정보 참모: 예.

(정보 참모가 퇴장하고 오장군이 들어온다.)

오장군: ㉣육군 이등병 오장군, 사령관 각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러 왔습니다.

(오장군, 여전히 뺨장다리 걸음으로 사령관에게로. 중대장은 오장군을 착잡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오장

군은 사령관에게 다가가면서 손가락을 폼다 접었다 한다. 준비 운동인 것이다.)

사령관: 오늘은 잠깐만 주물러도 돼. 너무 힘도 주지 말고.

오장군: 옛.

(긴 사이)

사령관: 오늘 아침두 배부르게 먹었나?

오장군: 옛, 3인분 먹었습니다.

(긴 사이)

사령관: 어젯밤에도 고향 꿈을 꾸었나?

오장군: 아닙니다. 어젯밤엔 꾸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 아침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령관: 음, 기뻐했군.

오장군: (대답 대신 콧소리를 쉬익 낸다……. 주저하다가) 그런데 각하, 그 편지에 이 육군 이등병 오장군이 같은 동네에 사는 오 부자네 아들인 오장군 대신 군에 잘못 들어왔다고 쓰여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령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

오장군: 예. (순하게 수궁하며) 저도 무슨 뜻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각하.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작전에 투입된 오장군은 서쪽 나라에 포로로 잡혀 심문을 받는다.

13경 서쪽 나라 포로 심문실

참모 A: 포로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도는 어느 정도인가?

정보 장교: ㉞포로는 군사 지식이 전혀 없는 무식한 농부 출신의 신병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과장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㉟오히려 그의 저능한 기억력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중에서 빠뜨린 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사령관: 대위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돼지같이 미련하게 생긴 놈이야. 대위, 참모들에게도 그 병사를 보여 주는 게 좋겠다.

정보 장교: 옛.

(정보 장교, 무대 옆으로 나간다. 참모들 주시한다. 정보 장교가 다시 오고, 뒤이어 오장군이 어마어마하게 호위당하며 들어온다. 오장군은 겁에 먹혀 버려서 쪽정이가 됐다. 안정을 잃는 눈이 참모들을 쉹하니 바라본다. 사령관, 손짓으로 퇴장시키라고 지시한다. 오장군 일행이 나가자 사령관이 일어선다.)

사령관: ㉟우리는 하마터면 적의 계략에 빠질 뻔했다. 적은 그들의 전투력을 우리가 과소하게 평가하 게끔 교묘하게 속여 왔다. 적은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방어 진지 구축을 소홀히 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적은 우리가 공격을 취하도록 유인, 전투력을 소모시키고 적당한 시기에 일대 반격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 공격 계획을 취소한다. 각 단위대는 즉시 현 위치에서 방어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방어 진지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명령한다.

(참모들 기립한다. 사령관 나간다. 참모들 뒤따라 나간다.)

(클라리넷…….)

14경 서쪽 나라 포로 심문실과 총살 현장

(어둠 속에서 오장군의 비명 소리. 때리는 소리……. 무대 밝아진다. 오장군이 거꾸로 매달려 고문을 받고 있다. 사령관이 들어온다. 뒤에 참모 A가 따라 들어온다.)

사령관: 그쳐어! (모두 차렷 자세) 어서 내려놔!

(매달렸던 오장군이 재빨리 내려진다. 오장군, 뺨어 버린다.)

사령관: (정보 장교에게 다가가서 말채찍으로 마구 갈겨 대고 나서) 쓰레기 같은 놈! 넌 이 장교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 어서 의자로 모셔!

(정보 장교, 중사와 함께 오장군을 재빨리 안아 일으켜서 의자에 앉히고 나서 양쪽에서 받쳐 준다. 긴 사이, 기절했던 오장군이 정신을 차린다. 사령관이 손수 물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준다. 오장군, 그것을 순하게 받아 마시더니 갑자기 영영 울어 댄다.)

사령관: …… 이제 연기는 그만하지. 귀관의 임무는 끝났으니까. 귀관 덕분에 적은 시간을 벌었고 우리는 공격할 기회를 놓쳤네……. 귀관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에야 알았지……. 제발, 이제 연기는 그만하라니까……. 귀관의 진짜 이름은 뭐며 진짜 계급은?

(◎오장군, 더 크게 영영 소리를 낸다. 그는 똑같은 질문에 너무 시달려 이젠 그냥 울음이 앞서는 것이다.)

사령관: (한참 동안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참모 A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 ㉔그에게서 무엇이든 알아내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6시 정각에 총살을 집행하도록.

참모 A: 예.

사령관: 단, ㉔총살 집행 때 사령부 전 장병을 집합시켜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것.

참모 A: 예.

(사령관 퇴장. 참모들이 뒤따른다. 무대, 그 상태에서 정리되고 총살대가 정렬하고 들어온다. 헌병들이 그때 까지도 울고 있는 오장군을 부축해서 나무 기둥에 붙들어 맨다. 헌병 장교, 검은 수건으로 그의 눈을 가린다.)

헌병 장교: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오장군: (하늘을 향해서 혼신의 힘으로) 엄마야…… 꽃분아…… 먹쇠야…….

(긴 사이. 헌병 장교, 사령관을 본다. 사령관, 그대로 집행하라고 손짓.)

헌병 장교: 사격 준비!

오장군: (또다시 혼신의 힘으로) 엄마야…… 꽃분아…… 먹쇠야…….

헌병 장교: 사격!

(일제 사격. 오장군, 머리를 떨군다.)

사령관: (참모 A를 돌아보며) 그는 죽음까지도 연기로 장식했다. (흥내) 엄마야아, 꽃분아아……. 아무리 무식한 시골뜨기라도 그보다 더 시골뜨기를 닮을 수는 없을 거야.

(사령관, 오장군에게 경례를 한다. 모두 그를 따른다. 구름과 클라리넷의 합창.)

- 박조열, 「오장군의 발톱」

▶ 21051-0037

01

인물의 심리, 태도를 파악하는 유형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쪽 나라 정보 참모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서쪽 나라 사령관은 오장군에게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쪽 나라에 대한 공격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 ③ 서쪽 나라 사령관은 오장군이 죽을 때 엄마와 꽃분이를 외치는 행동조차 실재가 아닌 연기라고 믿고 있다.
- ④ 동쪽 나라 사령관은 오장군에게 고향 이야기를 꺼내며 곧 작전에 투입될 오장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⑤ 동쪽 나라 중대장은 겁쟁이 병사를 서쪽 나라 군사들에게 잡히도록 놓아두어도 용기가 없어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 21051-0038

02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를 추리하는 유형

㉠~㉥에 대해 연출자가 배우에게 연기 요청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다는 듯 말끝을 흐리면서 연기해 주세요.
- ② ㉡: 작전 설명을 마친 후 정보 참모를 슬며시 힘을 주어 바라보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③ ㉢: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도록 기운 없는 목소리로 연기해 주세요.
- ④ ㉣: 자신이 취조한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강한 어조로 연기해 주세요.
- ⑤ ㉤: 반복되는 고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의 심리가 느껴지도록 울음 연기를 해 주세요.

▶ 21051-0039

03

사건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유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서쪽 나라 사령관이 ㉢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② ㉠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한 오장군은 ㉤를 듣고 심경의 변화가 생긴다.
- ③ ㉡가 오관임을 서쪽 나라 사령관이 알게 됨으로써 ㉢와 같은 판단으로 내린 결정을 반복한다.
- ④ ㉣는 오장군에 대한 ㉡와 같은 판단에 동의한 서쪽 나라 사령관이 내린 결론이다.
- ⑤ ㉤는 오장군이 ㉡와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확신한 서쪽 나라 사령관이 경외감에 차서 내린 명령이다.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군대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오장군’이라는 이름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부조화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공작을 수행하게 되는 극 중 인물의 순진함과 우둔함, 그리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완벽한 연기로 오해한 적국의 인물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를 제시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은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극성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득을 추구하는 모습을 비판함과 동시에 인간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비정한 세태를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 ① 어리숙한 인물을 역정보 공작에 투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모습에서 비정한 세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동명이인 대신 군대에 입대한 사실을 알게 되기도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우둔함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오장군 이등병’이라는 호칭이 주는 부조화와 오장군의 ‘진짜 계급’을 묻는 서쪽 나라 사령관의 상황이 웃음을 유발하는군.
- ④ 서쪽 나라 사령관이 오장군을 귀감으로 삼는 상황을 통해 동쪽 나라 사령관이 오장군의 연기력을 바탕으로 이득을 추구했던 전모가 드러나는군.
- ⑤ 총살 순간 혼신을 다해 엄마, 꽃분이, 떡볶이를 외치는 오장군의 비극적인 모습에서 인간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군.

유형 연습 5 Zoom In



박조열, 「오장군의 발톱」

예제 이 작품은 서쪽 나라와 동쪽 나라의 전쟁 중에 희생되는 오장군이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전쟁과 비정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군대에 징집되기 전까지는 집에서 사방 십 리 밖으로는 나가 본 적 없는 어리숙한 인물인 오장군이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 군대에 징집되지만 잘못된 사실이 바로잡히지 않는 현실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오장군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면서도 역정보 공작에 투입하는 사령관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야만성과 허위의식에 대한 고발이 나타난다. 특히 이 작품은 일반적인 희곡이 ‘막’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15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작품의 주제를 보다 극명하게 보여 주는 방식으로 군대와 전쟁의 비인간성과 주인공이 지닌 순진성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제를 부각한다.

주제 인간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전쟁에 대한 고발과 비정한 세태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시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오장군은 어느 날 징집영장을 받는다. 어리숙한 오장군은 군대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동쪽 나라 사령관의 어깨나 주무르는 일을 하던 중,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자신을 역정보 공작원으로 보낸 동쪽 나라 사령관의 계략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공작을 완수하게 된다. 서쪽 나라 사령관은 오장군을 충성심이 강한 장교로 생각하며 예우를 갖춰 사형에 처하고, 이후 오장군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가족에게 전해진다.

짧은골 발문 Tip

- 윗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심리, 태도를 파악하는 유형

0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쪽 나라 정보 참모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서쪽 나라 사령관은 오장군에게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쪽 나라에 대한 공격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 ③ 서쪽 나라 사령관은 오장군이 죽을 때 엄마와 꽃분이를 외치는 행동조차 실체가 아닌 연기라고 믿고 있다.
- ④ 동쪽 나라 사령관은 오장군에게 고향 이야기를 꺼내며 곧 작전에 투입될 오장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⑤ 동쪽 나라 중대장은 겁쟁이 병사를 서쪽 나라 군사들에게 잡히도록 놓아두어도 용기가 없어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유형 이해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및 심리와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인물의 심리나 태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개 과정 파악과 더불어 사건 속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사건 간의 연관 관계를 생각하면서 등장인물의 특정한 대사나 행동이 사건의 전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며 작품을 감상한다.

유형 공략

- ①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하여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파악한다.
- ②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여러 유형에 대해 이해한다.
- ③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등 등장인물의 특징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③ 서쪽 나라 사령관은 총살 집행 시 오장군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그는 죽음까지도 연기로 장식했다. (흥내) 엄마야아, 꽃분야아……. 아무리 무식한 시골뜨기라도 그보다 더 시골뜨기를 닮을 수는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 행동조차 오장군의 연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동쪽 나라 정보 참모는 오장군을 역정보 공작에 투입하겠다는 사령관의 말에 처음에는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령관의 설명을 듣고 명령에 따르는 모습이 나올 뿐,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 ② 서쪽 나라 사령관이 ‘우리는 하마터면 적의 계략에 빠질 뻔했다.’라고 말하며 공격 계획을 취소하고, 방어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방어 진지 구축에 전력을 다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통해 동쪽 나라에 대한 공격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진술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동쪽 나라 사령관이 오장군에게 고향 꿈을 꾸었느냐고 묻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장군이 다른 사람 대신 입대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듣고도 모른 체하는 등 오장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⑤ 동쪽 나라 중대장은 겁쟁이 병사를 혼자 남겨 놓고 오면 도망을 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령관은 도망가는 데에도 최소한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답변한다. 이를 통해 겁쟁이 병사가 용기가 없어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말을 한 인물은 중대장이 아니라 사령관임을 알 수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나)를 공연할 때, ㉠~㉢에서 연출자가 배우에게 요구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연출한다고 할 때, 연출자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공연할 때, ㉠~㉢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를 추리하는 유형

02

㉠~㉢에 대해 연출자가 배우에게 연기 요청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다는 듯 말끝을 흐리면서 연기해 주세요.
- ② ㉡: 작전 설명을 마친 후 정보 참모를 슬며시 힘을 주어 바라보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③ ㉢: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도록 기운 없는 목소리로 연기해 주세요.
- ④ ㉢: 자신이 취조한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강한 어조로 연기해 주세요.
- ⑤ ㉢: 반복되는 고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의 심리가 느껴지도록 울음 연기를 해 주세요.

유형 이해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계획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희곡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장면에 어울리는 배우의 행동이나 어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제시된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②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하여 적절한 어조와 행동 등을 선택한다.
- ③ 제시된 장면을 고려할 때 연출가나 배우의 연기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③ 오장군은 사령관의 어깨를 주무르기 위해 손가락 준비 운동까지 하고 있다. 또한 ‘오늘은 잠깐만 주물러도’ 된다는 사령관의 말을 고려할 때 오장군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맡은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정보 참모가 역정보 공작에 투입할 장교의 인사 기록을 가져왔지만, 사령관이 아둔한 인물인 오장군을 추천하는 상황이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모습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적절하다.
- ② 사령관이 정보 참모를 비롯하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계략을 만들어 이를 자세히 설명한 후 정보 참모를 바라보는 것이므로 정보 참모를 ‘지그시’ 바라보라는 지시문에 따라 정보 참모를 슬며시 힘을 주어 바라봐 달라는 연기 요청은 적절하다.
- ④ 자신이 심문한 대상이 과장할 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저능함으로 인해 빠뜨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정보 장교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를 들은 사령관 역시 정보 장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태도로 연기해야 하므로 취조를 통해 알아낸 사실에 확신을 가지는 어조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적절하다.
- ⑤ 오장군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반복적인 고문에 시달려 우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아 혹독한 고문을 반복하는 상황에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의 심리가 느껴지도록 울음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은 적절하다.

답은골 발문 Tip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건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유형

0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서쪽 나라 사령관이 ㉢와 같은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② ㉠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한 오장군은 ㉢를 듣고 심경의 변화가 생긴다.
- ③ ㉠가 오관임을 서쪽 나라 사령관이 알게 됨으로써 ㉢와 같은 판단으로 내린 결정을 반복한다.
- ④ ㉠는 오장군에 대한 ㉠와 같은 판단에 동의한 서쪽 나라 사령관이 내린 결론이다.
- ⑤ ㉠는 오장군이 ㉠와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확신한 서쪽 나라 사령관이 경외감에 차서 내린 명령이다.

유형 이해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전개된 사건들 간의 관계나 사건의 전개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 유형이다. 지문 속에 제시되는 사건들 간에는 연관 관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감춰진 연관 관계를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제시된 인물들을 파악하고 이와 연관된 중심 사건들을 파악한다.
- ② 중심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사건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한다.
- ③ 사건 간의 연관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과 연결하여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① 동쪽 나라 사령관이 역정보 공작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브리핑하게 했고, 이를 계속 들었던 오장군이 서쪽 나라에 포로로 잡히면서 공포에 질려 자신이 들었던 브리핑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서쪽 나라 사령관은 그 말을 믿고 하마터면 적의 계략에 빠질 뻔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오장군이 들은 브리핑은 서쪽 나라 사령관이 공격 계획을 멈추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동쪽 나라 사령관이 역정보 공작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브리핑하게 했고, 이를 계속 들었던 오장군이 서쪽 나라에 포로로 잡히면서 공포에 질려 자신이 들었던 브리핑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이야기 함으로써 서쪽 나라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후 서쪽 나라에서 오장군은 적이지만 훌륭한 공작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경의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오장군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서쪽 나라에서는 심문을 통해 오장군이 군사 지식이 없는 무식한 농부 출신의 신병이라고 판단하고, 그가 자신이 접한 사실을 과장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의 진술을 토대로 적의 계략에 빠질 뻔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공격 계획을 멈추고 방어 계획 수립과 방어 진지 구축에 전력을 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공격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적의 계략에 빠질 뻔했다고 판단하여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반복한 것은 아니다.

④ 서쪽 나라 사령관이 오장군에게 무엇을 알아내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가 완벽하게 공작을 수행하는 충직한 인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령관이 오장군을 군사 지식이 없는 무식한 농부 출신의 신병으로 여겨 그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어리석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⑤ 서쪽 나라 사령관이 오장군에게 형을 집행하면서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한 것은 오장군이 공작을 완벽하게 수행한 장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군사 지식이 없는 무식한 농부 출신의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확신했기 때문은 아니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4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군대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오장군'이라는 이름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부조화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공작을 수행하게 되는 극 중 인물의 순진함과 우둔함, 그리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완벽한 연기로 오해한 적국의 인물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를 제시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은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극성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득을 추구하는 모습을 비판함과 동시에 인간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비정한 세태를 드러내어 주체 의식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 ① 어리숙한 인물을 역정보 공작에 투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모습에서 비정한 세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동명이인 대신 군대에 입대한 사실을 알게 되기도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우둔함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오장군 이등병'이라는 호칭이 주는 부조화와 오장군의 '진짜 계급'을 묻는 서쪽 나라 사령관의 상황이 웃음을 유발하는군.
- ④ 서쪽 나라 사령관이 오장군을 귀감으로 삼는 상황을 통해 동쪽 나라 사령관이 오장군의 연기력을 바탕으로 이득을 추구했던 전모가 드러나는군.
- ⑤ 총살 순간 혼신을 다해 엄마, 꽃분이, 먹시를 외치는 오장군의 비극적인 모습에서 인간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군.

유형 이해

작품과 관련된 비평문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를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에 제시되는 <보기>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감상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작가, 시대 상황, 문학 기법, 작품의 주제나 작품에 대한 평가, 소재의 상징성 등에 대한 정보가 주로 제시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로 제시된 자료를 읽으며 작품 감상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한다.
- ②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작품의 내용을 연결하여 살펴본다.
- ③ <보기>에 제시된 관점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며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정답 풀이

④ 서쪽 나라 사령관이 정보 장교를 비난하면서 오장군을 귀감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은 오장군의 어리숙함을 모른 채 그의 어리숙함조차 완벽한 연기라고 생각하는 부조화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쪽 나라 사령관이 오장군의 연기력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며, 오장군의 순진함을 역으로 이용한 작전이 성공한 것을 보여 줌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득 추구를 위해 오장군을 희생시키는 비정한 세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동쪽 나라 사령관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장군을 적국의 포로로 만들어 상대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도록 하는 역정보 공작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부분에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비정한 세태가 드러난다.
- ② 오장군은 고향에서 온 편지를 통해 자신이 '오 부자네 아들인 오장군' 대신에 군에 잘못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럴 수 있냐고 사령관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사령관의 반응에 '순하게 수궁'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지닌 우둔함이 드러난다.
- ③ 오장군이라는 이름에 담긴 '장군'이라는 계급과 '이등병'이라는 실제 계급이 주는 부조화, 서쪽 나라 사령관이 우둔한 오장군이 적을 완벽하게 속인 장교라고 착각하여 오장군의 '진짜 계급'을 묻는 상황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순진한 인물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서 이용당한 후 총살을 당하면서 엄마와 꽃분이, 먹시를 외치는 장면은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동시에 오장군이라는 순수한 인간을 희생시켜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유형 연습 ①

▶21052-0041

음운의 개념을 묻는 유형

01 다음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음운은 단어들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음운만 달라서 서로 다른 뜻이 된 단어들을 최소 대립어라고 한다. 제시된 단어들을 통해 최소 대립어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 보자.

가을 거리 고을 마을 마음 모음 소리
달 딸 탈 불 뿔 풀

- (ㄱ) ‘ㅈ’과 ‘ㅊ’이 서로 다른 음운임을 보여 주는 예를 찾아보자.
- (ㄴ)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차이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예를 찾아보자.

	(ㄱ)	(ㄴ)
①	가을, 고을	달, 탈
②	가을, 마을	불, 뿔
③	거리, 소리	불, 풀
④	마을, 마음	뿔, 풀
⑤	마음, 모음	달, 딸

▶21052-0042

국어의 음운 변동을 묻는 유형

02 <보기>의 ㉠~㉣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앞-+-아 → [아나]
- ㉡ 쓰-+-어서 → [써서]
- ㉢ 점잖-+-지 → [점:잔치]

- ① ㉠과 ㉡에서는 모음의 탈락이 일어났다.
- ② ㉡과 ㉢에서는 없던 음운이 생기는 첨가가 일어났다.
- ③ ㉠과 ㉢에서는 음절 말에서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했다.
- ④ ㉠~㉢ 모두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 ⑤ ㉠~㉢ 모두에서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유형 연습 1 Zoom In

짧은골 발문 Tip

- 다음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 다음 학습 활동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는 최소 대립어를 확인하는 학습 활동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음운의 개념을 묻는 유형

01 다음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음운은 단어들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음운만 달라서 서로 다른 뜻이 된 단어들을 최소 대립어라고 한다. 제시된 단어들을 통해 최소 대립어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 보자.

가을	거리	고을	마을	마음	모음	소리
달	딸	탈	불	뿔	풀	

(㉠) ‘ㅈ’와 ‘ㄱ’이 서로 다른 음운임을 보여 주는 예를 찾아보자.

(㉡)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차이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예를 찾아보자.

	(㉠)	(㉡)
①	가을, 고을	달, 딸
②	가을, 마을	불, 뿔
③	거리, 소리	불, 풀
④	마을, 마음	뿔, 풀
⑤	마음, 모음	달, 딸

유형 이해

음운의 개념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다. 최소 대립어를 통해 음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수능에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자음과 모음의 최소 대립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모음과 음장, 끝음의 길이 역시 음운에 해당되나 자음과 모음처럼 쉽게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으므로 최소 대립어 문항에서 활용되는 일은 적다. 그러므로 자음과 모음으로 인한 최소 대립어 확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음운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임을 이해한다.
- ② 최소 대립어를 만드는 자음과 모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 ③ 이 문항에서는 예사소리(평음)와 거센소리(격음)라는 용어의 뜻도 알아야 한다.

정답 풀이

① ‘가을’과 ‘고을’은 ‘ㅈ’와 ‘ㄱ’만 달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 최소 대립어이다. ‘달’과 ‘딸’은 ‘ㄷ(예사소리)’과 ‘ㅌ(거센소리)’만 달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 최소 대립어이다.

오답 풀이

② ‘가을’과 ‘마을’은 ‘ㄱ’과 ‘ㅁ’만 달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 최소 대립어이다. ‘불’과 ‘뿔’은 ‘ㅂ(예사소리)’과 ‘ㅍ(거센소리)’만 달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 최소 대립어이다.

③ ‘거리’와 ‘소리’는 ‘ㄱ’과 ‘ㅅ’도 다르고 ‘ㄱ’과 ‘ㄴ’도 달라서 최소 대립어가 아니다. ‘불’과 ‘풀’은 ‘ㅂ(예사소리)’과 ‘ㅍ(거센소리)’만 달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 최소 대립어이다.

④ ‘마을’과 ‘마음’은 ‘ㄹ’과 ‘ㅁ’만 달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 최소 대립어이다. ‘뿔’과 ‘풀’은 ‘ㅍ(거센소리)’와 ‘ㅂ(예사소리)’만 달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 최소 대립어이다.

⑤ ‘마음’과 ‘모음’은 ‘ㅈ’와 ‘ㄱ’만 달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 최소 대립어이다. ‘달’과 ‘딸’은 ‘ㄷ(예사소리)’과 ‘ㅌ(거센소리)’만 달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 최소 대립어이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의 음운 변동을 묻는 유형

02 <보기>의 ㉠~㉣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앞-+-아 → [아나]
- ㉡ 쓰-+-어서 → [써서]
- ㉢ 점잖-+-지 → [잠:잔치]

- ① ㉠과 ㉡에서는 모음의 탈락이 일어났다.
- ② ㉡과 ㉢에서는 없던 음운이 생기는 첨가가 일어났다.
- ③ ㉠과 ㉢에서는 음절 말에서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했다.
- ④ ㉠~㉢ 모두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 ⑤ ㉠~㉢ 모두에서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유형 이해

음운 변동의 구체적 내용과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음운 변동의 전과 후의 차이를 이해하여 그 변동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음운 변동의 네 가지 유형(교체, 탈락, 첨가, 축약)은 거의 매해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학습 내용이므로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음운 변동의 전과 후의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② 해당 음운 변동이 음운 변동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한다.
- ③ 음운 변동의 조건과 변동하는 음운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에서는 ‘ㅎ’이, ㉡에서는 ‘ㅡ’가 탈락되었고, ㉢에서는 ‘ㅎ’과 ‘ㅈ’이 합쳐져 ‘ㅊ’으로 축약되었다. 모두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변동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에서는 ‘ㅎ’이 탈락되었고, ㉡에서는 ‘ㅡ’가 탈락되었다. 하나는 자음 탈락이고 하나는 모음 탈락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에서는 ‘ㅡ’가 탈락되었고, ㉢에서는 ‘ㅎ’과 ‘ㅈ’이 합쳐져 ‘ㅊ’으로 축약되었다. 첨가된 음운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에서는 음절 말에 있던 ‘ㅎ’이 탈락되었지만, ㉢에서는 음절 말에 있던 ‘ㅎ’이 탈락된 것이 아니라 ‘ㅎ’과 ‘ㅈ’이 합쳐져 ‘ㅊ’으로 축약되었다.
- ⑤ ㉠~㉢에서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을 찾을 수 없다.

03

언어

유형 연습 2

▶ 21052-0043

어미의 종류와 쓰임을 묻는 유형

01

〈보기〉의 ㉠~㉣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말 어미의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어미는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구분되고, 어말 어미는 다시 그 기능에 따라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선어말 어미도 시제나 높임 등의 기능에 따라 구분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음 예문을 통해 탐구해 보겠어요.

- ㉠ 동생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 ㉡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 ㉢ 형은 빵을 먹고 나는 밥을 먹었다.

- ① ㉠의 ‘아파서’에는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 ② ㉠의 ‘갔다’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모두 있습니다.
- ③ ㉡의 ‘배려하는’에는 용언을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 ④ ㉡의 ‘되자’에는 문장을 끝내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 ⑤ ㉢의 ‘먹고’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 21052-0044

단어의 구조와 짜임을 묻는 유형

02

〈보기 1〉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언어 구성을 둘로 쪼갠 때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복합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는데,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고,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있는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특히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경우, 단어를 구성하는 직접 구성 요소만 확인하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알 수 있어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유용하다.

보기 2

멋쟁이, 느림보, 놀이터, 돌다리, 고무지우개, 새끼손가락

- ① 멋쟁이, 느림보, 고무지우개
- ② 멋쟁이, 놀이터, 새끼손가락
- ③ 느림보, 돌다리, 고무지우개
- ④ 놀이터, 돌다리, 새끼손가락
- ⑤ 놀이터, 고무지우개, 새끼손가락

▶ 21052-0045

주격 조사와 보조사의 쓰임을 묻는 유형

0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목표	보조사 ‘은/는’의 특징을 주격 조사 ‘이/가’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탐구 자료	㉠ 하늘(은/이) 청명하다. ㉡ 물(은/*이) 동생이 먹었다. ㉢ 빨리(는/*가) 못 가지만 안전하게 가마. ㉣ 할아버지께(는/*가) 생신 선물을 보내 드렸다. ㉤ 미국에서(는/*가) 가을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탐구 결과	(가)

*는 비문법적인 말임.

- ① ㉠을 보니, ‘은/는’은 ‘이/가’처럼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군.
- ②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에도 쓰일 수 있군.
- ③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부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군.
- ④ ㉣,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다른 보조사 뒤에서도 쓰일 수 있군.
- ⑤ ㉣, ㉣,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명사 이외의 말 뒤에서도 쓰일 수 있군.

유형 연습 2 Zoom In

답은꼴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쓰임을 탐구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종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에서 분석되는 어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미의 종류와 쓰임을 묻는 유형

01 <보기>의 ㉠~㉣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말 어미의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어미는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구분되고, 어말 어미는 다시 그 기능에 따라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선어말 어미도 시제나 높임 등의 기능에 따라 구분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음 예문을 통해 탐구해 보겠어요.

- ㉠ 동생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 ㉡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 ㉢ 형은 빵을 먹고 나는 밥을 먹었다.

- ① ㉠의 '아파서'에는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 ② ㉠의 '갔다'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모두 있습니다.
- ③ ㉡의 '배려하는'에는 용언을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 ④ ㉢의 '되자'에는 문장을 끝내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 ⑤ ㉢의 '먹고'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유형 이해

어미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의 구별, 어말 어미의 종류와 특징, 선어말 어미의 기능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1 활용형에서 어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2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의 기능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① ㉠에서 '아파서'는 형용사 어간 '아프-'에 어말 어미 중 연결 어미 '-아서'가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에서 어말에 오지 못하는 어미가 있다고 한 것은 '아파서'에 선어말 어미가 있다는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에서 '갔다'는 동사 어간 '가-'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어말 어미 중 종결 어미인 '-다'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모두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에서 '배려하는'은 동사 어간 '배려하-'에 전성 어미 중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용언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에서 '되자'는 동사 어간 '되-'에 어말 어미 중 청유형 종결 어미인 '-자'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문장을 끝내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에서 '먹고'는 동사 어간 '먹-'에 어말 어미 중 연결 어미 '-고'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짧은골 발문 Tip

- <보기>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른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합성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의 구조와 짜임을 묻는 유형

02 <보기 1>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언어 구성을 둘로 쪼갠 때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복합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는데,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를 합성어라고 하고,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있는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특히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경우, 단어를 구성하는 직접 구성 요소만 확인하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알 수 있어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유용하다.

보기 2

멋쟁이, 느림보, 놀이터, 돌다리, 고무지우개, 새끼손가락

- ① 멋쟁이, 느림보, 고무지우개
- ② 멋쟁이, 놀이터, 새끼손가락
- ③ 느림보, 돌다리, 고무지우개
- ④ 놀이터, 돌다리, 새끼손가락
- ⑤ 놀이터, 고무지우개, 새끼손가락

유형 이해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별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단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직접 구성 요소의 개념, 합성어와 파생어, 어근과 접사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② 단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직접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⑤ ‘놀이터’는 ‘놀-’, ‘-이’, ‘터’가 결합된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놀이+터’의 구성으로 직접 구성 요소인 ‘놀이’와 ‘터’가 모두 어근이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고무지우개’는 ‘고무’, ‘지우-’, ‘-개’가 결합된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고무+지우개’의 구성으로 직접 구성 요소인 ‘고무’와 ‘지우개’가 모두 어근이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새끼손가락’은 ‘새끼’, ‘손’, ‘가락’이 결합된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새끼+손가락’의 구성으로 직접 구성 요소인 ‘새끼’와 ‘손가락’이 모두 어근이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세 단어 모두 두 조건을 충족하므로 ⑤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멋쟁이’는 ‘멋’과 ‘-쟁이’가 결합된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멋+쟁이’의 구성으로 직접 구성 요소인 ‘멋’과 ‘-쟁이’가 각각 어근과 접사이므로 두 조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느림보’는 ‘느리-’, ‘-르’와 ‘-보’가 결합된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느림+보’의 구성으로 직접 구성 요소인 ‘느림’과 ‘-보’는 각각 어근과 접사이므로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 ‘돌다리’는 ‘돌’과 ‘다리’가 결합된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돌+다리’의 구성으로 직접 구성 요소인 ‘돌’과 ‘다리’가 각각 어근이므로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 따라서 ①, ②, ③, ④는 제시된 단어 중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답은골 발문 Tip

- <보기>의 ㉠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격 조사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격 조사와 보조사의 쓰임을 묻는 유형

0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목표	보조사 '은/는'의 특징을 주격 조사 '이/가'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탐구 자료	㉠ 하늘(은/이) 청명하다. ㉡ 물(은/*이) 동생이 먹었다. ㉢ 빨리(는/*가) 못 가지만 안전하게 가마. ㉣ 할아버지께(는/*가) 생신 선물을 보내 드렸다. ㉤ 미국에서(는/*가) 가을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탐구 결과	(가)

*는 비문법적인 말임

- ① ㉠을 보니, '은/는'은 '이/가'처럼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군.
- ②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에도 쓰일 수 있군.
- ③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부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군.
- ④ ㉣,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다른 보조사 뒤에서도 쓰일 수 있군.
- ⑤ ㉢, ㉣, ㉤을 보니, '은/는'은 '이/가'와 달리 명사 이외의 말 뒤에서도 쓰일 수 있군.

유형 이해

격 조사와 보조사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격 조사의 종류와 기능, 격 조사와 보조사의 차이, 격 조사의 특징, 보조사의 의미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1 격 조사와 보조사의 차이를 자료를 통해 이해한다.
- 2 격 조사와 보조사의 기능과 특징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④ ㉣에서 보조사 '는'은 부사격 조사 '께' 뒤에 올 수 있지만, 주격 조사 '가'는 '께' 뒤에 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서도 보조사 '는'은 부사격 조사 '에서' 뒤에 올 수 있지만, 주격 조사 '가'는 '에서' 뒤에 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은 '은/는'이 다른 격 조사 뒤에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 ㉤을 통해 '은/는'이 다른 보조사 뒤에서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에서 보조사 '은'과 주격 조사 '이'가 '하늘'과 결합하여 모두 주어로 쓰였다. 따라서 '은/는'은 '이/가'처럼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보조사 '은'은 주격 조사 '이'와 달리 '물'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따라서 '은/는'은 '이/가'와 달리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에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보조사 '는'은 주격 조사 '가'와 달리 부사 '빨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따라서 '은/는'은 '이/가'와 달리 부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보조사 '은/는'은 ㉣에서 부사 뒤에, ㉤과 ㉤에서 부사격 조사 뒤에 쓰였다. 따라서 '은/는'은 '이/가'와 달리 명사 이외의 말 뒤에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언어

유형 연습 ③

▶ 21052-0046

문장의 짜임을 묻는 유형

01

〈보기〉의 ㉠~㉣의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그 일은 힘이 들었지만, 뜻깊은 작업이었다.
- ㉡ 어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웃놀이를 즐겼다.
- ㉢ 형우는 수학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다.
- ㉣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준비물을 챙기라고 말씀하셨다.

- ① ㉠에서 ‘그 일은 힘이 들었지만’에는 서술절이 들어 있다.
- ② ㉠에서 연결 어미 뒤에 나오는 절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③ ㉡에서 ‘함께’를 ‘모여서’로 바꾸면 ㉡은 겹문장이 된다.
- ④ ㉢에서 ‘수학 시험에서 틀린’은 ‘문제’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 ⑤ ㉣에서 ‘준비물을 챙기라고’는 간접 인용절로 안겨 있다.

▶ 21052-0047

높임 표현을 묻는 유형

0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에서 높이는 대상을 모두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국어의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상대 높임은 듣는 이를 반드시 높이는 범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과는 차이가 있다.

보기 2

- ㉠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셨다.
- ㉡ 할아버지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 ㉢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	㉡	㉢
①	주체	객체	듣는 이
②	주체, 객체	듣는 이	주체, 객체
③	객체	주체, 듣는 이	주체, 객체
④	주체, 듣는 이	주체, 객체	객체
⑤	주체, 객체	주체, 듣는 이	객체, 듣는 이

사동 표현을 묻는 유형

03 <보기>를 바탕으로 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동문의 서술어인 주동사에 사동 접미사를 붙여 만든 사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동사에 '-게 하다'를 붙이는 방법이다.

[A] 주동문의 서술어	자동사	타동사
[B] 주동문	배가 뒀다.	학생이 책을 읽었다.
[C]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그들이 배를 띄웠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 선생님이 학생을 책을 읽혔다.
[D]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그들이 배를 뜨게 했다. 그들이 배가 뜨게 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게 했다. 선생님이 학생이 책을 읽게 했다.

- ① [A]가 자동사일 때, [B]의 주어는 [C]에서 목적어로 나타나는군.
- ② [A]가 자동사일 때, [B]의 주어는 [D]에서 목적어로도 나타나고 안긴절의 주어로도 나타나는군.
- ③ [A]가 타동사일 때, [B]의 주어는 [C]에서 부사어나 목적어로 나타나는군.
- ④ [A]가 타동사일 때, [B]의 주어는 [D]에서 부사어로도 나타나고 안긴절의 주어로도 나타나는군.
- ⑤ [A]가 자동사이든 타동사이든 상관없이, [C]의 주어는 [B]에도 나타나는군.

유형 연습 3 Zoom In

짧은골 발문 Tip

-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이어진문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문장의 짜임을 묻는 유형

01 <보기>의 ㉠~㉢의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그 일은 힘이 들었지만, 뜻깊은 작업이었다.
- ㉡ 어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웃놀이를 즐겼다.
- ㉢ 형우는 수학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다.
- ㉣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준비물을 챙기라고 말씀하셨다.

- ① ㉠에서 '그 일은 힘이 들었지만'에는 서술절이 들어 있다.
- ② ㉡에서 연결 어미 뒤에 나오는 절에서는 주어 생략되어 있다.
- ③ ㉢에서 '함께'를 '모여서'로 바꾸면 ㉢은 겹문장이 된다.
- ④ ㉣에서 '수학 시험에서 틀린'은 '문제'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 ⑤ ㉣에서 '준비물을 챙기라고'는 간접 인용절로 안겨 있다.

유형 이해

문장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습 내용이다. 홑문장과 겹문장을 구별할 줄 아는지,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을 구별할 줄 아는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을 구별할 줄 아는지, 안은문장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수능에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유형 공략

- 1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 그 관계가 몇 번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2 공통된 주어나 서술어는 생략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3 문장의 짜임새를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④ ㉣에서 '수학 시험에서 틀린'은 체언인 '문제'를 꾸며 주는 절이다.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고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은 관형사절이지 부사절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의 '그 일은 힘이 들었지만'에서 주어는 '그 일은'이고 서술어는 '힘이 들었지만'이다. '힘이 들었지만'은 다시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인 절 형식이기 때문에 서술절이다.
- ② ㉡에서 연결 어미 '-지만'의 뒤에 나오는 절에는 '뜻깊은 작업이었다'라는 서술어만 있는데, 이것의 주어는 의미상 '그 일은'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앞 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또한 서술어 '뜻깊은 작업이었다' 안에 있는 관형사절 '뜻깊은'의 주어인 '작업(이)' 역시 생략되었다.
- ③ ㉢에서 '함께'를 '모여서'로 바꾸면 '마을 사람들이'가 주어이고 '모여서'가 서술어인 새로운 절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더 생긴 것이므로 ㉢은 겹문장이 된다.
- ⑤ '준비물을 챙기라고'는 선생님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인용한 사람의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답은꼴 발문 Tip

- '높임 표현'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의 ㉠~㉣에서 높이는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의 ㉠~㉣에서 높이는 대상을 ㉡~㉣에서 찾아 알맞게 짝지은 것은?

02

높임 표현을 묻는 유형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에서 높이는 대상을 모두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국어의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상대 높임은 듣는 이를 반드시 높이는 범주는 아니라는 점에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과는 차이가 있다.

보기 2

- ㉠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셨다.
- ㉡ 할아버지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 ㉢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	㉡	㉢
①	주체	객체	듣는 이
②	주체, 객체	듣는 이	주체, 객체
③	객체	주체, 듣는 이	주체, 객체
④	주체, 듣는 이	주체, 객체	객체
⑤	주체, 객체	주체, 듣는 이	객체, 듣는 이

유형 이해

국어는 높임 표현이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문법적으로 높이는 경우와 어휘적으로 높이는 경우 모두 발달해 있다. 높임 표현에서는 높이는 대상이 서술어의 주체인지, 객체인지, 말을 듣는 상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체를 높이는 데에서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지 간접적으로 높이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를 높이는 데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높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항은 높이는 대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유형 공략

- ① 높이는 대상이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② 높이는 대상이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③ 높이는 대상이 말을 듣는 상대인지를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⑤ ㉠에서는 '께서'가 붙은 주어의 지시 대상(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또 '-시-'를 통해서도 주체를 높이고 있다. 한편 '께'가 붙은 부사어의 지시 대상(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드리다'를 통해서도 객체를 높이고 있다. ㉡에서는 '께서'가 붙은 주어의 지시 대상(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또 '-어요'를 사용하여(해요체)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에서는 목적어의 지시 대상(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테리고'가 아닌 '모시고'를 사용하고 있다. 또 종결 어미 '-습니다'를 통해(하십시오체)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높임의 대상은 ㉠에서는 '주체, 객체'이고 ㉡에서는 '주체, 듣는 이'이고 ㉢에서는 '객체, 듣는 이'이다.

오답 풀이

- ① ㉠, ㉡, ㉢ 모두 틀렸다.
- ② ㉡, ㉢이 틀렸다.
- ③ ㉠, ㉢이 틀렸다.
- ④ ㉠, ㉡, ㉢ 모두 틀렸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사동문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는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사동 표현을 묻는 유형

03 <보기>를 바탕으로 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동문의 서술어인 주동사에 사동 접미사를 붙여 만든 사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동사에 ‘-게 하다’를 붙이는 방법이다.

[A] 주동문의 서술어	자동사	타동사
[B] 주동문	배가 찢다.	학생이 책을 읽었다.
[C]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그들이 배를 찢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 선생님이 학생을 책을 읽혔다.
[D]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그들이 배를 뜨게 했다. 그들이 배가 뜨게 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게 했다. 선생님이 학생이 책을 읽게 했다.

- ① [A]가 자동사일 때, [B]의 주어는 [C]에서 목적어로 나타나는군.
- ② [A]가 자동사일 때, [B]의 주어는 [D]에서 목적어로도 나타나고 안긴절의 주어로도 나타나는군.
- ③ [A]가 타동사일 때, [B]의 주어는 [C]에서 부사어나 목적어로 나타나는군.
- ④ [A]가 타동사일 때, [B]의 주어는 [D]에서 부사어로도 나타나고 안긴절의 주어로도 나타나는군.
- ⑤ [A]가 자동사일 때, [B]의 주어는 [D]에서도 나타나는군.

유형 이해

사동문의 주어가 주동문의 주어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동 표현의 기본적 의미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주동문이 표현하는 사건과 사동문이 표현하는 사건의 의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주동문에 나타난 문장 성분들이 사동문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주동문과 사동문의 의미 차이를 이해한다.
- ② 사동사가 쓰인 사동문과 ‘-게 하다’가 쓰인 사동문의 두 가지 유형의 사동문이 있음을 이해한다.
- ③ 두 가지 유형의 사동문과 주동문에서 문장 성분의 쓰임 차이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⑤ [C]에서 주어인 ‘그들(이)’와 ‘선생님(이)’는 [B]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사동문의 주어는 주동문의 주어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주체로서, 주동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A]가 자동사일 때, [B]의 주어인 ‘배(가)’는 [C]에서 목적어 ‘배를’로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A]가 자동사일 때, [B]의 주어인 ‘배(가)’는 [D]에서 목적어 ‘배를’로 나타나거나 ‘배가 뜨게’라는 안긴절의 주어로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A]가 타동사일 때, [B]의 주어인 ‘학생(이)’는 [C]에서 부사어 ‘학생에게’나 목적어 ‘학생을’로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A]가 타동사일 때, [B]의 주어인 ‘학생(이)’는 [D]에서 부사어 ‘학생에게’로 나타나거나 ‘학생이 책을 읽게’라는 안긴절의 주어로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유형 연습 4

▶ 21052-0049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의 구분을 묻는 유형

01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에서 찾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을 서로 긴밀하게 구성하기 위한 표현으로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이 있다.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대응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대응은 ㉡일반적으로 앞에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뒤에 나올 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보기 2

동생: 누나! 나 배고픈데.

누나: 나도 ㉠그래. 햄버거 시켜 먹을까?

동생: 좋지. (휴대 전화 화면을 보며) 누나 ㉡이거 어때?

누나: 좋은데, ㉢그런 말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배달이 늦는다고.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21052-0050

02

중세 국어의 비통사적 합성어를 묻는 유형

밑줄 친 단어가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합성어 가운데에는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다른 어간과 직접 결합한 ‘뛰놀다’, ‘검붙다’ 등과 같은 합성 용언들도 있다. 이들은 어간은 어미와 결합하여 사용된다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다른 어간과 직접 결합한 단어가 현대 국어보다 풍부했다고 알려져 있다.

- ㉠ 가마괴 와 디떡더니 (까마귀가 와서 짝어 떡더니)
- ㉡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나라에 빌어먹으러 오시니)
- ㉢ 울며 웁든니는 곳고리는 (울며 웁아 다니는 피꼬리는)
- ㉣ 나조히 다시 올마가더니라 (저녁에 다시 웁아가더니라)
- ㉤ 딛얼거 지순 디 안자쇼매 (매고 웁어 지은 데에 앉아 있음에)

유형 연습 4 Zoom In

짧은골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대응 표현과 지시 표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을 바르게 묶은 것은?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의 구분을 묻는 유형

01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에서 찾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을 서로 긴밀하게 구성하기 위한 표현으로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이 있다.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대응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대응은 ㉡일반적으로 앞에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뒤에 나온 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보기 2

동생: 누나! 나 배고픈데.
 누나: 나도 ㉠그래. 햄버거 시켜 먹을까?
 동생: 좋지. (휴대 전화 화면을 보며) 누나 ㉡이거 어때?
 누나: 좋은데, ㉢그런 말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배달이 늦는다고.

	㉠	㉡	㉢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b	c	a
⑤	c	a	b

유형 이해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의 정의,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의 차이, 대응 표현의 두 종류를 이해하고, 담화에서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1 담화에서 지시 표현과 대응 표현의 쓰임을 이해한다.
- 2 대응 표현 중 앞에 나온 말을 대응하는 경우와 뒤에 나온 말을 대응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③ ㉠은 '배고프다'라는 의미로 선행하는 동생의 발화 중 '배고픈데'를 다시 가리키는 대응 표현이다. ㉡는 휴대 전화 화면의 한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는 후행하는 '여기 배달이 늦는다고'를 가리키는 대응 표현이다.

㉠은 지시 표현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예는 ㉡이고, ㉡은 앞에 나온 말을 대응하는 표현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예는 ㉢이며, ㉢은 뒤에 나온 말을 대응하는 표현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예는 ㉣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올바르게 제시한 ③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과 ㉠~㉣의 관계를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짧은골 발문 Tip

•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02

중세 국어의 비통사적 합성어를 묻는 유형

밑줄 친 단어가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합성이 가운데에는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다른 어간과 직접 결합한 ‘뛰놀다’, ‘검붙다’ 등과 같은 합성 용언들도 있다. 이들은 어간은 어미와 결합하여 사용된다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다른 어간과 직접 결합한 단어가 현대 국어보다 풍부했다고 알려져 있다.

- ① 가마괴 와 딤떡터니 (까마귀가 와서 짝어 떡터니)
- ②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나라에 빌어먹으러 오시니)
- ③ 옴며 옴든니는 곳고리는 (옴며 옴아 다니는 께꼬리는)
- ④ 나조히 다시 옴마가터니라 (저녁에 다시 옴아가터니라)
- ⑤ 떡얼거 지순 디 안자쇼매 (떡고 얼어 지은 데에 앉아 있음에)

유형 이해

중세 국어의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별, 중세 국어의 특징, 어간과 어미의 분석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한다.
- ②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의 구별 방법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④ ‘옴마가터니라’는 동사 어간 ‘옴-’과 동사 어간 ‘가-’가 연결 어미 ‘-아’로 연결된 ‘옴마가-’에 어미가 결합된 단어이다. 따라서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다른 어간과 직접 결합한 단어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딤떡터니’는 동사 어간 ‘딤-’과 동사 어간 ‘떡-’이 직접 연결된 ‘딤떡-’에 어미가 결합된 단어이다. 따라서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다른 어간과 직접 결합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② ‘빌머그라’는 동사 어간 ‘빌-’과 동사 어간 ‘떡-’이 직접 연결된 ‘빌떡-’에 어미가 결합된 단어이다. 따라서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다른 어간과 직접 결합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③ ‘옴든니’는 동사 어간 ‘옴-’과 동사 어간 ‘든니-’가 직접 연결된 ‘옴든니-’에 어미가 결합된 단어이다. 따라서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다른 어간과 직접 결합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⑤ ‘떡얼거’는 동사 어간 ‘떡-’과 동사 어간 ‘얼-’이 직접 연결된 ‘떡얼-’에 어미가 결합된 단어이다. 따라서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다른 어간과 직접 결합한 단어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유형 연습 ①

[01~03]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 뉴스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앵커 멘트]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전국의 일출 명소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해맞이 명소인 ○○에 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현장 스케치〉

○○은 우리나라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전 7시 43분, 붉은 해가 솟아오릅니다. 멀리 보이는 붉은 바다 위로 순식간에 솟구치는 해는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인터뷰〉

박□□(◇◇시): 정말 멋있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게 해 달라고 빌었어요.

김▽▽(××군): 올해가 호랑이해잖아요. 용맹스러운 기상의 호랑이처럼 힘차게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

〈현장 보도〉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고 저마다 소원을 빌며 희망 가득한 새해가 찾아오길 기원했습니다.



새해 아침을 밝게 비춘 해처럼, 새 희망의 임인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맞이 명소 ○○에서 이△△ 기자였습니다.

▶ 21052-0051

01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을 묻는 유형 위 방송 뉴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자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 ②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시민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 ③ 기자가 현장 스케치, 현장 보도 등을 통해 사건 현장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앵커가 뉴스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뉴스 내용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전하고 있다.
- ⑤ 앵커가 뉴스 내용을 요약한 후 사건을 전할 기사를 소개하며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 21052-0052

02 매체 자료의 비판적, 주제적 수용을 묻는 유형 위 방송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복수의 영상을 활용하여 뉴스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어떤 내용이 영상으로 시각화되었는지 살펴봐야겠군.
- ② 사건과 관련한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뉴스이므로 쟁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평가해야겠군.
- ③ 뉴스 내용에 대한 방송사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방송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확인해야겠군.
- ④ 시민과의 인터뷰가 뉴스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터뷰 대상자를 편파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는지 따져 봐야겠군.
- ⑤ 앵커가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뉴스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판단해야겠군.

▶ 21052-0053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을 묻는 유형 <조건>에 따라 위 방송 뉴스 첫 화면에 제시될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앵커의 멘트가 진행될 때 해당 뉴스의 제목은 화면의 하단에 제공되기도 한다. 제목은 이어질 뉴스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되, 짧은 시간 동안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므로 간결해야 한다.

- ① 올해 첫 해돋이는 오전 7시 36분
- ② 2022년 임인년을 알리는 해 떠올라
- ③ 해넘이·해돋이 전국 명소마다 '복적'
- ④ 반갑다, 새해! 지구촌 새해맞이 풍경 이모저모
- ⑤ 세밑 최강 한파 ... 첫 해돋이는 구름에 가릴 듯, 추위는 언제까지?

유형 연습 1 Zoom In

답은꼴 발문 Tip

- ㉠~㉢을 통해 알 수 있는 방송 뉴스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위의 뉴스 기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을 묻는 유형

01 위 방송 뉴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자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 ②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시민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 ③ 기자가 현장 스케치, 현장 보도 등을 통해 사건 현장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앵커가 뉴스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뉴스 내용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전하고 있다.
- ⑤ 앵커가 뉴스 내용을 요약한 후 사건을 전할 기자를 소개하며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 이해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매체가 제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에 제시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수용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제시된 매체 자료의 종류를 파악한 후,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② 각 선지에 제시된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제시된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이 선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정답 풀이

④ 이 방송 뉴스는 기자가 마무리하고 있으며, 앵커는 뉴스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감상을 전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 ① 기자는 '해맞이 명소인 ○○'라는 장소에서 '해맞이'라는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 ② 기자는 '박□□(◇◇시)'와 '김▽▽(××군)'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시민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 ③ 기자는 '〈현장 스케치〉, 〈현장 보도〉' 등을 통해 사건 현장인 해맞이 명소 ○○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앵커는 '전국의 일출 명소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인파로 붐볐습니다.'라고 뉴스 내용을 요약한 후 해맞이 명소인 ○○에 다녀온 이△△ 기자를 소개하며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답은꼴 발문 Tip

- 위 방송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는 위 뉴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작성한 댓글 중 일부이다. 독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체 자료의 비판적, 주체적 수용을 묻는 유형

02 위 방송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복수의 영상을 활용하여 뉴스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어떤 내용이 영상으로 시각화되었는지 살펴봐야겠군.
- ② 사건과 관련한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뉴스이므로 쟁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평가해야겠군.
- ③ 뉴스 내용에 대한 방송사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방송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확인해야겠군.
- ④ 시민과의 인터뷰가 뉴스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터뷰 대상자를 편파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는지 따져 봐야겠군.
- ⑤ 앵커가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뉴스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판단해야겠군.

유형 이해

매체 자료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동일한 매체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에 따라 평가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에 내포된 시각과 관점을 확인하고 매체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나타난 매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내용을 어떠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파악한다.
- ② 각 선지에 제시된 매체 자료 수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제시된 자료의 내용이 선지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① 해당 뉴스는 해돋이 풍경, 현장 보도 화면 등 여러 영상을 활용하여 뉴스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시청자가 어떤 내용이 영상으로 시각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해당 뉴스는 해맞이에 대한 사건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사건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청자가 뉴스에서 쟁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해당 뉴스는 뉴스 내용에 대한 방송사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청자가 해당 방송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시민과의 인터뷰가 뉴스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일어난 일에 대한 감상을 묻는 것이므로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를 편파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는지 따져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앵커가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간은 기자가 제시하고 있다.

답은골 발문 Tip

- (가)와 (나)에 나타난 제목의 활용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조건>에 따라 신문 기사의 표제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을 묻는 유형

03

<조건>에 따라 위 방송 뉴스 첫 화면에 제시될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앵커의 멘트가 진행될 때 해당 뉴스의 제목은 화면의 하단에 제공되기도 한다. 제목은 이어질 뉴스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되, 짧은 시간 동안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므로 간결해야 한다.

- ① 올해 첫 해돋이는 오전 7시 36분
- ② 2022년 임인년을 알리는 해 떠올라
- ③ 해넘이·해돋이 전국 명소마다 '북적'
- ④ 반갑다, 새해! 지구촌 새해맞이 풍경 이모저모
- ⑤ 세밑 최강 한파 ... 첫 해돋이는 구름에 가릴 듯, 추위는 언제까지?

유형 이해

매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창의적인 표현, 적절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에 사용된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거나 매체의 복합 양식적인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에 사용된 표현이 그 내용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나타난 매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다.
- ② <보기>에 제시된 매체 자료의 특성 또는 <조건>에 제시된 내용을 파악한다.
- ③ 각 선지에 제시된 내용이 <보기> 또는 <조건>에 제시된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② 2022년 새해의 해돋이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이므로 '2022년 임인년을 알리는 해 떠올라'라는 제목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올해 첫 해돋이는 오전 7시 36분'이라는 제목은 ○○에서 오전 7시 43분에 해돋이가 시작되었다는 해당 뉴스의 핵심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해넘이·해돋이 전국 명소마다 '북적''이라는 제목은 ○○에서의 해돋이 소식을 전하는 해당 뉴스의 핵심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반갑다, 새해! 지구촌 새해맞이 풍경 이모저모'라는 제목은 우리나라의 해돋이 소식을 전하는 해당 뉴스의 핵심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세밑 최강 한파 ... 첫 해돋이는 구름에 가릴 듯, 추위는 언제까지?'라는 제목은 새해를 알리는 붉은 해가 떠올랐다는 해당 뉴스의 핵심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며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매체

유형 연습 ②

[01~03] 다음은 인터넷 블로그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블로그 152개의 글 목록 열기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

사람마음 2021. 5. 19. 14:00 URL 복사 +이웃 추가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적이고 근면하며 충동적이고 비판적이며 고집스럽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질투심이 많고 고집스러우며 비판적이고 충동적이며 근면하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호감을 느끼십니까? 두 사람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동일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게 더 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인 ‘초두 효과’나 ‘최신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동일한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우리의 뇌는 받은 정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들인 정보를 기준으로 나중에 입력되는 정보를 처리하죠. 이를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초두 효과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문 기사의 제목, 처음 만난 사람의 첫인상 등이 초두 효과를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정보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그 후에 입력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초두 효과와 반대되는 설명도 있습니다. ‘최신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최근에 입력된 정보에 의해 먼저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최근에 입력된 정보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하죠. 대표적으로 무언가를 외울 때에 가장 마지막에 외운 내용이 이전에 외운 내용보다 더 잘 기억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설명,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요?

우리는 초두 효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최신 효과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할 때, 첫 순서와 마지막 순서의 발표자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데, 이는 첫 발표자가 ‘첫 순서’라는 강한 인상을 남겨 기억하기 쉽고, 마지막 발표자는 ‘가장 마지막에’ 발표를 진행하므로 단기 기억을 남기기 쉬워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첫 순서와 마지막 순서가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 역시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초두 효과가 더욱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의 경험이 이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음식이나 장소에 대한 첫 경험, 사람에 대한 첫인상 등이 초두 효과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처음 먹어 볼 때 그 음식이 굉장히 맛이 없었다면, 이후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때 그 음식을 제외하겠죠. 반대로 처음 먹어 본 음식이지만 굉장히 맛있었다면, 다음에 식당을 갔을 때 그 음식을 주문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사람에 대한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초두 효과가 일어난 예가 됩니다.

반면, 최신 효과가 더욱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장 최근에 경험한 정보가 오래 가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어떠한지 오랫동안 만나게 되면 어느새 첫인상은 기억에서 흐려지기 마련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도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미지에 의해 평가가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는 거의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초두 효과를 더욱 신뢰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책의 표지, 드라마와 영화의 예고편 등을 통해 초두 효과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신 효과 역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를 열렬히 시청하다가도 최종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드라마를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되겠죠. 이렇게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최근순 | 추천순 | 반대순

제비꽃: 저도 첫인상이 좋았던 친구와 끝까지 가는 편이니, '사람마음' 님처럼 초두 효과가 더 강렬하게 작용하나 봐요.

↳ **사람마음:**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제 친구는 인간관계가 오래 유지되려면 최신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서, 한참 언쟁이 있었답니다.

↳ **제비꽃:** '사람마음' 님 글을 처음 읽었을 때에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이것도 초두 효과인 거죠? ^^

↳ **사람마음:** 그렇죠. 하지만 저는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최신 효과도 강렬하게 작용되었으면 한답니다. 그래서 제 글을 계속 읽으셨으면 해요.

↳ **제비꽃:** '사람마음' 님과 이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블로그에 더 자주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매의 눈: 출처가 있으면 전문성에 더 믿음이 갈 듯.

↳ **둥글둥글:** 저는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시비 걸지 맙시다.

↳ **매의 눈:** 그게 왜 시비인가요? 출처를 밝혀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중요합니다.

↳ **사람마음:**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출처를 달아서 수정본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 **매의 눈:** 감사합니다.

공부하자: 초두 효과, 최신 효과라는 말을 처음 들어 봤어요. 새로 배워 갑니다. 퍼 가요.

↳ **사람마음:** 감사합니다. 이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퍼 가실 때에는 제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이라는 것을 밝혀 주세요.

▶ 21052-0054

뉴 미디어의 특성을 묻는 유형

01 위 블로그의 필자가 사용한 표현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리 현상과 관련된 상반된 견해를 소개한 뒤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제시했다.
- ②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식 재산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혀 독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 ③ 문자 언어보다는 시각 자료, 음성 자료를 활용하여 복합 양식적으로 구성된 자료에 비중을 두어 게시물을 작성했다.
- ④ 심리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하이퍼링크 형태로 연결하여 독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 ⑤ 불특정 다수인 독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심리학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설명할 때에 학술 자료에 제시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인용했다.

▶ 21052-0055

매체 자료 생산의 소통 목적을 묻는 유형

02 다음은 블로그 이용과 관련한 연구 결과의 일부이다. 위 블로그에 나타난 댓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제비꽃'이 위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블로그 이용자들에게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한 결과, 4,880개의 답변이 도출되었다. 이 중 높은 빈도를 보이는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	답변 수(개)	
게이트 키핑*과 같은 장치가 없어 기존 매체에서 볼 수 없는 폭넓은 관점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	821 ㉠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	788 ㉡
나와 의견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기 때문	754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720 ㉣
새로운 내용에 접근하여 지적 자극을 얻을 수 있기 때문	497	
기존 매체를 싫어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	402 ㉤

*게이트 키핑: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일.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052-0056

매체 언어의 창의적 활용을 묻는 유형

03 위 블로그의 필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검색어를 <보기>와 같이 작성했을 때, 게시물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검색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초두 효과
- ㉡ 최신 효과
- ㉢ 치유의 심리학
- ㉣ 뇌의 정보 처리
- ㉤ 두근두근 내 마음
- ㉦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법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

유형 연습 ② Zoom In

짧은 글 발문 Tip

-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누리소통망(SNS)이 지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이 동영상 만들 때에 사용한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뉴 미디어의 특성을 묻는 유형

01 위 블로그의 필자가 사용한 표현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리 현상과 관련된 상반된 견해를 소개한 뒤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제시했다.
- ②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식 재산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혀 독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 ③ 문자 언어보다는 시각 자료, 음성 자료를 활용하여 복합 양식적으로 구성된 자료에 비중을 두어 게시물을 작성했다.
- ④ 심리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하이퍼링크 형태로 연결하여 독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 ⑤ 불특정 다수인 독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심리학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설명할 때에 학술 자료에 제시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인용했다.

유형 이해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인 뉴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뉴 미디어는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매체로,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지문이 뉴 미디어의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나타난 뉴 미디어의 특성을 확인한다.
- ② 각 선지에 제시된 내용이 지문에 나타난 뉴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①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상반된 견해인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소개한 뒤 자신은 ‘초두 효과’를 더 신뢰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처를 밝혀 달라는 ‘매의 눈’의 조언을 수용하고 있으나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 ③ 시각 자료, 음성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문자 언어에 비중을 두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 ④ 하이퍼링크는 특정한 단어나 기호 등을 클릭하면 해당 문서의 다른 부분, 해당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나 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심리 현상과 관련한 사례를 하이퍼링크 형태로 연결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독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
- ⑤ 심리학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설명할 때에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학술 자료에 제시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의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체 자료 생산의 소통 목적을 묻는 유형

02 다음은 블로그 이용과 관련한 연구 결과의 일부이다. 위 블로그에 나타난 댓글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제비꽃'이 위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블로그 이용자들에게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한 결과, 4,880개의 답변이 도출되었다. 이 중 높은 빈도를 보이는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	답변 수(개)	
게이트 키핑*과 같은 장치가 없어 기존 매체에서 볼 수 없는 폭넓은 관점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	821 ㉠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	788 ㉡
나와 의견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기 때문	754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720 ㉣
새로운 내용에 접근하여 지적 자극을 얻을 수 있기 때문	497	
기존 매체를 싫어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	402 ㉤

*게이트 키핑: 기사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일

- ① ㉠ ② ㉡ ③ ㉢ ④ ㉣ ⑤ ㉤

유형 이해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고려하는 소통 목적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에는 소통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과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 등의 소통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매체 자료가 어떠한 소통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1 지문에 나타난 매체 자료가 어떠한 소통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한다.
- 2 각 선지에 제시된 내용이 지문에 제시된 매체 자료 생산의 소통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③ '제비꽃'은 '저도 첫인상이 좋았던 친구와 끝까지 가는 편이니, '사람마음' 넘처럼 초두 효과가 더 강렬하게 작용하나 봐요.', '사람마음' 님과 이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블로그에 더 자주 들어오게 됩니다.' 등을 통해 자신과 의견이 비슷한 '사람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고 있어, '나와 의견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게이트 키핑과 같은 장치가 없어 기존 매체에서 볼 수 없는 폭넓은 관점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은 '제비꽃'이 위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은 '제비꽃'이 위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은 '제비꽃'이 위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기존 매체를 싫어하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은 '제비꽃'이 위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답은꼴 발문 Tip

-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위 블로그에 새로운 내용을 이어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매체 언어의 창의적 활용을 묻는 유형

03

위 블로그의 필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검색어를 <보기>와 같이 작성했을 때, 게시물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검색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초두 효과
- ㉡ 최신 효과
- ㉢ 치유의 심리학
- ㉣ 뇌의 정보 처리
- ㉤ 두근두근 내 마음
- ㉦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법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 ㉦

유형 이해

<보기>에 제시된 표현이 매체 언어의 소통 맥락을 고려할 때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보기>는 매체 언어의 내용 또는 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된다. <보기>의 내용을 숙지한 후 지문과의 부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의 내용을 파악한다.
- ② 지문의 내용을 파악한 후, <보기>와 대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① 게시물은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인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 ‘초두 효과’, ㉡ ‘최신 효과’, ㉣ ‘뇌의 정보 처리’를 게시물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검색어로 고른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치유의 심리학’, ㉤ ‘두근두근 내 마음’, ㉦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법’은 게시물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검색어로 적절하지 않다.

(나)

1



@우리 학교 벼룩시장을 소개합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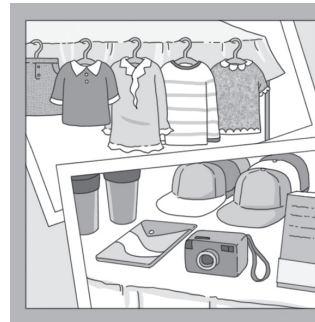
○월 ○일, △△ 고등학교 인근 천변에서 '△△ 고등학교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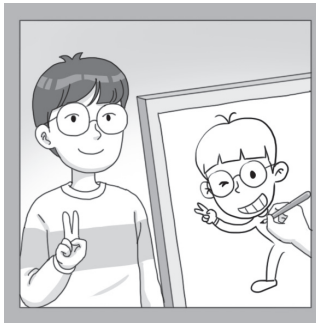
공예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물품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드네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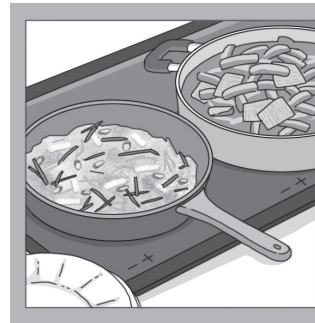
학용품, 생활 소품, 의류까지, 자신에게는 필요 없으나 다른 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개인이 판매하기도 합니다.

5



캐릭터 그리기와 같은 다양한 체험은 벼룩시장의 즐거움을 한층 더하기도 했습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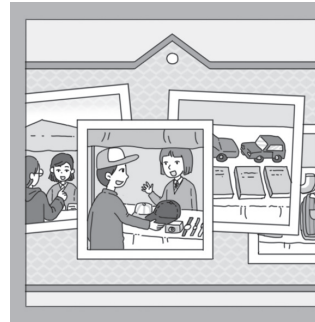
먹거리가 빠지면 서운하죠? 맛있는 부침개,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었네요.

7



마술 동아리의 공연은 벼룩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주는 데에 한몫 톡톡히 했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8



재미가 가득한 주말 오후의 '△△ 고등학교 벼룩시장'은 다음 학기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만나요.

▶ 21052-0057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을 묻는 유형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052-0058

02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묻는 유형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참여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음성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② 민수는 학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사진 파일을 전달하고 있다.
 ③ 지연은 동영상 자료를 전송하며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④ 정우는 지역 주민에게 전해 받은 인터뷰 녹음 파일을 대화방에 공유하고 있다.
 ⑤ 상희는 문자와 그림말(이모티콘)을 함께 사용하여 사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21052-0059

03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을 묻는 유형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과 이미지가 복합 양식적으로 결합된 카드를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②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감성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여 제작했다.
 ③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을 모두 준수했다.
 ④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카드와 카드 사이에 이미지를 삽입했다.
 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카드에 나타난 문장의 종결 어미를 동일하게 제시했다.

▶ 21052-0060

04

매체의 언어적 표현과 심미적 가치를 묻는 유형

(나)의 ㉠를 <조건>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문문 형식을 활용하여 나타낼 것.
- 이어지는 카드와의 흐름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할 것.
- 사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문장을 제시할 것.

- ①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한 우리 학교 행사를 살펴볼까요?
 ②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날을 느껴 볼까요?
 ③ 벚룩시장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소개합니다.
 ④ 봄꽃이 화사한 지난 주말, ‘△△ 고등학교 벚룩시장’이 열렸습니다.
 ⑤ 우리 학교에 장터가 열렸어요. 곳곳에 숨어 있는 재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유형 연습 3 Zoom In

짧은 글 발문 Tip

- 위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서 제작자가 떠올린 생각 중 카드 뉴스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가)의 ㉠~㉣을 바탕으로 학생이 세운 매체 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을 묻는 유형

01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유형 이해

매체 생산 계획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생산된 매체 자료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매체 생산 계획은 학생의 생각, 메모, 학생들의 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이들 내용에서 언급된 매체 생산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한 후, 해당 정보가 매체 자료에 구현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1 제시된 자료에서 매체 생산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
- 2 파악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된 매체 자료를 꼼꼼히 읽는다.
- 3 파악한 정보가 매체 자료에 구현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⑤ 벼룩시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지역 아동 센터에 기부한다는 내용은 카드 뉴스에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공예 동아리 친구들이 직접 만든 물품들을 파는 곳을 취재한 내용은 '공예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물품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드네요.'라는 뉴스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 ② 다양한 먹거리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는 내용은 '먹거리가 빠지면 서운하죠? 맛있는 부침개,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었네요.'라는 뉴스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 ③ 마술 동아리에서 보여 줬던 마술 공연은 '마술 동아리의 공연은 벼룩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주는 데에 한몫 톡톡히 했죠. 정말 신기했습니다!'라는 뉴스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 ④ 동아리 단위로 참여하지 않고 개인이 소장하던 물품을 파는 경우를 소개한 내용은 '학용품, 생활소품, 의류까지, 자신에게는 필요 없으나 다른 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개인이 판매하기도 합니다.'라는 뉴스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답은골 발문 Tip

-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의 대화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묻는 유형

0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참여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음성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② 민수는 학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사진 파일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지연은 동영상 자료를 전송하며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정우는 지역 주민에게 전해 받은 인터뷰 녹음 파일을 대화방에 공유하고 있다.
- ⑤ 상희는 문자와 그림말(이모티콘)을 함께 사용하여 사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유형 이해

매체를 활용한 대화에 나타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매체에 따라 정보를 제시하는 양식과 정보를 구성하고 유통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매체의 언어적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양식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어떠한 매체를 토대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파악한다.
- ② 제시된 지문과 선지에 제시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⑤ 상희는 민수가 올린 사진에 대해 '사진 멋지다!'라는 문구와 '👍👍'라는 그림말(이모티콘)을 함께 활용하여 사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대화 참여자들은 '모이기도 힘'들어 휴대 전화 메시지를 활용하여 문자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② 민수는 '내가 벼룩시장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기사 내용에 어울리는 걸로 배치하면 좋을 듯. 내려받아서 각자 필요한 부분 갖고 가.'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지연은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마술 공연 등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문자 언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동영상 자료를 전송하지 않았다.
- ④ 정우는 인터뷰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본인이 지역 주민을 직접 인터뷰한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전해 받은 것이 아니며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짧은골 발문 Tip

- (가)의 의사 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나)에서 사용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을 묻는 유형

03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과 이미지가 복합 양식적으로 결합된 카드를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 ②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감성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여 제작했다.
- ③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을 모두 준수했다.
- ④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카드와 카드 사이에 이미지를 삽입했다.
- 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카드에 나타난 문장의 종결 어미를 동일하게 제시했다.

유형 이해

매체 언어에 나타난 복합 양식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매체 언어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매체 자료에 어떠한 복합 양식성이 나타나는지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제시된 매체 자료에 나타난 복합 양식성을 파악한다.
- ② 각 선지에 제시된 복합 양식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한다.
- ③ 각 선지에 제시된 내용이 지문에 제시된 복합 양식성을 설명한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① 한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과 사진 자료가 복합 양식적으로 결합된 카드를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오답 풀이

- ② ‘먹거리가 빠지면 서운하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등 감성적 요소를 제시했다.
- ③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 중 ‘왜’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각 카드는 글과 어울리는 그림을 배치했으며, 이들 사이에 이미지를 삽입하지 않았다.
- ⑤ ‘만드네요’, ‘합니다’ 등 문장의 종결 어미는 동일하지 않게 제시했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는 (나)에 달린 댓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의 표제와 부제를 <조건>에 따라 작성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매체의 언어적 표현과 심미적 가치를 묻는 유형

04 (나)의 @를 <조건>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문문 형식을 활용하여 나타낼 것.
- 이어지는 카드와의 흐름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할 것.
- 사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문장을 제시할 것.

- ①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한 우리 학교 행사를 살펴볼까요?
- ②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날을 느껴 볼까요?
- ③ 벼룩시장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소개합니다.
- ④ 봄꽃이 화사한 지난 주말, '△△ 고등학교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 ⑤ 우리 학교에 장터가 열렸어요. 곳곳에 숨어 있는 재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유형 이해

<조건>에 따라 매체 자료에 제시된 내용과 표현을 수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고 처음 생산한 매체 자료와 수정한 매체 자료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조건>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한다.
- ② 각 선지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한다.
- ③ <조건>에 제시된 내용이 선지에 제시된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①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한 우리 학교 행사를 살펴볼까요?'는 의문문 형식이 활용되었으며, 이어지는 내용인 벼룩시장에 대한 소개가 '우리 학교 행사'와 관련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봄꽃을 나타내는 사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따스한 봄바람'이라는 문구를 활용하여 문장을 제시했다.

오답 풀이

②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날을 느껴 볼까요?'는 의문문 형식이 활용되었으며 사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문장이거나, 이어지는 내용인 벼룩시장에 대한 소개와 관련성이 없다.

③ '벼룩시장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소개합니다.'는 의문문 형식이 활용되었으며 이어지는 내용인 벼룩시장에 대한 소개와 관련이 있으나, 사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문장이 아니다.

④ '봄꽃이 화사한 지난 주말, '△△ 고등학교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는 이어지는 내용인 벼룩시장에 대한 소개와 관련이 있으며 사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문장이거나, 의문문 형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⑤ '우리 학교에 장터가 열렸어요. 곳곳에 숨어 있는 재미를 찾아보았습니다.'는 이어지는 내용인 벼룩시장에 대한 소개와 관련이 있으나, 의문문 형식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사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문장이 아니다.

수능완성



국어영역 | **독서·문학·언어와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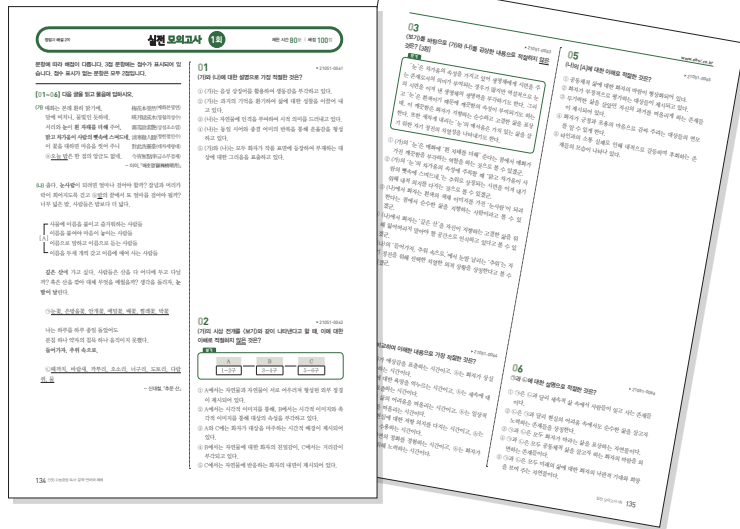
실전편

수능완성 <실전편>은 최근 3개년도에 걸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문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전과 가장 가까운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실전처럼 구성된 45개 문항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풀어 봄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문제 풀이 후,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여 국어영역의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45개 문항씩 총 5회분의 모의고사를 수록한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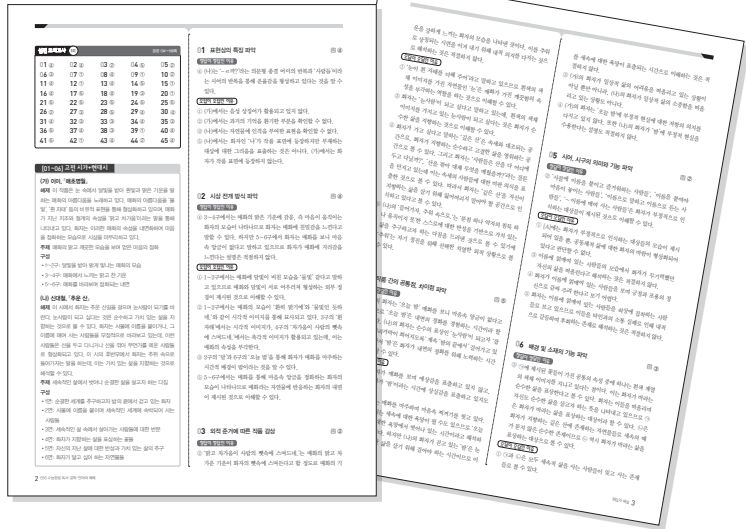
실제 수능 국어영역에 응시한다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 보는 과정에서, 실전 감각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에서는 각 선지에서 정답과 오답의 핵심 요소가 되는 부분을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선지가 적절/부적절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 풀이의 사고 과정을 기를 수 있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학생 > EBS 교재 문제 검색

EBS 단추에서 문항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21052-0001]
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0
2. 40
3. 60
4. 80

※ EBS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교과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재 자료실

- 한글다운로드
- 교재이미지 활용
- 강의활용자료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이 책의 차례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1회	134
실전 모의고사 2회	160
실전 모의고사 3회	188
실전 모의고사 4회	214
실전 모의고사 5회	240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1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매화는 본래 환히 맑기에, 梅花本瑩然(매화본영연)
 달에 비치니, 물빛인 듯하네. 映月疑成水(영월의성수)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해 주어, 霜雪助素艶(상설조소염)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뺨속에 스며드네. 清寒徹人髓(청한철인수)
 이 꽃을 대하면 마음을 씻어 주니 對此洗靈臺(대차세령대)
 ㉠오늘 밤은 한 점의 앙금도 없네. 今宵無點滓(금소무점제)
 - 이이, 「매초명월(梅梢明月)」

(나) 출다.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잡념과 머리카락이 희어지도록 걷고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될까? 너무 넓은 밤,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다.

- [A]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 사람들
- 이름을 두세 개씩 갖고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사람들은 산을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혹은 산을 깎아 대체 무엇을 메웠을까?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눈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배꽃, 짚레꽃, 박꽃

나는 하루를 하루 종일 돌았어도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때까치, 바람새, 까투리, 오소리, 너구리, 도토리, 다람쥐, 물

- 신대철, 「추운 산」

01

▶ 21051-0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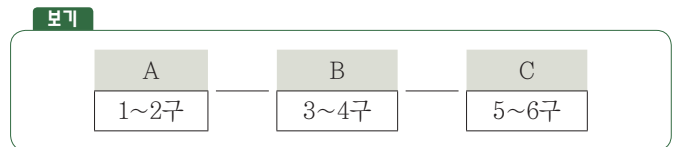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동일 시어와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여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02

▶ 21051-0062

(가)의 시상 전개를 <보기>와 같이 나타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연물과 자연물이 서로 어우러져 형성된 외부 정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② A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B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와 C에는 화자가 대상을 마주하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 ④ B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C에서는 거리감이 부각되고 있다.
- ⑤ C에서는 자연물에 반응하는 화자의 내면이 제시되어 있다.

03

▶ 21051-006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눈’은 차가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생명체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눈의 시련을 이겨 낸 생명체의 생명력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눈’은 흰색이기 때문에 깨끗함의 속성이 부여되기도 하는데, 이 깨끗함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표상한다. 또한 세차게 내리는 ‘눈’의 매서움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정진의 치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가)의 ‘눈’은 매화에 ‘흰 자태를 더해’ 준다는 점에서 매화가 가진 깨끗함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눈’의 차가움의 속성에 주목할 때 ‘맑고 차가움이 사람의 뺨속에 스며드네.’는 추위로 상징되는 시련을 이겨 내기 위해 내적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진 ‘눈사람’이 되려 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화자는 ‘깊은 산’을 자신이 지향하는 고결한 삶을 위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에서 눈발 날리는 ‘추위’는 자기 정진을 위해 선택한 치열한 외적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군.

04

▶ 21051-0064

㉠와 ㉡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애상감을 표출하는 시간이고, ㉡는 화자가 상실감을 표출하는 시간이다.
- ② ㉠은 세속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는 시간이고, ㉡는 세속에 대한 욕망이 표출하는 시간이다.
- ③ ㉠은 일상적 삶의 어려움을 떠올리는 시간이고, ㉡는 일상적 삶의 소중함을 떠올리는 시간이다.
- ④ ㉠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고, ㉡는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는 시간이다.
- ⑤ ㉠은 화자가 내면의 정화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는 화자가 내면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다.

05

▶ 21051-0065

(나)의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형상화되어 있다.
- ② 화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들이 제시되고 있다.
- ③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들이 제시되어 있다.
- ④ 화자가 긍정과 포용의 마음으로 감싸 주려는 대상들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 ⑤ 타인과의 소통 실패로 인해 내적으로 갈등하며 후회하는 존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06

▶ 21051-006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세속적 삶 속에서 사람들이 잇고 사는 존재들이다.
- ② ㉡은 ㉠과 달리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들을 상징한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가 바라는 삶을 표상하는 자연물이다.
- ④ ㉠과 ㉡은 모두 공동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외면하는 존재들이다.
- ⑤ ㉠과 ㉡은 모두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기대와 희망을 보여 주는 자연물이다.

[0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45년 알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 대한 여러 현안에 전격 합의했다. 그들은 미국, 영국, 소련에 더해 프랑스가 독일 분할 점령에 참여하는 것에 합의했는데, 독일 분할 점령의 목적은 독일을 비무장화, 비군사화, 그리고 분단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제 연합의 창설과 표결 방식도 합의되었다. 3국 정상들은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로써 1939년 소련의 폴란드 동부 점령 이후의 국경을 의미하는 '커즌선'이 소련과 폴란드의 경계로 확정되었고, 소련이 앞서 인정했던 친소 임시 정부, 즉 루블린 정부를 재조직하는 선에서 폴란드 정부 수립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는, 친소계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티토와 비공산주의 계열 망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소련은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 했다. 대신 서유럽 및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알타 회담 직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협정을 통해 미국은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약속받았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동반자로 삼음으로써 그가 알타에서 목적이었던 바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우선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끝내는 데 소련의 도움을 약속받은 것은 루스벨트가 알타에서 이루어 낸 성과였다. 당시 미국은 일본 열도 점령 과정에서 자국군의 커다란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만주에 주둔한 관동군의 존재는 미국의 걱정을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일본전 참전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루스벨트는 자신의 전후 계획의 핵심이었던 국제 연합에 소련이 참여하는 것을 확정했다.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정치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루스벨트는 새로운 국제기구, 즉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국제 연맹과는 달리 전쟁 방지를 위한 실제적 권력을 가지는 국제 연합을 창설할 계획이었다. 루스벨트는 국제 연합을 통해 약소국들이 특정 국가의 세력권 아래에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고,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강대국들의 협조 정치 및 신탁 통치 체제로 전환하고자 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구식민지 지역에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이 사라지게 되면 그곳은 미국 자본의 새로운 투자지, 즉 자본 수출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루스벨트 입장에서 알타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서유럽을 자유 무역 체제에 안정적으로 포함시킨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는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이제 막 파시즘 지배에서 벗어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대(對)파시즘 저항의 중심이었던 공산주의자들이 크나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목인을 얻었

기 때문에, 서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독려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소련은 동유럽 완충 지대의 확보와 독일 무력화라는 자국의 최우선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알타에서 스탈린은 미국이 희망한 ㉡신질서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스탈린은 루스벨트로부터 소련이 그간 주장해 왔던, 국제 연합에서의 비토권* 원칙을 받아 낼 수 있었다. 이로써 소련은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제 연합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결에 거부할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 1930년대 말 국제 연맹에서 축출되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소련은 이제 비토권 확보를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알타 회담 결과, 영국은 국제 질서의 조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여러 문제에서 처칠을 주변화시키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루스벨트는 영국을 아시아 문제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이는 영국이 일본과의 직접 교전국이었으며, 홍콩을 비롯한 동아시아 이권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 입장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였다. 루스벨트는 한반도 신탁 통치 참여국에서도 영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일본전 참전을 약속한 소련만을 동반자로 삼았다. 스탈린 역시 미국의 국제 연합 창설 방안에 적극 동의하는 과정에서 구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영국의 집착에 타격을 가했다. 처칠은 국제 연합의 창설이 홍콩 및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 등 영국 제국의 이권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으나, 스탈린은 이를 세계 지배욕이라는 표현으로 비아냥거렸다. 영국이 희미하게나마 붙잡고 싶어 했던 제국주의 질서는 이제 미국이 주장하고 소련이 화답한 국제 연합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알타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국제 연합 계획이 관철된 것과 이에 소련이 적극적으로 찬동한 것, 그리고 그 거래의 대가로 미국이 동유럽을 소련 세력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외관상 알타 회담은 3국 정상의 합의하에 협력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회담에서 분명한 패자는 영국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을 주변으로 밀어내면서 미소 양대 강국 중심의 국제 체제를 탄생시켰다.

*비토(veto)권: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07

▶ 21051-006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질서에 대한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각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국제기구 내에서 자국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타협해 온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인해 약소국들의 이권이 배제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미소 양대 강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미소 양 진영 간의 이념 갈등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세력과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바람직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세력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08

▶ 21051-0068

알타 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 정부 구성에 친소 세력이 참여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 ②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에 소련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 측의 기대가 반영되었다.
- ③ 전후 독일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에 의해 점령되어 무장이 해제되고 분단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④ 실제적 권한을 지닌 국제기구로서 국제 연합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표결 방식에서 영국에 대한 소련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 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단축하기 위해 소련의 참전을 요구했고, 소련은 이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09

▶ 21051-0069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941년 6월 22일 독일 군대가 소련 국경을 넘을 때 그 규모는 전체 나치 병력의 80%에 해당했다.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유럽 대륙 전장에서 사실상 홀로 나치 군대를 대적한 교전 당사국이었다. 소련의 인적 피해도 심각했다. 전쟁 기간 중 영국군과 미군의 전사자가 각각 40만 명 정도였는데 비해, 소련군 소속 전사자는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르렀다. 민간인 피해에서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났다. 미국은 민간인 사망자가 사실상 없었고 영국은 그 수가 6,500명 가량이었던 데 비해, 소련은 1,500만 명 이상이었다. 한 역사가의 표현을 빌리면, 1941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소련 사람들은 ‘시간당 1,000명’꼴로 죽었던 것이다.

- ㉠ 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국과 독일 사이에 완충 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자국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 서유럽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로 재편되는 것에 대항하여 동유럽을 통해 서유럽에 공산주의 세력을 진출시키기 위한 것이었겠군.
- ㉣ 독일 군대와 사실상 직접 교전한 당사국임에도 전후의 국제 질서 개편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10

▶ 21051-0070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루스벨트는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에서 영국을 제외하려 했다.
- ② 루스벨트는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자신이 구상한 자유 무역 체제에서 영국을 배제하려 했다.
- ③ 루스벨트는 아시아 문제에서 영국을 배제하면서 스탈린과의 비밀 협정을 통해 소련의 일본진 참전을 확정했다.
- ④ 스탈린은 영국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라고 조롱했다.
- ⑤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홍콩 및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의 이권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1

▶ 21051-0071

문맥상 ㉡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진 국제 질서
- ② 강대국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줄이는 국제 질서
- ③ 미국 자본의 수출 대상지가 구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역까지 확대되는 국제 무역 질서
- ④ 영국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를 해체하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양국 중심의 국제 질서
- ⑤ 동유럽을 소련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련을 참여시킨 국제 연합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국제 평화 질서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하생은 집안이 한미(寒微)하고* 조실부모한 처지였으나 재주가 뛰어나 태학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어지러운 정치로 인해 등용되지 못해 불우한 나날을 보내다가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말을 듣고 도성 남문 밖 숲속의 인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된다.

날이 밝아 올 무렵 여인은 하생의 팔을 베고 누워 있다가 문득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오?”

“이 집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직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께 밭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몹시 많았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5남 1녀를 두셨지만, 다섯 오빠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저 혼자 아버지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네 부친이 큰 옥사(獄事)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못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부친의 지난 죄로 인해 죽은 다섯 아들은 이미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

저는 절하고 물러 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생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생사를 걸고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그러자 여인은 베갯머리에서 금척(金尺)을 뽑아 하생에게 주며 말했다.

“서방님께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뚝돌 위에 올려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알겠소.”

<중략>

“너는 어떤 사람이며, 이 물건은 어디서 얻었느냐?”

“저는 태학의 학생입니다. 그 금척은 무덤 속에서 얻었습니다.”

“너는 입으로는 시(詩)와 예(禮)를 말하면서 뒤로는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자란 말이나?”

하생은 웃으며 말했다.

“우선 결박한 몸을 풀고 어르신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우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장차 세계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생각하셔야 할 텐데 도리어 화를 내시는군요.”

시중은 즉시 하인들에게 분부를 내려 하생의 결박을 풀고 섬돌 위로 올라오게 했다. 마침내 하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찬찬히 말해 주었다. 시중은 차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녀 종들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탄식했다. 그때 주렴 안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죄를 물어도 늦지 않겠어요. 저 선비의 이야기를 듣자니 평소 우리 딸아이의 용모며 옷차림과 의심의 여지 없이 똑같아요.”

시중이 말했다.

“그렇군. 즉시 삼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해라! 내가 직접 가 봐야겠다.”

시중은 하인 몇 명을 남겨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잠시 후 묘역에 이르러 보니 봉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 보았다. 무덤 속의 팔은 안색이 산 사람과 같았다. 심장 있는 쪽을 만져 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 질 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 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몹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 시중은 하생을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 묻고, 또 하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하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고을의 유생(儒生)으로 오래전에 작고하셨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했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는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고 해도 문제 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나 후하게 주어 ㉡보답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부인이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녀자가 어찌 나서겠어요?”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하생의 소원을 물었는데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저버린 여인을 원망했다. 하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더러 여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생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A] 옥에 티끌이 묻었다 해서 더럽혀질 건 없나니
등지로 돌아간 봉황새가 난새를 다시 돌아볼 리 있겠는가
팔뚝 위의 눈물 자국 사라지지 않았거늘
꿈속의 좋았던 만남 지금 외려 부끄럽네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물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그 즉시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부모가 딸의 속마음을 짐작하고 병이 난 이유를 묻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모님의 큰 잘못을 남의 일인 양 원망하지 않는 것도 불효요, 부모님의 작은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도 불효입니다. 남의 일인 양 소원하게 대할 수 없어 말씀드리려는 건데, 지나치게 따지는 일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부모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아라. 숨길 것이 무어 있겠느냐?”

- 신광한, 「하생기우전」

*한미하고: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하고.

12

▶ 21051-007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중의 아들들은 시중의 잘못에 대한 옥황상제의 처분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 ② 하생은 여인의 부탁을 듣지 않아 결박당한 채 끌려오게 되었다.
- ③ 남녀 종들은 하생을 질책하는 시중의 심정에 공감하여 탄식했다.
- ④ 시중의 부인은 딸의 무덤이 훼손되는 것을 꺼려서 울음을 터뜨렸다.
- ⑤ 여인은 하생에 대한 연모로 인해 깨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하생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13

▶ 21051-007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6세기의 전기 소설(傳奇小說)인 「하생기우전」은 부활, 혼사 장애 등의 화소(話素)를 천상계의 권능자인 옥황상제와 현실계에서 욕구를 실현하려는 하생, 여인 등과 연결하여 서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 소설은 이승을 떠난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에 현실계 속에 비현실적 이계(異界)가 공존하고, 현실계와 비현실적 이계를 연결하는 매개물이 나타나며,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생기우전」은 임진왜란 이전의 일반적인 전기 소설과는 달리, 이승을 떠난 존재였던 여자 주인공이 부활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남자 주인공이 그녀와 혼인한 후 입신출세를 이루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점에서 색다른 느낌을 준다.

- ① 하생이 여인에게 받은 금척은 현실계와 비현실적 이계를 연결하는 매개물로 볼 수 있겠군.
- ② 시중이 하생의 한미한 가문과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를 우려한 것이 혼사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군.
- ③ 하생과 여인이 만나 인연을 맺는 집은 생사가 다른 인물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점에서 비현실적 이계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여인은 천상계의 권능자에게 들은 정보를 통해 전생부터 이어진 하생과의 사랑을 현실에서 완성하려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시중이 하생의 말을 듣고 무덤을 팠을 때 여인의 심장에 온기가 있는 것은 임진왜란 이전의 일반적인 전기 소설과는 다른 부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겠군.

14

▶ 21051-007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을 받는 대상은 동일한 인물이다.
- ② ㉠과 ㉡은 모두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 ③ ㉠과 달리 ㉡은 혼인을 대체하는 보상을 의미한다.
- ④ ㉠과 달리 ㉡은 받는 대상이 바라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⑤ ㉡과 달리 ㉠은 받는 대상의 성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

15

▶ 21051-007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더럽혀질 건 없나니’는 하생이 자신을 모욕하는 시중에게 보복을 다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둥지로 돌아간 봉황새’는 하생이 다시 살아나 집으로 돌아온 여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시 돌아볼 리 있겠는가’는 하생이 여인에 대해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원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좋았던 만남’은 하생이 여인과 인연을 맺은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지금 외려 부끄럽네’는 하생이 여인과의 인연에 대해 후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은 교잡과 같은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이다. 형질 전환을 이용한 식물 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탐색하고 복제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적 기법과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 체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외래 유용 유전자를 이식하여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킨 작물을 유전자 변형 작물(GMO)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형질 전환은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유전자 운반체에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농업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래 유전자를 발굴하여 복제하는 단계이다.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를 가진 식물로부터 그 유전자를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를 분리하면 모든 유전자가 한꺼번에 추출되기 때문에 특정한 유전자를 찾아서 복제하는 유전자 복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제한 효소이다. 제한 효소는 DNA 중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복제한 유전자를 운반하고 식물 세포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이다. 원하는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운반하는 재조합 운반체로는 토양성 세균인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가 이용된다.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유전자 중 일부인 T-DNA를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하여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숙주 식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든다. 플라스미드는 T-DNA를 지니고 있는 작은 DNA로, 선형의 이중 나선 구조를 지닌 식물 세포의 DNA와 달리 원형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재조합 운반체를 만들기 위해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절단하고, 외래 유용 유전자와 절단된 플라스미드를 섞어 준다. 그리고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와 플라스미드를 결합시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든다. 이때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는다.

세 번째 단계는 외래 유용 유전자가 식물에서 발현되도록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의 유전체로 이식하는 단계로서,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식물의 염색체에 도입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옥신과 시토키닌, 그리고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는데, 이식된 유전자들이 식물 세포에서 발현되어 생성된 옥신과 시토키닌은 식물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마련해 준다. 또한 옥토파인은 아그로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양분으로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체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줄기 혹은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드는데, 이것이 근두암종이다. 아그로박테리아를 통해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방법은 옥신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 필요한 유전자를 박테리아의 유전자에 삽입하여 박테리아가 식물 세포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를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원리로 작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작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병에 걸리게 하는 이병성 유전자가거나 원하지 않는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경우, 이러한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해 주면 그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식물 세포를 증식하고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시킨 후 형질 전환된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이다. 항생제가 함유된 선발 배지에서 식물 세포를 배양하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그 후 필요한 영양분과 식물 호르몬을 함유한 재분화 배지에서 선발된 세포의 재분화를 유도하면 하나의 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식물 조직 배양이라 하고, 세포가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될 수 있는 성질을 전형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발 배지에서 살아남았지만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실제로 외래 유용 유전자가 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생물 검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얻어진 형질 전환 식물은 농업적인 성능 및 효율성, 안정성 검정을 거쳐 상품화를 위한 개체를 최종적으로 선발되게 된다. 선발된 개체는 정밀한 안정성 검사와 더불어 품종화가 이루어지고 종자 증식에 들어간다.

*전사: DNA의 유전 정보가 mRNA로 옮겨지는 과정. 전사된 mRNA에 의해 세포질에서 해당 유전 정보를 지닌 단백질이 합성됨.

16

▶ 21051-007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형질 전환을 통한 품종 육종 기술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식물 조직을 배양한 이후 유전자가 변형되어 형질이 전환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유전자 변형 작물의 DNA를 이용하여 특정 미생물의 형질 전환 방법이 개발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식물이 지닌 유전자를 변형하여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기술을 식물의 형질 전환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⑤ 교잡을 이용한 품종 육종법과 유전자 변형을 통한 육종법을 비교하여 유전자 변형 작물이 지닌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17

▶ 21051-007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형성을 지닌 식물 체세포 하나로부터 완전한 식물체가 재분화될 수 있다.
- ②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은 유전자 조작 기술과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을 전제로 한다.
- ③ 재조합 운반체는 특정 유전자가 세포에 이식될 수 있도록 해당 유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제한 효소는 DNA에서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는 데 이용되며, DNA의 특정 위치의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다.
- ⑤ 재조합된 유전자 운반체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넣으면 재분화 배지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18

▶ 21051-0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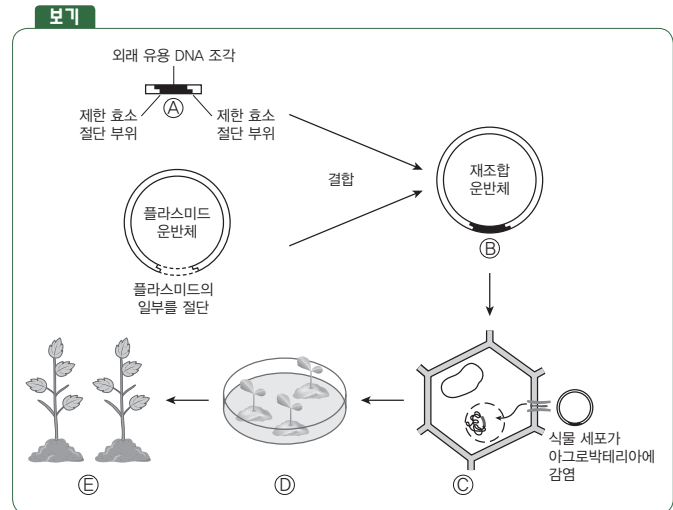
아그로박테리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체에 근두암종을 유발하는 토양성 세균이다.
- ②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는 식물 세포의 DNA 구조와 구별되는 DNA 구조를 지니고 있다.
- ③ 식물체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옥토파인이 생성되면 아그로박테리아는 이를 이용하여 질소를 공급받는다.
- ④ 아그로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옥신과 시토키닌은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숙주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든다.
- ⑤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에 이병성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하여 식물 세포에 이식하면 이병성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 있다.

19

▶ 21051-0079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신제품 개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육종하려는 식물체가 아닌 다른 식물체의 DNA에서 유용한 DNA 조각을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 ② B: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 중 일부를 절단하고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하여 그 부위에 외래 유용 유전자를 결합시킨다.
- ③ C: 식물 세포가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옥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된다.
- ④ D: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식물 세포를 선발한 후 배지에서 재분화시켜 완전한 식물체를 만들어 낸다.
- ⑤ E: 안정성 및 상품성이 인정된 개체를 선발하여 종자를 증식한다.

20

▶ 21051-0080

㉠과 ㉡의 ㉠,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유전자 총을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은 외래 유전자를 텅스텐이나 금 분말 등의 미세한 금속으로 코팅한 후 식물 세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때 금속 입자와 함께 외래 유전자가 식물체 핵 내로 이동하여 염색체에 삽입되며, 세포 재분화 과정을 거쳐 형질이 전환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금속 코팅을 통해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바이러스를 이용한 형질 전환 방법은 바이러스를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성숙한 식물체라도 한 번의 감염에 의해 대부분의 세포로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 및 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외래 유전자가 식물 유전체 내로 삽입되지는 않기 때문에 종자를 통한 다음 세대로의 유전은 기대할 수 없다.

- ① ㉠은 ㉡와 달리 한 번에 한 종류의 외래 유전자만 식물체에 이식할 수 있겠군.
- ② ㉠은 ㉡와 달리 외래 유전자를 운반체에 재조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은 ㉡와 달리 성숙한 식물체에 외래 유전자를 바로 도입할 수 없겠군.
- ④ ㉠과 ㉡는 모두 유전자 운반체를 사용하여 식물의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방법이로군.
- ⑤ ㉡는 ㉠, ㉡와 달리 식물 조직 배양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외래 유전자를 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군.

21

▶ 21051-0081

㉢의 상황이 발생 가능한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발 배지에 항생제가 충분히 함유되지 않은 경우
- ②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발현된 반면 외래 유용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은 경우
- ③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은 세포가 선발 배지에서 사멸하지 않는 경우
- ④ 외래 유용 유전자와, 그것과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형질 전환 과정에서 동시에 이식한 경우
- ⑤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식물 세포는 살아남았으나 항생제에 의해 아그로박테리아는 사멸한 경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버지가 세 번째 국회 의원 출마를 위해 다시 채식 시작한다. 가족들은 국회 의원에 출마할 때마다 채식을 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친은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나 미워하던 한 세계가 머지않아 붕괴하리라는 희미한 예감의 공포 앞에, 오로지 떨고 있었던 것이다. 체면 불구하고 부친이 출마했던 것은 아마 그 때문인 듯하다. 그 멸망이 상말로 시계 무엇처럼 점차 느껴져서, 설령 일곱 번이고 여덟 번이고 재출마해야 하는 그런 기우가 설마 부친에게 눈곱만큼이나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부친의 유일한 이해자는 숙당(淑堂) 조문제(趙文濟) 선생이었다. 조 선생은 중학교 한문 선생으로, 두루미처럼 버쩍 마른 모습으로 시의 언덕바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양반의 말을 빌려 보면, 부친의 망발(출마)은 단지 젊었을 때 글깨나 좀 읽었다는 탓일 따름이고, 모든 난점은 ‘흐르는 세월’이 심판해 준다는 것이다.

세월도 세월이려니와 선량*에 대한 부친의 이런 엉뚱한 꿈이라든가 이를테면 그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채식’ 같은 기묘한 방법은, 지금 곰곰 생각해 보니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다니엘서」에서부터 그 연유가 비롯한 성싶다. ‘채식’에 관한 것뿐 아니라 흥흥한 난세의 여러 조짐에 대해 그 책은 괴상한 꿈 얘기라든가 기괴한 짐승들을 무수히 등장시켜 공갈을 치고 있는데 ‘그 이[齒]는 철(鐵)이요, 발톱은 놋(銅)이며,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라는 끔찍한 구절까지 있는 것이다. 학대받는 어느 민족의 이중 삼중의 설움의 메시지다. 하지만 부친이 정말「다니엘서」를 독파했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부친은 홀로 무언가 유일한 것을 믿고 있는 듯하기는 했으나, 외할머니나 모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발 때문에 평생 절이나 교회 문턱을 피했고, 어쩌다 집 안에 종교적인 물건 — 이를테면 부적이라든가 찬송, 성경책이라든가 지등(紙燈) 따위가 보이더라도 하면 부리나케 그것을 어디엔가 감추어 버리곤 했으므로, 설마 당신이 방에 몰래 숨어서 ‘다니엘’을 읽어 치웠으리라고는 상상이 되지를 않는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것과 꼭 같은 어이 없는 절규가, 허기와 오기와 무청중에 지친 부친의 유세장에서 변변히 흘러나오는 것을 나는 들었던 것이다.

“나를 사자 아가리에 처넣어 보시오! 펄펄 끓는 불 속에 나를 콧 던져 보시오! ㉠내한테 어디 평생 풀만을 먹여 보시오! 꼬떡도 안 할 것이오, 나는, 여러분! ……”

그렇다. 얼음이다. 만상이 타는 듯한 열화에 기갈 들러 오직한 개의 통공 구멍만을 찾아 허덕이는 한여름 대낮 같은 때 홀로 자전거 등받이에 서늘한 수정과 같은 거창한 물건을 싣고 달리면서 부친의 꿈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 결정체 속으로 스며들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나 출마할란다……” 하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의 그 계면

찍은 웃음, 우는 듯한 눈, 경악에 찬 가족들의 힐난의 시선에 이윽고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던 입술이 그것을 증명한다. 부친은 별식으로 모처럼 놓인 도미구이 접시를 한옆으로 슬그머니 밀어 놓고, 허탈한 얼굴로 시금치 접시로 젓가락을 가져갔다. 그것이 신호였다. 누이와 나는, 4년마다 오는 부친의 그 구닥다리 같은 흥역을 또 치르게 되나 부다 하고, 부지중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서광삼 무표’나 ‘서광삼 3표’나 하는 이웃이나 학교 동료들의 조석 간의 인사가 아니다. 그것은 선거 소동이 끝날 때마다 전 시의 오욕에 찬 익살맞은 조롱을 우리 집 위에만 폭삭 뒤집어씌우고도, 진실로 늙름하고 의연히 고고해서 참으로 아름답기까지 해 보이는 부친의 배짱에 있었다. ㉡어쩐지 부친은 봄장마가 깨진 아스팔트 틈서리의 흙탕물을 튀기는 을씨년스런 한밤중에도 청명한 구름 속을 혼자 걷고 있는 듯했으며, 고독감에 몸을 떨며 내가 뒷간에 홀로 움치고 앉아 있을 때에도 그는 갓 벌어진 무슨 커다란 꽃봉오리 속에 의젓이 파리를 틀고 있는 듯했던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는 합동 유세장에서 친구 최 씨를 만나게 되고, 최 씨는 유세장에서 아버지의 과거와 관련된 일을 빌미로 난동을 부린다.

분명치는 않아도, 부친이 채식을 그만둔 것은 그 이후부터다. 돌아오는 길에 부친은 가장 그럴싸하게 당신의 얼굴이 크게 찍힌 선거 벽보를 북 찢어 구겨서 잡담 제하고 그것을 길가에 던져 버렸는데, 무슨 변화와 동요가 부친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식을 폐하자 기뻐 날뛴 것은 물론 그 친척 참모들이다. 순대구이거나 날치, 가자미 같은 것이 상 위에 올라오면 그것은 깜짝할 새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계면 찍다기보다 더러운 광경이었다. 부친은 글썽글썽해진 눈으로 가족들의 그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고기를 보니께 속이 꼬리꼬리하다……는 등 하는 친척들의 그 파렴치, 잘 씹어서…… 천천히…… 하고 주의를 소근거리는 모친의 낭만, 누이의 부어터진 얼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부친은 광 속에 자전거를 처박아 둔 채 운신을 안 했다.

얼음 운반은 물론 내가 대신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친은 62세였다. 보름 남짓을 앞에 둔 선거일이 빨리빨리 지나갔다. 서광삼 무표, 서광삼 무표, 서광삼 무표…….

그동안에 단 하루, 부친은 밖을 나갔을 뿐이다.

㉣“너 나하고 좀 나가자”고 부친이 말했을 때, 또 발작이 시작되나 부다 하고 생각했다. 내가 자전거를 끌고 나오자 부친은 그 만두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들이 터벅터벅 걸어서 찾아간 곳은, 시가에서도 훨씬 떨어진 변두리 언덕 뒤에 숨듯이 하고 텅그마니 서 있던 도살장이었다. 그 일대는 분지처럼 지대가 낮아

서, 잡초와 잡석과 황토가 작은 벌판을 이루고 개흙 바람에 눕고 있었으며, 잿빛의 긴 콘크리트 담으로 도수장*은 네모지게, 철통 같이 에워싸여 있었다. 그 무렵 부친의 심경에 도사리고 있던 민족과 시국에 대한 비전이 겨우 이 정도의 황량한 풍경이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곤 올빼미 눈 같은 동그란 두 개의 창문 외에는, 감기 든 코처럼 사방이 막힌 도수장 건물에서 부친은 도대체 무엇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일까. ‘서광삼 기호 3번’의 플래카드 광목을 품에서 꺼내더니, 부친은 그것을 어깨에 두르고 건물로 다가갔다. 부친은 문을 두들겼다. 정문의 빗장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주인을 찾는다고 부친이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가 말했다.

부친은 절을 하고, 무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열변을 토하는 부친 앞에서 광 하고 철문은 닫혀 버렸다…….

㉠ 언덕바지로 돌아오자 부친은 잡초를 한 줌 훑어서 입에 넣고 그것을 질경질경 씹으면서, 무연히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르긴 하되 부친으로서는, 정육점의 고기를 거털 내는 그 모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비결은 거기서 모든 덩어리가 흘러나오는 도수장의 주인을 구워삶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한 식경이 지난 뒤에 부친은 다시 담 밑으로 다가 가서 그것을 두들겼으나, 이번에는 열리는가 하자 문은 닫혀 버렸다. 부친은 두말 않고 돌아서서 나더러 가자는 눈짓을 했다.

- 이제하, 「초식」

* 선량: 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 국회 의원의 별칭.

* 도수장: 고기를 얻기 위하여 소나 돼지 따위의 가축을 잡아 죽이는 곳. 도살장.

22

▶ 21051-008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긍정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의 유일한 이해자인 ‘숙당 조문제 선생’은 아버지의 출마를 글에 대한 무지의 소치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
- ③ ‘나’는 아버지를 성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여긴다.
- ④ ‘나’는 외할머니와 모친 사이에 잠재된 종교적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연민하고 있다.
- ⑤ ‘나’는 아버지의 낙선이라는 결과보다는 낙선 뒤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배짱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한다.

23

▶ 21051-008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유권자들의 연민을 이끌어 내려는 아버지의 의도가 드러난다.
- ② ㉡: 선거 결과에 대한 아버지의 절망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③ ㉢: 친척들과 가족의 행위에 대한 ‘나’의 연민이 드러난다.
- ④ ㉣: 아버지의 현실 도피적 태도에 대한 ‘나’의 비판적 시선이 드러난다.
- ⑤ ㉣: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난다.

24

▶ 21051-0084

채식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의 '채식'은 국회 의원 출마의 신호이다.
- ② 아버지의 '채식'은 자신의 꿈의 실현과 관계한다.
- ③ 아버지의 '채식'은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이다.
- ④ 아버지의 '채식'은 '나'에게 성경에 연원을 둔 기묘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 ⑤ 아버지의 '채식'은 흥흥한 난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탈속 의지의 표출이다.

25

▶ 21051-0085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초식」은 폭력과 비순수로 표상화된 '육식'의 세계에 맞서려는 개인의 투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초식」에서는 육식 세계의 삶의 논리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낯고 부조리한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을 상실한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초식」의 '아버지'가 출마할 때마다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행위는 단순한 섭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를 오랫동안 규율해 온 기존의 삶의 방식과 관습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육식의 세계에 대한 맞섬의 한 방식으로 채택한 개인의 특정 행위가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① 아버지가 '도미구이 접시를 한옆으로 슬그머니 밀어 놓고, 허탈한 얼굴로 시금치 접시로 젓가락을 가져'가는 것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꿔 보려는 각오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이웃이나 학교 동료들'이 아버지의 선거 결과를 조롱하고 있는 것에서 세계와 맞서려는 개인의 특정 행위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버지가 채식을 중단하자 '친척 참모들'이 '순대구이거나 날치, 가자미 같은 것' 들을 왕성하게 즐기는 것에서 육식 세계의 삶의 논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도수장의 주인'이 '열변을 토하는 부친'을 외면한 것에서 세계의 변화를 부정하는 인물의 형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아버지가 '정육점의 고기를 거털 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수장의 주인과 공모하려는 것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신념을 접고 도수장 주인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 함을 엿볼 수 있겠군.

[26~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국과의 무역 및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에서는 고용, 성장과 같은 대내 거시 경제 변수뿐 아니라 경상 수지와 같은 대외 거시 경제 변수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이때 경상 수지란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와,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말하며, 지급한 외화보다 벌어들인 외화가 많은 경우를 경상 수지 흑자, 적은 경우를 경상 수지 적자라 부른다.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 균형은 국민 소득을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외 균형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0으로 유지하는 것, 즉 경상 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목표가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증가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거래의 규모가 커지면,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국내 화폐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그런데 기존의 경제 상태가 경기 불황에 경상 수지 적자가 결합된 경우라면 재정 정책만으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 중 어느 하나를 목표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의 불균형은 그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수단으로는 환율 정책을 들 수 있다. 불황에 경상 수지 적자가 수반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환율 인상 정책을 통해 국민 소득과 순수출을 모두 증가시킴으로써 대내외 균형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정 정책과 환율 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다. 재정 정책은 총수요의 크기에만 영향을 주는 지출 조정 정책이다. 반면에 환율 정책은 ㉣총수요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전환 정책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인상될 경우 가계, 기업, 정부 등 국내 경제 주체들은 전체 지출 규모가 일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수입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지출을 늘리므로 총지출 규모의 변화 없이도 국내 생산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지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는 환율 정책 이외에도 관세, 수출 보조금, 수입 할당 등이 있다.

*완전 고용 국민 소득: 한 나라에 존재하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생산 활동에 투입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소득.

*총수요: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 등으로 사려고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합.

(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 환 본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의 금 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했다. 이를 통해 ㉥제1·2차 세계 대전 사이의 변동 환율제에서 벌어졌던 각국의 ㉦경쟁적 평가 절하와 이로 인한 국제 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반면 일시적·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환율 조정이 허용되었다.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환율 인상을 허용함으로써, 환율을 유지한 채 경상 수지의 균형 회복을 위해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 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금 본위제*하에서는 고정 환율을 통한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이 최고의 목표였으므로, 경상 수지 불균형은 전적으로 국내 가격의 변동으로 해결했었다. 따라서 금 본위제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은 보장되지만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상 수지 적자국의 경우 적자만큼 통화 또는 금이 유출되므로 국내 경제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상품 및 노동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값싼 임금과 원자재를 기반으로 경쟁력이 회복되며 그 결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들어 경상 수지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반대로 경상 수지 흑자국의 경우 그만큼 통화량이 증대되어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곧 경쟁력의 저하로 귀결된다. 즉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게 되어 경상 수지 흑자가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경상 수지에 따라 국내 통화량과 국내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금 본위제의 고정 환율제에서는 국내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해 브레턴우즈 체제는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을 연계시켰던 것이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또 다른 요소는 극히 비자유주의적인 국제 금융 질서이다.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고안된 국제 금융 질서는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개별 국가들에게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이다. 국제 금융의 자유화를 억제시킨 근본적 동기는 ㉪연계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려는 데 있었다. 첫째,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거시 경제 정책에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세, 인플레이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경우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이 원만히 작동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자본 통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 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는다. 대규모 자본의 빈번한 이동은 환율 체제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각국의 경상 수지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결국 보호주의의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국가 간 자

본 이동이 통제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고정 환율제와 독자적인 통화 정책,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을 위해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브레턴우즈 체제에는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연계시킨 전후 국제 경제 질서의 성격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다.

- *온스(oz): 무게의 단위. 금 1온스는 약 31.1035g.
- *태환: 지폐를 정화(正貨)와 바꿈. 또는 그런 일.
- *금 본위제: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통화의 가치를 재는 제도.

26

▶ 21051-008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 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상 수지 균형이 달성되면,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외 균형이 모두 달성된다.
- ②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긴축적 재정 정책은 국내 이자율 상승을 통해 국외로의 자본 유출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③ 재정 정책은 국민 소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환율 변화를 통해 순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재정 정책과 환율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여 개방 경제에서의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수입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수요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더라도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27

▶ 21051-0087

(나)의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와 같이 환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지만, 특별한 경우 ㉢와 같이 환율이 조정될 수 있었다.
- ② ㉡에서는 ㉢와 달리 각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정하여 국제 통화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 ③ ㉢에서는 ㉡와 달리 각국 통화의 가치가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었다.
- ④ ㉣에서는 ㉡와 달리 각국의 경상 수지 불균형은 국내 가격 변동에 의해 조정되었다.
- ⑤ ㉡와 ㉣는 모두 구조적인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하할 수 있었다.

28

▶ 21051-0088

(가)와 (나)를 참고할 때, ㉠과 ㉡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② ㉠과 ㉡은 모두 국내 경제 정책에 의해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③ ㉠은 재정 정책만 사용할 경우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상충되기 때문에, ㉡은 고정 환율제에서는 경상 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④ ㉠은 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민 소득의 증가가 순수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은 경상 수지 적자가 국내 상품과 노동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⑤ ㉠은 정책 수단이 대내 목표와 대외 목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 대내 경제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이 대외 경제 상황에 종속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29

▶ 21051-0089

(나)를 참고할 때, 연계된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국의 경제 정책적 자유주의와 국제적 무역 자유주의가 연계되어 있었다.
- ②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적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이 연계되어 있었다.
- ③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여, 고정 환율 유지에 따른 국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
- ④ 거시 경제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과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개별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 ⑤ 각국의 무역 정책이 보호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30

▶21051-0090

〈보기〉를 참고할 때, ㉔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불가능성 정리’에 따르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독자적 통화 정책과 환율 안정,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통화량 증가에 따라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국제 이자율에 비해 국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한다.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통화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기존의 확장적 통화 정책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즉 정부는 확장적 통화 정책의 효과를 위해 환율 상승을 용인하거나 환율의 상승을 막기 위해 확장적 통화 정책에 반대되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①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해야 환율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환율 운용을 모두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 ③ 개방 경제에서는 통화 정책으로 인한 국내 이자율 변화 효과가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화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 ④ 고정 환율제하에서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경우, 통화 정책은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 ⑤ 통화 정책이 유발한 환율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국내 이자율의 변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31

▶21051-0091

문맥상 ㉔~㉖와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외화로 표시된 순수출액의 크기를
- ② ㉕: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 ③ ㉖: 국내 생산 재화와 수입재에 대한 지출 비율에
- ④ ㉔: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각국의 환율 인하 경쟁과
- ⑤ ㉖: 각국이 국내 경제에 대한 정책적 자율성을 상실하게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우유 배달을 하는 만석은 폐지를 줍던 송 씨와 우연한 사건으로 알게 되면서 송 씨를 좋아하게 되고 그녀를 자신의 방식대로 보살피며 지낸다. 한편 주차장 관리인인 장군봉은 차매에 걸린 아내를 보살피며 힘겹게 살아간다.

(가) 동사무소 (낮)

송 씨를 끌고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 만석.

송 씨: 괜찮다니까요.

만석: ㉔ 참 말 많네. 따라만 오라니까.

송 씨의 손목을 잡고 연아 앞으로 다가가는 만석.

연아: (벌떡 일어서는) ……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만석: 접때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돈 나온다 그랬지?

연아: 독거노인 보상 급여요?

만석: 얼마나 나와?

연아: (송 씨를 흘끗흘끗) 그거야 형편에 따라 다르죠. 자식이 있고 없고……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도 나고…….

송 씨: (쳐다보는 눈길이 무안하다.) 됐어요. 전 괜찮아요. (못 참고 나간다.)

만석: (붙잡고) 그놈의 괜찮다는 소리…….

만석, 송 씨의 손을 잡은 채…….

만석: (연아에게) 아 대충……!!

사람들: (깜짝)

연아: (졸아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올걸요.

만석: 뭐! 얼마!

연아: 10만에서…… 15만…….

만석: 그걸 누구 코에 붙여…… 보일러 기름값도 안 되는…….

송 씨: (멍) 그 많은 돈을…… 준다구요?

연아: 네……!

송 씨: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인데…… 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아: (따라 인사하며)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감사한 듯, 공손히 또 아주 깊이 절을 한다.

동사무소 직원들 모두에게 하듯,

송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아: …….

깊이 허리를 숙이는 송 씨를 따라 연아도 얼떨결에 절을 한다.

영문 모르고 덩달아 인사를 하는 직원들.

(경과)

연아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인 동사무소 직원들. 한마디씩 거든다.

직원들: ㉠“최대한 빨리 신청해 봐.” “독거노인 자금 혜택 자료 다 뽑아 냈지?”

연아: 할머니, 일단 주민 등록증 주세요.

송 씨: …… (머뭇)

연아: 주민 등록증요?

송 씨: …… 그게……. 없는데…….

연아: (놀라 보며) 뵙……? 아예 없으세요?

송 씨: (고개 떨구는)

송 씨, 대답을 못 하고 발끝만 바라본다.

만석: (끼어들고) 만들어. 당장 만들면…… 그럼 되잖아? 안 그래……?

송 씨: ㉡“그렇게 어거지 부리지 말아요. 우리처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랏일 하는 바쁜 분들인데…….

직원: 헛, 나랏일요……. 나랏일이래……. 아하하하……. 연아 씨, 급행으로 해 드려.

만석: 거참 시원시원하게 일들 잘하는구먼…….

연아: 그럼 일단 등록 신청부터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 씨: 송 씨요.

연아: 그다음은요?

송 씨: …… 그냥…… 송……. 그게……. (머뭇)

연아: …….

이때 만석 소리.

만석: 이뿐이야.

연아: 예?

만석: 이뿐이라니까…… 송이뿐!

연아: (송 씨에게) 진짜요?

만석: (버럭!)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송이뿐이라구. 송이뿐!

연아: (이름을 적는데……)

만석: 아니 이쁘다 할 때 이쁜 말고…… 송이…… 뿐이다 할 때 이쁜. 그래…… 빨리 써……!

연아, 얼떨결에 빈칸을 채우고…….

만석, 송 씨를 보며 눈을 찡긋…….

(나) 군봉의 과거

1. 가족사진을 찍고 있는 군봉과 가족들.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영옥. 택시 기사 유니폼을 입은 군봉, 군봉 처, 장남, 차남, 막내딸 영옥이 서 있다. 행복한 모습.

장남: 노후 걱정은 마세요. 저랑 상욱이랑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영옥: 히히…… 나도…… 시집 안 가고 아빠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건데…….

차남: 두 분은 꼭 제가 모시고 살 겁니다.

2. 군봉 부부와 첫째 아들과 며느리, 둘째, 영옥과 식사를 하고 있다.

첫째: 직장도 너무 멀고 해서…… 결혼하면 분가할 생각입니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며느리: ㉢“자주 찾아뵙게요.”

군봉(소리): 그렇게 큰아들이 떠났다.

3. 군봉 부부와 마주하고 앉은 둘째 아들 내외와 영옥.

둘째: ㉣“죄송해요. 이 사람이 몸이 약해서…… 원래 장남인 형님이 모시는 게 맞잖아요.”

군봉(소리): 한 번도 우리를 모셔 달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4. 방 안에 막내딸 영옥과 마주 앉은 군봉 부부. 건너편에 영옥 남편 될 남자가 앉아 있다.

군봉: (못마땅하게 남자를 보며) 뭐가 급해서 꼭 그렇게 서둘러 결혼해야겠니?

영옥: 죄송해요.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자주 찾아뵙게요.

군봉(소리): 그렇게 아이들이 떠나고 우린 그저 말만으로 자주 찾아뵙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5. 밥상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고 있는 군봉 부부.

군봉(소리): 우리는 이제 다시 부부다. 가족이었는데…….

군봉: 이제 당신과 나…… 다시 둘만 남았네.

- 강풀 원작·이만희 각본, 「그대를 사랑합니다」

32

▶ 21051-009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송 씨에 대한 만석의 애정 어린 행동이 드러나는 공간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 ② (가)에서는 주민 등록증조차 없는 송 씨의 상황을 제시하여 인물의 처지를 짐작하게 한다.
- ③ (가)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송 씨의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나)에서는 인물의 '소리'를 활용하여 군봉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른 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는 가족사진 촬영 장면과 자녀들과의 대화 장면을 연속으로 제시하면서 군봉 부부만 남게 된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3

▶ 21051-009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 감사를 표하는 상대에 대한 사람들의 우호적인 관심이 드러난다.
- ③ ㉢: 숨기고픈 자신의 처지를 들춰내는 상대에게 분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 의례적인 표현으로 인물이 대화 상대에게 가지는 부담감이 담겨 있다.
- ⑤ ㉤: 기존에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심리가 드러난다.

34

▶ 21051-009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노인들이 자식들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노인들은 경제적 곤궁을 겪으면서도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애뜻함을 전하고자 노력하면서 삶의 희망을 찾으려는 노인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감동을 전한다.

- ① '보상 급여'에 대해 '한 달 꼬박 모아도 힘든 돈'이라고 반응하는 송 씨를 통해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문제를 알 수 있군.
- ② 노후 걱정을 말라던 말과는 달리 하나씩 군봉 부부의 곁을 떠나는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 점점 소외되는 노인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주저하는 송 씨를 통해 그녀가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송 씨의 이름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아에게 보인 만석의 반응을 통해 송 씨에게 품은 애뜻한 마음을 들기자 화가 난 만석의 마음을 알 수 있군.
- ⑤ 택시 기사를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군봉이 가족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던 모습과 달리 '다시 돌만 남았'다고 하는 것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알 수 있군.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술어가 가리키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문법 요소를 동작상이라 한다. 어떤 사건이 시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진행상과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완료상이 대표적인 동작상이다. 국어에서 동작상은 주로 보조 용언 구성을 통해 나타난다. 예컨대 진행상을 나타내는 데에는 주로 ‘-고 있다’를 사용하고 완료상을 나타내는 데에는 주로 ‘-어/-아 있다’를 사용한다.

- (ㄱ) 그는 밥을 먹고 있다.
- (ㄴ) 꽃이 피어 있었다.
- (ㄷ) *그는 길을 걸어 있다. (*는 비문 표시)

(ㄱ)은 ‘그’가 ‘밥을 먹’는 사건이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문장이고, (ㄴ)은 ‘꽃’이 ‘핀’ 사건이 완료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문장으로서 각각 진행상과 완료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왜 ‘걷다’에는 ‘-어 있다’를 붙여 (ㄷ)과 같은 완료상 문장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동작상과 관련된 동사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이를 동사의 상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동사의 상적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순간성]과 [완성성]이 주로 사용된다.

이 요소들은 ‘+’로써 해당 특성이 있음이 표시되고 ‘-’로써 해당 특성이 없음이 표시된다. 곧 동작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순간성]과 [-순간성]으로 나뉘고, 동작이 다 끝나야 의미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성성]과 [-완성성]으로 나뉜다. 예컨대 ‘(공을) 차다’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순간성]을 가지고 있고, ‘(꽃이) 피다’는 동작이 오랫동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순간성]을 가지고 있다. 또 ‘(꽃이) 피다’는 동작이 끝나야 해당 사건이 성립되므로 [+완성성]을 가지고 있고, ‘(길을) 걷다’는 이론적으로 동작이 끝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완성성]을 가지고 있다.

[+순간성]을 가진 동사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완성성]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순간성, -완성성]을 가진 동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동사의 상적 특성에 따라 동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과정 동사 [-순간성, -완성성]: 걷다, (㉠) ...
- 완성 동사 [-순간성, +완성성]: 피다, (㉡) ...
- 순간 동사 [+순간성, +완성성]: 차다, (㉢) ...

보조 용언에 의해 표시되는 동작상은 동사의 상적 특성과 잘 어울려야 한다. 가령 과정 동사 ‘걷다’와 같이 [-완성성]을 가진 동사에는 ‘-어 있다’가 붙지 못하여 (ㄷ)이 비문이 된다. [+완성

성]을 가진 동사라고 해서 완료상을 나타내는 ‘-어 있다’가 항상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합하는 경우에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 (ㄹ) 순희가 공원을 걷고 있다.
- (ㅁ) 동생이 물을 끓이고 있다.
- (ㅂ) 명희가 아기를 업고 있다.

(ㄹ)의 ‘걷다’는 과정 동사이고 (ㅁ)의 ‘끓이다’는 완성 동사이다. 이 두 부류의 동사들은 [-순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 있다’가 결합하면 진행상으로 해석한다. 반면에 (ㅂ)의 ‘업다’는 순간 동사이다. 따라서 ‘-고 있다’가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동작이 완료된 결과인 ‘업은 상태’를 나타내는 완료상 문장으로 해석한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은 시간의 폭이 너무 짧아서 그 시간 동안 그 동작이 진행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동작이 천천히 일어나서 시간의 폭이 충분히 넓어지는 경우에는 진행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업다’가 순간 동사가 아니라 완성 동사로 쓰이는 것이다.

동사의 상적 특성만으로 모든 동작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 부사어의 의미나 쓰임에 따라 동사의 상적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의 상적 특성은 동작상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35

▶ 21052-0095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단어들을 ㉠~㉢에 넣는 학습 활동을 할 때, 그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불이) 붙다 (글을) 읽다 (집을) 짓다

	㉠	㉡	㉢
①	(집을) 짓다	(글을) 읽다	(불이) 붙다
②	(집을) 짓다	(불이) 붙다	(글을) 읽다
③	(글을) 읽다	(집을) 짓다	(불이) 붙다
④	(글을) 읽다	(불이) 붙다	(집을) 짓다
⑤	(불이) 붙다	(집을) 짓다	(글을) 읽다

㉠~㉣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에 동일한 모음이 연속되어 모음이 줄어든 형태로 쓰이게 된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 마을에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선 있다.
- ㉡ 우리 가족은 여름 방학에 할머니 댁에 갔다.
- ㉢ 우리들은 도서관에서 만나서 공부를 하였다.
- ㉣ 친구가 골대 앞에서 '빨리 차!'라고 소리쳤다.
- ㉤ 그는 고향 집에 가기 위해 얇은 강을 건넜다.

- ① ㉠: '서'는 '서다'의 어간 '서-'에 어미 '-어'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② ㉡: '갔다'는 '가다'의 어간 '가-'에 어미 '-았-'과 '-다'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③ ㉢: '만나서'는 '만나다'의 어간 '만나-'에 어미 '-서'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④ ㉣: '차'는 '차다'의 어간 '차-'에 어미 '-아'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⑤ ㉤: '건넜다'는 '건너다'의 어간 '건너-'에 어미 '-었-'과 '-다'가 결합한 단어이다.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해당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에서 서술격 조사는 앞에 결합하는 체언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난다.

-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라
예) 宅은 지비라 (택(宅)은 집이다)
-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나 반모음 'ㅣ'일 때: ∅라
예) 牛頭는 쇠 머리라 (우두(牛頭)는 소의 머리이다)
-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 반모음 'ㅣ'가 아닌 모음일 때: ㅣ라
예) 幻은 곡되라 (환(幻)은 곡도(꼭두각시)이다)

보기 2

- 樓는
(누(樓)는 다락이다)
- 間은
(간(間)은 스시(사이)이다)
- 生佛은 사라 겨신
(생불(生佛)은 살아 계신 부처이다)

	㉠	㉡	㉢
①	다라기라	스시라	부테시니라
②	다락ㅣ라	스시라	부터이시니라
③	다라기라	스시라	부테이시니라
④	다락ㅣ라	스시이라	부터이시니라
⑤	다라기라	스시이라	부테시니라

40

▶ 21052-0100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단어의 쌍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과일’과 ‘포도’의 관계 처럼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인 ‘과일’을 상의어라고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포도’를 하의어라고 한다. 한편 전체 부분 관계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부분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가령, ‘까치’와 ‘부리’의 관계는 전체 부분 관계로 ‘까치’는 전체어, ‘부리’는 부분어라고 한다. 이 두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의어는 상의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분어는 전체어라고 할 수 없다는 특징을 활용한다. 즉 ‘포도’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리’는 ‘까치’라고 할 수 없다.

보기 2

- ㉠ 동물 - 포유류
- ㉡ 장미 - 백장미
- ㉢ 계절 - 여름
- ㉣ 자동차 - 엔진
- ㉤ 꿩 - 장끼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41~42] (가)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한 계획서의 일부이고, (나)는 (가)에 따라 만든 블로그에 게시된 글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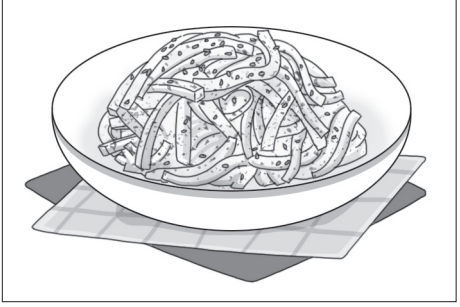
- 블로그의 목적: 나의 요리 생활을 사람들과 공유한다.
- 주된 수용자 집단: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 세부 계획
 - ㉠ 조리 과정과 완성된 요리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수용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한다.
 - ㉡ 요리 이름을 블로그 글의 제목으로 제시하되 제목의 글자 크기와 모양을 본문과 달리하여 잘 드러나게 한다.
 - ㉢ 조리법뿐만 아니라 음식 재료의 장점이거나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시한다.
 - ㉣ 사용자가 한 번의 클릭을 통해 다른 요리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 ㉤ 요리에 얽힌 일화를 제시하여 수용자의 흥미를 높인다.

(나)

블로그 152개의 글 목록 열기

무나물 || 맛있는 반찬

2020. 11. 1. 15:43 URL 복사 +이웃 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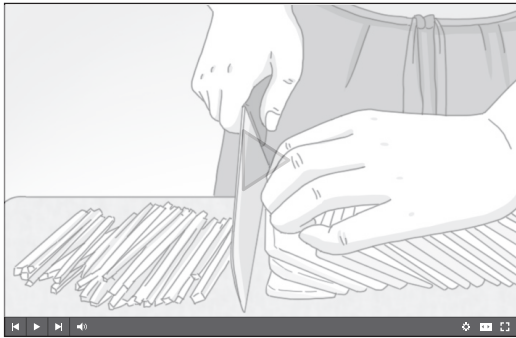
이맘때 무는 시원하고 살짝 달콤해서 정말 좋아요. 게다가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도 들어 있어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반찬 재료로는 제격이죠. 잘 만든 무나물 한 접시면 순식간에 밥 한 그릇 푹딱! 식사가 더 즐거워져요. ♪

무나물 재료

무 1/3개, 식용유 2큰술, 멸치 다시마 육수 1/3컵, 다진 파 1/2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생강가루 1/2작은술, 소금 1작은술, 들기름 1큰술, 깨소금 1/2큰술

무는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찰찰~** 채를 썰어 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주고
 채 썬 무를 넣고 살살 볶다가
 멸치 다시마 육수 넣은 뒤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2~3분 정도 익게 놓아둬요.
 무가 숨이 좀 죽었다 싶으면
 다진 파, 다진 마늘, 생강가루, 소금 넣고 잠깐만 볶다가
 마무리로 **들기름이랑 깨소금** 솔솔 뿌려 주면
 맛있는 무나물 완성!

반찬으로 먹어도 좋지만
 밥에 비벼 먹으면 맛이 최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만드는 과정 동영상 보기 ↑↑

[다른 무 요리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41

▶ 21052-0101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 21052-0102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블로그의 표현은 말하기의 표현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아
 수용자는 흡사 화자가 말을 건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조사나 어미의 생략, ‘해요체’의 사용, 접속 조사 ‘이랑/랑’의
 사용,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 등은 말하기에서 빈번하게 발
 견되는 표현 방식의 예이다. 또한 말할 때 목소리에 묻어나는
 느낌을 블로그에서는 기호나 문장 부호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도 한다.

한편 말할 때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문장을 적당히 끊어
 서 발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로그에서는 끊어 발화하기와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 시각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① ‘들기름이랑 깨소금’을 ‘들기름과 깨소금’으로 바꾸면 말하
 기의 표현에 더 가까워지겠군.
- ② ‘즐거워져요.’ 옆의 ‘♪’와 ‘찰찰’ 옆의 ‘~’는 목소리에 묻어
 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③ ‘제격이다’가 아니라 ‘제격이죠’로 표현되어서 수용자는 블로
 그를 만든 이가 말을 건네는 듯한 인상을 받겠군.
- ④ ‘똑딱’이나 ‘솔솔’과 같은 표현이 많아지면 블로그의 표현이
 전체적으로 말하기의 표현과 더 많이 비슷해지겠군.
- ⑤ 한 문장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두서너 줄로 배치한 것은 끊어
 발화하기처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겠군.

[43~45] (가)는 종이 신문의 한 면이고, (나)는 (가) 신문의 인터넷판 누리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3면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사회 제2571호 ○○신문

‘물 폭탄’은 온난화 나비 효과 북극·시베리아 이상 고온에 동아시아 비 세례

올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이례적인 장마와 폭우는 북극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상 고온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극과 시베리아 일대의 기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눈과 빙하가 녹아 지표면이 태양광을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따뜻한 공기가 정체돼 동에서 서로 움직이던 찬 기류가 남북으로 움직이며 동아시아 쪽으로 밀려왔다.

기상청 관계자는 “나비 효과처럼,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이상 폭우를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 기상학과 □□□ 교수는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찬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온 탓에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해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 폭우뿐만 아니라 이상 한파 등 다양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기자 seo@x×x.co.kr

◇◇◇, 거액 기부
수재 구호금 1억 원 쾌척

배우 ◇◇◇ 씨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억 원을 구호 관련 단체에 쾌척한 사실 ...

2020. 8. 4. 20:30

‘물 폭탄’은 온난화 나비 효과

올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

2020. 8. 4. 20:23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국가 인권 위원회(인권위)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 ...

2020. 8. 4. 20:15

(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회 최신 기사 교육 노동 사건 사고

화재 구조 외국인 노동자 ‘의상자’ 인정
불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큰 화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의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
2020. 8. 4. 21:06

◇◇◇, 거액 기부
배우 ◇◇◇ 씨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억 원을 구호 관련 단체에 쾌척한 사실 ...
2020. 8. 4. 20:30

‘물 폭탄’은 온난화 나비 효과
올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
2020. 8. 4. 20:23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 전국 학교 배포
국가 인권 위원회(인권위)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모욕 ...
2020. 8. 4. 20:15

완료

43

▶ 21052-0103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기사가 게재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표제와 부제로 내용을 함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시각 자료의 의미가 글의 의미와 결부되어 해석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매체 특성상 시간 순서에 따라 기사를 정렬하여 게시하기 쉽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기사의 본문을 일부만 노출한 상태에서 독자가 자세히 읽고 싶은 기사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신문에는 편집자와 기자의 관점이 반영된다. 그중 편집자의 관점은 주로 기사의 선택과 배열에 의해 지면에 구현된다. 여기서 기사의 선택과 배열이라 함은 편집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지면에 들어갈 기사와 지면에서 배제될 기사를 선택하고 지면에서 각 기사가 차지할 위치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뜻한다.

기자의 관점 또한 신문에 반영된다. 기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어떤 주제로 기사를 쓸 것인지, 누구와 인터뷰할 것인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등을 선택한다.

- ① 편집자가 달라진다면 (가)에는 다른 기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군.
- ② 표제에서 ‘폭우’ 대신 ‘물 폭탄’을 사용한 것은 편집자가 기사의 선택과 배열을 행한 결과이겠군.
- ③ 폭우가 온 사실 자체보다 폭우의 원인을 탐색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은 기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선택한 결과이겠군.
- ④ 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에 대한 기사와 거액 기부에 대한 기사의 배열 순서에도 편집자의 관점이 반영되었겠군.
- ⑤ 기상청 관계자 및 기상학과 교수와의 인터뷰가 기사에 포함된 것은 기자의 관점이 신문에 반영된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겠군.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화면에 각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들로 이루어진 목록이 나타난다. 독자는 목록 중에서 읽고 싶은 기사를 선택하면 되니 참으로 편리하다. 그러나 검색 결과 화면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가 서로 비슷한 내용일 때도 많은데, 마치 기사들이 읽히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기사 목록은 수시로 바뀐다. 새로운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같은 언론사가 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하여 별개의 기사처럼 여러 번 올리기도 한다. 오탈자나 비문이 포함된 기사들도 간혹 발견된다. ‘속보’라고 이름이 붙은 기사 중에는 표제만 있고 본문이 아예 없는 경우까지 있다. 독자에게 더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으로 인해, 내용과 표현이 충실한 기사만을 내보내는 선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 ① (나)와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결과 화면에는 공통된 특징이 없군.
- ② (나)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결과 화면처럼 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군.
- ③ (나)에는 ‘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하여 별개의 기사처럼 여러 번’ 올린 흔적이 남아 있군.
- ④ (나)에 표제만 있고 본문이 없는 기사가 향후에도 올라오지 않으려면 ‘선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겠군.
- ⑤ (나)에서 기사 본문으로 이동했을 때 오탈자가 보이더라도 이를 ‘더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는 없겠군.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2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양부분의 줄거리] 잡지 편집장인 ‘나’는 우연한 기회에 소설가 박준이 가짜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침 박준이 투고한 작품을 차일피일 미루며 발표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를 문학 담당 편집자인 ‘안 형’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이 소설을 내보냈을 때 생길지 모른다는 말썽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안 형의 얘기대로라면 말썽이고 뭐고 처음부터 그런 게 생길 리도 없지 않아요. 작품 자체가 어떤 발언을 완성된 목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말입니다.”

할 수 없었다. 나는 말 줄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 형은 이제 더욱 자신을 얻어 가고 있었다.

“그렇지요. 작품 자체가 소재 해석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말씀은 저도 물론 동감이에요. 하지만 말썽으로 말하면 미완의 작품을 내보냈을 때보다 더 무의미한 말썽이 있겠어요? 되지도 않은 작품을 곧잘 칭찬하고 나서는 자들이 또 틀림없이 준동을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안 형은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듯했다. 특히 ‘말썽’이란 말을 할 때 그는 야릇한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아무래도 안 형의 편집만 같군요. 그 사람들에게는 박준의 소설이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형은 끝끝내 다른 사람의 해석 방법은 용납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편집이라도 할 수 없죠. 저로서는 이 시대의 요구라는 것을 일단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전 그 소설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을 두어 보지 않았어요. 제겐 소재 해석만이 문제였죠. 작가가 어떤 소재를 만나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 작가가 자기의 시대 양심에 얼마나 투철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지어 주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박준의 소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저의 기대를 외면해 버렸어요. 제가 박준의 소설이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저의 관심 속에서지요.”

안 형의 이야기는 결국 박준의 소설이 무의미한 한 개인의 내면적 비밀 쪽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감으로써 자기 시대의 요구를 배반했고, 그리하여 소재 해석과 작품 완성에 다 같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주장이었다. 박준이 이 시대의 작가인 이상, 그는 절대로 자기 시대 양심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를 배반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도외시한 모든 창작 행위는 가혹하게 매도당해 마땅하다는 투였다. 이를테면 안 형의 시대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안 형의 편집이 아닐까요? 가령 모든 작가들에게 자기 시대의 요구나 압력을 꼭 안 형과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나, 또는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라 해도 어떤 일정한 방법 속에서만 그 시대정신에 투철해질 수 있다는 식의 생각 말입니다. 박준의 소설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그 소설이 전혀 우리 시대를 외면해 버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준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 ‘나’는 우연히 박준의 인터뷰 기사를 구하게 된다. 그 인터뷰 기사에서 ‘나’는 박준이 유년 시절에 겪은 전짓불의 공포, 곧 6.25 당시 경찰대인지 공비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전짓불을 얼굴에 내비치며 어느 편인가를 물었던 공포스러운 상황을 작가가 된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된다. 박준은 작가로서의 자기 진술을 억압하는 실체로서의 ‘전짓불’의 공포를 언급하며, 자신의 소설은 바로 그 전짓불의 공포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박준이 마지막으로 전짓불의 이야기를 썼던 것은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박준은 작가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정체가 보이지 않는 전짓불의 공포를 견디면서도 끝끝내 자기의 진술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박준은 그만한 각오조차도 지켜 내질 못해 온 셈이었다. 그의 독자들이, 안 형과 내가, 그의 소설을 내보내 주지 않은 교활한(또는 지나치게 용기가 없거나 용기가 없는 체하거나, 그 용기와 관련하여 편집이 심한) 편집자들이, 그보다도 그의 전짓불 뒤에서 끝끝내 정체를 드러내지

[A] 않은 채 복수만을 음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다니는 정체불명의 소문들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내면에 용틀임치는 진술욕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전짓불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소문과 갈등을 빨아먹으며 전짓불은 그의 의식 속에서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 갔다. 그 전짓불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의 속에서 은밀히 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갈등과 불안의 씨앗이었다. 이제 그 씨앗이 발아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박준의 마지막 소설 속에서 한 작가로 하여

금 끝끝내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게 만든 방해 요인의 상징으로 훌륭하게 완성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소설 속에서 한 작가가 얼마나 가혹하게 자기 진술을 간섭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무참한 파국을 겪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증언해 준 것이다. 그가 그런 소설을 쓰게 된 것은 거의 필연적이었다.

박준은 그 모든 것을 2년 전에 벌써 다 예감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박준의 예감대로 진행되어 온 셈이었다. 박준이 그가 예언한 대로 정말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큼 전혀 자기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을 숨기고 있기 때문일 터였다.

하지만 이제 내게 확실해진 것은 그런 박준의 사정만이 아니었다. 박준의 사정이 확실해진 만큼 또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잡지 일이 탁탁해진 이유였다. 원고들이 잘 걸리지 않고 있는 것이나 견혀 들어온 원고들이라야 모두 그렇고 그런 이유가 비로소 분명해져 있었다. 전깃불 때문이었다. 박준을 괴롭히고 있는 전깃불은 비단 박준 그 한 사람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자발적이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든, 또는 일부러든 무의식중에든 조금씩은 그 전깃불 빛 비슷한 것을 눈앞에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터. 누구나 자신의 전깃불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전깃불은 이쪽에서 정직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진술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더 두렵고 공포스럽게 빛을 쏘아 대게 마련이다. 원고들이 잘 견혀 들 리 없었다. 쉽사리 거둬들일 수 있는 글이란 그 전깃불 빛을 견디려 하지 않은 것들뿐. 그런 글들이 신통할 리 없었다. 사정이 거기까지 확실해지고 나자 나는 혼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청준, 「소문의 벽」

01

▶ 21051-010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 기대어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대상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④ 풍자적 어조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한 인물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직접 서술을 통해 인물의 의식과 작중 상황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02

▶ 21051-010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안 형’은 박준의 작품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다.
- ② ‘안 형’은 작품의 완성 여부보다는 소재의 해석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
- ③ ‘나’는 ‘안 형’과 마찬가지로 박준 식의 작품 완성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안 형’은 작품의 성패 여부를 작가가 시대의 양심에 얼마나 투철해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지어 판단한다.
- ⑤ ‘나’는 박준의 소설이 우리 시대를 외면한 작품이라는 ‘안 형’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01

▶ 21051-010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 기대어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대상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④ 풍자적 어조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한 인물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직접 서술을 통해 인물의 의식과 작중 상황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03

▶ 21051-0108

[A]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준의 마지막 소설은 전깃불 때문에 생긴 불안과 그로 인한 파국적 상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 ② 박준의 소설 쓰기는 작가의 정직한 진술을 억압하는 시대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창작 행위이다.
- ③ 박준의 전깃불 이야기는 편집자들의 편견을 이겨 내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창작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 ④ 박준은 전깃불의 공포를 견디며 자기 진술을 해야 하는 작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던 작가였다.
- ⑤ 전깃불 뒤에서 정체 모를 소문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작가적 소임을 펼치지 못하도록 박준을 억압한 존재들이다.

윗글의 등장인물들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나'(서술자) - ㉡ 박준 - ㉢ '안 형'

㉣ 박준의 마지막 소설 속 인물인 작가

- ① ㉠은 ㉡의 마지막 소설에서 채택한 창작 방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 편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현실 속의 ㉡와 ㉢의 마지막 소설은 ㉠에게 창작 행위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를 통해 ㉡의 개인적 고뇌를 이해하게 된다.
- ④ ㉠은 ㉡와 갈등하고 있는 ㉢의 시대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와 ㉣는 모두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게 억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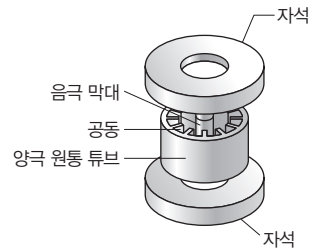
[05~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열을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할 때는 식품의 표면을 가열하여 열전도를 통해 열이 그 내부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식품은 대개 열전도율이 낮아 가열 온도를 높일 경우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커지게 된다. 그 결과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하는 장치로 식품의 겉과 속을 동시에 고루 가열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식품을 데울 수 있고,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와 물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자기파는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파동으로, 파장과 진동수의 곱은 항상 광속과 같다. 전자기파는 파장 또는 진동수를 기준으로 그 종류가 구분되며,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한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1mm~1m에 이르는 전자기파로 금속에 가해지면 반사되고 공기나 유리, 종이 등은 투과한다. 하지만 마이크로파가 물과 같은 물질을 만났을 때는 그 물질에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산소 원자 한 개에 104.5°의 각을 이루며 결합된 형태이다. 물은 그 분자 내에서 수소 원자 쪽이 양의 전하*를, 산소 원자 쪽이 음의 전하를 띠는 극성 물질이다. 얼음과 같은 고체상일 때의 물 분자들은 방향과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액체상인 물로 존재할 때의 물 분자들은 그 방향과 위치가 유동적이다. 액체상의 물 분자에 마이크로파가 가해지면 물 분자는 그 극성으로 인해 마이크로파의 전기장과 평행하게 되도록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마이크로파가 진행하면서 전기장의 방향은 주기적으로 계속 바뀐다. 그때마다 양의 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는 (-) 쪽으로, 음의 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는 (+) 쪽으로 끌리게 되면서 물 분자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레인지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이크로파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전자레인지의 내부에는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마그네트론이 있다. 마그네트론은 음극 막대와 이를 동심원으로 둘러싼 금속제 양극 원통 튜브, 그 위아래에 위치하는 강력한 자석으로 구성된다. 전자기파의 발생을 위해서는 먼저 음극 막대를 가열해야 한다. 가열된 음극



<마그네트론의 주요 구조>

막대에서 전자가 방출되면 방출된 전자는 양극 원통 튜브를 향해 가게 되는데, 위아래에 형성된 자기장으로 인해 전자의 경로는 휘다. 이때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적절한 전압을 걸어 주면 전자는 원통 내부를 계속 회전하게 된다. 금속 칸막이로 나뉜 공동 주변

을 회전하는 전자는 공동 주위로 양극에 있던 전자의 왕복 운동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발생한 마이크로파는 도파로라는 관을 타고 음식이 놓인 전자레인지 속 조리실로 전달된다.

일반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이 만들어 내는 마이크로파의 진동수는 대략 2,500MHz이다. 이는 전기장의 방향이 1초에 대략 25억 번씩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다. 방향이 바뀌면서 물 분자끼리는 서로 충돌하게 되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어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를 통해 전자레인지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방식보다 훨씬 빨리 물을 끓는점까지 도달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수분을 포함한 식품들을 데울 때 유용한데, 유리컵은 전자레인지에서 잘 데워지지 않는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진동수가 크면 식품에 강하게 흡수될 수 있지만, 깊이 침투하기는 어렵다. 진동수가 작으면 깊이 침투할 수는 있겠으나 투과되는 양이 많아 효율적으로 조리할 수 없게 된다.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진동수를 2,500MHz 내외로 한 것은 진동수에 따른 침투 깊이와 조리 효율을 고려한 것이다. 마이크로파가 식품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두께는 식품마다 다른데, 고구마의 경우 평균적으로 3cm, 최대 5~6cm이므로 이보다 더 두껍다면 적당히 잘라야 고루 익힐 수 있다.

음식물을 손쉽게 가열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기파가 자신의 파장보다 1/50 정도로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의 파장은 광속에서 진동수를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대략 12cm이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앞 유리에 12cm의 1/50보다 작은, 지름 약 0.2cm의 구멍이 촘촘히 뚫려 있는 금속 그물을 붙여 놓으면 전자레인지 내부의 작용은 바깥과 거의 차단된다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는 금속으로 덮여 있는 조리실 내부에서 반사가 되고, 앞 유리의 금속 그물을 통해서도 반사되어 대부분 새어 나오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전자레인지 앞 유리의 금속 그물은 전자레인지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당히 줄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하(電荷):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실체.

*전기장(電氣場): 전기를 띤 물체 주위의 공간을 표현하는 전기적 속성.

05

▶ 21051-01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자레인지의 장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열 방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전자레인지를 구성하는 특정 부품에 적용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전자레인지의 구조를 설명하며 여러 종류의 가열 방식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전자레인지를 작동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상 유의점과 전자레인지가 식품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전자레인지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과 장치의 작동 과정을 통해 전자레인지에서 식품이 조리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06

▶ 21051-01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정한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알고 있다면 파장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물 분자는 마그네트론의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와의 접촉을 통해 1초에 25억 번 회전한다.
- ③ 전자레인지는 물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물을 끓는점까지 도달시킨다.
- ④ 특정 각도를 이루며 결합된 물 분자 내의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각각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를 띤다.
- ⑤ 마그네트론의 자석으로 인해 형성된 자기장은 가열된 음극 막대에서 방출된 전자가 양극 원통 튜브를 향해 가다가 휘도록 만든다.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가)**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顏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봄날이 따뜻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축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A]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襄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어 접대할꼬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많다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어 여의려뇨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망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B]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포로 여윌려냐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안표**: 안회(顏回)의 표주박. 공자의 제자인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항에 살면서도 즐거워했음.원헌**: 공자의 제자로 궁핍함 속에서도 청빈하게 살았음.***싸리피 바랭이**: 싸리피와 바랭이로 잡초의 일종임.***장초의 무지**: 「시경」에 나오는 말. 부역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했음.**(나)** 부렁에 유배 온 지 몇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었다. 주민에게 의논했더니 이렇게 일러 주었다.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오랑캐 땅은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합니다.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게 팔고 곡식을 산다면 그 값이 원래 곡식의 몇 배나 될 것이니,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은 장사꾼이 하는 일이니 나는 차마 할 수 없다고 한참 동안 주저했다.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아이종이 성을 내었다. 잠시나마 죽지 않기 위해 그 방법대로 하려니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하여 아이종을 시켜 몇 말 곡식을 가지고 구십 리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사 오게 하니, 소금이 열 말 정도 생겼다. 이 소금을 말에 싣고 백이십 리 떨어진 북관(北關)으로 가서 곡식을 사 오라 하자, 곡식이 스무 말 정도 생겼다. 길을 오가며 사고팔 때마다 반달이 걸리므로 내 말이 지치고 내 아이종도 지쳤지만 내 배는 굶주리지 않았다.

먹을 것이 모자랐을 때는 온 집안사람들이 성을 내고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곡식을 가지고 갈 적에는 이렇게 당부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 너는 이를 안으로 소금을 사 오나라.”

소금을 싣고 갈 적에는 이렇게 신신당부했다.

“굶주린 지 이미 오래다. 너는 빨리 곡식을 사 와라.”

아이종이 떠난 뒤로는 손가락을 꼽아 날을 계산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이종이 곡식을 사 오자 집안사람 모두 곡식을 둘러싸고 보면서 얘기를 했다.

“이 곡식을 얻었으니 우리는 조금이나마 연명할 수 있겠다.”

불을 때서 밥을 짓고 손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으니 알알이 모두 맛이 있었다. 굶주린 배를 채우고 빼만 남은 몸에 살이 붙자 화기애애하게 기뻐하며 머리를 맞대고 축하했다.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덩이에 뒹구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변방의 굶주린 귀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장사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중간에는 장사를 하느라 마음을 쓰고, 끝내는 먹을 것을 얻어 다행으로 여겼다.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약간의 쌀이나 마 얻기를 바라며 오직 장사를 잘하지 못할까 걱정했다. ㉣마음에 담은 것은 오직 이 일뿐이었다. 목숨을 건지기에 급급하여 수치를 아는 본심은 죄다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자 습관이 되어 마침내 판사람이 되고 말았다. 때때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다

가도 다 웃고 나면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천지 사이에 사는 백성은 오직 사농상고(士農商賈) 넷뿐이다. 나는 젊었을 적 성현의 책을 읽으며 오직 도를 추구했다. 옛일이 아니면 감히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사(士)이다. 늙어서는 먹고 사는 일이 빌미가 되어 오로지 먹을 것을 추구했다. 장사가 아니면 할 일이 없었으니 이것이 상(商)이고 고(賈)이다. 이 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농(農)뿐이다. 농부는 땅을 지키며 김매기를 일삼아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며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백발의 늙은이가 태평성대에 죄를 짓고 변방에 유배되어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비록 농부가 되고자 한들 될 수 있겠는가.

옛날의 선비는 경전과 역사책을 인용하여 도덕과 이치를 이야기했다. 성인의 무리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어 차츰 삼대(三代)* 이전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다. 장사꾼에게 침을 뱉고 농부를 멸시하며, 감히 입에 올리지도 않고 천지 차이로 여겼다. 지금은 장사를 하면서도 달게 여기고, 농부로 말하자면 감히 바랄 수도 없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도, 구렁이에 떨어지는 것도 잠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다. 몸이 굴복하면 마음도 굴복하는 법, 이 몸으로 장사를 일삼으니 내가 부끄럽고 내가 우습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안타까웠다.

내가 생각하며 바라는 점은 이것이다. 성상의 도량이 하늘과 같으니, 만약 개미처럼 미천한 내가 시골의 농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손에 쟁기를 들고 밭 갈기를 일삼아 위로는 제사를 지내고 다음으로 조세를 바치며 아래로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천한 내가 살 곳을 얻어 태평성대에 성상의 덕을 칭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 소공(召公)*이 농사를 강조한 것은 치세(治世)에 공을 이룬 뒤의 일이었다. 나는 유배되어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니, 이 또한 몹시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하여 혀를 차며 이 글을 짓는다.

- 홍성민, 「무염판속설(買鹽販粟說)」

*삼대: 고대 중국의 세 왕조. 하(夏), 은(殷), 주(周)를 이룸.

*소공: 중국 주나라 때의 정치가.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인물로 유명함.

10

▶21051-0115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와 달리 (나)의 글쓴이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와 달리 (나)의 글쓴이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 정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의 글쓴이와 달리 (가)의 화자는 특정한 인물을 본받으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학문에 힘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

11

▶21051-0116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의문의 방식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대상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2

▶ 21051-0117

<보기>를 참고하여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화자는 자신과 ‘가난 귀신’ 사이의 대화 상황을 제시하여 가난으로 인한 고통, 가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깨달음, 그리고 가난을 수용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 ① 화자가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의려노’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처음에는 가난을 벗어나야 할 고통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난 귀신’이 화자에게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라고 한 것에서, 가난으로 인한 화자의 고통이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겠군.
- ③ 화자가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라고 한 것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화자가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일려냐’라고 한 것에서, 자신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화자가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라고 한 것에서,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는 데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13

▶ 21051-0118

<보기>에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나)를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한 것끼리 골라 묶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나)는 1591년 글쓴이인 홍성민이 당쟁으로 인해 함경도 부령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입니다. 이전의 유배 문학이 주로 연군(戀君)의 정을 호소하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유배 생활의 경제적 곤란, 신분에 대한 고정 관념, 유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는 소망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당대 북쪽 변방 유배지의 인심과 풍속을 연구하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유배지의 인심이 나빠 이에 영향을 받은 종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주인과 종 사이의 법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생 2: 당대의 북쪽 변방 유배지에서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학생 3: 글쓴이가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전 유배 문학의 연군의 정과 연결할 수 있어요. ...㉢

학생 4: 글쓴이는 유배 생활의 경제적 곤란을 모면하기 위한 자신의 선택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은 신분에 대한 고정 관념과 관련이 있어요.㉣

학생 5: 글쓴이는 임금의 은혜로 유배에서 풀려난다면 직접 농사를 짓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14

▶ 21051-01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이 매우 가난한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농사를 지으려 하나 종자가 부족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겨울에 입을 최소한의 옷도 부족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출세와 몰락은 순간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명사 디노미네이션 앞에 ‘다시’를 뜻하는 접두사 ‘re-’를 ㉠붙여 만든 단어이다. 이미 쓰이고 있는 화폐의 액면가를 다시 설정하는 일을 일컬으며 통상적으로 화폐의 액면 절하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한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둔 채 액면을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숫자로 변경하거나 그와 더불어 새로운 화폐 단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실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지막 화폐 개혁이 있었던 1962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화폐 발행이 증가하는 만큼 물가도 꾸준히 상승했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 통용되는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기업 등에서의 장부 기재상 불편을 줄일 수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는 국내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화폐 단위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본격적 논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며 통용되는 화폐의 자릿수가 늘어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국제 무역에서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그것이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면 모든 상점에서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표기하게 되므로 계산과 지급상의 편의가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화폐에 대한 제작 비용과 더불어 화폐 관련 기계나 프로그램 등을 교체하고 수정하는 데 들어갈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될 경우, 화폐의 자릿수의 감소에 따라 생활 물가가 오르며 인플레이션을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원화 단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1,000분의 1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된다면 상인은 기존의 19,000원짜리 물건을 19원이 아니라 20원으로 올려서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전 1,000원과 실행 후 1원의 가치가 같더라도, 소비자는 실행 후 1원의 인상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야기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안이 지속된다면, 화폐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 도입과는 별개로 일부 국내 소매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자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10,000원을 1,000:1의 비율로 조정하여 ‘10.0’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상품의 실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 표시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구매 결정 과정의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서는 구매 과정에서 가격이 제시되는 형태는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른바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으로 구분한다. 빠른 직관은 무의식, 직관에 의해 작동하는 기제로서 본능적이거나 숙달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적합하며, 빠른 직관의 사고 체계를 통해 인간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인지적 부담을 줄이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처리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느린 이성은 의식, 이성에 의해 작동하는 사고 체계로 심사 숙고하여 비중 있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작동한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인간은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협응을 통해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고자 한다. 일상적 사건의 원활한 처리와 단기적 예측에 효과적인 빠른 직관은, 느린 이성을 필요로 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만든다. 전체적인 인지 과정의 수고를 줄이고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빠른 직관의 사고 체계 내에서 인간은 종종 부정확한 판단을 하고, 예측이 어긋나는 상황에 직면한다. 느린 이성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비교적 긴 시간을 들여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에 이르므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반응 속도의 차이로 인해 일상 속 인간은 빠른 직관을 주로 활성화하고, 느린 이성의 개입을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나 복잡한 계산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러한 경향은 강화된다고 본다. 심리학자 애플리와 길로비치는 유사한 사례로 여행지에서 외화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람들은 정확한 환율 계산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기보다는 표기된 액면가를 확인하고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불완전한 어림짐작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리디노미네이션 표기 방식은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처리할 때 빠른 직관의 영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릿수의 감소는 소비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덜어 주고, 소비자는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적 과정에서 실제 지불 금액의 가치를 떠나, 적은 숫자이기에 저렴하다고 여기게 되는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질 가치의 변화 없이 액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것은 소비 활동 과정에서 금액을 지불하는 주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

▶ 21051-01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인되지 않은 리디노미네이션 표기의 부적절성을 모의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②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된 실제 사례를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경제 활동 과정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리디노미네이션의 의미를 통해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과정을 통해 여론의 흐름이 정책 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6

▶ 21051-01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의 실행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 ② 화폐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액면을 특정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면서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것도 리디노미네이션이다.
- ③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소매점에서는 국가적 정책과는 관련 없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리디노미네이션 표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 ④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평소에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려는 기제를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⑤ 외국 화폐가 통용되는 여행지에서 소비 주체는 환율을 계산한 가격보다는 표기된 액면가를 통해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7

▶ 21051-0122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은 인간이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 벌어질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은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이 지닌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① 인간이 일상에서 종종 하게 되는 비합리적 선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군.
- ②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존재임을 설명하는 이론이군.
- ③ 인간이 합리적 선택과 비합리적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임을 설명하기에 적절하군.
- ④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고하는 여러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이론이군.
- ⑤ 인간이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군.

18

▶ 21051-0123

윗글을 고려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한 연구자가, 설정된 상황 속에서 실험 집단이 나타내는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모든 피실험자에게 현재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아 가능하다면 적은 돈을 지출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 후 ㉠ 집단에게는 현재 원화의 액면가를 그대로 표기한 가격표를, ㉡ 집단에게는 현재의 원화를 1,000 : 1의 비율로 하향 조정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 방식의 가격표를 각각 제시했다. 그리고 다시 각 집단의 피실험자를 둘로 나누어 한쪽에는 주문을 완료하기까지 20초 내에 세 가지의 메뉴 선택을 마무리하도록, 다른 한쪽에는 5초의 시간을 주어 세 가지를 고르도록 했다. 연구자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피실험자의 선택 결과를 종합하여 각 상황별 주문 금액의 평균값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집단	㉠	㉡
메뉴 선택 시간			
5초		16,000 ... (a)	19.0 ... (b)
20초		14,000 ... (c)	10.5 ... (d)

- ㄱ. (a)와 (b)의 차이에서 자릿수가 많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빠른 직관의 처리 과정 중에 느린 이성이 개입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ㄴ. (b)와 (d)의 차이에서 시간적 여유가 적을 때 빠른 직관의 작용이 활성화된다고 추론할 수 있군.
- ㄷ. (c)와 (d)의 차이에서 자릿수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 인지적 부담이 낮아져 오류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ㄹ. (b)와 (d), (c)와 (d)의 차이에서 자릿수가 적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느린 이성의 작용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9

▶ 21051-0124

<보기>는 학생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의 국가적 실행에 대해 대화한 내용의 일부이다. 윗글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학생 1: 1,000분의 1 리디노미네이션이 만약 실행된다면, 소비자는 실행되기 전 1,000원의 인상보다 실행 후 1원의 인상에 심리적 저항감이 덜할 것이고, 판매자 역시 값을 보다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확산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학생 2: 화폐 가치의 불확실성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여 부동산으로 자금이 모일 우려가 커질뿐더러, 화폐의 자릿수와 대외적 위상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화폐의 자릿수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의 국가적 실행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 3: 고려해야 할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려면 새로이 통용될 화폐를 만드는 비용, 화폐와 관련된 자동화 기기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리디노미네이션이 가져올 효용이 더 큰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 4: 하지만 현재 한국의 명목 GDP는 1962년과 비교하면 5,000배 이상 높아졌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천 단위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5: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원화로 값을 치르며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업에서의 장기 기재, 일상 속에서의 계산과 지급상에서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화폐 액면의 자릿수를 일정 비율로 줄이는 방안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 ① 학생 1의 의견 ② 학생 2의 의견
- ③ 학생 3의 의견 ④ 학생 4의 의견
- ⑤ 학생 5의 의견

20

▶ 21051-0125

밑줄 친 ㉠~㉤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 부부는 정을 붙이면서 살기 마련이다.
- ② ㉡: 아이를 지금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 ③ ㉢: 그는 첫 번째 시집을 세상에 내놓을 예정이다.
- ④ ㉣: 거짓이 불신을 낳아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
- ⑤ ㉤: 면접관은 힌 지원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장이 미소하고 처소로 돌아와서 수일 후에 분부하여, 춘풍이를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 매고,

“이놈, 너 들어라. 네가 춘풍이냐? 너는 웬 놈으로 막중한 나랏돈 호조 돈을 빌려 쓰고 평양 장사 내려와서 사오 년이 지나 가되 일 푼 상납 아니하기로, 호조에서 공문을 내려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죽기를 사양치 말라.”

하고 사령에게 호령하여,

“각별히 매우 처라.”

하니, 사령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장하니, 춘풍의 약한 다리에서 유희이 낭자한지라. 비장이 내려다보고 또 치려 하다가 혼잣말로 “차마 못 치겠다.” 하고 사령을 불러,

“너 매 잡아라. 춘풍아 너 들어라.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느냐? 투전을 하였느냐? 돈 쓴 곳을 바로 아뢰어라.”

춘풍이 형틀 위에서 울면서 여쭙되,

“소인이 호조 돈을 내어 쓰고 평양에 내려와서 내 집주인 추월이와 일 년을 함께 놀고 나니 한 푼도 없어지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리님 분부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옵소서.”

비장이 본래 추월이라 하면 원수같이 아는 중에, 이 말을 듣고 이를 갈고 호령하여 사령에게 분부하되,

“네 가서 그년 잡아 오라. 바빠바빠 잡아 오되, 만일 지체하였다가는 네가 중죄를 당하리라.”

하니 사령이 덜미 집어 잡아 왔거늘,

“형틀 위에 올려 매고 별태장 골라잡고 각별히 매우 처라. 사령, 네가 사정을 두었다가는 네 목숨이 죽으리라.”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매마다 표를 하며 십여 대를 중장하며,

“이년, 바빠 다짐하여라.”

호령을 서리같이 하는 말이,

“네 죄를 내가 아느냐?”

추월이 여쭙되,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녀가 어찌 아오리까?”

비장이 이 말 듣고 성을 내어 분부하되,

“여담절각이라 하는 말을 네 아느냐? 불 같은 호조 돈을 영문(營門)이 물어 주랴, 본관(本官)에서 물어 주랴, 백성에게 수렴하랴? 네 이 지경에 무슨 잔말하랴?”

군뢰 등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형장(刑杖)을 높이 들어, 백일청천(白日青天)에 벼락 치듯 만첩청산(萬疊靑山) 올리듯 금장(禁仗) 소리 호통치며 하는 말이,

“네가 모두 발명치 못할까? 너를 우선 죽이리라.”

하고 주장(朱杖)으로 지르면서 오십 대 중장하고,

“바빠 다짐 못 할쏘냐?”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혼백이 달아난 듯 혼미 중에 겁내어 죽기를 면하려고 애걸하여 여쭙되,

“국법(國法)도 엄숙하고 관령(官令)도 지엄하고 나리님 분부도 엄하오니, 춘풍이 가져온 돈을 영문 분부대로 소녀가 바치리다.”

비장이 하는 말이,

“호조에서 공문 놓아 너를 빨리 죽이라 하였으되, 네 죄를 내가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 하니 너를 살려 주거니와, 호조 돈 이자는 자모지례(子母之例)*로 오천 냥을 전부 궤봉하라.”

추월이 여쭙되,

“십 일 말미를 주옵시면 오천 냥을 바치리다.”

하고 다짐을 써서 올리거늘,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틀에서 내려놓고, 춘풍이를 다시 불러 가만히 약속하되,

“열흘 안으로 전부 받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내가 또한 유고(有故)하여 먼저 떠나 올라가니, 네가 서울로 올라오거든 맥 문하(門下)에 문안하라.”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서서 여쭙되,

“나리님 덕택으로 호조 돈을 수쇄하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돈을 되찾은 춘풍은 서울로 돌아와 장사를 잘 하고 온 듯 아내에게 거드름을 피우는데, 이에 아내는 다시 비장의 차림으로 춘풍 앞에 나타난다.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맥에 문안하라 하였더니, 소식이 없기로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의 박 승지 맥에 가 술을 먹고 대취하여 종일 놀다가, 홀연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왔으니 흰죽이나 썬어 달라!”

하니, 춘풍이 제 지어미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쏜가. 제가 손수 죽을 썬려고 죽쌀을 내어 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네 지어미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內外)를 하느냐?”

[A]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그립던 차에 가술을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 자 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데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가내하(無可奈何)*라.’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 썬는 모양이 우습고도 불만하다.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체하다가 춘풍에게 상재로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감영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에 다 깨진 현 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뜯아래서서 되는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며 다 먹어라!”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하여 여기 저기 살펴보며 얼른얼른 먹는지라.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거동 볼작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

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우스워 못 하겠다. 이런 꼴을 볼작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연후에, 회계 비장 의복 벗어 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하며 춘풍의 등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하니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에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意思)를 보려고 그리했지.”

하고,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금침 펼쳐 덮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이로구나.

그렇저렇 자고 나서 그 이튿날 호조 돈을 다 바치고, 상급한 수만 냥 재산으로 노비 전답 다시 장만하니, 의식이 풍족하고 유자생녀*하여 화목하게 평생 화락이 좋을시고, 그런 것 없이 지냈구나.

-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고찰: 죄인에게 매질을 할 때 형리를 감시하면서 날이 샅피어 몹시 치게 하던 일.

*자모지례: 1년간의 이자가 원금의 2할 이내가 되도록 정한 이자율.

*무가내하: 달리 어찌할 수 없음.

*유자생녀: 아들딸을 많이 낳음.

21

▶ 21051-01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문’은 ‘춘풍의 아내’가 ‘춘풍’을 잡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소재이다.
- ② ‘의복’은 ‘춘풍의 아내’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는 데에 쓴 도구이다.
- ③ ‘현 사발’은 ‘춘풍’이 돈을 탕진하여 몰락했던 현실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춘풍이 가져온 돈’은 ‘추월’이 사건의 전모를 깨달아 자성하는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형틀’은 ‘비장’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하여 ‘춘풍’과 ‘추월’을 응징하는 데에 사용한 도구이다.

22

▶ 21051-0127

[A]에 드러난 ‘비장’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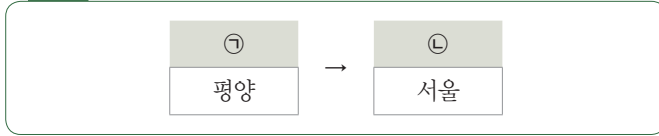
- ① 명분을 내세워 상대방의 처지를 위로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처지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조언하고 있다.
- ④ 다른 이를 핑계로 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 ⑤ 앞일을 추측하면서 상대방이 하려는 일을 만류하고 있다.

23

▶ 21051-0128

〈보기〉는 윗글의 공간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① ㉠은 '춘풍'이 돈을 탕진하는 공간이고, ㉡은 탕진한 돈을 되찾는 공간이다.
- ② ㉠은 '춘풍의 아내'가 '춘풍'과 재회하는 공간이고, ㉡은 다시 이별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춘풍'과 '추월'의 관계가 끊어진 공간이고, ㉡은 그 관계가 연결된 공간이다.
- ④ ㉠은 '춘풍의 아내'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공간이고, ㉡은 그 신분을 밝히는 공간이다.
- ⑤ ㉠은 '춘풍'이 '비장'에게 굴욕을 당하는 공간이고, ㉡은 '춘풍'이 설욕을 하는 공간이다.

24

▶ 21051-01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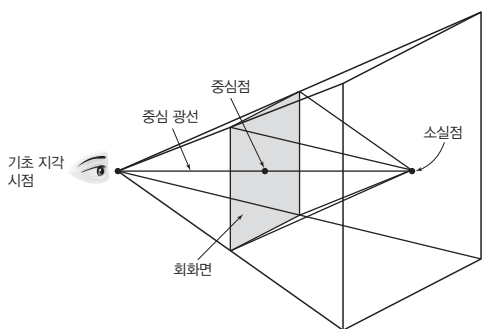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가부장제에 대한 풍자와 적극적인 여성상을 담은 소설로 평가받는다.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방탕한 남성을 적극적인 여성이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다. 방탕한 남성은 자신을 시련에 빠뜨린 후 인정 없이 하대하는 인물을 만나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것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여성은 노력을 통해 관원으로 변장할 수 있게 되고, 아내가 아닌 관원으로 변장한 그녀는 그 권위를 통해 남성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남성에게 여성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한 주체임을 밝힘으로써 깨달음을 주고 남성을 변화시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① 빌린 돈을 탕진한 '춘풍'의 모습에서 책임감이 부족한 남성의 전형을 볼 수 있군.
- ② '호조 돈'을 모두 탕진하게 한 후 '춘풍'을 고생시킨 '추월'은 '춘풍'이 각박한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군.
- ③ '춘풍'이 겪는 어려움을 '관원'으로 변장하여 해결한 '춘풍의 아내'는 조선 후기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여 준 인물로 볼 수 있군.
- ④ '비장'이 자신의 아내임을 알게 된 후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에서 '춘풍'이 과거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군.
- ⑤ '춘풍의 아내'가 '추월'을 '비장'의 권위로 별하지만 결국 풀어 준다는 점에서 철없는 남성을 성장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있군.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회화에서 입체적인 사물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입체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인 원근법 중 대표적인 것이 선 원근법이다. 선 원근법은 소실점과 중심점을 향해 뻗어 나가는 직선들로 평면에 공간적 깊이가 나타나도록 표현하는 방식이다.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가들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회화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재현의 정확도를 정밀히 계측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평면 위에 삼차원성을 부여하여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다 정확히 재현해 내고, 보이는 대상을 평면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선 원근법이라는 회화의 공간 재현 원리를 개발했다.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선 원근법을 정립한 인물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리 눈에서 확산되는 시각 광선이 대상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 나가서 대상에 닿음으로써 시각 이미지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알베르티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뻗어 나가는 광선들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가장 바깥의 시각 광선인 경계 광선을 통해 외곽의 선이 만들어지고, 그 내부의 수많은 광선인 중앙 광선들을 통해 색채를 인지한다고 보았는데, 중앙 광선 중 회화면과 직각을 이루는 하나의 광선을 중심 광선이라 했다. 그는 시각 활동에서 중심 광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관찰자의 한쪽 눈을 꼭짓점으로 하여 뻗어 나가는 시각 광선들을 통해 시각 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시각 피라미드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한 지점에 유리창과 같은 일종의 투과막을 세워 놓은 후 거기에 들어온 장면을 그대로 평면으로 옮겨 나타내면 실제 세계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알베르티는 회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에 들어오는 화면에 변화가 없도록 기초 시각 시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선 원근법에서 중심 광선은 회화면과 중심 광선이 직교하는 지점인 중심점을 지나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설명했다. 회화면을 구성하는 기초 시각 시점과 중심점, 소실점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기초 시각 시점은 그림의 관람자가 화가가 묘사하고자 한 것과 가장 유사한 상을 시각적 환영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시점이다.

물론 입체를 똑같이 평면에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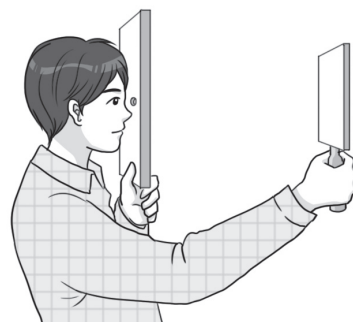
라 선 원근법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정립된 것이기에 실제의 시각 경험과 ㉔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선 원근법을 충실히 따른 그림일지라도 그것은 정교한 방식에 따라 입체를 이차원적으로 재현한 시각적 환영일 뿐이고, 이를 우리는 사실처럼 보이는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㉕선 원근법의 결함을 깨닫고 있었던 당대의 다빈치는 실제의 시각 경험에 보다 부합하는 원근법으로서 멀리 있는 사물을 더 흐릿하게 그리는 공기 원근법을 개발하여 작품에 적용하기도 했다.

*기초 시각 시점: 선 원근법의 원리에 따라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한쪽 눈이 놓이는 곳

(나) 르네상스 시기의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원리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이다. 그는 선 원근법에 따라 성 요한 세례당과 주변 풍경을 한 번의 길이가 30cm 정도인 정방형의 작은 화폭에 그리고 그 복판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그 작은 그림을 보도록 했다. 그의 지시는 아래와 같았다.

브루넬레스코는 먼저 사람들을 세울 지점과 세례당 건물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는 눈의 높이와 시선의 방향까지도 고정될 수 있도록 그림을 관찰할 지점을 정했다. 브루넬레스코는 자신이 그림을 그렸던 지점인 기초 시각 시점에서의 풍경을 사람들도 똑같이 보도록 서 있는 위치와 관찰자의 눈높이 등을 조정했다. 기초 시각 시점을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각적 환영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고 나서 브루넬레스코는 사람들이 한 손에 그림을 들고 한쪽 눈을 그림 복판에 뚫은 구멍의 뒷면에 대도록 한 후, 다른 손은 거울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그림과 거울이 나란히 위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림 복판의 구멍과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에 직각으로 닿을 수 있도록 높이를 잘 조정하면, 그림 복판에 난 구멍에 눈을 바짝 붙이고 거울을 보게 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의 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림이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브루넬레스코는 사람들에게 거울에 비친 세례당 그림과 실물 세례당을 차례로 비교하게 했다. 그림의 복판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거울에 비친 그림을 보던 사람들은 구멍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손에 든 거울

을 잠시 젖히고 실물 세례당을 보았다. 실제로 당시에 브루넬레스코의 지시에 따라 그림을 직접 보았다고 전해지는 그의 제자 마네티는 선 원근법에 입각해 그려진 그림의 상과 실물은 윤곽선, 형태, 비례 관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일치했다고 기록했다.

25

▶ 21051-0130

‘알베르티’와 ‘브루넬레스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했고,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원리를 실제로 구현했다.
- ②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을 독자적으로 주장했고,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적절성을 여러 사람과 따져 보았다.
- ③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논리를 경험적으로 터득했다.
- ④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을 당대인들에게 가르쳤고,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실연 조건을 알베르티를 통해 배웠다.
- ⑤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을 의심 없이 수용했고,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에 반영된 이론을 맹신하는 것을 경계했다.

26

▶ 21051-013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브루넬레스코가 사람들의 그림 관찰을 위해 정해 둔 지점은 자신이 성 요한 세례당 그림을 그렸던 지점이었겠군.
- ② 알베르티는 면밀하게 선 원근법이 적용되어 그려진 회화는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제와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보았겠군.
- ③ 브루넬레스코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바라본 성 요한 세례당과 주변 풍경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좌우를 반전시켜 그렸겠군.
- ④ 브루넬레스코는 사람들이 그림 뒷면의 구멍에 눈을 댈 때 그림의 구멍과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에 직각이 되게 하도록 지시했겠군.
- ⑤ 알베르티가 선 원근법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시각 광선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르네상스 시기의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한 가정이겠군.

27

▶ 21051-0132

(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 원근법을 최초로 회화에 적용한 인물은 누구인가?
- ② 선 원근법보다 입체를 더 현실감 있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입체를 평면에 재현하는 방식으로서 선 원근법이 후대의 미술에 끼친 영향은 어떠한가?
- ④ 선 원근법 이외에 삼차원을 이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일상적 시각 경험과 선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8

▶ 21051-0133

〈보기〉는 (가)를 읽고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기

시각 피라미드에서 ㉠부터 ㉣까지의 거리는 곧 화가가 회화에 나타내고자 하는 깊이가 되고, ㉣을 꼭짓점으로 하는 작은 피라미드는 회화가 환기하는 환영의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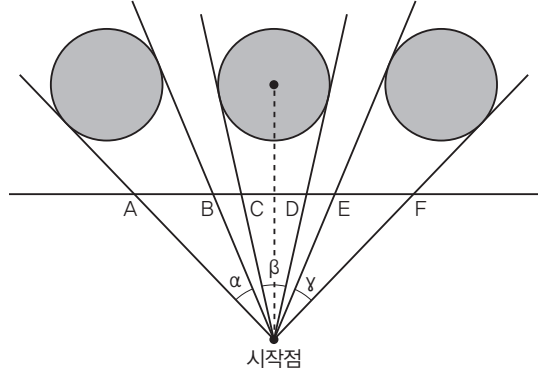
	㉠	㉡	㉢
①	중심점	소실점	소실점
②	중심점	소실점	기초 지각 시점
③	기초 지각 시점	중심점	기초 지각 시점
④	기초 지각 시점	중심점	소실점
⑤	기초 지각 시점	소실점	기초 지각 시점

29

▶ 21051-0134

〈보기〉는 ㉣에 대한 다빈치의 견해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윗글과 〈보기〉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그림에서 색이 칠해진 세 공의 지름은 모두 같고, 중앙의 공을 기준으로 양옆에 놓인 다른 두 공의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같다. 시작점에서 각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리고 각 원의 접선이 이루는 각도를 각각 측정하면 $\alpha = \gamma < \beta$ 이다. 시작점과 중앙의 공의 중심을 연결한 접선에 수직이 되도록 시작점과 세 공 사이에 직선을 그리고 그 선분의 길이를 비교하면 $AB = EF > CD$ 가 된다.

- ① 〈보기〉의 점 A부터 점 F를 연결한 선분은 선 원근법에서의 회화면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선 원근법에 따라 〈보기〉의 세 공을 그리는 경우 기초 지각 시점에서 멀리 있는 공을 더 크게 그리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군.
- ③ 일상적 경험을 통한 직관적 지식을 고려하면 〈보기〉의 세 공을 눈으로 볼 때는 중앙에 있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파악하겠군.
- ④ 〈보기〉를 통해 인간의 일상적 지각에서 사물의 크기는 각도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선 원근법에서는 기초 지각 시점의 높이에 따라 화면의 깊이가 달라짐을 나타내기 위해 〈보기〉와 달리 두 눈을 통해 본 대로 장면을 재현하겠군.

30

▶ 21051-0135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과연 그 답이 맞는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 ② 다시 생각해 보니 아까 내가 한 말이 맞는다.
- ③ 이 안경이 바로 아까 그 학생 것이 맞을 것이다.
- ④ 나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맞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⑤ 가게에서 치수가 내 몸에 맞는 옷이 없어서 사지 못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저*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복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몹서리쳤다. 그런 날은 향유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낡은 ㉥버드 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 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호저: 혼자.

(나)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빨발 때문이었다

빨발에 위험을 무릅쓰고 피덕거리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 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빨발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문정희, 「울포의 기억」

31

▶ 21051-013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나 글쓴이의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32

▶ 21051-0137

(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는 과거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 ② ㉢는 상실을 겪었던 공간이고, ㉣는 상실의 슬픔으로 인해 방황하는 공간이다.
- ③ ㉤는 세월이 흘러갔음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 ④ ㉤는 글쓴이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는 글쓴이가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대상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공간이다.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어머니’가 화자를 ‘바다’로 데려간 것이 ‘빨밭’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과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계기가 된 것이로군.
- ② ‘빨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빨밭’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군.
- ③ 화자는 자신의 삶을 ‘무위한 해조음’에 빚대어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는 성찰을 하고 있군.
- ④ 빨밭에서 먹이를 건지는 사람들을 ‘성자처럼’이라 표현하여 그들의 노동을 숭고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군.
- ⑤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은 ‘빨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 ‘슬프고 경건’하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군.

<보기>와 같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문학 작품에서 이미지는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선명한 인상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안에 의미를 담아 글쓴이나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환기합니다. 또한 작품 전체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 선명한 색채 이미지의 활용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서 그 의미나 효과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합시다.

- ① ㉠: ‘노을’의 ‘자줏빛’은 글쓴이의 그리움과 쓸쓸함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 ② ㉡: ‘어두운’은 글쓴이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③ ㉢: ‘어느새 어둠이 기어 와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④ ㉣: ‘푸른 물’은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으로서의 바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⑤ ㉣: 인간을 포함한 온갖 생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빨밭이 떠는 색깔을 ‘검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의 합성어에서는 종종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사잇소리 현상은 두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하나는 경음화 현상으로서 뒤 요소의 첫소리가 평음에서 경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봄’과 ‘비’가 합쳐진 합성어 ‘봄비’가 [봄비]가 아니라 [봄뻬]로 소리 나거나 ‘초’와 ‘불’이 합쳐진 합성어 ‘촛불’이 [촛불]이 아니라 [촛뿔]로 소리 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앞의 말에 받침이 없으면 ‘ㄷ’ 소리가 첨가되기도 한다. 즉 ‘촛불’은 [촛뿔]뿐 아니라 [촛뿔]로도 발음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앞의 말과 뒤의 말 사이에 ‘ㄴ’ 혹은 ‘ㄴ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코’와 ‘물’이 합쳐진 ‘콧물’은 [코물]이 아니라 [콘물]로 소리 나고, ‘나무’와 ‘잎’이 합쳐진 ‘나뭇잎’은 [나무입]이 아니라 [나무넙]으로 소리 난다.

그런데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 늘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물꼬기]’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만, ‘불고기[불꼬기]’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세대나 지역에 따라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밥’을 노년 세대에서는 간혹 [김:밥]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김:뺨]으로 발음한다. 어떤 경우에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일어나지 않는지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다만, 앞의 말이 뒤의 말에 대해 ‘시간, 장소, 용도/목적, 무정물 소속 대상’의 의미를 지니면 사잇소리 현상이 잘 일어나고,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대등한 관계인 경우 혹은 앞의 말이 뒤의 말에 대해 ‘모양, 재료, 수단/방법, 유정물 소속 대상’의 의미를 지니면 사잇소리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위의 ‘물고기’는 ‘물’이 ‘고기’가 사는 장소이므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불고기’는 ‘불’이 ‘고기’를 요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나뭇잎’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잎’이 소속된 ‘나무’가 무정물인 식물이기 때문이고, ‘새우등’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등’이 소속된 ‘새우’가 유정물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 조건에는 다소의 예외도 있다.

사잇소리 현상은 앞 음절의 끝소리가 ‘ㄱ, ㄷ, ㅂ’일 때 그 뒤에서 평음이 자동적으로 경음화하는 현상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늑대[늑뻬], 솟대[솟뻬], 접시[접씨]’에서는 앞의 ‘ㄱ, ㄷ, ㅂ’ 소리 때문에 뒤의 평음이 경음으로 바뀐다. 이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인 합성어 형성과정도 상관없고 의미적 조건과도 상관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잇소리 현상을 앞말의 받침에 사이시옷을 적음으로써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앞 요소가 모음으로 끝나서 사이시옷을 적을 자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합성된 앞뒤 요소의 어종이 적어도 하나는 한자어가 아니고 고유어이어

야 한다. 예컨대 ‘차이(差異)’와 ‘점(點)’이 합성된 ‘차이점’은 발음이 [차이쩍]이지만 ‘차잇점’으로 적지 않는다. 다만, 고유어가 들어 있는 합성어라도 다른 한 요소가 외래어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35

▶ 21052-0140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논밭[논반]’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논’과 ‘밭’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군.
- ② ‘책가방[책까방]’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은 ‘책’이 담기는 장소가 ‘가방’이기 때문이군.
- ③ ‘반달[반:달]’과 ‘보름달[보름뻬]’이 사잇소리 현상의 유무가 다른 것은 ‘반달’의 ‘반’은 모양을 나타내고 ‘보름달’의 ‘보름’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군.
- ④ 외래어인 ‘피자’와 고유어인 ‘집’이 합쳐진 합성어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피자집’으로 적겠군.
- ⑤ ‘전세방(傳貫房)[전세뻬]’과 ‘전셋집(傳貫집)[전세쩍/전센쩍]’에서 사이시옷 유무가 다른 것은 ‘방’과 ‘집’의 어종이 다르기 때문이군.

36

▶ 21052-0141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사잇소리 현상이 속하는 음운 변동 유형이 모두 나타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은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고,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이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생기는 것이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한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다.

- | | |
|------------|------------|
| ① 굽는다[궁는다] | ② 갇히다[가치다] |
| ③ 앞사람[압싸람] | ④ 훌이불[훈니불] |
| ⑤ 흙바람[흑빠람] | |

37

▶ 21052-0142

〈보기〉의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그가 우리를 속였음이 분명하다.
- ㉡ 그들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었다.
- ㉢ 형이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날렸다.
- ㉣ 아침에 예쁜 새가 창가로 날아왔다.
- ㉤ 친구가 공원에서 내게 선물을 주었다.

- ① ㉠에서 ‘그가’는 안은문장의 주어이고 ‘우리를 속였음이 분명하다’는 서술절이다.
- ② ㉡에서 ‘옥토로’를 빼도 원래와 같은 의미의 문장이 성립되므로 ‘만들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은 ‘형이 종이비행기를’이 ‘날렸다’ 앞에서 생략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④ ㉣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와 있으므로 겹문장이 아니라 홑문장이다.
- ⑤ ㉤의 ‘공원에서’는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38

▶ 21052-0143

〈보기〉의 ㉠~㉣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어간	어미			다른 예
		-고	-으니	-아/-어	
㉠	잠그-	잠그고	잠그니	잠가	답그다
㉡	모르-	모르고	모르니	몰라	가르다
㉢	이르-	이르고	이르니	이르러	푸르다
㉣	파랗-	파랗고	파라니	파래	하얗다
㉤	짓-	짓고	지으니	지어	있다

- ① ㉠: ‘잠그-’에 ‘-아’가 결합하면 ‘잠가’라고 적어야겠군.
- ② ㉡: ‘가르-’에 ‘-아지다’가 결합하면 ‘갈라지다’라고 적어야겠군.
- ③ ㉢: ‘푸르-’에 ‘-어’가 결합하면 ‘푸르러’라고 적어야겠군.
- ④ ㉣: ‘하얗-’에 ‘-으니’가 결합하면 ‘하얗니’라고 적어야겠군.
- ⑤ ㉤: ‘잇-’에 ‘-어서’가 결합하면 ‘이어서’라고 적어야겠군.

39

▶ 21052-0144

〈보기〉의 ㉠~㉣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나랏 말쓰미 中囡國궐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 스뭇디
 ㉡ 아니홀썸 이런 전츠로 ㉢ 어린 百궐姓성이 니르고져 홀 배이셔도 ㅁ츨내 제 ㅍ들 시러 ㅍ디 ㅁ홀 ㉣ 노미 하니라 내
 ㉤ 이를 爲왕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둡 字宗를 ㅁᄁ노니 사뭇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ㅍ메 便便安한키 호고져 홀 ㅍ르미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믈여둡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에서 ‘스’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이군.
- ② ㉡에서 ‘-르썸’은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이군.
- ③ ㉢에서 ‘-니’은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이군.
- ④ ㉣에서 ‘ㅣ’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이군.
- ⑤ ㉤에서 ‘를’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하는 목적격 조사이군.

40

▶ 21052-0145

㉠~㉡를 바탕으로 매체의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매체

2000년 8월 0일 △△일보 36면

이어지는 폭염, 전국 불볕더위

오늘 기상 정보
 최저/최고 기온(°C)
 팔호는 강수 확률(오전/오후, %)

서울 ☁ 26/36 (20/0)	인천 ☁ 25/35 (20/0)	수원 ☁ 25/35 (20/0)	춘천 ☁ 25/36 (20/0)
강릉 ☀ 26/37 (0/0)	청주 ☀ 25/36 (0/0)	세종 ☀ 25/35 (0/0)	대전 ☀ 25/36 (0/0)
전주 ☀ 25/36 (0/0)	광주 ☀ 25/36 (0/0)	목포 ☀ 25/35 (0/0)	대구 ☀ 26/39 (0/0)
포항 ☀ 26/38 (0/0)	울산 ☀ 25/36 (0/0)	부산 ☀ 25/35 (0/0)	제주 ☀ 27/35 (0/0)

㉡ 텔레비전 매체

[영상]	[음성]
 <p>'대프리카' 39도까지 올랐다</p>	<p>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대구가 39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렸습니다.</p>
	<p>기자: 긴 장마가 끝난 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는 낮 기온이 최고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한낮 모습인데요, 아스팔트 위를 걷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무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태이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 내외로 매우 높습니다. 이런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p>

㉢ 인터넷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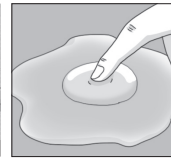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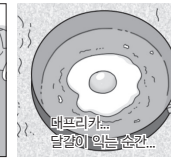
블로그 152개의 글 목록 열기

아름다운 요리 이야기

폼꾸는 요리사 URL 복사 +이웃 추가

[나의 일상] 대프리카 날씨 체험

대구 현재 기온 39도, 체감 온도 50도?
 어제 38도 찍었는데 이 기세라면 내일은 40도 찍을 듯요. 대프리카의 더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가 직접 아스팔트 위에서 달걀프라이를 해 봤어요.

과연 달걀프라이는 가능할 것인가?
 대프리카... 달걀이 익는순간..

진짜 프라이됩니다~~~~~ㅋㅋ

기상청 날씨가 궁금하다면 요기로 ↓
<https://www.weather.go.kr/>

#너무더워 #대프리카날씨실험 #달걀프라이방법

♡ 공감 24 | ∞ 댓글 쓰기 ^

댓글 Ⓞ

최근순 | 추천순 | 반대순

↳님의 실험 정신에 감탄! 진짜 대프리카 맞음 ㅋ

- ㉠은 제한된 지면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날씨를 요약한 표제와 그림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은 더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므로 ㉠에 비해 정보가 실재감 있게 전달된다.
- ㉠과 ㉡은 날씨를 포함한 시의성 있는 대량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에 비해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
- ㉢은 영상, 문자 언어, 하이퍼링크, 해시태그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하므로 ㉠, ㉡에 비해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고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 ㉢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에 비해 정보 제공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개방적 특성을 보이며 정보의 유통이 쌍방향적이다.

[41~42] (가)는 ‘매체 자료의 수용’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교사가 제시한 자료이고, (나)는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찾은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사가 제시한 자료

1인 News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후원하기

문화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입력 20△△, △, △, 10:21

최근 ○○ 문화 재단에서 세계 20개국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여행 가고 싶은 도시로 서울을 꼽았다. 그런데 서울에 여행 갈 의사가 없는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제시한 이유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 비해 치안이 불안하다고 판단해서이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여행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의 높은 물가는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였다. 이 밖에도 더 가 보고 싶은 나라가 많아서,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다시 갈 계획은 없어서, 한국으로 여행 갈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한국을 여행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시한 이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체 댓글 12 ㉺

최근순 | 추천순 | 반대순

dnjs**** 20△△, △, △, 12:20:46 | 신고하기 0 0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아니군요. TT

sgch**** 20△△, △, △, 11:44:42 | 신고하기 11 0

한국에 여행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95%인 줄……. 그럼,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kjll**** 20△△, △, △, 11:08:07 | 신고하기 2 9

우리나라로 여행 오고 싶지 않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네요.

(나) 학생들이 찾은 자료

㉠ 카드 뉴스

외국인도 반한 한국, 20△△년 아태 지역 최고 여행지로 떠오른 서울



[#1]



서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아태 지역 여행자가 **예약한 항공권을 분석한 결과**이다.

[#2]

서울이 최고 여행지로 떠오른 이유는?



1 K팝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이 여행으로까지 이어진 것

[#3]



2 한국인들의 패션이나 화장품 등이 주목을 받으며 한국의 대표 도시 서울을 찾게 만든 것

3 그 외에 주요 아시아 지역과 서울을 잇는 저비용 항공사 노선이 많이 생긴 것도 하나의 요인!

[#4]

㉡ 잡지

[월간 여행] 이달의 발견

외국인 94% 다시 가고 싶은 도시, 서울 그리고…….

○○ 관광 재단이 올해 상반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서울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여가·휴가(55.3%)를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했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명동(83.8%)이었으며, 쇼핑(92.1%)과 식도락(78.9%)을 즐긴 것으로 분석됐다. 쇼핑 장소는 시내 면세점(57.0%)이 가장 많았고, 전통 시장(50.5%)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관광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6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그런데 한국 관광 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000건 이상의 외국인 불편 신고가 접수된다고 한다. 불편 신고는 택시 이용이나 쇼핑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기를 바란다. 또한 외국인들이 다시 찾는 장소와 목적이 서울에서의 쇼핑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한국만의 맛과 멋을 발견하고 즐기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41

▶ 21052-0146

(가)의 기사에 대한 학생의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의견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기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② 기사의 내용이 표제를 타당하게 뒷받침하고 상반되는 의견을 공정하게 담고 있지만 독자가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③ 본문이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견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독자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표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④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며 공정성을 지녀야 하는데 표제와 본문이 내용의 일부만 부각하고 있어 독자가 특정 관점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⑤ 인터넷은 어떤 매체보다 빠르게 정보를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보도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

42

▶ 21052-0147

(가), (나)를 바탕으로 매체 읽기 방법에 대해 제안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댓글에서 독자에 따라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 ② (가), (나)는 모두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다루고 있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관점에 따른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 가며 읽어야 한다.
- ③ (나)의 ㉠과 ㉡에 제시된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에 대한 내용을 고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여행이 쇼핑과 먹거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 ④ 한국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다룬 (가)와 긍정적 반응을 다룬 (나)를 종합하여 여행의 질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 ⑤ (나)에서 ㉢의 관점으로 보면 ㉠의 패션과 화장품에 집중된 관광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유사한 관점을 지닌 자료를 찾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3~45] 다음은 유시시(UCC)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수업 활동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둠의 기획안






- 제목: 혼자선 싫어요
- 기획 의도: 학교 내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함.
- 수용자 분석
 - 수업 카페에 접속하는 우리 학교 학생 및 학부모
 -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스토리보드

영상		삽입 글 또는 음성/음향
화면	화면 구성 및 전개	
혼자선 싫어요 과연 우리 아이는?	배경은 어둡게, 제목은 선명하게 함.	제목 삽입, 그리고 우울한 배경 음악
	TV 옆에서 아나운서가 말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십대들의 따돌림 문제가 심각한"
	따돌림 사례를 재연한 영상	
	따돌림에 관한 통계 자료 출처: ○○○	출처, 설명 삽입
	가해, 피해 학생들의 인터뷰	"그 친구에게 왜 그랬나요?", "따돌림을 당할 때 심정이 어땠나요?" 등
	아나운서의 정리, 마무리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 주위, 당신의 자녀에게도"

(나) 제작한 유시시(UCC) 동영상

※ 단, 아래는 영상의 주요 화면과 음성/음향을 나타낸 것이며, 번호는 진행 순서임.

[1] 느리고 우울한 배경 음악	[2] 제목
[3] 부제	[4] - 타자 치는 소리 삽입 - 소리에 맞춰 글자가 차례대로 나타남.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십대들의 따돌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위의 무관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6] 저희는 그 현실을 카메라에 담아 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7] 청소년 일탈 사례 재연	[8] 따돌림 사례 재연
[9] 통계 자료 1 설명	[10] 통계 자료 2 설명 ※ 통계 자료 1, 2의 출처: ○○ 청소년 연구소

 <p>김미영(가명, 가해자, 17세) △△(피해자 가명)를 우리 '소통망(SNS)'에서 왜 따돌렸나요?</p>	 <p>이△△(가명, 피해자, 17세) 따돌림을 당할 때 심정이 어땠나요?</p>
<p>[11] 가해자 인터뷰(음성 변조) - △△(피해자 가명)를 누리 소통망(SNS)에서 왜 따돌렸나요?</p>	<p>[12] 피해자 인터뷰(음성 변조) - 따돌림을 당할 때 심정이 어땠나요?</p>
 <p>정나현(가명, 가해자, 17세) △△(피해자 가명)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요?</p>	 <p>박소영(가명, 가해자, 17세) △△(피해자 가명)를 교실에서 왜 따돌렸나요?</p>
<p>[13] 가해자 인터뷰(음성 변조) - △△(피해자 가명)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요?</p>	<p>[14] 가해자 인터뷰(음성 변조) - △△(피해자 가명)를 교실에서 왜 따돌렸나요?</p>
 <p>[15]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 주위, ①당신의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의 관심과 노력도 절실합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였습니다.</p>	

43

▶ 21052-0148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둠 회의의 내용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재연한 영상과 따돌림에 관한 여러 통계 자료를 연달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영상을 제작할 때 통계 자료의 출처를 밝힐 뿐만 아니라 재연의 내용이 우리 학교나 특정 학생과 관련이 없음을 알리는 화면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시청자가 학교 내 따돌림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해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영상을 보는 사람이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따돌림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글과 음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어.
- ⑤ 첫 화면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한 학생의 웅크린 모습을 화면 한 칸에 배치하여 외로움을 부각하고 다음 화면에 '혼자는 싫어요'라는 제목을 제시하여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자.

44

▶ 21052-0149

다음은 교사가 제시한 유시시(UCC) 평가 기준표이다. 이를 참고하여 (나)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목	평가 기준
정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다루었는가? 의도가 왜곡되거나 초점이 모호하지는 않은가? 수용자가 주제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글과 영상, 소리가 어울려 내용적 완결성이 높은가?
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 시 출처를 밝혔는가? 표절, 복제 등의 요소는 없는가? 초상권 등 인권 침해의 요소는 없는가?
예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가? 구도와 색감이 우수하며, 적절한 이미지를 활용했는가?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한 화면 처리나 음성 변조 등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한 점이 돋보인다.
- 학교 내 따돌림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년 일탈 사례를 재연한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내용적 완결성이 떨어진다.
-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으나 그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어 기획 의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 아나운서가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구성하여 수용자의 관심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주제에 동의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의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미지와 구도, 배경 음악으로 영상을 시작했으나 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과연 우리 아이는?'이라는 부제를 제시하여 초점이 흐려진 면이 있다.

45

▶ 21052-0150

<보기>를 고려할 때, (나)의 ㉠과 동일한 쓰임을 보인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당신

-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하오'할 자리에 쓴다.
-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문어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 당신이 뭘데 참견이야.
-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오?
-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3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나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또 다른 고향」

(나)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 [A]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 [B]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 [C]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영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 [D]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 사과를 먹는다
- 사과가 나를 먹는다.

-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01

▶ 21051-015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대화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외양 묘사를 통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의문의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02

▶ 21051-0152

(나)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사과나무가 거쳐 온 계절 속에 담긴 자연의 작용들이 표현되어 있다.
- ② [A]와 달리 [B]에는 사과가 열리기까지의 인간의 노력과 역할들이 담겨 있다.
- ③ [C]는 사과나무에 쌓인 시간들이 사과에 담겨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C]와 달리 [D]에는 사과가 열리는 과정과 단절된 대상이 드러난다.
- ⑤ [A]~[C]와 달리 [D]는 흙으로 빚어진 사과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과정을 강조한다.

03

▶ 21051-015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학 창작은 작가 개개인의 삶의 체험이 작가의 개성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작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성찰의 과정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일상의 경험에서 얻은 가치 있는 깨달음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즉 작가 개개인의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작품에 작가의 개성으로 드러난다. (가)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겪은 내적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작품에 드러나며, (나)의 경우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즉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는 시인만의 개성이 작품에 드러나기도 한다.

- ① (가)에서는 ‘어둔 방’이 ‘우주’로 통한다고 표현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기반한 갈등과 성찰의 과정을 개성적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또 다른 고향’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겪어야 했던 작가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군.
- ③ (가)에서는 ‘눈물짓는’ 대상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연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성찰이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는 ‘사과를 먹는’ 경험을 다양한 대상과 연결함으로써 ‘먹는’ 행위에, 일상적 의미에서 확장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 ⑤ (나)에서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낯선 표현을 통해 먹고 먹히는 주체를 전복시켜 인간과 자연물이 연결된 존재라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군.

04

▶ 21051-0154

(가)와 (나)의 [우주]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우주’는 화자의 자부심을, (나)의 ‘우주’는 시적 대상이 지닌 성숙함을 드러낸다.
- ② (가)의 ‘우주’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를, (나)의 ‘우주’는 시적 대상의 탄생에 관여한 존재들의 총체를 드러낸다.
- ③ (가)의 ‘우주’는 (나)와 달리, 다른 대상과 단절된 공간으로 제시된다.
- ④ (나)의 ‘우주’는 (가)와 달리, 부정적 공간을 긍정적 공간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나타난다.
- ⑤ (가)와 (나)의 ‘우주’는 모두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기대를 담은 공간으로 제시된다.

[0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4차 산업 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능력 자체가 무능해졌다기보다는 문제의 성격 자체가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시빅 테크’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시빅 테크는 ‘시민’ 혹은 ‘시민의’라는 뜻을 가진 ‘Civic’과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Tech’가 결합된 말이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문제나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 참여를 의미한다.

시빅 테크의 등장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디지털 환경의 형성, 행정 기관 및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유 데이터(공공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을 배경으로 한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정보 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및 공공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노출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독점하며 진행하던 일방적·하향식 정책 관리 방법이 시민 주도의 자발적·상향식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빅 테크는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이다.

새로운 시민 참여로서의 시빅 테크는 전통적인 시민 참여와 달리, 시민 단체 및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개 집단이나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대신 수많은 개인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대안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즉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의제를 설정하며,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인공 지능, 빅 데이터, IoT 등의 ㉣지능 정보 기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특정 분야 및 목적에 대하여 추론 능력, 인지 능력, 학습 능력 등 사람의 지능을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일부 구현한 기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빅 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선

제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IoT는 사람, 사물, 서비스 등의 분산된 환경 요소가 상호 협력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사물 공간 연결 인프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해져 커뮤니티의 확대도 촉진된다. 이처럼 지능 정보 기술은 전문 지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이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를 제작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시빅 테크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열린 정부 운동’과 지역 사회 활동이나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분야로서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발현되고 있다. 열린 정부 운동은 공공 데이터를 더 활용하기 좋은 형식으로 공개하는 작업이나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기관 컨설팅 등이 있다. 커뮤니티 활동은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금 모금, 정보 공유, 시민운동 조직, 자원 공유, 토론 및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시빅 테크는 정보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의 공공 가치 회복에 기여하고, 시민이 사회의 중심 주체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시민의 요구를 좀 더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시민과 정부 간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빅 테크가 정착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나 정보 통신 기술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은 참여자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활용 능력이 미흡한 사람들은 시빅 테크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거나 무관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빅 테크가 공익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이러한 한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05

▶ 21051-015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한 통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하고 각각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와 관련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중심 화제의 변천 과정을 나열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등장 배경을 제시하고 중심 화제와 관련한 핵심 수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06

▶ 21051-0156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 데이터 개방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 ② 공공 문제의 성격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한 이유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③ 시빅 테크는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개발을 위한 공공 기관 컨설팅을 통해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혁신을 촉진하기도 한다.
- ④ 행정 기관 및 공적 기관은 자신들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⑤ 시빅 테크는 기술적으로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여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조직의 매개 없이 개인 간의 직접 연결을 확대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공유하게 한다.

07

▶ 21051-015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20××년 11월 말, 기습 폭설이 ○○시를 덮쳤다. 눈보라 때문에 전신주가 쓰러지는 바람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폭설로 소방관이 출동하기 어려웠으며, 높이 쌓인 눈 속에 마을 곳곳의 소화전이 파문혀 소화전을 찾지 못해 불을 신속하게 끄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의 몇몇 사람이 이 문제를 보고 누리 소통망[SNS]에 마을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알리고, 마을 지도 위에 소화전 위치를 표시한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만들어 게시했다. ‘소화전 입양하기’ 앱에 필요한 소화전의 위치 정보는 ○○시 누리집에 게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누리 소통망을 통해 마을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했다. 앱을 통해 소화전을 입양한 마을 주민들은 주인 의식을 갖고 소화전 위에 쌓인 눈을 치우며 집 주변 소화전을 직접 관리했다. 이 덕분에 폭설로 인해 소방관이 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재빨리 소화전을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보기>의 마을 주민들은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군.
- ② <보기>의 마을 사람들이 앱을 제작하여 소화전의 위치 정보를 공유한 활동은 시빅 테크 분야 중에서 ‘커뮤니티 활동’에 해당되는군.
- ③ <보기>에서 마을의 문제 상황과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누리 소통망에 게시한 것은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개발의 유도에 따른 결과이군.
- ④ <보기>의 마을 주민들이 소화전을 입양하여 직접 소화전을 관리하는 모습은 시빅 테크가 사회의 공공 가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⑤ <보기>의 ‘소화전 입양하기’ 앱에서 마을 지도 위에 표시된 소화전의 위치는 정부 기관이 공공 데이터로서 시민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표시한 것이군.

다음은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를 위한 작문 수업에서 뒷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과제: 다음 <자료>와 <조건>을 참고하여 시빅 테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자료> ‘디지털 래그(Digital Lag)’ 현상을 들어 본 적 있는가? 디지털 래그 현상이란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디지털 소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노인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젊은이들에 비해 디지털 기기를 접하기 어렵고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쉽게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조건> 뒷글과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시빅 테크의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

• <조건>을 고려하여 표현하기:

- ① 시빅 테크는 시민과 정부 간 소통을 불안정하게 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민 주도의 단체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시빅 테크는 시민 모두가 디지털 기기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기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동체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하고 기기를 보급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③ 시빅 테크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④ 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 격차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의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⑤ 시빅 테크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디지털 기기의 접근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빅 테크가 정착하려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을 키워 주는 교육과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들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 ② 전문 지식에 대한 시민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 제작에 도움을 준다.
- ③ 발생 가능한 공공 문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④ 지속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사람, 사물 등의 환경 요소로 분산하여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한다.
- ⑤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처리하고 해결하기에는
- ② ㉡: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③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움으로써
- ④ ㉣: 다양한 대안의 비교를
- ⑤ ㉤: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다: …… 정말 물러갔어요?

나: 그렇다. 안심하구 일어나렴.

다: ㉠그래도, 저어, 아직 몇 마리 남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랬다가 영겁결에 달려들어 짝 물 수도 있겠구요.

나: 파수꾼의 눈은 정확하단다. 단 한 마리의 이리도 그 눈을 피해 숨을 순 없지.

다: 아, 저는 그걸 생각 못 했어요. 죄송해요. 파수꾼의 눈을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리라는 게 그렇죠, 이리를 믿어선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리는 영큼하고, 사납고, 그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은…….

나: 이리가 그렇게도 무섭니?

다: 네.

나: 그럼 왜 파수꾼이 될 생각은 했지?

다: ㉡이렇게까지 무서움을 탈 줄은 몰랐거든요.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파수꾼이 되는 연습을 할 때엔 이렇진 않았습시다. 제법 용감했죠. 특히 칭찬을 받은 건 제 눈이었어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것두 척척 알아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감탄했어요. ‘최고의 눈이다. 넌 파수꾼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에 오길 지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 와 보니 사정이 다르군요. 저는 한 번도 ㉢망루 위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왜 저 망루 위의 파수꾼은 교대하질 않죠?

나: 저분은 말이다, 지금까지 실수를 하지 않았단다. 단 한 번도 이리 떼를 놓친 적이 없었어.

다: 굉장하네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밤이 되자 파수꾼 ‘다’는 이리 떼에 대한 걱정으로 망루에 오른다. 평화로운 풍경만이 파수꾼 ‘다’의 눈에 들어오고, 그 순간 이리 떼의 등장을 알리는 파수꾼 ‘가’의 외침이 들린다. 진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편지를 보내고 그 내용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된다.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뭐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텃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늑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뭐라구?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구,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구, 양철북도 두들기구,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다: 아, 이젠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 그러나 잘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구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구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살인이라구요?

촌장: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애,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아니에요, 그건!

촌장: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구,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구,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구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구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구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물론 약속하지.

다: ㉔정말이죠, 정말?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나: 또, 헛치었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 보면 달아나구 없어요.

촌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구 싶었는데…….

촌장: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나: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몹시 아픈니다.

촌장: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나: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나: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힘없이 웃으며) …… 고마워요.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마을 사람들요?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 이강백, 「파수꾼」

11

▶21051-016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수꾼 ‘나’는 ‘촌장’에게 이리 껍질을 선사하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
- ②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의 질병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 ③ ‘촌장’은 진실을 알지 못한 파수꾼의 일생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파수꾼에게 미안해했다.
- ④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부응하는 망루 위의 파수꾼이 되길 기대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 ‘다’의 편지에 담긴 이리 떼가 없다는 내용에 분노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망루로 몰려왔다.

12

▶21051-0162

㉔~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마을의 질서 유지를 위해 파수꾼이 마을을 감시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② ㉔: 파수꾼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재이다.
- ③ ㉔: 마을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작용하는 소재이다.
- ④ ㉔: 이리 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㉔: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쏟아질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형상화한 소재이다.

13

▶21051-0163

㉔~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상대의 말을 믿지 못하며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㉔: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③ 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심이 서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㉔: 상대의 말에 반문하며 상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㉔: 상대의 말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14

▶ 21051-0164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부적절한 권력이 유지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드러내어 당대의 현실을 풍자했다. 거짓에 바탕을 둔 권력이 구성원의 일상을 통제하는 어떤 마을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권력자를 비판함과 동시에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하거나, 자신이 부적절한 권력이 유지되는 데에 일조하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제시하여 부조리한 상황이 특정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권력자에 복종하는 무비판적인 인물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 작중 인물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작중 상황을 넘어 당대 현실의 부조리함을 풍자하고 있다.

- ① 이리 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알리는 파수꾼 ‘가’의 외침은 거짓 유지에 동조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파수꾼 ‘가’가 실수를 한 적이 없다고 믿는 파수꾼 ‘나’의 모습은 ‘촌장’의 부적절한 권력 유지에 일조하는 무비판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를 통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촌장’의 말은 ‘촌장’이 구성원들을 통제함으로써 부적절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인물임을 보여 준 것이겠군.
- ④ 흰 구름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부조리한 행태가 유지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하였다는 ‘촌장’의 말은 무비판적으로 권력자에 복종하는 구성원들의 모습과 더불어 기만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권력자의 행태를 드러낸 것이겠군.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간이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었으며,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몇 세기 전의 일이다. 18세기 말 유럽에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문제를 다룬 과학 서적이 다수 있었고 19세기 초 유럽인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교신을 시도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전파 망원경이라는 혁신적 도구를 통해 우주 공간 속 외계 지적 생명체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주에는 은하가 약 1천억 개 정도 존재한다고 하며, 각 은하에는 평균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약 10^{22} 개의 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의 개수이고, 그 속에 존재하는 지구와 같은 행성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행성 중 지구 외에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외계 문명에 대한 탐색은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를 들 수 있다. SETI 프로젝트는 우주 어딘가에서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 신호를 지구에서 수신하여 간접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전파 신호를 발신하는 외계 생명체의 경우 인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발전된 지적 수준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SETI 프로젝트는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외계 생명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SETI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외계 지성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까지 동참하는 가장 대중적인 탐사 프로젝트로 확장되었다. 전 세계에서 17만여 명의 일반 대중이 참여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티 앳 홈(SETI@home)’이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PC를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전파 신호의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다. 네티즌들이 이 프로젝트 누리집에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하면, 주인이 잠자는 시간 등 PC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PC가 자동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전파 신호 속에는 온갖 자연의 전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인공의 전파를 찾아내려면 엄청난 정보 처리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전세계의 PC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의문은 ‘정말 그들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SETI 프로젝트를 발기한 미국의 전파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했다. 이 방정식은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고등 문명의 존속 기간과 우리 은하 내에서 생명체 탄생에 적합한 항성의 생성률의 곱에 항성이 행성을 가질 확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 행성에 생명이 탄생

할 확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존재를 알릴 통신 기술을 가질 확률 등의 인자들을 곱한 것이다. 드레이크 자신조차 이 방정식에 포함되는 인자들 중 그 어느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0)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끊임없는 시도와 탐구를 통해 우주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면 우리와 통신이 가능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이론 문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외계 지적 생명체를 포함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해 가는 철학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답을 찾는 방법은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 인간을 되돌아보고 인간이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돌이켜 보는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과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계 행성에 대한 탐사와 생명체의 단서를 찾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주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생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외계 행성에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의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발견하고도 지나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반영하여 미국 우주 탐사와 관련한 한 위원회 보고서는 ‘미국의 우주 탐사에서 외계 생명과 조우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다.’라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한다면 무엇을 찾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흔히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체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를 하고,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며, 발생, 성장,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를 하는 개체를 생명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최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이던 지역에서 생명체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 강한 압력,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매우 건조한 지역, 강한 방사선 따위에서 생존하는 미생물들이다. ㉡ 결국 이것은 지구 이외의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는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지구 생명체에 한정된 특성을 바탕으로 내려진 정의이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다시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뢰딩거는 우주의 보편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통해 생명체를 설명하고자 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자연 물질이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무질서한 상태로 점점 변화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슈뢰딩거는 생명체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무시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생명체를 외부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개체라고 정의했다. 이는 생명체가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체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슈뢰딩거의 정의가 지구뿐만 아니라 광활한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주 속의 생명체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와 연구를 통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다.

15

▶ 21051-0165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특정 대상을 탐사하는 방법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유추를 활용하여 특정 대상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수학적 방법으로, (나)는 철학적 방법을 통해 특정 대상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대상의 존재를 분석하는 공통된 과학 이론을 제시하며 특정 대상에 대한 연구의 가치를 밝히고 있다.

16

▶ 21051-0166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드레이크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방정식으로 제시했다.
- ② 외계 문명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작업은 과학적 도구의 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 ③ SETI 프로젝트에서는 수많은 외계 생명체 중에서 일부의 대상만을 탐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 ④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인류는 외계 문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⑤ ‘세티 넷 홈’에 활용된 PC는 이용자가 사용 중일지라도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신호의 분석을 수행한다.

17

▶ 21051-0167

(가)의 'SETI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홍보 문구를 다음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SETI 프로젝트의 탐사 대상을 명확히 밝힐 것.
- 속담을 활용하여 SETI 프로젝트 탐사의 어려움을 언급하되, ㉠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동참의 의의를 제시할 것.

- ① 외계 지적 생명체와 대화할 수 있는 SETI 프로젝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 ② SETI 프로젝트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거울로 삼아, 외계에 존재하는 지적 생명체에 주의를 돌려 우리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공유해 보는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 ③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릴 수 없는 미생물 등의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은 서울 가서 김 서방 찾기라는 말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바탕이 될 때, 단서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SETI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 ④ 드넓은 우주에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외계 지적 생명체를 만나기란 잔디밭에서 바늘 찾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SETI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외계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발견할 가능성의 희망이 이어질 것입니다.
- ⑤ 수많은 행성 중에서 이미 우리의 존재를 찾고 있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SETI 프로젝트의 문을 두드리세요. 당겨 놓은 화살을 놓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전해지고 있는 우주의 전파 신호를 함께 확인하며 그들을 맞을 준비에 동참해 주세요.

18

▶ 21051-0168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후, 천문 우주 동아리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의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 1: 외계 생명체의 탐사를 위해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외계 생명체의 단서를 찾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

학생 2: 항성과 행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나 그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

학생 3: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과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철학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외계 생명체의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

학생 1: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는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외계 생명체는 지구 생명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한 우주선을 직접 보내 외계 생명체를 확인하려는 탐사 방법은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니, 직접 탐사 이외에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생 3: 그래, 우주의 어떤 행성들에는 지구와 달리 고온, 고압, 강한 방사선 속에서도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

학생 2: 지적 수준이 높은 외계 생명체는 우리처럼 우주 공간 속 또 다른 생명체를 찾기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으니, 외계 생명체의 탐사를 위해 우주선을 직접 보내는 것 이외에도 외계 생명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노력도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

학생 1: 그런데 우주에는 수많은 전파 신호가 뒤섞여 있다고 하던데. 수많은 전파 신호 중에서 지적 생명체가 발신한 전파 신호를 찾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전파 신호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전파 신호를 찾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겠네. ㉤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 21051-0169

(나)의 '슈뢰딩거'와 <보기>의 '쇤하이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루돌프 쇤하이머는 생명체의 모든 조직과 세포의 내부는 분해와 합성의 순환 과정을 통해 변화하며 새로워진다고 생각했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는 빠른 속도로 분해되며 외부에서 유입된 분자로 대체된다. 외부에서 유입되어 대체된 분자는 다시 분해의 과정을 거쳐 환경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과정의 흐름 속에서 생명체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를 '동적 평형' 상태라 한다. 동적 평형은 생명체 내부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분해와 합성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말한다. 쇤하이머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보았다.

- ① 슈뢰딩거와 쇤하이머 모두 생명체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적용되는 개체라고 생각했겠군.
- ② 슈뢰딩거와 마찬가지로 쇤하이머는 생명체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다고 보았겠군.
- ③ 슈뢰딩거와 쇤하이머 모두 생명체 내부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생명 현상을 정의하려 했겠군.
- ④ 슈뢰딩거는 쇤하이머와 달리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체에 대한 정의는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보았겠군.
- ⑤ 슈뢰딩거와 달리 쇤하이머는 생명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일지라도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통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군.

20

▶ 21051-0170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체의 서식 환경의 범위는 외계 행성의 가혹한 환경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다.
- ② 외계 행성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와는 다른 형태를 지닌 생명체가 발견되었다.
- ③ 지구와 외계 행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 ④ 지구 생명체가 보이는 발생, 성장,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 등의 특징은 외계 행성의 환경에서는 소멸된다.
- ⑤ 미생물과 같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지구 이외의 행성들의 생명체 서식 환경이 지구의 생명체 서식 환경보다 유리하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전 시가에서 화자가 시적 대상을 예찬하거나 송축하는 태도는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 말까지 다양한 장르의 많은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다. 예찬과 송축의 대상은 주로 특정한 인물, 장소, 자연물 등으로 나타난다.

(나)는 '기랑(기파랑)'이라는 특정한 인물이 예찬의 대상이고, (다)는 한양을 의미하는 '신도'나 조선의 개국 군주인 '태조'가 예찬이나 송축의 대상이다. 그리고 (라)는 사군자의 하나로 선비들이 애호했던 '매화'라는 자연물이 예찬의 대상이다. 이렇게 시적 대상을 예찬하거나 송축하는 작품들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들은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나 세계관을 탐지할 수 있다.

(나) ─ 열치매*

[A] 나토얀 드리
 └─ 흰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B] 새파른 나리여히
 └─ 기랑(耆郎)이 즈시* 이슈라*
 └─ 일로* 나리시 직벽히*
 └─ 랑(郎)이 디니다샤온
 └─ 막스믹 궂홀* 좇누아져

[C] ─ 아으 잣스가지 노파
 └─ ㉠서리 몬누올 화판(花判)*이여

─ 총답사, 양주동 해독, 「찬기파랑가」

*열치매: 열어젖히며.

*안디하: 아닌가?

*즈시: 모습이.

*이슈라: 있구나.

*일로: 이로부터.

*직벽히: 조약돌에.

*막스믹 궂홀: 마음의 끝을.

*화판: 화랑의 우두머리.

(다) 네는 양주(楊州) | 소올히여

 디위에 신도 형승(新都形勝)이샷다*

 기국 성왕(開國聖王)이 성덕(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운더* 당금성(當今景) 잣다운더

 성수 만년(聖壽萬年) 허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폰 한강수(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둥(德重) 허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서

─ 정도전, 「신도가」

*신도 형승이샷다: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잣다운더: 도성답구나.

*함락이샷다: 함께 즐거워하도다.

(라)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미치지 안았더니
 는 기약(期約) 능(能)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촉(燭) 잡고 갖가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제2수)

⑥ 브름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식여 드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허니
 아무리 어우려 허인들 봄뜻이야 아슬소나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치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제 엇지 감히 뛰리
 알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밧게 뉘 이시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은히 떠돌.

*척촉: 철쭉.

*두견화: 진달래.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21

▶ 21051-0171

(가)를 바탕으로 (나)~(라)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기량’이라는 특정한 인물의 고매한 인품을 ‘나리시 직혁’이라는 소재와 관련지어 예찬하고 있군.
- ② (다)에서는 ‘신도’라는 장소의 뛰어난 경관을 ‘잣다운더’라는 영탄적 표현을 반복하며 예찬하고 있군.
- ③ (다)에서는 ‘기국 성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만세를 누리 쇼셔’라고 송축하고 있군.
- ④ (라)에서는 ‘너’라고 인격을 부여한 ‘매화’의 화려하고 풍성한 외양을 ‘암향부동하더라’라는 감각적 표현으로 예찬하고 있군.
- ⑤ (라)에서는 ‘매화’의 장점을 다른 사물과 견주어 ‘매화밧게 뉘 이시리’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예찬하고 있군.

22

▶ 21051-0172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A]~[C]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0구체 향가는 일반적으로 3단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나)는 화자가 기파량을 생각하면서 달에게 질문을 하는 [A], 달이 화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B], 향가 중 10구체에 만 존재하는 낙구(落句)로 화자가 독백을 하며 서정적 완결을 이루는 [C]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A]의 달은 화자가 질문을 하는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소망을 비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B]에서 달의 대답은 여러 공간을 이동하며 시적 대상의 행적을 살펴본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 ③ [C]는 화자의 영탄적 표현으로 시작되고, 시적 대상의 정신적 경지를 드러내며 예찬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위를 향하고 있고, [C]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 ⑤ [B]와 [C]는 모두 선명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대상과 이별한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다.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악장은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태의 하나로, 임금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베푸는 잔치인 연례(宴禮)에서 궁중 음악에 맞추어 불렀다. 악장인 「신도가」는 ‘전대절, 조흥구, 후소절’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흥구는 흥을 돋우기 위하여 운율 조성의 보조 수법으로 넣는 구(句)로 음악적 선율을 말로 옮겨 놓은 것이다. 조흥구의 삽입은 「신도가」가 연례에 사용된 노래임을 알려 준다. 「신도가」는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도한 정도전이 지었는데, 완성된 도성에 대한 경탄과 자부심,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한양에 대한 애정 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전대절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도성의 모습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전대절에서는 임금의 성덕을 기리며 건국과 도성 건설에 기여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아으 다롱다리’의 삽입은 이 작품이 연례에서 반주에 맞추어 불린 노래라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④ 후소절에서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새로운 도성이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전대절에서는 선조들의 노고를, 후소절에서는 후손들의 근면을 강조하며 새로운 도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군.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시적 대상에게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
- ② ㉠와 ㉡는 모두 시적 대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시하고 있다.
- ③ ㉠와 ㉡는 모두 시적 대상의 본받을 만한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 ④ ㉠는 시적 대상을 방해하고 있고, ㉡는 시적 대상을 돕고 있다.
- ⑤ ㉠는 시적 대상의 현실 적응력을, ㉡는 시적 대상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논리학의 관심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있으며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추론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추론뿐만 아니라 판단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고 작용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어떤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논리학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론 작용을 객관적인 언어 세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명제’라고 부른다. 그것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언어가 반드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면 수식이나 코드(code)와 같은 인공 언어라도 상관 없는 것이다. 자연 언어와 달리, 인공 언어는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기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 언어는 자연 언어보다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연 언어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때 한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의 속성을 진릿값이라고 한다. 한 명제의 진위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남자이다.’와 같은 명제는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곧 그것이 참 명제임을 알 수가 있다. ‘남자’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위가 판단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한다.

분석 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처럼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가 둘 이상 결합한 명제를 ‘합성 명제’라 한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지만, 우리 반의 어느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명제는 문장 구조상으로 거짓이 될 수

밖에 없다. ㉔이처럼 두 개의 단순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도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한 명제와 몇 개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소개해 주는 철학사 책이나 철학 백과사전을 펼쳐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어 그것이 참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부정 명제는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한 명제의 진릿값이 다른 명제나 명제들의 진릿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는 논리적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이다. ㉕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다.’라는 명제는 ㉖ ‘○○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다.’라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한편 a와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a가 c의 아들이고 b도 c의 아들이라든지, a가 c의 형제이고 b도 c의 형제라는 사실을 통해 a와 b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사실들을 진술하는 명제들 간의 논리적 함축 관계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다. ㉗ 이와 같은 논리적 함축 관계는 한 명제나 몇 개의 명제들이 참일 때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지만, 주어진 명제나 명제들이 참이 아닐 때는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의 진릿값에 대한 확인을 해 주지 못한다.

명제는 논리학에서 판단이나 추론의 기본 단위가 된다. 이러한 명제를 통하여 사실의 진위를 판정할 수 있고, 명제의 진위 판정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 체계를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판단이나 지식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명제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하며, 그 명제들의 논리적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25

▶ 21051-0175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㉘ _____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 ①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정리하기 위해 명제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 ② 논리학에 대한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학자의 이론을 다룬 글을 읽으려는
- ③ 올바른 판단과 지식 체계의 바탕을 살펴보기 위해 명제의 개념과 진위 판단의 방법을 다룬 글을 읽으려는
- ④ 인간만이 지닌 고등 사고 능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과정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읽으려는
- ⑤ 논리적인 언어 표현의 중요성을 탐구하기 위해 논리학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26

▶ 21051-0176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 언어는 인공 언어보다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 ② 인간의 언어 사용은 인간의 추론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③ 명제는 인간의 추론 작용을 객관적인 언어 세계에서 관계로 표현하는 기본 단위이다.
- ④ 인공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도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다.
- ⑤ 별개의 언어로 표현된 두 문장이 하나의 사실을 동일하게 진술하면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27

▶ 21051-017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A. 총각은 결혼한 성인 남자이다.
- B. $38 = 21 + 17$
- C.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니다.

- ① A는 '총각'과 '결혼한 남자'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 거짓이 된다.
- ② B는 인공 언어로 표현된 분석 명제이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③ C의 진위는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
- ④ B는 C보다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에 유용하다.
- ⑤ C와 달리 A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가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8

▶ 21051-0178

<보기>는 윗글을 읽고 찾아본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어떤 두 명제 p, q 가운데 한 명제가 참이면 다른 명제가 거짓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명제가 거짓이면 다른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명제 p, q가 모순 관계에 있는 합성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 반면 어떤 두 명제 p, q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명제 p, q 사이의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한다. 한편, '현회는 진호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현회는 여자이다.'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함축이라고 한다. 즉 명제 p가 명제 q를 함축한다는 것은 'p가 참일 때 q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 ① ㉠은 명제 p와 명제 q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항상 참이 되는군.
- ② ㉡의 진릿값이 거짓이 되는 이유는 ㉢를 구성하는 명제 p, q가 모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군.
- ③ ㉠과 ㉡는 명제 p가 참일 때, 명제 q가 거짓이 되는 관계로 이루어진 명제이군.
- ④ ㉢와 ㉣는 함축 관계에 있으므로 ㉢의 진릿값이 참일 때 ㉣의 진릿값은 항상 거짓이 되는군.
- ⑤ ㉣가 거짓일 경우에는 ㉢는 항상 참이 되므로 ㉢는 ㉣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군.

29

▶ 21051-0179

글의 문맥을 고려하며 독서할 때, ㉠~㉣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화제와 관련한 개념을 글의 서두에 밝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다음에 나오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화제와 관련한 개념을 파악해야겠어.
- ② 글쓴이는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상반되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앞뒤에 나오는 정보를 대비하며 대상의 특징을 정리해야겠어.
- ③ 글쓴이는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해야겠어.
- ④ 글쓴이는 앞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앞에 제시된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 봐야겠어.
- ⑤ 글쓴이는 중복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대체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어.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경상도 안동 땅에 사는 백선군의 꿈에 숙영이 나타나 자신이 백선군과 천생의 연분이 있음을 말한다. 이후 선군과 숙영은 부부의 연을 맺어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8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백상군은 선군에게 과거 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한다.

“당신은 내가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까지 부모를 잘 모시고 애들과 함께 기다리시오.”

하고 과거 길을 떠나게 되었다.

[A] 그러나 숙영과의 이별이 슬퍼서 한 걸음에 돌아서고 두 걸음에 돌아보며 연연한 정을 금하지 못하므로 숙영도 중문 밖까지 나와서 먼 길에 몸조심하라고 재삼 당부하면서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선군은 수심에 찬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여 발걸음이 무거워 그날은 종일토록 삼십 리밖에 가지 못하였다. 주막에 들러서 저녁상을 받고도 오직 숙영 생각만 간절해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여 두어 술 뜨다가 상을 물리치니 하인이 민망히 여겨서

“식사를 그렇게 안 하시면, 앞으로 천 리 길을 어떻게 가시렵니까?”

하니 선군이

㉠ “아무리 먹으려 해도 입맛이 없으니 어찌겠느냐.”

하였다. 선군은 적막한 주막방에 앉아 있노라니 마음이 산란하였다. 숙영이 옆에 있는 듯하되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듯하되 귀를 기울이면 들리지 않았다. 바늘 발에 앉은 것처럼 마음을 진정치 못하다가 마침내, 이경 끝에서 삼경 초에 신발을 들메고 집에 돌아와 담을 넘어서 숙영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을 깬 숙영이 깜짝 놀라서,

“낭군님, 이 밤중에 어쩐 일입니까. 오늘 길을 떠난 분이 다시 돌아오셨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 선군이 대답하기를,

“종일토록 가다가 겨우 삼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였으나 다만 그대 생각뿐이라, 첩첩이 쌓인 비감한 생각을 금치 못하여 밥도 먹히지 않고 도중에서 병이 될까 염려되어 한 번 더 그대를 보고 외로운 심회를 풀려고 왔소.”

하고 숙영의 손을 이끌어 금침 속으로 끌어들어서 밤이 새도록 정회를 풀었다.

이때 부친 백 공(白公)이 아들을 과거 차 서울로 보내고 도적을 살피려고 청려장을 짊고 담장 안을 돌아다니며 사방의 동정을 보다가 동별당에 이르니, 숙영의 방에서 문득 남자의 말소리가 은은히 들리니 백 공이 가만히 듣다가 혼자 생각에

“머느리는 빙옥지심(氷玉之心)과 송죽지절(松竹之節)의 여인인데 어찌 외간 남자와 사통하여 음행한 짓을 할까. 그러나 세상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니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가만히 사창 앞으로 다가서서 귀를 기울이고 엿들으니 이윽고 숙영이 낮은 음성으로,

“시아버지께서 밖에 와 계신 듯하니 당신은 몸을 이불 속에 숨기세요.”

하며 또 잠이 깬 듯한 아이를 달래면서,

“너희 아버지는 장원 급제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신다.”

하고 어루만지거늘 시아버지 백 공이 크게 의심을 품고 침소로 돌아왔다. 이때 숙영은 시아버지가 밖에서 엿듣는 기척을 미리 알았으므로 선군에게 말하기를,

“시아버지께서 창밖에 와서 엿보고 가셨으니 이미 낭군이 온 줄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낭군은 제게 연연하지 마시고 어서 서울에 올라가 성공 여부를 헤아리지 말고 과거를 보아 부모님이 바라시는 바를 저버리지 마시고 또 제게 [B] 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건대 낭군께서 저를 생각하여 여러 번 왕래하게 된다면 그 죄가 크니, 그것은 장부의 도리가 아니요, 또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면 결단코 제가 화를 당할 것은 뻔하니 낭군은 전후 사리를 현명하게 헤아려서 속히 상경하십시오.”

하고 길을 재촉하였다. 선군이 숙영의 말을 옳게 여기고 곧 작별하고 다시 주막집 숙소로 달려갔다. 그때까지 하인은 아직 잠을 깨지 않고 자고 있었다.

이튿날 날이 새자 다시 길을 떠나 겨우 오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고 달 밝은 객창에 홀로 적막히 앉아 있으니, ㉠숙영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만 가지로 고민하다가, 결국 울적한 정회를 금하지 못해서 또다시 표연히 집으로 돌아와 몰래 숙영의 방으로 들어가니 숙영이 놀라고 꾸짖어 말하기를,

“낭군은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것을 듣지 않고 오늘 밤에 또 돌아왔으니 웬일입니까? 이러다가 천금 귀체가 객중에서 병을 얻으면 어찌시렵니까? 그렇게도 저를 못 잊어 계속 이러실 바에는 제가 차라리 낭군의 숙소에 찾아가겠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우여곡절 끝에 선군이 다시 과거 길에 오르게 되나 숙영은 시비 매월의 간계로 간통의 누명을 쓰게 된다.

“닥쳐라!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인데, 네가 끝끝내 나를 속이려고 하니 어찌 통해(痛駭)*치 아니하라. 양반의 집에 이런 해괴한 일이 있기는 드문 법, 실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네가 상통한 놈의 성명을 빨리 대라.”

하는 시아버지의 호령이 서릿발 같았다. 그러나 숙영은 오히려 낭랑하게,

“아무리 시부모님 간택으로 육례*를 이루지 못한 며느리라 할 지라도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억울한 누명을 발명(發明)하기도 창피하오나, 아버님께서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이 몸이 지금 비록 인간으로 있사오나, 저의 빙옥(氷玉) 같은 정절(貞節)로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천수(潁川水)가 멀어서 귀를 씻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다만 죽어 모르고자 합니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통해: '통해하다'의 어근. '통해하다'는 '몹시 이상스러워 놀란다.'의 의미임.

*육례(六禮):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납채, 문명(問名), 납길, 납폐, 청기(請期), 친영을 이룸.

(나) 벽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상대가 다만 놀란 듯 크게 열린 눈으로 바라볼 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간파해 버린 전갈은 꼬리를 쳐들어 등글게 머리 위로 구부렸다. 적이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였으나 1초와 1/2초까지 계산되어 이어지는 기계 체조 선수의 굴신 동작처럼 유연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여자가 젖어 있던, 이별 뒤의 허탈함과 해방감, 불분명한 가슴에 임, 애상 따위를 비웃듯 벽과 책상 사이의 좁은 틈서리로 천천히 사라졌다. 방은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 기거하던 흔적들로 가득했다. 책상, 책장, 엽총, 배낭, 옷걸이에 걸린 채로인 옷가지들이 곳곳에서 그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전갈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여자가 혼자 힘으로 — 설사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그들의 힘을 빌린다 해도 — 들어 옮길 수 있는 짐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기껏 그날 밤 그 여자가 한 일이란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 늘상 해 왔던 방법, 즉 봉산 가루를 뿌리고 마른 쭉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 일뿐이었다. 그것만이 전갈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그 작은 독충의 위협, 환상 앞에서 그 여자는 무력했다. 밤새 그 여자는 전갈이 소리 없이 기어 다니며 아이들의 연한 살을 찌르고 재빨리 달아나는 환상에 시달려 역시 한 마리 전갈처럼 어둠 속에서 서성였던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1년이 지나 남편이 귀국한다는 전갈이 오자 그녀는 음식을 장만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남편의 귀국 전날 그녀는 잠자리에 들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시간을 회상한다.

아침나절의 외출과 오후의 긴 산책으로 피곤했지만 그 여자는 잠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차라리 남편의 물건들이 유품처럼 보존되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방의 청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듯했다. 전갈을 발견한 후 그 여자는 남편의 방 청소를 버리기만 할 뿐 엄두를 내지 못했다.

1년은 긴 시간이 아니요, 지난해와 또 그 지난해,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 보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임지로 떠날 때 남편은 말했었다. 그 여자가 아이에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그가 그곳의 새로운 생활과 일, 사귄 사람들과 풍속에 대

해 간간 써 보내듯 그 여자도 아이들의 자라남에 대해, 그가 없는 가정의 쓸쓸함에 대해 편지를 써 보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승진을 보장받는다든가 명분이긴 했지만 모두가 내켜 하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지사 근무를 그는 거의 자원한 것이라고 그 여자는 믿고 있었다.

그 무렵 똑같이 마흔 살 동갑내기인 **그들 부부는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다.**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 버리기에는 복잡한, 무언가 지쳐 가고 있다는 분명치 않은 무력감이었다. 마흔 살이란, 자기의 시절이 지나고 있다는 초조감과 함께 인생이 그에게 새로운 계기와 자극을 요구하는 나이였지만 또한 무엇을 새로이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추어 업사인 그는 아프리카의 신생국에 냉장고, 세탁기 따위를 팔러 가면서 말라리아와 독충의 위협보다 분명 더럽혀지지 않은 초지(草地)와 밀립, 야생의 동물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여자 역시 살아온 세월의 부피와 경륜이, 시간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젊은이를 늙게 하듯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교훈을 그 여자에게 가르쳤으나 그것은 구원도 위안도 되지 못했다.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1년간의 시간은 아마 그 여자의 전 생애와 맞먹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독이 만성적인 권태와 무위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리라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남편이 떠난 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쌓여 한 달 두 달이 흘러갔다. 그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의 봉급을 지급받기 위해 정해진 은행의 창구를 찾아갔고 또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 구경을 가거나 갈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때때로 자정 넘어, 새벽 2시, 3시쯤에도, 술 취한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는 자동차와 경비원의 플래시 불빛을 피하여 필력이며 아파트의 빈 광장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외로움이나 불안은 조금씩 스러졌다.

- 오정희, 「전갈」

30

▶ 21051-0180

(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백 공은 숙영에 대한 의심을 풀고 자신의 침소로 돌아온다.
- ② 백 공은 숙영의 방을 찾은 남자가 선군임을 알고 있었다.
- ③ 숙영은 선군의 신변에 탈이 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 ④ 숙영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현실을 분하게 여긴다.
- ⑤ 숙영은 자신의 결백을 죽음으로 입증할 것임을 내비친다.

31

▶ 21051-0181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 시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는 선군의 곤혹스러운 내면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숙영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선군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③ ㉢: 자신이 맞닥뜨리게 된 상황을 두고 억울해하는 숙영의 한스러운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남편이 부재한 현실에서 느끼게 된 여자의 쓸쓸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일상에서 겪게 된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자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32

▶ 21051-018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숙영'과 [B]의 '숙영'은 모두 이별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 ② [A]의 '숙영'과 [B]의 '숙영'은 모두 '선군'의 행위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 ③ [A]의 '선군'은 [B]의 '숙영'과 달리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의 '숙영'은 [A]의 '선군'과는 달리 자신의 안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 ⑤ [A]에서는 '숙영'과의 이별에 연연하는 '선군'의 모습이, [B]에서는 '선군'의 마음을 돌리려는 '숙영'의 사려 깊은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33

▶ 21051-0183

(나)의 '여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편과의 이별 뒤 자신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함을 느끼었군.
- ② 세월의 경륜이 주는 일상적 교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군.
- ③ 자신이 삶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나이에 이르렀음을 자각하고 있었군.
- ④ 남편이 아프리카 오지 근무를 자원한 이유가 승진만이 아닌,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군.
- ⑤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시간 동안의 고독이 삶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군.

34

▶ 21051-018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우리 소설사에서는 부부간의 애정 성취와 사랑의 의미를 묻는 '부부 서사'가 시대를 초월하여 창작되어 왔다. 이들 서사의 주인공들은 결혼 단계에서부터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기존의 질서나 제도로부터 벗어나 인간 본래의 마음에 따른 선택을 한다. 물론 결혼 생활 동안에는 부부의 미숙한 행위가 드러나기도 하고, 위기가 닥쳐오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적 열개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부부상이 창출된다.

- ① (가)에서 '선군'이 과거 길에 올랐다가 '몰래 숙영의 방'을 찾는 것에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하는 '선군'의 미숙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에서 '숙영'이 자신을 '시부모님 간택으로 육례를 이루지 못한 며느리'라고 말하는 것에서, '숙영'의 애정 성취가 기존의 결혼 예법으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나)에서 '그들 부부는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다'고 한 것에서, 부부에게 결혼 생활의 위기가 닥쳤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에서는 '여자'가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에서, '여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가)에서 '동별당', (나)에서 '남편의 방'은 두 부부의 사랑이 반성적으로 성찰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군.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언어의 음운, 문법,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말의 음운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우선 중세 국어에서는 어두, 즉 단어의 첫머리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최대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두 개의 자음도 발음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의 ‘쌀’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쌀’에서 어두의 ‘ㅍ’은 ‘ㅂ’과 ‘ㅅ’이 각각 발음되는 것을 적은 표기였다. 다음으로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 없는 ‘ㅃ, ㅆ, ㅈ’ 등과 같은 자음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모두 중세 국어 시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했다. 또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 말에서 현대에 쓰이는 7종류의 자음뿐 아니라 ‘ㅅ’도 발음될 수 있었다.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의 7개만 존재했다. 이중 모음의 표기는 두 단모음의 표기를 결합한 것이었는데, 가령 ‘ㅑ’와 ‘ㅓ’가 결합된 ‘ㅑㅓ’는 단모음이 아닌 [aj]라는 이중 모음을 표기한 것이었다. 나아가 중세 국어에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결합인 삼중 모음이 존재했는데, 삼중 모음도 이중 모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중세 국어는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점차 현대 국어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우선 근대 국어에서는 중성 자리에서 현대 국어와 같이 7종류의 자음만 발음되는 것으로 변화했다. 또한 중세 국어에 없던 현상인 구개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현대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에만 일어나는 현상인데 반해, 근대 국어 시기에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예컨대 ‘디다’는 ‘지다’로 바뀌었다. 현대 국어 단어들의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근대 국어 시기까지 그 단어들의 ‘ㄷ, ㅌ’ 뒤에 오는 모음이 ‘ㅣ’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개음화가 적용될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 ‘디디다’가 구개음화되지 않는 이유는 ‘디디-’가 근대 국어 시기에는 구개음화가 적용될 수 없는 형태인 ‘드디-’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음의 변화로는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35

▶ 21052-0185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는 ‘낫’과 ‘낱’의 발음이 달랐겠군.
- ② 어두의 [ㅍ]을 현대 국어에서 ‘ㅍ’으로 적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ㅂ’과 ‘ㅅ’을 합쳐 적었겠군.
- ③ 글자 모양으로 보아 ‘괘, 궈’는 중세 국어에는 삼중 모음이었겠군.
- ④ 중세 국어에서 ‘밭’은 주격 조사와 붙을 때 [바치]가 아니라 [바티]로 발음되었겠군.
- ⑤ 현대 국어 ‘잔디’의 ‘ㅣ’는 근대 국어 시기에는 ‘ㅣ’가 아니었겠군.

36

▶ 21052-0186

㉠의 예로서 적절한 것은?

	중세 국어	근대 국어
①	믈	물
②	븨	북
③	두서	두어
④	아츨	아침
⑤	비르소	비로소

37

▶ 21052-0187

<보기>의 ㉠~㉤을 예로 하여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 군민들이 대비를 많이 했으나 태풍은 오지 않았다.
- ㉡ 나는 요즈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 ㉢ 정희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절약이 몸에 배었다.
- ㉣ 형이 문제를 풀기는 했으나 시간 내에 풀지는 못했다.
- ㉤ 그 식당이 문을 닫아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돌아왔다.

- ① ㉠: 어떤 사실을 단순하게 부정함을 나타내는 데에 ‘안 부정문’이 쓰였다.
- ② ㉡: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데에 ‘안 부정문’이 쓰였다.
- ③ ㉢: 문장을 말하는 이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 데에 ‘못 부정문’이 쓰였다.
- ④ ㉣: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의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데에 ‘못 부정문’이 쓰였다.
- ⑤ ㉤: 외부의 상황이 원인이 되어 생긴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 ‘못 부정문’이 쓰였다.

38

▶ 21052-0188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질문: ‘상자가 얼마나 큰지 소년은 도저히 들 수 없었다.’에서 ‘지’는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의 띄어쓰기가 헷갈립니다. 구별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 ‘-(으)ㄴ지’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쓰지만, 의존 명사 ‘지’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문제는 의존 명사 ‘지’ 앞에 어미 ‘-(으)ㄴ’이 붙은 활용형이 올 때 ‘-(으)ㄴ지’와 형태가 동일하게 되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의미를 통해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미 ‘-(으)ㄴ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이는 반면, 의존 명사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와 같은 문장에서의 ‘지’는 앞말과 띄어 쓰지만, 질문의 ‘큰지’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 ①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 ② 벌써 집 떠난 지가 삼 년이 지났다.
- ③ 그가 제시간에 도착했는 지를 모르겠다.
- ④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한참 후에 돌아왔다.
- 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지도 이미 하루가 지났다.

39

▶ 21052-0189

<보기>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인 주어 높여 직접적으로 실현되거나 주체의 신체 혹은 소유물 등을 높여 간접적으로 실현된다. 반면 객체 높임법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그 실현 방식에 차이가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습-’, ‘-줍-’, ‘-습-’ 등을 통해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드리다’, ‘여쭙다’ 등의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객체 높임법을 실현한다.

- (가) 太子(태자) | 東門(동문) 밖고 나가시니
(태자가 동문 밖에 나가시니)
- (나) 부텃 누니 비록 불 ㅁ시나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 (다) 너희 스승을 보습고져 ㅎ노니
(너희 스승을 뵈고자 하나니)
- (라) 龍王(용왕)이 世尊(세존)을 보습고
(용왕이 세존을 뵈고)
- (마) 阿羅漢(아라한)이 부텃고 머리 좃습고
(아라한이 부처께 머리를 조아리고)

- ① (가): ‘-시-’를 통해 주체인 ‘태자(太子)’를 높이고 있다.
- ② (나): ‘-으시-’를 통해 주체인 ‘부처’의 신체를 높이고 있다.
- ③ (다): ‘-습-’을 통해 객체인 ‘스승’을 높이고 있다.
- ④ (라): ‘-습-’을 통해 객체인 ‘용왕(龍王)’을 높이고 있다.
- ⑤ (마): ‘-습-’을 통해 객체인 ‘부처’를 높이고 있다.

[40~43] (가)는 인터넷 신문이고, (나)는 공익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단위: %)

대상	연도	고위험	잠재적 위험
유아동(만 3~9세)	2017	19.1	17.9
	2018	20.7	18.7
	2019	22.9	20.6
청소년(만 10~19세)	2017	30.3	26.7
	2018	29.3	25.7
	2019	30.2	26.4
성인(만 20~59세)	2017	17.4	14.6
	2018	18.1	15.4
	2019	18.8	16.0
60대	2017	12.9	10.8
	2018	14.2	11.8
	2019	14.9	12.4

— 박 ▽ 기자 parkrebs@***.com

😊 64 😞 30

[관련 뉴스]
 유아·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 뇌 발달·성장 위협 - □□ 신문
 신조어... 스몸비 - ◇◇ 일보
 ○○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홍보 - ×× 신문

전체 댓글 12 ●

최근순 | 추천순 | 반대순

요즘 버스나 지하철에서 대부분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심각한 현상인 것 같아요. 👍 35 👎 3

↳ 그럼 책을 보고 있다면 문제가 아닌가요?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 15 👎 0

기사 내용으로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 22 👎 1

원료

(나)



밥 한 번,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 당신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스마트폰 사용량 전 세계 1위 대한민국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40

▶ 21052-0190

종이 신문과 차별화되는 (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읽고 있는 기사와 관련된 다른 기사를 추가로 읽을 수 있다.
- ② 댓글을 통해 기사와 관련한 의견을 다른 사람과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 ③ 기사 내용을 인쇄할 수 있고 기사가 게시된 곳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 ④ 기사의 주요 정보를 시각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표제와 부제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
- ⑤ 다른 정보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된 부분을 클릭하면 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41

▶ 21052-0191

<보기>는 (가)와 동일한 조사 결과를 다룬 인터넷 신문의 일부이다. <보기>와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스마트폰 이용자 78.7%,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한 수준
 유아동과 성인을 위한 대책 시급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78.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유아동과 성인, 60대에서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청소년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① 기사 생산자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르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② 기사 생산자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사에 제시된 해결 방안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③ 기사 생산자에 따라 왜곡된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의 견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④ 매체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과 목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사 내용을 작성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⑤ 매체 유형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42

▶ 21052-0192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시각 자료의 상징성에 대한 수용자의 배경 지식에 기대어 수용자를 설득한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시각 자료가 나타내는 바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수용자가 판단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본문에서 언급한 문구를 제목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강조한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수용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비유적 표현의 문구를 활용하여 정보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수용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생산자의 설득 의도를 강조한다.

43

▶ 21052-019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같은 성격의 발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발화는 화자의 의도가 문장의 유형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느냐 간접적으로 반영되느냐에 따라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로 나뉜다. 직접 발화는 종결 표현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이고 간접 발화는 종결 표현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발화이다.

- ① (아주 쉬운 수학 문제를 풀고 난 후)
A: 이런 문제를 누가 못 풀겠어?
B: 맞아. 이걸 누구나 풀 수 있겠어.
- 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A: 아이가 도대체 몇 살이에요?
B: 아, 우리 아이가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 ③ (수술 전 아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아들에게)
A: 영수야, 수술하면 나아질 테니 조금만 더 참자.
B: 네, 엄마. 조금만 더 참아 볼게요.
- ④ (타지 사람이 서울의 지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A: 여기에서 광화문까지 어떻게 가요?
B: 이 길을 따라 죽 5분쯤 가면 됩니다.
- ⑤ (방금 마당에 빨래를 널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할 때)
A: 애야, 비가 오는구나.
B: 아, 예. 어머니, 나가서 빨래 걷고 올게요.

[44~45] 다음은 공익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면	요소	내용
1		영상	성큼성큼 다가오는 호랑이
		효과	소리: 긴장감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
2		영상	클로즈업된 호랑이
		효과	소리: 호랑이의 포효 소리
3		영상	주저앉은 엄마와 딸
		효과	소리: 모녀의 비명 소리
4		영상	공포를 느껴 주저앉은 모녀와 달려드는 호랑이
		효과	소리: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 배경 음악
5		영상	갑자기 나타나 호랑이에게 목줄을 채우는 남자
		효과	소리: 목줄 채우는 소리
6		영상	목줄이 채워진 호랑이에서 변한 작고 귀여운 강아지
		효과	소리: 강아지가 귀엽게 짖는 소리 편집: 장면 교차
7		영상	놀란 모녀에게 멧쩍은 듯 말하는 남자
		효과	소리: 우리 개는 순한데
8		영상	목줄을 찬 강아지와 자막
		효과	자막과 내레이션: 펫티켓 지켜야죠!

44

▶ 21052-0194

위 공익 광고의 생산자가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가 되는 장면을 배치하여 광고의 주제를 강조해야겠다.
- ② 광고 전반부에서 펼쳐지는 상황의 실체가 후반부에서 밝혀지도록 장면을 구성해야겠다.
- ③ 음향과 장면 교차 편집의 시각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광고의 전달 효과를 높여야겠다.
- ④ 반려동물 보호인이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알리는 것을 광고의 목적으로 설정해야겠다.
- ⑤ 광고에서 펼쳐지는 상황의 시간적 흐름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광고 수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야겠다.

45

▶ 21052-0195

〈보기〉는 위 공익 광고의 1차 편집본이다. 1차 편집본의 수정을 위해 제시된 의견 중 위 공익 광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장면	요소	내용
①		영상	성큼성큼 다가오는 호랑이
		효과	소리: 긴장감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
②		영상	클로즈업된 호랑이
		효과	소리: 호랑이의 포효 소리
③		영상	공포를 느껴 주저앉은 모녀와 달려드는 호랑이
		효과	장면 ①과 동일한 배경 음악
④		영상	갑자기 나타나 호랑이에게 목줄을 채우는 남자
		효과	소리: 목줄 채우는 소리
⑤		영상	목줄이 채워진 호랑이에서 변한 작고 귀여운 강아지
		효과	편집: 장면 교차
⑥		영상	놀란 모녀에게 멧찍어하는 남자
		효과	내레이션: 주인의 눈에만 귀엽게 보일 수 있습니다.

- ①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상황이 드러나도록 배경 음악에 변화를 주면 좋겠어요.
- ② 겁에 질린 모녀의 시선에 비친 장면을 추가하여 모녀가 느끼는 공포감을 강조하면 좋겠어요.
- ③ 상황의 반전이 강조되도록 강아지가 귀엽게 짖는 소리를 추가하면 좋겠어요.
- ④ 반려동물에 대한 입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는 남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대사가 소리로 표현되면 좋겠어요.
- ⑤ 광고의 주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내레이션을 수정하고 이를 자막으로 화면에 제시하면 좋겠어요.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4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나)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끼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
 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書)·일장(一章)」

(다)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이다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의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궁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에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으랴.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꺾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으리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에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십 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朝廷)에 나아가 검은 사모 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십이 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새재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내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려서 왔느냐.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엄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 형님 좌랑공도 나를 잃고 나를 좇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아버님께서 내게 태현(太玄)이라고 자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 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이 진실하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의 기(記)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01

▶ 21051-019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특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인격화된 대상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2

▶ 21051-0197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너’에게 ‘슬픔’을 경험하게 하여 ‘너’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 ② ‘나’는 ‘너’가 소외된 존재들에게 보였던 무관심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는 ‘너’에게 ‘기다림’을 줌으로써 ‘너’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 ④ ‘나’는 ‘기뻐하던 너’가 이해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입장을 ‘슬픔’을 통해 이해시키고자 한다.
- ⑤ ‘나’는 ‘추워 떠는 사람들’에게 공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함박눈’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 21051-0198

<보기>를 읽고 (가)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역설은 통념과는 다른, 창의적인 의미를 생성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념들을 부정하는 표현을 통해 낯설음과 동시에 창의적인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이 ‘아우성’에 담긴 ‘소리’라는 의미를 부정하여 낯설음을 줄 수 있다. 또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와 같이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정서와 황홀함이라는 긍정적 정서가 함께 얽히는, 즉 통념과는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난 표현으로만 역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창의적인 의미가 생성되어야 한다. 즉 ‘외로운’과 ‘황홀한’이라는 단어들에 각각 담긴 의미 사이의 거리감을 상상력을 통해 좁히면서 시인이 의도한 창의적인 의미를 생성할 때 비로소 역설적인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이 인간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독자들에게 삶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기도 한다.

- ① (가)의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은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낯선 느낌을 줄 수 있겠군.
- ② (가)의 ‘무관심한 너의 사랑’에서 ‘무관심’과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 사이의 거리감은 상상력을 통해 창의적인 의미로 연결될 수 있겠군.
- ③ (가)의 ‘슬픔의 힘’은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하도록 촉구하는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겠군.
- ④ (다)에서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한 탐구는 글쓴이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맹자’의 통념을 부정함으로써 시작될 것이겠군.
- ⑤ (다)에서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은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생성된 창의적인 의미로 독자에게 성찰을 유도하겠군.

04

▶ 21051-019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생명의 본질을 찾기 위해 향하는 공간이다.
- ② ㉡: 화자가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공간이다.
- ③ ㉢: 화자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지닌 존재이다.
- ④ ㉣: 달아나기를 잘하고 쉽게 떠나가는 특징을 지닌 존재이다.
- ⑤ ㉣: 글쓰기가 지켜야 할 것을 잃은 상태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다.

05

▶ 21051-0200

<보기>는 『성학집요』에 담긴 맹자의 이야기와 관련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율곡 이이가 쓴 『성학집요』에는 구방심(求放心), 즉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학집요』에 담긴 다음 내용을 읽고, ‘학문을 추구하는 자세’와 연관 지어 (다)를 이해해 봅시다.

학문의 도는 단연코 놓쳐 버린 마음을 구하는 데 있다고 했으니, 배우는 이는 모름지기 먼저 그 놓쳐 버린 마음을 수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풀어져 버려 널리 배우는 일에도 등한해지고 자세히 따져 묻는 일에도 등한해질 것이니, 어떻게 밝게 분변하고 독실히 행할 수 있겠는가? 대개 몸은 집과 같고, 마음은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있어야 문 앞에 물을 뿌리고 쓸며 집안일을 정돈할 수 있다. 만약 주인이 없다면 이 집은 그저 황폐한 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① ‘빗장과 자물쇠로 잠’그는 행위는 <보기>의 ‘학문의 도’를 등한시하는 것과 유사하겠군.
- ② ‘장기’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의 글쓴이의 상황은 <보기>의 ‘집주인’이 없어 집이 황폐해진 것과 유사하겠군.
- ③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있는 ‘큰형님’은 <보기>의 ‘밝게 분변하고 독실히 행’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겠군.
- ④ 글쓴이가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닌 것은 <보기>의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겠군.
- ⑤ 글쓴이가 ‘수오재’의 의미를 깨달은 상황은 <보기>의 ‘문 앞에 물을 뿌리고 쓸며 집안일을 정돈’할 수 있는 ‘집주인’이 있는 것과 유사하겠군.

[0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헤겔에 의하면, 존재는 자기를 전개하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존재가 주관 속에 머물러 있어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최초의 상태를 헤겔은 ‘즉자 존재’라고 부르고, 이 즉자 존재가 자기를 자기에서 분리하여 스스로 외화(外化)하면서 나타나는 상태를 ‘대자 존재’라고 한다. 여기서 외화란 존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자기에게 낯선 것, 자기와 대립되는 것으로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자 존재의 성립은 존재가 객관적인 의식을 통해 자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즉자 존재가 대자 존재와의 대립을 해결하고 고양된 존재가 바로 ‘즉자 대자 존재’이다. 헤겔에 있어 정신은 즉자 대자 존재가 되었을 때 이른바 절대정신으로 완성된다.

존재가 고양되는 과정을 ‘즉자-대자-즉자 대자’로 정식화*했을 때,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자가 스스로 분열하여 대자를 만들어 내고, 이 대립쌍이 상호 관계하여 즉자 대자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대자는 즉자의 외부에서 오는 사태가 아니고 즉자 자체가 스스로를 부정한 결과이다. 이것은 운동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분열된 둘이 상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즉자 대자를 낳는다. 이는 곧 ‘정립-반정립-종합’의 3단계 과정, 즉 변증법을 의미한다. 이때 종합은 정립과 반정립을 아주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새로운 형태로 살려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증법의 특성을 헤겔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으로 정식화한다. 존재는 자신 아닌 것, 즉 타자를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자의 정신은 자기 인식을 위하여 외화하여 타자가 된 뒤 다시 새로운 정신으로 복귀하는데, 헤겔은 이처럼 새롭게 고양된 정신, 즉 즉자 대자의 정신을 절대정신이라고 보았다. 또한 절대정신이 외화하여 물질적 매체에 자신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을 관조하려고 하며 인식하고 사고하려고 하는 존재이다. 헤겔에 의하면 의식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부정, 자기 확정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하고자 하는데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은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것이 되며, 절대정신은 예술을 통해 새롭게 고양되어 더욱 구체화된 절대정신으로 거듭나게 된다.

*정식화: 일정한 공식과 같이 일정한 명제나 정의로 규정됨 또는 그렇게 규정함.

(나) 헤겔은 예술의 본질, 즉 예술성을 개념과 실재의 합치로 파악한다. 예술이 추구하는 개념과 그것이 표현된 실재가 서로 상응하여 참된 개념이 완전한 실재를 지닐 때 예술다움이 발현된다고 본 것이다. 이때 개념이란 예술이 표현하려고 하는 정신이며,

실재란 개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헤겔은 예술성이 완전히 충족되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를 이념상이라고 규정하면서 개념과 실재의 관계에 따라 예술을 상징, 고전, 낭만이라는 세 가지 예술 형식으로 구분한다.

㉠상징적 예술 형식은 개념과 실재가 서로 부적합한 예술 형식이다. 이 형식은 개념과 실재의 합치를 추구하지만, 참된 개념과 완전한 실재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헤겔은 상징적 예술 형식에서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은 아직 내용에 적합한 개별적 형태로 표현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자연 대상으로 대체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례로 헤겔은 몸통은 사자이고 얼굴은 인간인 고대 이집트의 스피נק스를 제시한다.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는 개념과 실재가 완전하게 일치함으로써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된다. 고전적 예술 형식은 상징적 예술 형식이 지니고 있던 이중적 결합, 즉 개념의 추상성과 개념과 실재의 불일치 문제가 극복된다. 이때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의 참된 실재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신들이 개별적인 인간 신체로 표현된 것을 헤겔은 그 사례로 제시한다. 헤겔에 의하면, 예술의 아름다움은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다.

㉢낭만적 예술 형식은 고전적 예술 형식이 성취한 아름다움과 예술성이 해체된 것으로, ㉠개념과 실재의 조화 상태를 초월한 것이다. 헤겔은 고전적 예술 형식은 완전한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전적 예술 형식이 무한한 개념을 인간의 형상이라는 감각적이며 유한한 실재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낭만적 예술 형식에서는 개념과 실재가 다시 부적합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상징적 예술 형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헤겔은 개념이 자기 심화를 통해 오로지 자기 자신 속에서 실재를 찾음으로써, 예술 형식은 감각적 표현을 포기하고 외적인 것과의 합치에서 벗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체적 개념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형태화할 것인가는 이 형식 내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낭만적 예술 형식은 개념을 실재를 통해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예술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는 예술 형식으로, 헤겔은 음악, 회화, 시에서 개념이 실재를 넘어선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무한한 개념을 유한한 실재로 표현해야 하는 예술의 한계를 초월하여 개념이 자신 안에서 실재를 찾아 표상*화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 표상(表象): 지각(知覺)에 의하여 의식에 나타나는 대상의 상(像).

06

▶ 21051-02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정신의, (나)는 개념의 자기 심화 과정을 통해 헤겔이 제시한 미적 개념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가)는 존재의 자기 인식 과정을 통해, (나)는 개념과 실재 사이의 관계를 통해 헤겔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존재가 지닌 특징을, (나)는 각 예술 형식의 이념상을 분석하여 헤겔의 예술관이 성립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다.
- ④ (가)는 정신의 질적 변화를, (나)는 형상화된 실재의 양적 변화를 중심으로 헤겔이 제시한 예술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
- ⑤ (가)는 존재의 자기 인식이, (나)는 개념과 실재의 적합성이 변화한 과정을 중심으로 헤겔의 예술론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7

▶ 21051-020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자 존재의 정신은 자기실현을 통해 절대정신으로 완성된다.
- ② 즉자의 정신이 외화한 뒤 다시 새로운 정신으로 복귀할 때 그것은 절대정신이 된다.
- ③ 존재가 스스로에서 파생된 타자를 통해 자기 인식에 도달했을 때 절대정신이 성립된다.
- ④ 절대정신이란 즉자 존재의 주관적 정신과 대자 존재의 객관적 정신 간의 대립과 해결을 통해 고양된 정신이다.
- ⑤ 즉자 대자 존재의 절대정신이 감각적으로 드러나서 예술의 아름다움이 실현되면, 예술은 타자의 정신을 절대정신으로 고양한다.

08

▶ 21051-02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개념과 실재가 모두 완전하지 않은 예술 형식으로, 예술다운 예술이 아직 되지 못한 상태이다.
- ② ㉡은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되어 개념에 의해 형상화된 실재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상태이다.
- ③ ㉢에 나타나는 개념과 실재의 부적합 상태는 정신을 감각적 형상을 통해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초래된다.
- ④ ㉠과 ㉢에서는 개념과 실재가 괴리되는 반면 ㉡에서는 참된 개념이 가장 완전한 실재를 지니게 된다.
- ⑤ ㉡에서는 이념상이 예술적으로 완전히 아름다운 상태인 반면 ㉢에서는 이념상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된다.

09

▶ 21051-0204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절대정신의 무한성이 물질적 매체의 유한성을 넘어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상태
- ② 절대정신과 그것이 외화하여 형상화된 물질적 매체가 서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상태
- ③ 절대정신의 동일성과 물질적 매체의 비동일성이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 동일성을 이룬 상태
- ④ 예술을 통해 고양된 절대정신의 구체성이 물질적 매체의 형상성을 초월하여 스스로 표상화된 상태
- ⑤ 절대정신을 형상화할 수 있는 물질적 매체가 존재하지 않아 예술을 통한 절대정신의 고양에 불가능한 상태

10

▶ 21051-020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예술의 개념이 실재에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신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신은 최상의 본질’이라고 답한다면 이 대답은 ‘최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질문은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답변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헤겔은 진실한 상태에 있는 신은 그 자체로 구체자로서, 구체자란 보편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주체성과 특수성을 자체 속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그는 어떤 것을 예술로 표현할 때 그것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실재도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개념에 감각적인 실재가 상응하려면 이 실재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가)에서 정립과 반정립의 상호 관계가 변증법적 종합의 계기가 되는 것은 양자 간의 상호 관계가 보편성을 특수성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이겠군.
- ② (가)에서 즉자 존재가 대자 존재와의 대립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즉자 대자 존재가 되는 과정은 정신이 구체자가 되어 절대정신으로 성립되는 과정이겠군.
- ③ (나)에서 고대 그리스 신앙은 구체자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이 적합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감각적 구체자의 사례이겠군.
- ④ (나)에서 상징적 예술 형식이 이중적 결합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재와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겠군.
- ⑤ (나)에서 이념상은 개념의 구체성과 감각적 실재의 구체성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로, 예술의 아름다움은 구체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감각적 실재로 형상화될 때 달성되는 것이겠군.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영탁이는 몇 해 연애했던 여자와 결혼해 아들딸 낳고 재미나게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건 뻔했다. 군더더기를 받아들여야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실제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간 후 함흥차사인 동생을 껄뽀하게 여기느라 영주의 심사는 내내 불편했다. 명색이 장남이 어찌면 그럴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는 심정은 내가 어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자책과 오락가락해서 자신도 누굴 탓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었다.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정말 그럴 작정이었는지 영탁이가 어머니한테 끝 모시러 오마고 약속하고 떠난 게 화근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공공연히 보파리를 싸 놓고 안절부절을 못 했다.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했는데, 야아가 왜 이렇게 늦나.’ 걸핏하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대합실에 발을 묶인 사람처럼 초조하게 창밖만 내다보기도 하고, 강하게 밀어내는 시선으로 집안 식구를 대하기도 했다. 참다못해 영주가 먼저 올케하고 직접 담판을 해서 어머니를 모셔 가도록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영탁이네서 석 달도 못 버티고 **둔촌동**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실은 버티고 말 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자신의 의지라는 걸 상실해 갔으니까. 못 버티긴 어머니가 아니라 영주였다.

어머니를 그렇게 떠맡기다시피 한 영주는 매일매일 문안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그럴 적마다 야아, 나 **과천** 갈란다. 과천 좀 데려다주려무나, 그 말밖에 안 했다. 그 말이 그렇게 애절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 과천은 영주네가 둔촌동으로 오기 전에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영탁이나 그의 처는 그 말을 딸네로 가고 싶다는 소리와 같은 뜻으로 알아듣는 듯했다. 그러나 두 내외가 다 영주한테 모셔 가란 소리는 죽어도 안 할 것처럼 꺾끔하게 굴었다. 동생 내외한테서 모셔 가란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야속할 만큼 영주는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게 불안했다. 어머니를 동생네로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것은 영주도 어머니의 과천 상성을 딸네 집으로 다시 오고 싶다는 소리로 알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장녀로서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해 온 수많은 세월**을 잊지 않고서는 차마 못 들은 척할 순 없는 애소였다. 그러나 영주는 주리 참듯 참았다. 너희들이 다시 모셔 가라고 빌면 모를까, 내 입에서 먼저 모셔 오겠다는 소리가 나올 줄 알구, 하는 영주의 앙심과, 한번 모셔 온 이상 누나가 애걸복걸이나 하면 모를까 다시 어머니를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영탁이의 고집은 상반된 것 같으면서도 실은 같은 것이었다.

㉢그들이 모시고자 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도 딸네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죽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욕이라는, 관념이었으니까.

아들과 딸의 이런 보이지 않는 버티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의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은 증세는 하루하루 더해 갔다. 어머니에게는 이미 아들이나 딸이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데가 과천이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지능이 퇴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발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치사하게 아들네서 딸네로, 딸네서 아들네로 보파리처럼 옮겨 다니느니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과천이란 **완충 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보내 달라고 보채고 있으니 말이다. 아들네서도 마침내 가출이 시작됐다. 그러나 영탁이 처가 어떻게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 놓았는지 어머니의 **탈출**은 번번이 그 단지 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단지의 부녀회장이어서 발이 넓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저히 외출할 수 없는 옷을 입혀 놓았는데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잠옷이나 고쟁이 바람의 어머니의 외출은 아이들 눈에도 즉각 띄게 돼 있었고, 눈에 띄었다 하면 경비 아저씨한테 즉시 연락이 가도록 돼 있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들 영탁이네에서 딸 영주네로 돌아온 어머니는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 어머니는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데 영주는 어머니를 찾던 중 어느 외딴집을 보게 된다.

이 마을에도 포스터를 붙여 볼까 하다가 문득 저만치 외딴집이 보였다. 요새도 서울 근교에 저런 **옛날 집**이 남아 있는 게 신기했다. 문화재적인 옛날 집이 아니라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귀살스러운 옛날 집인데도 영주는 이상한 힘에 끌려 차츰차츰 다가갔다. 다가가면서도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주춤거렸다. 느닷없이 하숙 치던 종암동 집 생각이 났다. 그냥 생각이 난 것뿐 비슷한 것 같지는 않았다.

[B] 혁 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천개사 포교원**이라는 간판과 함께 빨랫줄에서 나부끼는 어머니의 스웨터를 보았다. 영주는 멧을 것 같은 숨을 헐떡이며 그 집 앞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루 천장의 연등과 금빛 부처가 그 집이 절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었다. 그밖엔 시골의 살림집과 다를 바가 없었다. 부처님 앞, 연등 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도란도란 도란거리면서 더덕 껌질을 벗기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 둘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아니아니 혈령한 승복 때문만이 아니었다. 살아온 무거운 잔재를 완전히 털어 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여지껏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 드린 적이 있었을까. 칠십을 훨씬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 낀 천진 텅

어리일 수가 있다니.

㉔ 얕만해도 저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영주는 그래서 어머니를 지적에 두고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것은 현실이었으니까. 현실과 환상 사이는 아무리 지적이라도 아무리 서로 투명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별개의 세계니까.

- 박완서, 「환각의 나비」

(나) 최근 노년의 문제와 삶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상호 돌봄의 윤리에 기초한 가족 구성원의 연대감이나 가장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경향의 소설들은 주로 노인의 실존을 탐색해 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서술하거나,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성 훼손의 반생명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렇듯 노년의 삶을 다루는 소설들이 일상생활과 가족에 내면화된 반생명적 문화의 폐해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노년의 삶을 다룬 소설들 중에는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특정 대상을 '보는 이'인 초점 화자의 시각 내용과 시각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즉 '보는 이'인 초점 화자의 시각을 통해 '보이는 대상'인 주변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의식을 포착해 낸다. 말하자면 특정 인물의 시선에 기대어 주변 인물들의 삶의 한 단면을 초점화하는 서사 전략을 통해 노인의 불안한 내면이나 일상에서 겪는 노인의 소외가 더 부각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소설 중에는 특정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된 환상 체험을 통해 삶의 순수성과 자유를 획득한 인물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드러내는 서술 장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11

▶ 21051-020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주는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남동생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머니는 영탁이네로 가기 위해 영주네 집안 식구를 외면하는 시선을 보인다.
- ③ 어머니는 영탁이네로 간 후에도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 ④ 영주는 어머니의 지능이 완전히 퇴화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 ⑤ 영주는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려 하지만 장남인 영탁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12

▶ 21051-020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인물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서술자가 인물들의 발화 의도를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인물의 세계관을 평가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실에 대한 인물의 불만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과거에 일어난 곤혹스러운 일을 토로하는 방식을 통해, [B]는 두 인물이 공유한 과거의 경험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인물들의 상이한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다.

13

▶ 21051-0208

(나)의 관점에서 ㉠~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주가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건 뻔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상호 돌봄의 윤리가 상실된 가족의 풍경을 엿볼 수 있다.
- ② ㉡: 영탁이 어머니를 '곧 모시러 오'겠다는 발화를 한 것에서, 초점 화자인 영탁의 시선에 의해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꺼리는 영주의 의식이 포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③ ㉢: 영탁이 '아들이 있는데도 딸네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죽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에서, 가장장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영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④ ㉣: 영탁의 처가 '어머니에게 도저히 외출할 수 없는 옷을 입혀 놓'는 것에서,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일어난 인간성 훼손의 반생명적 행태를 엿볼 수 있다.
- ⑤ ㉤: 영주가 '저건 현실이 아니'라며 어머니에게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서, 환상 체험을 통해 영주가 삶의 순수성과 자유를 획득한 어머니에 대해 놀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4

▶ 21051-0209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박완서는 장소와 공간의 함의를 집요하게 탐색한 작가이다. 추상적 성격을 띠는 공간(space)에 가치를 부여하면 장소(place)가 되며, 이러한 장소는 개인과 집단에게 정체성과 안정감을 부여한다. 하지만 특정 요인들에 의해 그동안 맺고 있던 진정한 애착 관계가 허물어지면, 장소 상실(placelessness)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장소 상실이 가속화되면 가치가 부여된 장소가 변형되고, 결과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 ① ‘둔촌동’은 어머니가 영탁이네에서 돌아온 후에도 벗어나고 싶어 한 곳이라는 점에서, 어머니가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는 아니었겠군.
- ② ‘과천’은 어머니가 아들네와 딸네로 떠도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완충 지대’라는 점에서, 어머니가 가치를 부여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영탁이네가 살고 있는 ‘그 단지’는 어머니가 선택했으나 결국 ‘있고 싶’지 않아서 ‘탈출’하려는 곳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생성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겠군.
- ④ ‘옛날 집’은 딸 영주에게 ‘장녀로서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해 온 수많은 세월’의 고통을 환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영주에게 장소 상실을 경험하게 한 장소이겠군.
- ⑤ ‘천개사 포교원’은 자식들로부터 소외된 어머니가 마음의 평화를 획득한 곳이라는 점에서, 어머니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한 장소이겠군.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도는 인간의 생활 환경인 지표면상의 여러 현상에 관한 지식을 시각 기호로 표현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인간 사회는 축척과 기호라는 지도적(地圖的) 표현을 통해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 축적하고 전달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지도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공간의 대체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지도가 나타내는 공간을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의 대체물이라 볼 수는 없다.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특정 지점의 시선 높이에서 주변에 펼쳐진 공간을 경험하지만, 지도에 표현된 공간은 개별 인간의 신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공간으로 추상성을 띠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신체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눈높이에서 근방으로 펼쳐지는 공간을 ‘국소적 공간’이라 부를 수 있다. 지리학자 투안에 따르면 인간은 움직이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경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공간적 패턴을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은 대개 자신을 중심으로 신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하, 전후, 좌우를 통해 결정된다. 지구 중력의 방향이 일정하므로 상하는 대개 고정되어 있으나 좌우, 전후는 신체가 서 있는 위치나 자세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또한 국소적 공간은 그 특성상 서로 다른 두 개인에게 동시에 ㉠점유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도적으로 표현되는 전체로서의 공간을 ‘전역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상공에서 지상을 조감할 때 펼쳐지는 모습을 전역적 공간과 같다고 여길 수 있지만, 높은 곳에서 특정 건물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본 상태를 그린 조감도의 시점은 전역적 공간의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도는 지표상 특정한 한 점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세계의 상을 그대로 ㉢투영하여 평면에 나타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역적 공간의 시점은 지도라는 평면 위에 편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지도상 임의의 한 점이 그 점의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상이라고 한다면 전체 지도는 무수한 임의의 한 점의 위에서 바라본 무수한 상의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전역적 공간으로서 지도를 내려다보는 시점은 특정한 국소적 공간을 보는 시점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지도를 내려다보는 시점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이며, 동일한 지도는 누구든 같은 공간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은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이는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과 달리 개별 신체의 위치나 방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택의 방향을 일컬을 때 주택 거실 창문의 방향에 따라 ‘남향’, ‘동향’이라고 일컫는 것은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나아가 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 전역적 공간은 그것

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상으로 인식된다. 전역적 공간에 대한 정보는 자신이 현재 ④조우한 환경이 낯설거나 그곳에 대해 알지 못하는 타자에게 장소에 관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국소적 걸모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통합한 전체로서, 전역적 공간을 나타낸 지도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도적 표현은 축척을 통해 인간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고는 있으나 경험할 수 없는 전역적 공간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때 지도로 표현된 전역적 공간의 모습은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는 공간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을 공간적 경험에 ⑤부기하는 것이다. 나아가 ⑦역설적이게도 전역적 공간상은 공간에 대한 그 어떤 상보다도 안정된 공간 인식의 발판으로서 개별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보충한다. 길을 잃어버린 상황의 인간은 국소적 공간의 걸모습만을 통해서서는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인간은 전역적 공간과 국소적 공간의 상을 종합하여 공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A] 공간 경험을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으로 구분지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듯, 인간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특정한 환경으로서 사회 역시 국소와 전역이라는 이중의 현상 방식을 통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실체로서 사회라는 전역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언어나 도상적* 이미지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사회가 가시화될 때 인간은 자신의 시점을 넘어 총체적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별 인간의 국소적 경험을 넘어선 사회의 전역적 상은 타자와 공유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 속에서 자기와 타자에 대한 온전한 자리매김이 가능할 때 사회적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다.

*편재(遍在): 널리 퍼져 있음.

*도상적(圖像的): 어떠한 생각이나 대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15

▶ 21051-02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국소적 공간은 인간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
- ② 전역적 공간의 시점은 평면에 편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감도의 시점과는 다르다.
- ③ 전역적 공간의 상을 통해 복수의 불특정 타자들은 동일한 공간상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④ 축척과 기호로 표현된 지도의 공간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 ⑤ 지도상 임의의 한 점 위에서 내려다보는 여러 상을 적분한 것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의 상을 이룬다.

16

▶ 21051-0211

윗글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식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쓰기 방식	분석 내용
①	주요 소재의 의미 제시	공간에 대한 이해 방식과 관련하여 지도의 의미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함.
②	주요 소재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시	일반적으로 지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바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도의 개념을 확인함.
③	주요 소재의 변화 과정 제시	지도가 포괄하는 정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드러냄.
④	전문가의 연구 내용 인용	국소적 공간의 의미를 구체화하며 설득력을 얻고자 관련 분야 학자의 견해를 제시함.
⑤	대비되는 개념을 활용한 논지 전개	국소적 공간과 전역적 공간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간이 환경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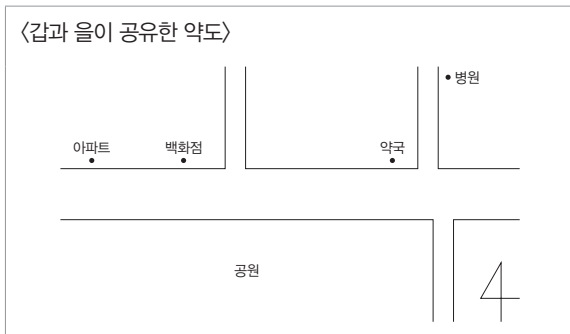
17

▶ 21051-02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 병원 앞에서 우리가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에 있니?
 을: 내 옆에 지금 백화점이 보여.
 갑: 그럼 쪽 직진해.
 을: 조금 걷다 보니 백화점 다음에 아파트가 있네.
 갑: 아차, 그 방향이 아니야. ㉠ 다시 처음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해.
 을: 앗, 그렇구나. 난 방금 멈춘 상태 그대로 지금 서 있어.
 갑: 그럼 ㉡ 지금 네 왼쪽에 공원이 있을 텐데, 네 왼쪽에 아파트가 있어야 옳은 방향이야. 지금부터는 내가 보내 준 약도를 보고 얘기하자.
 을: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갈게.



갑: 약도 잘 보여? ㉢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11시 방향이 병원이야.
 을: 그래, ㉣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쪽이 동쪽이구나. ㉣ 약국에 다다라서는 북쪽으로 꺾으면 되지?
 갑: 그래, 맞아.

- ① ㉠: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어휘일지라도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갑은 자신의 지시를 정정했다.
- ② ㉡: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갑은 을의 기준에서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혼란을 막고자 했다.
- ③ ㉢: 갑은 을이 국소적 공간의 길모습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에 앞서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④ ㉣: 을은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과 국소적 공간의 방향성을 겹쳐 놓는 과정을 통해 목적지로 가기 위한 적절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 ⑤ ㉣: 을은 자신이 진행할 방향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과 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역적 공간의 방향성을 사용하였다.

18

▶ 21051-0213

㉡와 같이 표현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상이 아니라 경험할 수 없는 상을 기반으로 하여 더 안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 ②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형성된 이미지와 외부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분리시켜 공간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 ③ 인간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바를 종합하여 경험할 수 없는 데까지 인식을 확장하며 공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 ④ 인간은 자신의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 스스로 내용을 꾸며 내어 경험의 빈칸을 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 ⑤ 인간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 갈등하며 공간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19

▶ 21051-0214

[A]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경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중의 족보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확인한 경험
- ②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 공간에서 본국의 영토를 바라본 경험
- ③ 동호회의 모든 구성원이 모여 나이를 기준으로 호칭을 정리한 경험
- ④ 여행지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풍경 사진을 보고 후보군 목록을 작성한 경험
- ⑤ 해외에서 식당을 찾기 위해 간단히 음식 모양을 그려 그 나라 사람과 의사소통한 경험

20

▶ 21051-021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
- ② ㉡: 상이 비치게 슬라이드 따위에 빛을 비춤.
- ③ ㉢: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
- ④ ㉣: 우연히 서로 만남.
- ⑤ ㉣: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등산(無等山) 흔 활기 뒤흠 동(東)다히로 버더 이서
 멀리 세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어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의 모습 짐작 흥노라
 일곱 구비 흥디 움쳐 므득므득 버러는 듯
 가온디 구비는 굵기 든 늘근 놓이
 선증을 꺾 썩야 머리틀 언쳐시니
 ㉠ 너르바회* 우희 송죽(松竹)을 헤치고
정자(亭子)를 안쳐시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千里)를 가리라 두 나리 버러는 듯
 옥천산(玉泉山) 용천산(龍泉山) 느린 물히
 정자(亭子) 압 너븐 들히 올올(兀兀)히 퍼진 드시
 ㉡ 넙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칩혔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앗바
 닳는 듯 썩로는 듯 밤늦으로 혼르듯
 므조친 사정(沙汀)*은 눈긱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괴력기는 므스거늘 어르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훗트락
 노화(蘆花)을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는노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
 ㉢ 두르고 쏘즌 거슨 뒤흠가 병풍(屏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긱는 듯 닳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온디
 일흠는 양하야 하늘도 젓치 아녀*
 옷독이 섰는 거시 추월산(秋月山) 머리 짓고
 용구산(龍龜山) 몽선산(夢仙山) 불대산(佛臺山) 어등산(魚登山)
 용진산(湧珍山) 금성산(金城山)이 허공(虛空)의 버러거든
 원근(遠近) 창애(蒼崖)의 머문 짓도 하도 할샤
 흰 구름 브흰 연하(煙霞) 프로니는 산람(山嵐)*이라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 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장공(長空)의 썩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가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지트락 사양(斜陽)과 서거지어 세우(細雨)조츼 썩리는다
 남여(籃輿)를 비야타고 술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하는 적의 녹양(綠楊)의 우는 황앵(黃鶯) 교태
 (嬌態) 겨워 흥느괴야
 나모 새 즈즈지어 수음(樹陰)이 얼린 적의
 [A] 백 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오름 내여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느가
 즈서리 싸진 후의 산 밧치 금슈로다
 황운(黃雲)은 쏘 엇지 만경(萬頃)의 편거지요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들릴 썩라 브니는다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므몰켜늘
 조물(造物)리 현스 하야 빙설(氷雪)노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버러세라
 건곤(乾坤)도 가움 열샤* 간 디마다 경이로다
 인간(人間)을 썩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흥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람도 혀려 흥고 들도 마즈려코
 톱으란 언제 줍고 고기랑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썩려노
 ㉣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흠소나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하라
이 뒤흠 안자 보고 저 뒤흠 거러 보니
번로(煩勞)흔 므옴의 브릴 일리 아조 업다
 설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아
 다만 흥 청려장(靑藜杖)* 다 뒤흠여 가노미라
 술리 닳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나
 블느며 트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츼락
 을프락 프름하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넙고 넙고 일월(日月)도 흥가하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괴야
 신선(神仙)이 엇터턴지 이 몸이야 괴로괴야
 ㉤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상(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 흠소나
 이 몸이 이령곰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B]

-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 *너르바회: 넓고 평평한 바위.
- *사정: 시냇가의 모래톱.
- *어즈러운: 어지러운.
- *젓치 아녀: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 *산람: 산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경궁요대: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라는 뜻으로, 호화로운 궁전을 이르는 말. 곧 눈에 덮인 아름다운 자연.
- *옥해은산: 눈 덮인 들판과 산.
- *가움열샤: 풍성하구나.
- *청려장: 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이.
- *희황: 고대 중국의 전설적 제왕인 '복희씨'의 다른 이름. 여기서는 복희씨의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가리킴.
- *니적이야: 이적이야. 이때야말로.

- 송순, 「면양정가」

21

▶ 21051-0216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벗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
- ②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며 잘못된 점을 깨닫고 있다.
- ③ 옛사람들이 자연을 즐겼던 방법을 배우려 하고 있다.
- ④ 빈궁한 생활 속에서도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22

▶ 21051-0217

〈보기〉를 바탕으로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면양정의 현판에는 송순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르면 하늘이라.
이 사이에 정자가 있으니 호연한 흥취 일어나네.
풍월을 부르고 산천에 읊하여
명아주 지팡이로 평생을 보내노라.

‘면양’이라는 명칭은 글귀의 첫 행에서 나온 것으로,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른다는 의미이다. 현판의 글귀를 통해 송순이 면양정 주변의 자연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유롭게 완상할 수 있고, 자연물에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면양정 주변의 자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송순은 자신이 이런 공간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면양정의 입지와 외양을 묘사하며 비상의 이미지를 통해 그곳이 작가의 이상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임을 밝히고 있군.
- ② ㉡: 작가가 완상하고 있는 면양정 앞 시냇물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있군.
- ③ ㉢: 작가는 면양정 주변의 산봉우리들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그들이 세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 작가는 세속을 떠나 유유자적하는 생활 속에서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군.
- ⑤ ㉤: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을 타인과 견주며 작가가 느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군.

23

▶ 21051-0218

[A]를 원작의 계절적 배경에 충실한 영상으로 제작할 때, 적절하지 않은 장면은?

- ① 여름에 화자가 가마를 타고 피꼬리 소리가 들리는 산길을 이동하는 장면
- ② 여름에 화자가 정자의 난간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조는 장면
- ③ 가을에 화자가 곡식이 누렇게 익은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장면
- ④ 겨울에 어부가 달빛이 비치는 강가를 거닐며 피리를 부는 장면
- ⑤ 겨울에 화자가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장면

24

▶ 21051-0219

[B]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문의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의 행동을 나열하여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로봇이 기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기사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저널리즘을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부른다. 로봇 저널리즘에서 ‘로봇’은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글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짜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로봇 저널리즘은 인간이 기사를 작성하는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뒤, 해당 알고리즘이 스스로 기사 작성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선별하며, 기사의 작성 및 구성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로봇 저널리즘의 본질을 고려해 본다면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저널리즘’이라 할 수 있다.

저널리즘 현장에서 기사 작성을 위해 먼저 기자가 취재에 나서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로봇 저널리즘의 기사 작성에서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데이터 수집이다. 이 단계에서는 웹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의 알려진 출처에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때 데이터의 수집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크롤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API는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크롤링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을 뜻하며, 주로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API는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신속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공개된 API를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는 경우와 공개된 API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및 개인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중요도를 판별하여 데이터 내에 ㉥담겨 있는 함의를 도출할 때에는 텍스트 마이닝*, 주제어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분석(keyword analysis)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수집한 텍스트 자료에 포함된 단어들의 빈도에 따라 주요 단어를 추출하는 것이다. 즉 한 문서 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어를 추출하고 이들이 언급되는 빈도에 따라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때 주제어의 빈도는 특정 단어가 한 문서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 빈도(Term Frequency: TF)’로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다. TF 값이 큰 단어일수록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TF 값이 큰 단어는 여러 문서에서 그 단어가 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서 빈도(Document Frequency: DF)’의 값이 큰 단어

일 수 있다. DF는 특정 단어가 문서 집합 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이에 중요도 분석에서는 모든 문서에서 자주 출현하는 상투어를 걸러 내고 중요도가 높은 주제어의 도출을 위해 역문서 빈도(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를 고려한다. IDF는 DF 값의 역수로, 문서 집합에 포함된 전체 문서의 수를 특정 단어를 포함한 문서의 수로 나눈 값이다. IDF가 작은 단어는 전체 문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단어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IDF가 큰 단어는 소수의 문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해당 문서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기사를 자동으로 생산하는 연구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로봇 저널리즘은 기술적 한계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규칙 부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스포츠 경기, 주가 변동, 기상 예보 등의 데이터 분석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수집한 데이터에서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로봇 저널리즘이 ㉧자동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기사 생성 알고리즘은 기존 기사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미리 만든 정형화된 논리 구조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서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이다. 즉 현재 수준에서 로봇 저널리즘을 통한 기사의 생성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이 아닌 기존 기사의 형식 구조를 모방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기사의 경우, 기존 기사들의 패턴 분석을 통해 “○○이/가 ○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안타를 쳐서 ○점을 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둔다면 추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칸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이 예문의 경우는 안타를 친 경우의 예시이고, 홈런과 같은 경우의 문장 또한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지금까지의 로봇 저널리즘의 경우 형식 구조를 모방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사건 및 이슈 발생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로봇 저널리즘은 전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배제된 기사를 작성한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히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사 작성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 준다. 또한 로봇 저널리즘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개인화이다. 언론사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사를 쓰려면 막대한 인력 투입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언론사들은 개인화된 기사 작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로봇 기사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즉 앞으로의 로봇 저널리즘은 독자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독자가 기사를 읽는 시간, 장소 등 상황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텍스트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25

▶ 21051-0220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봇 저널리즘의 탄생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로봇 저널리즘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로봇 저널리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여 로봇 저널리즘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③ 로봇 저널리즘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서술하며 로봇 저널리즘의 기사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로봇 저널리즘의 개념을 밝히면서 로봇 저널리즘과 일반 저널리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⑤ 로봇 저널리즘의 이론적 근거를 언급하며 로봇 저널리즘이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26

▶ 21051-022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로봇 저널리즘의 데이터는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를 크롤링하여 수집할 수 있다.
- ② API를 사용하면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③ 현재 로봇 저널리즘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규칙 부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의 데이터를 주로 다룬다.
- ④ 주제어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⑤ 로봇 저널리즘은 인간이 기사를 작성하는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사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27

▶ 21051-0222

<보기>는 수집한 텍스트 자료를 '주제어 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한 데이터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서 ㉓: A new car is used car.

㉓의 TF 값	
단어	TF
a	1
new	1
car	2
is	1
used	1

문서 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㉔의 TF 값	
단어	TF
a	2
friend	2
in	1
need	1
is	1
indeed	1

단, ㉓와 ㉔는 각각의 문서이며 문서 집합은 이 두 문서로만 구성된다.

- ① 문서 ㉓에서 'car'의 TF 값과 IDF 값은 동일하군.
- ② 문서 ㉔에서 IDF의 값이 가장 작은 단어는 'a'와 'is'이군.
- ③ 문서 ㉔의 'a'와 'friend'의 중요도를 TF 값으로 판단하면 'a'와 'friend'의 중요도는 동일하군.
- ④ 문서 ㉓의 'car'와 문서 ㉔의 'friend'의 TF 값은 모두 각각의 DF 값보다 작은 값을 갖는군.
- ⑤ 문서 ㉓와 문서 ㉔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a'와 'is'는 DF 값이 가장 높은 텍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군.

28

▶ 21051-02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기사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겠군.
- ② ㉡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들의 중요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겠군.
- ③ ㉢을 위해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기사 형식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하겠군.
- ④ ㉠과 ㉡에서는 기존 기사들이 지닌 논리 구조의 패턴을 분석하여 정형화된 기사 형식을 도출해 내겠군.
- ⑤ ㉡과 ㉢을 모두 수행하여도 형식 구조의 모방이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기사 작성에는 어려움이 있겠군.

29

▶ 21051-0224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실시한 모의 토론의 일부이다. ㉠~㉥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보기

사회자: 최근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로봇 기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봇 저널리즘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로봇 저널리즘은 ㉠인간 기자의 개입 없이 로봇이 기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기사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저널리즘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로봇이 인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사 작성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로봇 저널리즘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기자의 주관적 의견의 개입이 최소화된 기사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로봇 저널리즘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사회자: 다음으로는 반대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학생 2: 저는 로봇 저널리즘의 도입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봇 저널리즘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공개된 API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 저작권 침해 및 개인의 권리 침해 등의 법적·윤리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로봇 저널리즘은 기존 기사의 형식 구조를 모방한 수준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별 독자의 상황과 관심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사 및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 21051-0225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회사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몰랐다.
- ② ㉡: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
- ③ ㉢: 그는 한 차례 숨을 모으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 ④ ㉣: 나는 과일이 담긴 접시를 책상에 올려 두었다.
- ⑤ ㉤: 주인은 우리에게 아주 반가운 기색을 나타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토끼는 수없이 지껄이며 만수산을 향하여 가 버린다. 별주부가 오랫동안 슬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용왕에게 말하고는 거적을 깔고 엎디어 별을 기다렸다. 이에 용왕이 한숨을 쉬며 길게 탄식하여 말한다.

“나의 잘못이로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뜰아래 한 사람이 홀연히 나와 말하기를, “신에게 십만 병력을 주시오면 만수산을 뒤져 토끼를 사로잡아 임금님께 바치겠나이다.”

모두 보니 철관에 긴 지느러미의 적혼공이었다. 또 한 사람이 반열에 나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만수산은 세상에서 이름난 곳으로 산천이 험하고 초목이 무성하며 날쌔 장수와 군졸들이 용궁보다 열 배나 많아 쉽게 칠 수 없습니다. 또 만수산의 임금은 본디 신령이라 하는 바, 어찌 용궁에 죄 없는 이를 죽이겠습니까? 원컨대 대왕께서 토끼를 보내 달라는 뜻으로 옥황상제님께 표를 올리는 것이 곧 상책일 것입니다.”

〈중략〉

옥황이 다 보고 나서 여러 신선들과 의논할 때 태을 선인이 나와 말한다.

“동해 용왕 광연은 다스림이 사해 중 제일인 바 불행히 병이 들어 반드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정상이 가련합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토끼를 잡아 보내어 쇠잔한 목숨을 구원하소서.”

또 일광노 선인이 나와 말한다.

[A] “안 됩니다. 넓은 하늘 아래 임금의 땅 아닌 곳이 없고 온 천하에 임금님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만수산과 용궁에 각각 그 임금에 그 나라 그 백성이니 어찌 순종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대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제 폐하께서 광연의 병 때문에 죄 없는 토끼를 죽인다면 공정하지 못한 일이오니 마땅히 둘을 모두 불러 사리를 밝혀 처결함이 지극히 옳을 줄로 압니다.”

옥황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일광노로 하여금 용왕을 불러오게 하고 뇌공으로 하여금 토끼를 데려오게 하니, 두 사람이 명령을 받아 떠났다.

각설 토끼는 만수산에 들어가 바위 구멍에 숨어 사니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에 무심하여 혹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혹은 벽에 기대어 눕기도 하는 중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만수산의 일개 토끼로서 간사한 놈의 꼬임으로 거의 죽을 뻔하였지. 그러나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의 임금을 유혹하여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소

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라도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 이후에 다시는 동해가를 밟지도 말고 맹세코 용궁 사람들과 말도 말고 돌베개에 팔이나 괴고 살아갈 뿐야.’

이때 홀연히 한 떼의 검은 구름이 남쪽으로부터 오더니 조금 있다가 광풍이 일어나 소나기가 쏟아진다. 또 우렛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더니 조용하고 킁킁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토끼가 크게 놀라,

‘이는 필시 용왕의 조화야.’

하고, 막 피하여 숨으려 할 제 뇌공이 바위 구멍으로 쳐들어오더니 토끼를 잡아가는데 날아가듯 빨라 잠깐 사이에 남천문 밖에 이르렀다. 토끼가 혼이 나가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어졌다가 다시 깨어나 머리를 들고 보니 천상의 백옥경이었다. 토끼가 영문을 몰라 섬돌 아래에 기고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 들어와,

“동해 용왕 광연이 명을 받아 문밖에 왔습니다.”

한다. 토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반드시 용왕이 상제에게 고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지난번에는 궤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머리를 구부리고 턱을 고인 채 말없이 정신 나간 듯 있더니 조금 있다가 전상에서 한 선관이 부른다.

“상제의 명이니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은 전하에 꿇어앉고 토끼를 바라보면서 몹시 한스러워했다. 한 선관이 지필묵을 두 사람 앞에 놓더니, “상제의 명이니 각자 느낀 바를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한다. 용왕이 붓을 잡고 진술을 하는데 그 대강은 이러했다.

“엎드려 생각건대 소신은 모든 관리들의 장으로서 직책이 사해의 우두머리가 되어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는 변화를 부리고 하늘에 오르내려 비를 내립니다. 삼가 나라의 신을 받들어 아래로 수많은 백성을 훈육하고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위로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왔습니다. 하온데 한 병이 깊이 들어 몸의 위태로움이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고 백 가지 약이 효험이 없으니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삼신산이 아득히 머니 선약을 어디에서 구하며 편작이 이미 죽고 양의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디다만 마침내 그 간교한 꾀에 빠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에 놓쳐 버렸으니 다만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와 뵈오니 굶은 자가 밥을 얻은 듯하고 온갖 병이 다 나아 고목에 꽃이 핀 듯합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제왕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 인자함을 본받아 소신의 병으로 죽게 된 목숨을 구해 주소서. 엎드려 임금님께 비오니 가엾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토끼가 또한 진술하기를,

“엎드려 생각건대 소신은 만수산에서 나고 만수산에서 자라오로지 성명을 산중에서 다하였을 뿐 세상에 출세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 먹다 죽은 백이의 높은 절개를 본받고 동고에서 시를 읊은 도잠의 기풍을 따랐습니다. 아침에 구름 낀 산에 올라 고라니 사슴들과 짝하여 놀고 밤에는 월궁에서 상아와 함께 약 방아를 짚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결박하여 놓이니 절인 생선이 줄에 껴인 듯하고 전상에서 호령하니 뜨거운 불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에 어찌 대소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살려 몸을 보전함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더불어 죄 없이 죽게 됨은 숙여서라도 살아남과 같지 않으니 오늘 뜻밖에 용왕의 비위를 거슬렀으니 어찌 감히 삶을 구하겠으며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밟아 스스로 화를 받을 것을 알겠습니까. 말을 이에 마치고자 하오니 엎드려 비옵건대 살피주소서.”

옥황이 다 읽고 나서 여러 신선들과 의논하니 일광노가 나와 말한다.

[B] “두 사람이 진술한 바로 그 옳고 그름이 불을 보듯 환하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인다면 그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을 하소서.”

옥황이 그 말이 옳다 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대체로 천지는 만물이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고 세월은 백대에 걸쳐 지나는 손님과 같다. 낡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 일이요, 사물의 항상 되는 일인즉 진실로 이에 초연하여 혼자 존재함을 듣지 못했고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된다 함을 듣지 못했노라. 또 혹 병이 들어 일찍 죽는 자나 혹 상처를 입어 죽는 자는 모두 다 명이니 어찌 원혼이겠는가? 동해 용왕 광연은 병이 들었으나 도리어 살고 만수산 토끼는 죄가 없으나 죽는다면 이는 마땅히 살 자가 죽는 것이다. 광연이 비록 살아날 약이 있다 하나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광연은 용궁으로 보내고 토끼는 세상으로 놓아주어 그 천명을 즐기게 함이 하늘의 뜻에 순응함이라.”

이에 다시 뇌공을 시켜 토끼를 만수산에 압송하니 토끼가 백배 사례하며 가 버렸다.

- 작자 미상, 「토공전」

31

▶ 21051-0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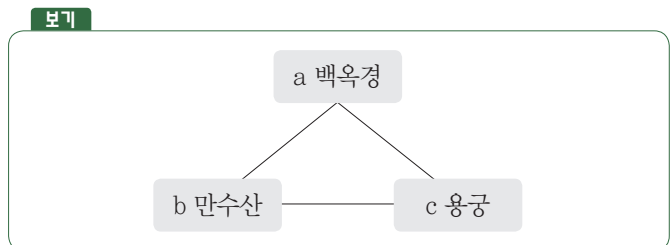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왕은 토끼가 용궁에서 도망친 것에 대해 별주부를 탓하지 않고 있다.
- ② 토끼는 자신의 기지로 용궁을 탈출하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③ 옥황은 토끼가 용왕을 속인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여 자초지종을 듣고자 토끼를 불러올린다.
- ④ 적혼공은 용궁의 군사를 데리고 만수산을 찾아가 도망친 토끼를 잡아 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⑤ 태을 선인과 일광노 선인은 토끼를 잡아 용왕에게 보내는 것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표출한다.

32

▶ 21051-0227

윗글에 제시된 공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옥황에 기대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약을 얻고자 하는 용왕의 욕망이 좌절되는 공간이다.
- ② b와 c는 각기 서로 다른 이에 의해 다스려지는 공간으로 모두 a에 있는 옥황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 ③ a는 b의 토끼와 c의 용왕이 옥황에게 각각의 입장을 밝히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구하는 공간이다.
- ④ b와 c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간에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 ⑤ c에서 용왕과 신하들에 의해 꾸며진 계책으로 인해 토끼는 a에서 c로 이동한다.

33

▶ 21051-0228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토공전」은 구전되던 구토 설화에 송사 설화를 결합시켜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별주부의 충성이나 유교적 가치와 같은 문제는 제쳐 두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한다. 이 작품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권력자가 자신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신분의 귀천, 권력의 유무 등 모든 차별적 요소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다는 주제 의식을 표출한다. 또한 올바른 지배 계층에 대한 회구와 그런 세상에 대한 갈망 역시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서민 의식의 성장, 근대적 인간관의 성립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 ① 용왕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끼를 놓아주라는 판결을 내린 옥황은 올바른 지배 계층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인물이다.
- ②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에 대소가 있을 수 있겠냐는 토끼의 항변은 서민 의식의 성장을 보여 주는군.
- ③ 토끼의 생명을 앗으려 했던 용왕이 옥황에게 토끼를 잡아 달라는 표를 올리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용왕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고한 토끼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동해 용왕이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정상이 가련하다는 태을 선인의 말은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주제 의식을 전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

34

▶ 21051-0229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일광노 선인이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일광노 선인이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방식으로 옥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③ [A]에서는 토끼와 용왕의 입장이 균형적으로 제시된 반면, [B]에서는 용왕을 두둔하는 입장이 제시된다.
- ④ [A]에서 죄 없는 토끼를 죽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 말에 담긴 일광노 선인의 생각은 [B]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 ⑤ [A]에서는 현재 상황의 시급함을 들며, [B]에서는 미래에 있을 불행한 상황을 언급하며 일광노 선인이 옥황을 설득하고 있다.

35

▶ 21052-0230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

국어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가 올 때, 앞말의 끝소리를 그대로 뒷말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옷’ 뒤에 조사 ‘이’가 결합하면 ‘옷’의 ‘ㅅ’을 연음하여 [오시]로 발음한다. 그러나 연음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다 적용된 후에 연음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보기 2

- ㉠ 헛웃음[허두슴]
- ㉡ 값없다[가법따]
- ㉢ 밭히다[밭피다]
- ㉣ 꽃밭이[꼇빠치]
- ㉤ 해말게[해말께]

- ① ㉠: ‘웃음’이 실질 형태소이므로 앞말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연음이 일어났군.
- ② ㉡: ‘없다’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앞말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연음이 일어났군.
- ③ ㉢: ‘-히-’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앞말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ㅃ’이 탈락하고 연음이 일어났군.
- ④ ㉣: ‘이’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앞말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연음이 일어났군.
- ⑤ ㉤: ‘-게’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앞말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고 연음이 일어났군.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사어는 문장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다른 부사나 관형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 ㉠ 친구가 수업 바로 전에 왔다.
- ㉡ 그 지역의 날씨는 심하게 덥다.
- ㉢ 그가 아주 새 신발을 신고 왔다.
- ㉣ 현수는 일을 매우 빨리 처리한다.
- ㉤ 과연 그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까?

- ① ㉠: '바로'는 동사 '왔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② ㉡: '심하게'는 형용사 '덥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③ ㉢: '아주'는 관형사 '새'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④ ㉣: '매우'는 부사 '빨리'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⑤ ㉤: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담화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문법 요소들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우리말에서는 담화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상의 높고 낮음을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말 높임 표현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높임법으로 높임의 대상이 되는 문장의 주체는 주로 조사 '께서'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로 나타난다. 주체를 높이는 방식으로는 용언 어간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결합하거나 '주무시다, 잡수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이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로 주로 실현되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높임법이다. 객체 높임은 '드리다, 모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와 조사 '께'를 통해 주로 실현된다.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과 달리 상대 높임은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높임법인데, 화자가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말끝이 달라지는 높임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상대 높임은 크게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는 격식체와 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쓰는 비격식체로 구분된다. 격식체의 상대 높임에는 상대를 아주 높이는 '하십시오체'부터 예사로 높이는 '하오체', 예사로 낮추는 '하게체' 그리고 상대를 아주 낮추는 '해라체'가 있다. 또한 비격식체에는 상대를 높이는 '해요체'와 상대를 낮추는 '해체'가 있다.

우리말 높임 표현이 상하 관계에 따라 단순하게 실현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나이', '친밀도', '상황'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실현한다.

37

▶ 21052-0232

㉠, ㉡가 모두 실현된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장님께서서는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 ② 동생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 ③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셨어.
- ④ 누나는 작은아버지께 궁금한 것을 여쭙었습니다.
- 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38

▶ 21052-0233

㉠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오래 같이 산 삼촌에게) 삼촌, 이제 저녁 먹을까?
- ㉡ (교장이 동료 교사에게) 선생님, 따님은 잘 지내시지요?
- ㉢ (학급 회의에서) 회장은 제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할머니가 길에서 처음 만나는 학생에게) 학생, 이곳은 어떻게 가지요?
- ㉤ (유치원 선생님이 수업 중 아이들에게) 여러분, 오늘은 보자기 놀이를 할 거예요.

- ① ㉠: 청자와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 화자가 청자의 딸과 자신의 나이를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 동일한 화자와 청자라도 학급 회의가 아닌 사적인 상황에 서라면 ‘하십시오체’가 아닌 ‘해체’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 화자가 청자의 나이보다는 자신과 청자와의 친밀도를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 수업이라는 발화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9

▶ 21052-0234

<보기>의 ㉠~㉣에 들어갈 단어의 형태로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말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15세기에는 이러한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용언 ‘먹-’의 활용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어	-음/-움	-으니/-으니
먹-	㉠	㉡	㉢

	㉠	㉡	㉢
①	머가	머곰	머그니
②	머거	머굽	머ㄴ니
③	머가	머굽	머그니
④	머거	머곰	머ㄴ니
⑤	머거	머굽	머그니

[40~42] (가)는 청소년의 매체 자료 수용에 대한 보고서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발표 자료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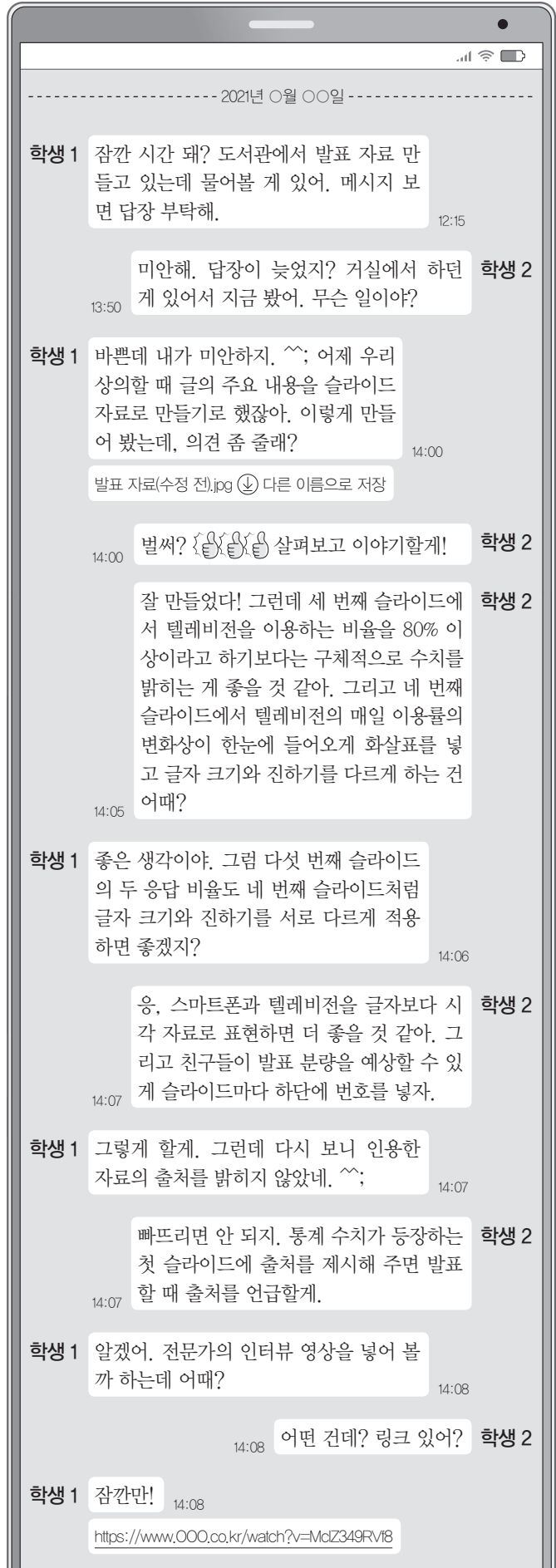
(가) 한국 ○○ 재단은 3년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행태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서도 두드러졌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일주일간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97.2%에 이르렀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률은 텔레비전 시청률을 앞섰다. '지난 일주일간 PC 기반 인터넷 이용률'은 70% 이하로, 종이 신문과 시사 잡지의 이용률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A] 한 주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한 비율은 80% 이상으로, 일상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매일 이용률을 살펴보면 19.6%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31.1%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위상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체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중요한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8%였던 반면에 텔레비전을 일상에서 중요한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5%였다.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뉴스 이용 시간이 증가한 한편,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접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언론사별 인터넷 뉴스 사이트, 메신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포털 순으로 높아졌다. 종이 신문과 시사 잡지를 통해 접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뉴스를 접하는 경로를 통틀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뉴스는 텔레비전을 통해 접하는 뉴스였다.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꼼꼼히 따져보고 분별하며 읽는 청소년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선별적 읽기, 비판적 읽기, 균형적 읽기와 같은 뉴스 이용 행태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약 세 명 중 한 명 정도가 도움이 되는 필요한 뉴스를 선택해서 본 후에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본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네 명 중 한 명 정도가 언론사를 확인해 본다고 했고,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가 다른 입장의 언론사의 뉴스도 본다고 응답했다.

(나)



텔레비전의 위상이 저하되었다는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인터뷰니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

14:13 **학생 2**

학생 1 알았어. 그럼 발표 중에 재생할 수 있게 슬라이드에 링크 주소를 적어 둘게.

14:14

14:14 좋아. ^^ 발표 자료 다 만들고 언제 만날까?

학생 2

학생 1 내일까지 만들 수는 있는데 만날 시간을 잡기 서로 어려우니까 이 대화방에 파일 남겨 놓을게!

14:15

14:15 파이팅!

학생 2

----- 2021년 ○월 △△일 -----

학생 1 수정한 발표 자료야! 이상 있으면 연락해 줘~

10:05

① 발표 자료(수정 후).jpg ② 다른 이름으로 저장

11:30 자료 확인했어! 고마워. 이 자료로 발표 연습할게!

학생 2

40

▶ 21052-0235

(가)를 읽은 학생이 청소년의 매체 자료 수용에 대해 떠올린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종이 신문을 통해 접하는 뉴스와 메시지를 통해 접하는 뉴스 중 신뢰도가 더 낮은 뉴스는 무엇일까?
- ② 누리 소통망[SNS] 뉴스에 대한 신뢰도에 비해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일까?
- ③ 자신이 선택하여 본 뉴스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본다는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을까?
- ④ 뉴스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서도 뉴스를 따져 보고 분별하며 읽는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 ⑤ 뉴스에서 다루는 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며 읽는 청소년의 비율이 하락한 원인은 무엇일까?

41

▶ 21052-0236

휴대 전화 메시지의 특성 중, (나)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에게 자료를 직접 전송하거나 대화 공간 외부에 존재하는 자료를 상대와 공유할 수 있다.
- ②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적 표현 대신 그림말(이모티콘)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양상과 시간적 간극을 두고 주고받는 대화의 양상이 모두 구현될 수 있다.
- ④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에 있더라도 상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시간이 흐른 뒤라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대화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대와 자신의 기억이 서로 다를 경우 지난 대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보기>는 (나)에 제시된 ㉠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p>전통 매체의 강자 TV TV는 한물갔다? 요즘 10대들도 아직까지 TV는 봅니다.</p>	<p>그러나 매일 이용률은</p> <p>31.1% (2016년)</p>
<p>TV 이용률</p> <p>81.8%</p>	<p>19.6% (2019년)</p> <p>*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한국 ○○ 재단)</p>
<p>일상에서 중요한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은</p> <p>85.8% > 34.5%</p>	<p>일상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위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p> <p>https://www.ooo.co.kr/watch?v=Mc1Z349Rv18 (미디어 전문가 인터뷰 영상)</p>
3/15	4/15
5/15	6/15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3~45] 다음은 학생이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블로그 76개의 글 목록 열기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자연스럽게 TV와 스마트폰을 통해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보게 되는데, 시청하는 중간중간, PPL이라고도 불리는 간접 광고를 접하게 된다.

간접 광고의 개념

PPL Product Placement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간접 광고는 부자연스럽게 노출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시하여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광고 노출이 자연스러워지고 제품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면서 간접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간접 광고 산업의 현황

간접 광고의 산업 규모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270억 원

14.6% 증가

2018년 간접 광고 매체별 집행비

- 지상파 TV 45.1%
- 케이블 TV 39.2%
- 인터넷 11.1%
- 기타 4.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 광고 산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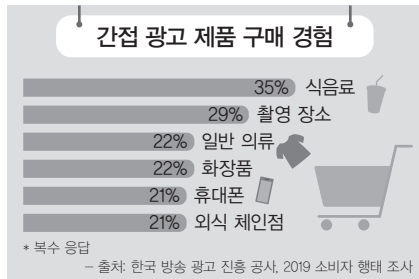
간접 광고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간접 광고의 산업 규모는 해마다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접 광고는 주로 TV 방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광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 일상을 다루는 TV 드라마나 방송 프로그램에 주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간접 광고 효과에 대한 인식

- 57% 제품/브랜드 인지
- 43% 제품/브랜드 이미지 개선
- 39% 제품/브랜드 관심 있게 시청
- 35% TV 프로그램 등장 장소 방문 희망

* 복수 응답
- 출처: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2019 소비자 행태 조사

그렇다면 간접 광고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광고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간접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간접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구매 경험은 식음료, 촬영 장소, 일반 의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음료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격이 낮아 지출의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구매 경험의 횟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㉞분석된다.

기업이 콘텐츠의 흐름에 맞게 간접 광고를 ㉞구성한다면 시청자에게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광고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매체에 효과적인 광고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43

▶ 21052-0238

블로그에 제시된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수치가 제시된 슬라이드마다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겠다.
- ② 간접 광고를 모르는 블로그 방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슬라이드에 간접 광고의 개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겠다.
- ③ 블로그 방문자가 슬라이드의 정보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슬라이드의 정보와 관련된 시각 이미지를 활용해야겠다.
- ④ 블로그에서 다룬 주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조사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을 슬라이드 상단마다 배치해야겠다.
- ⑤ 슬라이드의 정보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소비자를 설문한 내용의 슬라이드에는 그래프 항목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문구를 삽입해야겠다.

44

▶ 21052-02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언어와 요소를 선택하는 행위에는 생산자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매체 자료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갖추어야 한다.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하지, 생산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등을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① 간접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② 간접 광고의 산업 규모를 전망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간접 광고의 성장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간접 광고가 시청자에게 순기능을 한다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매체 수용자의 비판적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품의 구매 경험 순위를 분석한 내용을 통해 간접 광고의 광고 전략에 대해 비판하려는 매체 생산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 ⑤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간접 광고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체 자료에는 매체 생산자의 주관적 해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 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의 품사를 바꿀 수 없다. 가령, 파생어 ‘먹이’의 어근 ‘먹-’은 동사 ‘먹다’의 어간이지만 접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 ‘먹이’는 명사이다. 반면 ‘예쁜’은 형용사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단어로 ‘예쁘다’나 ‘예쁜’ 모두 형용사이다.

- ① ㉠: ‘자연스럽게’는 명사 ‘자연’에 접사 ‘-스럽다’가 결합된 형용사 ‘자연스럽다’의 어간 ‘자연스럽-’에 어미 ‘-게’가 결합된 형용사이다.
- ② ㉡: ‘인식되기’는 명사 ‘인식’에 접사 ‘-되다’가 결합된 동사 ‘인식되다’의 어간 ‘인식되-’에 어미 ‘-기’가 결합된 동사이다.
- ③ ㉢: ‘정도일까’는 명사 ‘정도’에 접사 ‘-이다’가 결합된 형용사 ‘정도이다’의 어간 ‘정도이-’에 어미 ‘-ㄴ까’가 결합된 형용사이다.
- ④ ㉣: ‘분석된다’는 명사 ‘분석’에 접사 ‘-되다’가 결합된 동사 ‘분석되다’의 어간 ‘분석되-’에 어미 ‘-ㄴ다’가 결합된 동사이다.
- ⑤ ㉤: ‘구성한다면’은 명사 ‘구성’에 접사 ‘-하다’가 결합된 동사 ‘구성하다’의 어간 ‘구성하-’에 어미 ‘-ㄴ다면’이 결합된 동사이다.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5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여성 영웅 소설은 17세기 이후 여성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면서, 공적 영역의 진출이 제한되었던 여성에게 대리 만족을 주는 역할을 했다. 여성 영웅 소설에서 여성은 주로 남장을 통해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데, 남성에 뒤지지 않는 여성의 영웅적 능력은 주로 전쟁 상황에서 발휘된다. 영웅 소설답게 여성이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초월적 능력 대신 뛰어난 지략과 용기를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한다.

여성 영웅 소설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남성에 비해 여성 영웅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고, 여성과 남성의 협력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군담에서의 양성(兩性) 조화를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주인공이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는 남복을 벗고 공적인 영역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복장과 관계없이 공적 지위를 인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때론 여성 영웅이 남성보다 우월하여 남성보다 높은 공적 지위에 오르거나 남성과 우월성을 겨루는 모습을 통해 갈등을 일으키는 작품도 있다. 그러나 천자 등의 주선을 통해 남성 영웅과 혼사를 이루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성공과 사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이루는 모습이 주로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여성 영웅 소설은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성의 복장으로 환복하거나 혼사를 따르는 내용이 보편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 영웅이 남성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우월성을 겨루기보다는 상호 협력하며 공적인 업적을 이루기도 한다는 점에서 양성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나) [앞부분의 줄거리] 최씨 형제와 유씨 자매는 한낱한시에 태어난다. 규수로서의 삶을 강요받던 유씨 자매(자주, 벽주, 명주)는 남장을 하고 가출하여 최씨 형제들(최완, 최진, 최경)과 만나 형제의 의를 맺는다. 이후 이들은 함께 수행을 마치고 조광윤을 섬기면서 북한(北漢)과의 전쟁에 참여하여 적을 속이는 계책을 세운다.

명일 이른 아침에 최완과 명주가 각각 변복하고 원양성 아래 나아가 크게 불러 왈,

“우리가 태수께 고할 말씀이 있노라.”

하니 수성장(守城將) 장임이 친히 문루에 올라 바라본즉 두 사람이 손에 병기 없이 황망한 낯빛으로 성 아래에 이르렀거늘 장임이 이르되,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완대 성에 들고자 하느냐?”

두 사람이 왈,

“우리는 절강에 사는 백성이러니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으며 문을 열어 주소서.”

하거늘 장임이 그 용모와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 즉시 영을 내려 문을 열어 들이니 두 사람이 천연히 들어와 장하에서 울며 고하며 왈,

“우리는 원래 물화(物貨)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하여 살아 가더니, 대원수 조광윤이 물화를 다 앗고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키어 우리 만일 성공치 못하거든 인하여 죽이라 하니, 우리 본래 창검과 궁시를 모르거늘 어찌 이 소임을 당하리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걱정하다가 마지못하여 장군께 항복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 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어여삐 여겨 잔명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장임이 듣기를 마친 후에 의심치 아니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하니 부장 원견이 간하여 왈,

“양진(兩陣)이 상대하며 천만 가지 계교로 진중의 허실을 탐지 하거늘 장군은 어찌 이들을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아니하느냐. 익히 생각하여 타일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명주가 울며 왈,

“우리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더니 이제 이 [A] 령듯 의심하매 가위 진퇴유곡이라.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낫이라도 장군을 의지하리라.”

하고 말을 끝낸 후 허리춤으로부터 단검을 빼어 자결코자 하거늘 장임이 급히 만류하여 왈,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 실정이 이 같은즉 어찌 다시 의심하리오.”

하고 두 사람을 머물게 하여 주육(酒肉)으로 관대하더니 수일이 지난 후 최유 두 사람이 장임더러 왈,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의 심복이라. 일이 천연하면 후환이 되리니 삼 일 후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여차여차 겁칙하면 우리가 협력하여 내응(內應)하리라.”

하고 돌아가려 하더니 장임이 응낙하고 즉시 보내니라.

차설, 두 사람이 본진에 돌아와 ㉠거짓 항복한 소이를 이르고 땅굴을 깊이 판 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일천 군마를 거느려 대진 뒤에 매복하고, 최완은 이천 군을 거느려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 하여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가 삼경 후 북병에게 패한 체하고 북문을 열라 하며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최경은 일천을 거느려 땅굴 좌우에 매복하고, 이날 야심한 후 대전에서 불을 놓으니 화광이 충천한지라. 장임이 불 일어남을 보고 최완 등의 내용이라 하여 부장 한양으로 성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크게 고향하고 짓쳐 들

어가더니,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날날이 땅굴에 빠지며 일성 포향(砲響)에 사면의 북병이 일어나니, 북군이 불의의 변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지며 죽는 자 또한 부지기수라. 장임과 원평이 겨우 도망하여 원양성으로 달아나니라.

이때 최완이 본진에 불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북문에 나아가 큰 소리로 불러 왈,

“우리는 북한의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

하니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쾌히 열거늘, 최완이 급히 군을 몰아 짓쳐 들어가니 한양이 크게 놀라 대적하다가 최완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 최완이 승세하여 서문으로 충돌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맞아 십여 합을 싸울새 장임의 기운이 쇠진하여 달아나거늘 문득 벽주가 큰 소리로 왈,

“장임 적자는 단지 말라.”

하며 활을 한 번 당기어 장임의 어깨를 맞추니 장임이 몸을 번드쳐 말에서 떨어지매 최경이 달려들어 장임을 생포하여 돌아가거늘, 원평이 크게 노하여 말을 놓아 자주로 더불어 교전하여 십여 합에 이르러는 자주와 칼이 번듯하며 원평이 탄 말이 거꾸러지니, 원평이 말에서 내려 하릴없이 항복하는지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전쟁에서 승리한 조광윤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 유씨 자매에게 특별한 작위를 내린다. 이후 우연히 세 자매가 여성임을 최씨 형제들이 알게 되면서 황제에게 알려지고, 황제와 태후는 최씨 형제와 유씨 자매의 혼사를 추진하려 한다.

삼 인이 눈물을 흘려 주(奏) 왈,

“신첩 등이 천지를 속여 음양을 바꾸온 죄가 있사오매 이제를 당하와 어찌 종시 기망하리이꼬.”

하고 전후사연을 날날이 아뢰니 상이 듣기를 마치고 놀라시며 또한 웃어 왈,

“금일 경등의 소회를 들은즉 진실로 기이한 일이다. 짐이 이왕 알음이 있기로 봉작할 때 작명을 다르게 함이요, 오늘 이 거조(擧措)*는 경의 본모습을 만조문무*로 하여금 명백히 알게 한 연후에 대사를 행코자 함이니 경등이 비록 지혜 원대하나 어찌 짐을 속이리오.”

하시고 근시(近侍)*로 하여금 태후께 고하니 태후가 즉시 명하여 부르시니, 삼 인이 금포옥대*로 궁녀를 따라 공춘전에 이르러 사배하거늘, 태후와 황후가 용안을 들어 보신즉 삼 인의 아름다운 용모와 민첩한 기질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아름다운지라. 황후가 흔연히 자리를 주시고 칭찬하여 왈,

“경이 규중약녀로 만군 중에 횡행하여 공훈이 매우 크매 그웁이 아름다이 여기노라.”

하시니 삼 인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사은하더라. 태후 왈,

“경의 부모가 멀리 있고 인륜을 주장할 이 없으매 군신은 부자일체라. 상과 짐이 경의 대사를 정할지니 먼저 의복을 개착하라.”

하시고 궁녀로 하여금 채복을 가져와 입기를 이르시니 삼 인이 능히 마지못하여 조복을 벗고 여복을 개착할새, 몹시 놀라 정신이 아찔함을 이기지 못하여 추파의 물결이 동하는지라.

— 작자 미상, 『옥주호연(玉珠好緣)』

*거조: 말이나 행동 따위를 하는 태도.

*만조문무: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근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

*금포옥대: 비단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장식한 띠.

01

▶ 21051-024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실을 밝히며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
- ② 보답 의지를 내세워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장소를 밝히며 상대의 신뢰를 구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억울함을 위장하여 상대를 속이려 하고 있다.
- ⑤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상대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02

▶ 21051-0242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임은 자주와의 결투 중 자주의 칼에 말이 거꾸러져 생포당했다.
- ② 한양은 최완의 외침에 진위를 따지지 않고 성문을 개방했다가 죽음을 맞았다.
- ③ 황후는 유씨 자매가 규중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공을 세운 것을 칭찬했다.
- ④ 상은 유씨 자매가 남성이 아닌 여성임을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에게 알리고자 했다.
- ⑤ 태후는 ‘군신은 부자일체’임을 내세워 유씨 자매의 부모 대신 혼인을 주관하고자 했다.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을 위해 최완과 명주는 평범한 백성처럼 보이도록 행색을 꾸몄다.
- ② ㉔의 성공을 위해 최완과 명주는 조광윤의 악행을 장임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 ③ ㉔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장임과 달리 원견은 그 진위를 살펴야 한다고 간언했다.
- ④ ㉔를 통해 최완과 명주가 한 약조를 믿은 장임은 불이 일어남을 보고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 ⑤ ㉔를 믿고 진군한 장임으로 인해 북군의 군사들은 함정에 빠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 자매가 최씨 형제들과 협력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에서 ‘양성 조화’를 이룬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전장에서 최씨 형제의 활약에 뒤지지 않는 세 자매의 활약을 통해 ‘여성의 영웅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세 자매가 남북을 한 것을 알고도 특별히 작위를 내린 상의 태도를 통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위를 인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세 자매가 태후를 알현하기 위해 ‘금포옥대’를 한 ‘조복’을 입는 모습을 통해 ‘전통적인 여성의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상과 태후가 세 자매의 공적을 인정하고 혼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의 성공과 사적 영역에서의 성취’에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가)를 토대로 <보기>의 ㉑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나)처럼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작품 중에는 「홍계월전」이 있습니다. 여성 영웅인 평국이 뛰어난 능력으로 남성들을 제치고 장원 급제한 후 전장에서 남편인 보국과 함께 외적의 침입을 막아 내는 대원수로 활약을 하는데요, 이러한 활약 장면에서 「홍계월전」과 (나)의 차이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㉑아래의 글을 읽고 (나)와 비교를 해 보세요.

평국이 광 도사에게 배운 술법으로 경각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검은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변치 못할러라. 보국이 황겁하여 어찌할 줄 모르더니, 평국이 고함을 지르면서 일시에 달려들어 보국의 창을 앗아 들고 보국의 산 멱통을 잡아 공중에 들고 말을 채쳐 천자 계신 곳으로 갈새, 이때 보국이 호흡을 통치 못하고 소리를 크게 하여 원수를 불러 왈,

“평국은 어디에 가서 보국이 죽는 줄 모르고,”

하며 우는 소리 처량하매 진중이 요란하고 천지가 뒤눕는 듯하니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왈,

“네 어찌 평국에게 달려오며 평국을 또 무슨 일로 부르는가.”

하며 박장대소하니 보국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 보니 과연 평국일시 분명한지라. 이때 평국을 보니 슬픈 마음은 간데없고 도리어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마음을 견잡지 못하여 눈물을 거두더라. 이적에 천자 보시고 크게 웃으시고 보국의 손을 잡으시고 왈,

“중군*은 금일 원수에게 옥복을 추호라도 패넘치 말라. 이제 원수가 자의로 함이 아니라 짐이 경등의 재주를 보려 하고 시킨 바라.” — 작자 미상, 「홍계월전(洪桂月傳)」

*중군: 대원수 휘하의 전군(全軍) 한가운데에 자리 잡는 중심 부대 혹은 부대의 장.

- ① 평국이 남편인 보국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나)와 달리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군.
- ② 용감하게 상대와 무력을 다투며 승리하는 모습에서 (나)의 세 자매와 같이 평국이 뛰어난 여성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③ 천자가 부끄러워하는 보국을 위로하는 장면에서 (나)와 달리 여성이 남성을 희롱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는군.
- ④ 대결 장면에서 술법을 발휘하는 평국의 모습에서 (나)의 세 자매와 달리 초월적 능력을 가진 영웅의 모습이 나타나는군.
- ⑤ 천자가 평국이 혼인을 한 후에도 대원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의 상과 같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이룬 업적을 인정하고 있군.

[0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중문화는 근대 자본주의와 역사를 ㉠함께한다. 도시화·산업화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 노동자들은 이전의 농민들이나 귀족, 부르주아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갔다. 사회학자 블루머는 자본주의 사회 속 도시 노동자 집단을 ‘대중’으로 처음 개념화했다. 그에 따르면 대중은 각기 다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이다. 또한 대중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익명화된 개인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대중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에 유대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은 조직력을 갖지 못한다. 대중 사회의 구성원은 사람 간의 고리가 단절되고 비조직화되어 있는 원자화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대중은 처음 규정되었을 때부터 파편적 존재로 묘사되었고, 그들의 문화인 대중문화에 대한 초기 인식 역시 비판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9세기 말 유럽의 문예 비평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리비스주의는 대중문화를 야만과 무질서로 해석하고 문화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문예 비평가 아널드는 문화를 인간 지성의 정수로 보면서, 대중문화는 중독성 강한 약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고급문화에 한정되었다.

리비스주의와 이념적으로 정반대 쪽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가들 역시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심각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왜 서구 사회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문화 산업이라고 이름 붙인 대중문화에서 찾았다. 비판 이론가들은 대중문화의 대량 상품성을 지적했다. 대중문화는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해 생산되고, 시장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 의해 소비된다. 거대 자본에 의해 독점화되고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표준화·규격화되며, 외양은 다르지만 속은 사실상 똑같은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쏟아진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대중문화의 외형상 차이만 규격성을 위장하기 위한 ‘유사 개별화’에 다름 아니다.

또한 비판 이론가들은 대중문화에는 이데올로기 조작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제는 대중문화가 노동 계급에게 허위의 충족감을 주고 일차원적인 사고를 확산시키며 결국은 체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대중문화가 노동 계급으로 하여금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한 부정적 안목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이들을 끊임없이 기존 질서에 통합시키는 사탕발림의 긍정적 의식 계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나 인종주의, 가부장주의, 지역주의 등도 대중문화에서 쉽사리 발견되는 지배 이데올로기 유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군의 학자들은 대중문화에는 대량 상품성, 이데올로기 조작성뿐 아니라 역사적 역동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대

중문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중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란 무엇인가?’라는 관념적 질문이 아니라 ‘특정한 대중문화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질문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대중문화는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생산되는 삶의 형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주목한 대중문화의 또 다른 특성은 정치성이다. 베넷은 대중문화를 헤게모니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람시가 도입한 개념인 헤게모니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와 구별되는, 자발적 지지 또는 합의에 기반을 둔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의미한다. 그람시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배적 헤게모니의 영향하에 놓이면 지배 계급의 규범을 지지하는 개인적 신념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베넷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하여, 대중문화는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지배 계급과 거기에 반하는 민중의 적대적 움직임들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보았다. 대중문화를 지배 계급의 지배 의지와 민중의 저항 의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정치적 투쟁의 공간으로 본 것이다.

대중문화의 정치성을 인정하는 관점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강요한 문화가 아니며, 또한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난 민중 문화도 아니다. 당대의 지배적 요소와 과거의 잔여적 요소,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갈등을 빚는 상태일 뿐이다. 이처럼 역동적, 정치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대중문화는 권력의 것도 혹은 민중의 것도 아닌, 지속적인 재생성 상태의 현실이 된다.

06

▶ 21051-024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여러 견해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의 절충이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중문화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분류하고 있다.
- ⑤ 시대에 따라 변모되는 사회 양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등장할 대중의 행위 양식을 예상하고 있다.

07

▶ 21051-024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블루머는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한 도시 노동자 집단을 대중으로 규정하고 대중의 익명성과 이질성에 주목했다.
- ② 블루머는 대중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유대 관계를 지니지 못한 채 원자화된 개인으로 존재하므로 대중은 조직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③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가들은 대중문화로 인해 민중이 현실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④ 베넷은 대중문화가 지배 계급과 민중 집단의 헤게모니 투쟁의 영역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대중문화의 정치성에 주목했다.
- ⑤ 베넷은 대중문화가 봉건 시대 소수 엘리트 집단의 고급문화에 대항하면서 등장했다고 보았다.

08

▶ 21051-0248

<보기>를 바탕으로 **리비스주의**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윌리엄스는 문화를 ‘느낌 구조’를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으로 파악한다. 느낌 구조 개념은 그가 문화를 분석하는 전제이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특별한 삶의 감각을 지니고 있다. 즉 느낌 구조란 특정한 시대, 계급, 집단 내 형성된 생각과 감정의 공유 집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어떤 문화를 다른 것들과 구분하여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공유하는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독특한 느낌 구조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고유한 느낌 구조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를 다른 것들과 구분 짓고자 노력하며, 그 나름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간다. 따라서 어떤 문화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다른 문화와 차이 나는 그들만의 특색 있는 미적 감각과 삶의 방식이 형성되어 있음의 의미이며, 그 나름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 ① 대중문화가 대중 간에 공유되는 독특한 느낌 구조를 갖는다면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는 동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대중문화를 공유하는 대중이 다른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구분 지으려 하지 않는다면 대중문화를 고급문화로 규정지을 수 있다.
- ③ 대중문화가 다른 문화와 구분되는 고유의 느낌 구조를 갖춘 삶의 방식이라면 대중문화 역시 정당성 있는 문화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 ④ 대중문화의 익명성으로 인해 대중문화의 느낌 구조가 특징적인 색깔을 지닐 수 없다면 대중문화를 고급문화의 하위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
- ⑤ 대중문화를 통해 대중이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집단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한다면 대중이 소수 엘리트 집단에 대항하는 조직력을 가질 수 있다.

09

▶ 21051-024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현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최근 다수의 미디어 복합 기업이 축구나 야구 등의 주요 스포츠 경기처럼 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 행사의 중계방송을 독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미디어 복합 기업의 사업 영역 다각화는 특히 21세기 들어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까지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미디어 복합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일상적 미디어 경험까지 지배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미디어 내용의 저급화와 이데올로기 조작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① 아널드의 관점에서 보면, 대중문화의 중독성으로 인해 미디어 복합 기업에 대한 대중의 의존이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군.
- ②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 복합 기업이 지배하는 일상적인 문화 영역에서 획일적인 규격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군.
- ③ 마르쿠제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 복합 기업의 사업 영역이 다각화될수록 체제의 기존 질서에 대한 순응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군.
- ④ 베넷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 복합 기업에 의한 이데올로기 조작이 심해질수록 대중문화에 나타나는 정치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군.
- ⑤ 그람시의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 복합 기업들의 일상 영역에 대한 지배가 심화될수록 그들이 제시한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군.

10

▶ 21051-0250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대중문화가 다툼과 타협이 나타나는 정치의 장이라고 주장한다.
- ② ㉠과 ㉡은 모두 당대의 대중문화 속에는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은 ㉡과 달리 대중문화가 시간에 따라 변모한다고 주장한다.
- ④ ㉡은 ㉠과 달리 대중문화의 대량 상품성과 이데올로기 조작성이 특정 대중문화의 구체적 상태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⑤ ㉠은 대중문화의 대량 상품성을 통한 문화적 획일화를, ㉡은 대중문화의 역사적 역동성을 통한 문화적 진보를 주장한다.

11

▶ 21051-025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반(同伴)한다
- ② ㉡: 무지(無知)하고
- ③ ㉢: 불과(不過)하다고
- ④ ㉣: 동일(同一)했다
- ⑤ ㉤: 양산(量産)된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위에 섰는 솔이 늠연(凜然)^{*}한 줄 반가온더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데업고 대숲이 푸르러세라
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하나니 (제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늠연한: 위엄이 있고 당당한.
- *번폐하고: 마다하고.
- *흔덕흔덕: 흔들흔들.

(나)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솔윙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새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A]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 놓고 오 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 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텡스웜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

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체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 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 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 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겐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야 찾아왔다.

[B]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

만 그날 아침의 ㉠풀 비린내가 원죄 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 있을 따름이다.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12

▶ 21051-0252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바르게 대답한 학생끼리 골라 묶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연시조는 몇 개의 시조가 하나의 제목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체로서의 집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작품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작품들이 내적 통일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내적 통일성에서 벗어난 표현이나 구성을 활용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가)를 내적 통일성과 관련하여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선우: 〈제1수〉~〈제4수〉는 모두 중심 소재가 초장에 제시된다는 점에서 내적 통일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영호: 〈제1수〉~〈제4수〉는 모두 중장에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 중심 소재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적 통일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주영: 〈제3수〉는 다른 수와 달리 중장에서 문장을 종결짓는 어미로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내적 통일성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서연: 〈제4수〉는 다른 수와 달리 중장에서 추운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직접적으로는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적 통일성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 ① 선우, 영호 ② 선우, 주영 ③ 선우, 서연
- ④ 영호, 주영 ⑤ 영호, 서연

13

▶ 21051-0253

㉠와 ㉡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는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의 영속성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에게 삶의 고독함을, ㉡는 글쓴이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 ③ ㉠은 역동성이 넘치는 자연물의 모습을, ㉡는 생명체가 맞이하는 죽음의 비극성을 부각한다.
- ④ ㉠은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부각하고, ㉡는 글쓴이에게 현대 기계 문명에 내포된 폭력성을 환기한다.
- ⑤ ㉠에는 자연물에 동화된 화자의 흥취가, ㉡에는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는 삶을 수용하려는 글쓴이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14

▶ 21051-025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가치관을 표현했다.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유학적 이념이 투영된 관념적 존재이자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가 구현된 존재였다. 현대 문학에서는 자연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이 중에는 생태주의적 시각이 있다. 생태주의는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서로 평등하며, 깊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근대 문명에 종속되어 자연을 파괴했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태도가 생태주의의 핵심을 이룬다.

- ① (가)의 ‘풍상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없다’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지조라는 유학적 덕목을 자연물인 ‘솔’에 투영한 것이로군.
- ② (가)의 ‘꽃이 무한호되’는 우주 만물의 질서가 구현된 존재로서의 꽃의 모습을, ‘온갖 꽃 간데업고’는 우주 만물의 질서가 구현되지 못한 존재로서의 꽃의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③ (나)의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를 발견한 것은 글쓴이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겠군.
- ④ (나)의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에는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깊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글쓴이가 근대 문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얻은 결심이라고 할 수 있겠군.

(나)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이, [B]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난다.
- ② [A]에서는 자동차의 이중적 속성이, [B]에서는 자동차를 대하는 글쓴이의 이중적 태도가 부각된다.
- ③ [A]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이유가, [B]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제시된다.
- ④ [A]에서는 감성적 기계로서의 자동차의 모습이, [B]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이 부각된다.
- ⑤ [A]에서는 자동차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이, [B]에서는 자동차의 편안함을 경계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제공했지만, 자연 파괴와 비인간화라는 현대적 불안과 공포를 ㉠ 초래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각성하는 목소리가 생겨났고, 이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자연과 생명의 근원적인 표현에 관심을 갖게 하여 원시 미술의 단순하고 유기적인 생명감 표현에 눈을 돌리게 했다. 이에 따라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영혼과 정신 등 형이상학적인 기반을 지지하는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기계론적 우주관에 맞서 우주는 생명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 앙리 베르그송의 생명주의 사상을 철학적 배경으로 삼았다. 베르그송은 형태를 생명, 움직임, 유기적인 것으로 비유하면서 자율적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로 ㉡ 인식했다. 이러한 베르그송의 생명주의적 사상은 예술 작품의 자율적인 형태에 관한 철학적 관념을 제공해 주었다.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자연 속 생물체가 생성, 성장, 진화하는 모습을 조형적 언어로 사용했다. 그들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관상의 표면적 형태가 아닌 유기적인 생물체의 성장 과정을 느낄 수 있는 형태를 원했고, 그 형태에 자연의 생명감을 부가하기를 원했다. 이들에게 생명 현상의 가시적인 이미지는 새로운 조형 언어이면서 자연의 창조와 예술 창작 사이의 유사성을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일반적인 의미의 생물체의 형태라는 통념을 무너뜨리고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유발하여 새로운 형상의 생물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의 유기적인 생명감의 표현을 살아 있는 생물체의 형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경향의 미술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가리켜 ‘바이오모픽 아트’라고 한다.

‘바이오모픽’이라는 용어는 비평가인 로런스 알로웨이가, 기하학적 기반에서 자연을 표현하고자 했던 구성주의와 대비하여 자율적인 형태로 자연의 생명감을 표현하려고 한 예술가들의 작품 경향을 ㉢ 지칭한 데서 시작되었다. 바이오모픽 아트는 예술가의 상상력 혹은 무의식적인 것에 의해서 형성된 생물 형태의 형상이 생물체를 나타내거나 생명의 신비, 비밀, 놀라움에 대한 의식을 표현하는 미술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모픽 아트 예술가들은 아메바와 같은 원생생물, 유충과 유사한 근원적인 생물 형태에서부터 동식물의 유기적인 형태를 작품의 조형 요소로 ㉣ 도입하여 무한정한 생명력과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바이오모픽 아트의 생물 형태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에 기초를 둔 불규칙하고 우연한 형태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연의 생물 형태를 표상하기보다는 모호하며 미완결적인 형상을 띠고 있다. 바이오모픽 아트의 예술가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생물체의 근원적인 생명감은 생물이 진화되지 않아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모든 감각의 분화가 일어나기 전의 원생생물에서만 가능한 것들이다. 이에 따라 모호하고 다의적인 이미지

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며 이러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바이오모픽 아트는 추상 미술의 추상성, 상징성과 초현실주의 미술의 우연성, 비합리성을 동시에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바이오모픽 아트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이 색, 점, 선, 면 등의 순수 조형 요소로만 이미지를 표현한 기하학적 추상과 더불어 대표적인 추상 미술의 한 형식으로 손꼽힌다. 바이오모픽 아트는 엄격한 기하학적 추상을 탈피하여 유기적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건축, 공예, 비디오 아트 등의 분야에도 영향을 끼쳐 새로운 예술 분야 개척에도 **㉠** 일조하고 있다.

16

▶ 21051-025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예술 경향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며 그 예술 경향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를 소개하고 있다.
- ② 새로운 예술 경향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논하며 그 예술 경향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예술 경향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그 예술 경향이 반영된 구체적 작품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새로운 예술 경향이 등장하게 된 철학적 배경을 제시하며 그 예술 경향이 나타내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새로운 예술 경향이 인접 분야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며 그 예술 경향의 발전 양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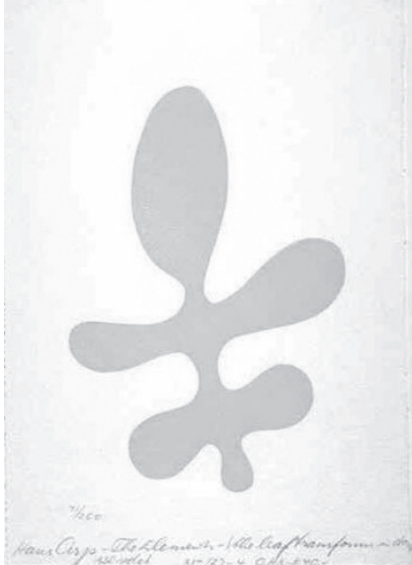
▶ 21051-025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바이오모픽 아트는 생물 형태가 지닌 유기적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하는 데 기여했다.
- ②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원시 미술의 단순하고 유기적인 생명감 표현에 관심을 두었다.
- ③ 바이오모픽 아트는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생물 형태의 창조 가능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 ④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유기적인 생명의 성장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 현상의 가시적인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 ⑤ 생물 형태주의 예술가들은 자연의 생물체가 지닌 근원적 생명감을 드러내기 위해 생물체의 외관상 형태를 조형적 요소로 활용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그림은 바이오모픽 아트 대표 작품으로 프랑스 예술 작가인 장 아르프의 「토르소로 변형된 잎사귀」이다. 아르프는 종이 위에 마치 낙서하듯이 어떤 형태를 그렸다. 처음엔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 없이 손이 가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완성된 형태를 보면 어떤 형상이 떠오른다. 그것은 마치 나뭇잎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토르소란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으로 된 사람의 형상을 일컫는 용어로, ‘토르소로 변형된 잎사귀’라는 주제 자체만으로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 ①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 없이 손이 가는 대로 그린 형상이 생물체의 형태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② 아르프가 종이 위에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린 것은 무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어떤 형태를 그리기 위함이었군.
- ③ 그림의 형태가 나뭇잎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군.
- ④ 색, 점, 선, 면 등의 순수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대상 없이도 기하학적 패턴을 이룸으로써 자연의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⑤ 어떤 형상이 떠오르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자연의 생물 형태를 표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완결적인 형상을 추구하는 바이오모픽 아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군.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자연 현상이나 생물의 성장에 따라 형성된 형태를 유기적 형태라 부른다. 자연의 모든 유기체는 스스로 조절되는 질서 있는 형태와 구조의 패턴을 지닌 고유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각기의 유기체들이 보여 주는 형태들은 무한정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 ① 바이오모픽 아트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불규칙한 형태 속에서 나름의 질서를 찾기 위해 추상 미술의 비합리성을 도입한 것이겠군.
- ② 바이오모픽 아트 작품은 유기체가 지닌 질서 있는 구조와 형태를 의식적으로 파괴하여 영혼과 정신 등의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표현하고 있겠군.
- ③ 바이오모픽 아트에서 모호한 유기적 형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유기적 형태가 주는 무한정한 생명력과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겠군.
- ④ 바이오모픽 아트 예술가들은 아메바와 같은 원생생물이나 유충과 유사한 근원적인 생물 형태를 통해 기계적이고 질서를 갖춘 자연의 생태를 그리려 했겠군.
- ⑤ 바이오모픽 아트 예술가들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살아 있는 생명체의 형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의 유기적 형태를 형상화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여 주려 하겠군.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함.
- ② ㉡: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르하다고 인정함.
- ③ ㉢: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
- ④ ㉣: 기술, 방법, 물자 따위를 끌어 들임.
- ⑤ ㉤: 얼마간의 도움이 됨.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가)** 꼳꼳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앉았다 일어서듯 다리를 구부렸고
 그때마다 뒷몸은 반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 요란하고 기이한 걸음을
 지하철 역사가 적막해지도록 조용하게 걸었다.
 어깨에 매달린 가방도
 함께 소리 죽여 힘차게 흔들렸다.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어 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데
 그 뻑뻑한 기둥 사이를
 그만 홀로 ㉠팔랑팔랑 지나가고 있었다.

- 김기택, 「다리 저는 사람」

(나)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 내어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푸르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 놓고

가이없이 한없이 ㉡떨렁떨렁.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 김혜순,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21

▶ 21051-026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정서 변화를 야기하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 ③ 특정 대상에 대한 관찰이 시상을 떠올리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2

▶ 21051-0262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보기**

이 작품은 사람들이 뻑뻑이 들어찬 지하철 역사 안에서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의 독특한 걸음은 화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주목을 받는데, 화자는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다리를 절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경직된 모습과 대비하고 있다.

- ① ‘춤추는 사람처럼 보’인 모습은 ‘앉았다 일어서듯 다리를 구부렸고 / 그때마다 뒷몸은 반쯤 쓰러졌다 일어났다.’로 구체화되고 있군.
- ② ‘그’의 ‘요란하고 기이한 걸음’은 ‘꼳꼳하게 걷는’ 사람들의 걸음과 대비되고 있군.
- ③ ‘지하철 역사가 적막해지도록’은 ‘그’의 걸음걸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어 주고 있었다.’는 ‘그’에 대해 경계심을 표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위축된 ‘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다리를 절지 않는 사람들을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그’의 걸음과 대비된 다른 사람들의 경직된 모습을 부각하고 있군.

(나)를 읽고 떠오른 의문을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려 <보기>의 답변을 얻었다고 할 때, ㄱ~ㄴ을 바탕으로 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학습 도움 게시판	김혜순의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ㄱ	[질문] ‘눌렀다가’, ‘납작하게’ 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답변] 입체적인 대상이나 풍경의 입체감을 없애고 평면화하는 박수근 화백의 독특한 화법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ㄴ	[질문] ‘여편네’와 ‘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 [답변] 박수근 화백은 한국 전쟁 이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편네’와 ‘아이들’은 이런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ㄷ	[질문] 작품에서 두 번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 [답변] 여기서의 ‘하나님’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ㄹ	[질문] ‘발바닥도 없이’, ‘입술도 없이’, ‘표정도 없이’는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요? ↳ [답변] 대상을 극도로 단순 명료한 형태로 표현한 박수근 화백의 화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발바닥, 입술, 표정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이겠죠.
ㅁ	[질문] ‘서성서성’, ‘슬그머니’는 어떤 모습인가요? ↳ [답변] ‘서성서성’은 ‘한곳에 서 있지 않고 자주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슬그머니’는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며시.’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 ① ㄱ: ‘쭈그린 아낙네 둘이 /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를 통해 화자가 박수근 화백의 평면화 기법을 서민들의 억눌린 삶을 나타내는 화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ㄴ: 화자가 ‘여편네’와 ‘아이들’을 주목한 것은 고된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 극복에 대한 염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③ ㄷ: 조물주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와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서민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ㄹ: ‘표정도 없이’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감정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ㅁ: ‘서성서성’과 ‘슬그머니’는 안정적이지 못하며,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서민들의 위축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환기하는 의태어이다.
- ② ㉡은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다.
- ③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해 화자가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사어이다.
- ④ ㉠은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은 대상의 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⑤ ㉠은 대상의 생명력을, ㉡은 세파에 휘둘리는 대상의 고달픈 삶에 대한 애처로움을 부각하는 음성 상징어이다.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빛과 색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세 아랍에서는 실험적 방법을 통해 빛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색깔에 대해 17세기까지 가장 널리 통용되던 ㉠이론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에는 원래 물체에 존재하는 실제 색깔과 빛에 의해 생기는 겉보기 색깔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 색깔은 물체가 가진 고유한 성질로 빛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색깔이고, 겉보기 색깔은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하며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과와 붉은 색은 빛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지만 무지개 색깔은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겉보기 색은 빛과 어둠의 혼합에 의해 만들어지며 혼합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색깔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17세기의 ㉢데카르트는 물질마다 고유한 속성이 있다는 신비주의적 사고를 ㉣배격하고, 사과의 색깔이나 무지개의 색깔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물질로 채워져 있으며, 빛이 반사나 굴절되면 공간을 조밀하게 채우고 있는 미세 물질의 회전 속도에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미세 물질의 회전을 통해 전달되는 압력을 색으로 인지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직진하던 빛이 반사나 굴절된 이후 미세 물질에는 회전 속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차이를 눈이 색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지개의 적색은 직진하던 태양광이 프리즘이나 물과 같은 다른 매질 속을 지나면서 미세 물질이 가장 빠르게 회전할 때 나타나며, 청색은 미세 물질이 가장 느리게 회전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과를 비롯한 모든 물체가 색깔을 띠는 것은 물체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빛이 반사하며 미세 물질이 회전하는 정도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데카르트 이후에 ㉤뉴턴은 실험적 사실과 실제적 설명을 중시하여 연역적 사고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기보다는 실험의 계획과 ㉥수행을 통해 관찰한 바를 바탕으로 하여 현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실험의 첫 단계에서 뉴턴은 원형의 구멍을 통해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광이 여러 색깔을 나타내도록 만들고 이때 색의 띠가 스크린에 나타나는 형태에 주목했다. 데카르트는 무지개를 관찰할 때 프리즘과 스크린의 사이를 불과 몇 센티미터 밖에 떨어뜨리지 않아서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광의 형태가 원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뉴턴은 프리즘과 스크린의 사이를 6미터가 넘도록 두었고, 프리즘을 통과한 스펙트럼은 원형이 아니라 너비에 비해 길이가 5배가량 긴 길쭉한 모양으로 스크린에 비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모양으로부터 뉴턴은 무지개색 띠를 이루는 각 색깔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광이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서 길쭉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뉴턴은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세모꼴로 된 프리즘을 두 개 준비하여 먼저 첫 번째 프리즘에 태양광을 통과시켜 무지

개색의 띠를 만들었다. 다음에는 판자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적색 이외의 모든 색은 판자에 막혀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색 빛만 구멍을 통해 두 번째 프리즘으로 지나가도록 했다. 적색 빛은 첫 번째 프리즘에서와 똑같은 각도만큼 꺾였으며 여전히 적색을 띠었다. 그는 통과하는 빛을 달리하여 청색 빛으로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했고, 청색 빛이 적색 빛보다 더 많이 꺾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빛이 공기 중에서 프리즘을 통과할 때 색깔에 따라 다른 각도로 꺾일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 실험의 결과를 통해 뉴턴은 태양광은 모든 색깔의 광선을 담고 있으며, 색깔은 태양광의 변형이 아니라 태양광 안에 있는 광선들의 굴절 각도가 달라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무지개는 태양광이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물방울을 통해 분해될 때, 시야각 내에 퍼진 무수한 색깔의 빛이 눈에 포착되는 자연 현상이다. 태양광이 물이나 유리 등 투명한 물체 속에서 나아갈 때는 공기 속을 나아갈 때에 비해 속도가 느려져 진로가 꺾이는 굴절이 일어난다. 감속이 클수록 굴절률이 크고 그 정도는 빛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색은 굴절률이 가장 작고 보라색은 굴절률이 가장 크다.

우리가 관찰하는 무지개는 태양광이 공기 중의 물방울로 입사하면서 굴절되고 물방울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물방울 내로 한 번 반사된 뒤 물방울 밖으로 다시 굴절되어 나오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두 번의 굴절과 한 번의 반사를 거치며 태양광은 굴절률에 따라 여러 색깔로 퍼져 나온다. 태양광이 하나의 물방울을 거치며 분해될 때 무지개색의 띠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관찰자가 그것을 온전한 형태의 무지개로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물방울의 표면이 곡면이기에 평행하게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광일지라도 그 입사각은 태양광이 물방울 표면의 어떤 지점에 입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태양광이 굴절률에 따라 여러 각도로 분산되며 무지개색의 띠를 만들더라도 관찰자는 그중 특정 각도에서 전달되는 한 가지 색의 빛만 볼 수 있다. 눈으로 관찰 가능한 색의 띠 중에서 가장 적게 굴절하는 적색 빛은 태양광이 입사한 데서 약 42°를 이루는 각도에서 관찰자의 눈에 도달하고, 굴절률이 큰 보라빛은 40° 정도의 각도에서 관찰자의 눈에 도달한다. 그 빛은 태양광과 평행한 가상의 선을 밑변으로 한 수직 시야각*에 대해서도 같은 값을 지니게 되어 관찰자는 자신의 42°의 수직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에서 적색 빛을, 40°의 수직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에서 보라색 빛을 관찰할 수 있다. 관찰자가 움직일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물방울로부터의 빛이 눈에 ㉧도달한다. 관찰자가 움직이며 무지개를 본다면 실제로는 움직일 때마다 다른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수직 시야각: 사람이 지면에 똑바로 선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위로 움직이며 바라보는 각도.

25

▶ 21051-026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나)
①	서로 다른 시대의 학자들이 동일한 의미의 학설을 주장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정 자연 현상에 대한 정의를 통해 유사한 다른 자연 현상과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②	유사한 경험을 했던 학자들이 서로 상반되는 학설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순수한 자연 현상과 인위적 조작에 의한 현상을 구분 지어 설명하고 있다.
③	동일한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자들의 설명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 현상이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닌 학자들이 해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정 자연 현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나열하고 있다.
⑤	동일한 의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대답으로서 내놓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자연 현상이 생성되는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6

▶ 21051-0266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장소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지개를 관찰하더라도, 실제로는 모두가 저마다 다른 무지개를 관찰하는 것이다.
- ② 무지개를 이루는 빛들은 태양광이 공기 중의 물방울에 입사하며 굴절, 반사, 굴절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 ③ 데카르트는 인간의 눈이 공간을 채우는 미세 물질의 운동을 통한 압력을 색으로 인지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 ④ 무지개는 태양광이 하나의 물방울을 거치며 형성하는 색의 띠를 그대로 육안으로 관찰한 것이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을 어둠에서도 유지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 지어 설명했다.

27

▶ 21051-0267

(가)에 나타난 뉴턴의 과학적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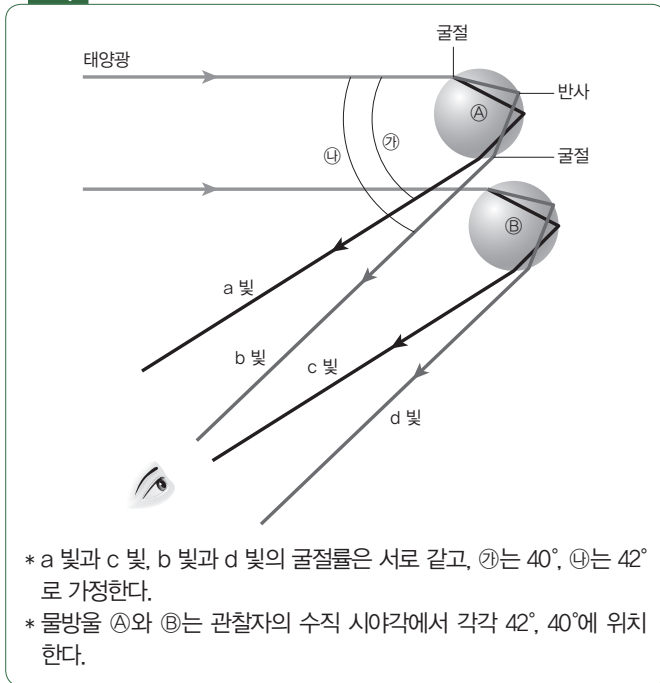
- ① 뉴턴은 태양광이 프리즘을 통과한 후 나타나는 색의 띠가 길쭉한 모양으로 스크린에 비치는 현상에 대해, 당대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실험을 설계했겐.
- ② 뉴턴은 색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두 종류로 색깔을 나누는 이론을 내세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수용할 수 없었겐.
- ③ 뉴턴은 자신이 주목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실험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이 모든 색깔의 광선을 담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겐.
- ④ 뉴턴은 관찰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더라도 일반적 사실에 기반한 사유를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겐.
- ⑤ 뉴턴은 실험을 통해 프리즘을 통과한 후 서로 다른 색을 띠는 광선들은 꺾이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겐.

28

▶ 21051-0268

(나)를 읽고 <보기>의 a~d 빛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① a 빛이 공기 속에서 물방울로 진행할 때 감속되는 정도는 b 빛에 비해 크겠군.
- ② 관찰자는 b 빛과 c 빛 사이의 수직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들을 통해 무지개를 볼 수 있겠군.
- ③ b 빛과 d 빛은 굴절률이 같기에 두 빛은 관찰자의 눈에 동일한 정도로 지각되겠군.
- ④ 물방울을 거치며 빛이 꺾이는 정도는 a 빛이 d 빛보다 더 크겠군.
- ⑤ 같은 물방울에서 나왔더라도 c 빛보다 굴절률이 작은 빛은 관찰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겠군.

29

▶ 21051-0269

㉑~㉕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은 무지개는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기에 겉보기 색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군.
- ② ㉒은 미세 물질의 회전 속도에 차이가 생기면서 여러 색의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보았군.
- ③ ㉓은 프리즘을 통과한 적색 빛이 한 번 더 프리즘을 더 통과해도 그 색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군.
- ④ ㉔은 ㉒과 달리 사과 색깔은 빛이 없을 때에도 존재한다고 보았군.
- ⑤ ㉕은 ㉓과 달리 각각의 물체는 원래부터 저마다의 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겠군.

30

▶ 21051-0270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㉓~㉕과 동음이의어인 것은?

- ① ㉓: 그의 이론은 정당하나 우리는 받아들이 수 없다.
- ② 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③ ㉕: 암행어사를 수행하는 역졸이 관아로 들어갔다.
- ④ ㉓: 과거의 우려를 비로소 현실로 지각하기 시작했다.
- ⑤ ㉕: 환자는 통증에 대한 참을성이 거의 한계에 도달한 듯 보였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구에서도 그랬는데 부산 와서도 변호사 댁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 먼저 가족들을 내려보내고 뒤떨어져 부산에 와 보니, 내 직속 가족들은 대구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대구가 부산보다 물가가 싸다는 것으로 해서, 크리스마스날 나는 대구로 올라갔다. 그때 아내와 애들이 들어 있는 곳이, 화재로 인해 뼈와 거죽만 남은 재판소 옆, 모 변호사 댁이었다. 굉장히 큰 저택이었다. 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또 상당히 넓은 뜰 한구석에 끼어 있는 헛간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의 방이었다.

대구는 부산에 비해 무던히 차가웠다. 원래가 헛간인 데다 북향하여 출입구 하나밖에 없는 방이라, 별이래곤 진종일 얼썩도 하지 않았다. 더 춥고 음산스러웠다. 애님들은 날만 새면 손발이 얼면서도 밖으로만 나갔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으로 알았다. 피난민의 신세에 그래도 어느 분의 안면으로 이런 방이나마 얻어 들게 된 게 여간 고맙지가 않

[A] 은 것이었다.

우리는 이 집에서 몇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이 댁 변호사 장모 되는 노파의 지시에 따라, 저녁에 어슬해지면 절대로 안뜰에 들어와 물을 길어 가서는 안 되고, 아침에도 자기네가 한 바가지라도 먼저 길은 뒤에야 물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하한 빨래건 빨래 종류는 일절 금지라는 것이다.

안뜰에는 수도도 있고, 우물도 있었다. 아침만은 일없었다. 우리는 점심을 뺀 두 끼의 식생활인지라, 느지막하게 안뜰에서 조반이 끝난 뒤에 점심 겸 조반을 해 먹으면 그만이었으니까. 빨래도 그랬다. ㉡한목 모았다가 물을 길어 내다 하면 그만인 것이었다. 그저 미처 물을 떠다 두지 못한 날 같은 때, 밤중에 어른도 어른이지만 애들 가운데 누가 목이 마르다든가 할 것 같으면 그 거 달래기에 가슴이 타야 하는 게 안됐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룻밤 물 몇 모금 못 먹었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었다.

㉢변소만 해도 이 노파가 안뜰 변소에는 들어와 더럽혀서 안 된다고 따로 지시가 있어, 이미 아내의 손으로 이쪽 뜰 한구석 다복술 뒤에 거적뎠 변소가 만들어져 있었다. 대낮에 어른들이 들어가 쪼그리고 앉기에는 좀 뽕뽕했으나 그 맛쯤은 하는 수 없었다.

두고 보니 이 댁 살림은 이 장모 노파의 손에서 우러나는 것 같았다. 아내가 이 댁 식모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이 노파는 소생이라고 현재 변호사 부인인 딸 하나뿐으로, 이 딸이 이 댁 변호사 부인이 되자 따라 들어와 온갖 살림살이를 주무른다는 것이다. ㉣애들 방도 따로 있지만, 큰 온돌방 하나를 이 노파가 독차지하고 있어, 아침에 이 방부터 조반상을 본 뒤에야 비로소 다른 식구들이 아침을 먹는다는 것이다.

이 노파의 취미는 같은 노파들끼리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모여서 골패를 노는 것과, 날을 받아 가지고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일이라고 했다. 이 노파가 끈을 곱게 장식한 감장 조바위를 쓰고, 비단옷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을 한두 번 아니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육순 가까운 나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뺨시에 자세도 똑박랐다. 이 댁에 드나드는 노파들도 다 비슷비슷한 차림차림에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라곤 별로 깃들여 보지 않은 얼굴빛이요 몸매들이었다. 인생이란 하다못해 요 맛 정도라도 안 일하게 늙어 가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몰랐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의 가족은 대구 피난살이에서 쫓겨나 부산에 내려와 겨우 방 한 칸을 잡게 되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집주인인 변호사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 방을 구하러 다니던 어느 날 귀갓길에 문득 자신이 곡예사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곡예사라는 말을 떠올렸다. 옳아, 지금 나는 진아를 어깨에 올려놓고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진아도 내 어깨 위에서 곡예를 하고 있고, 선아는 나비의 곡예를 했다. 남아는 자전거 곡예를 했다. 이 남아가 이제 몇 센트의 균표를 위해 그 꼬마와 같은 지랄을 해야 하는 것도 일종의 슬픈 곡예인 것이다. 그리고 동아의 폴리스 썰 투미도 그런 곡예요, 이들이 가슴이나 잔등에서 또는 허리춤에서 담배 보루며 껌 꺾을 재빨리 꺼내고 넣는 것도 훌륭한 곡예의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황순원 곡예단의 어린 피에로요, 나는 이들의 단장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무대는 이 부민동 개천 독이고.

피에로 동아가 쏘렌토를 부른다. 그래 마음대로들 너희의 재주를 피워 보아라. 나는 너희가 이후에 오늘의 이 곡예를 돌이켜 보고, 슬퍼해 할는지 웃음으로 돌려 버릴는지 어쩔는지 그건 모른다. 따라서 너희도 이날의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곡예를 보고 웃었는지 울었는지 어졌는지를 몰라도 좋은 것이다. 그저 원컨대 나의 어린 피에로들이여, 너희가 이후에 각각 자기의 곡예단을 가지게 될 적에는 모쪼록 너희들의 어린 피에로들과 더불어 이런 무대와 곡예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거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쓸데없는 어릿광대의 녀드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피에로 동아군의 독창을 경청해 주십시오.

한 걸음 떨어져 오던 아내가 가까이 와 한 팔을 내 허리에 돌린다. 이 단장 부인은 남편 되는 단장의 곡예가 위태로워 보였던 모양이다. 나는 염려 말라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그러는데 피에로 동아의 노래가 마지막 대목 다 가서 똑 그친다. 이미 우리는 그 변호사 댁이 있는 골목에 다다른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 프로는 이것으로 끝 막기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없었던 탓으로 이렇게 초라한 곡예가 되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곡예단을 이처

럼 사랑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단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안녕히들 주무세요. 굿바이!

- 황순원, 「곡에서」

31

▶ 21051-027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가족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대구를 피난처로 삼는다.
- ② '나'의 가족은 대구 변호사 댁의 장모 노파가 만들어 놓은 생활 규율에 따른 생활을 하고 있다.
- ③ '나'의 아내는 대구 변호사 댁 노파의 형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 ④ '나'의 어린아이들은 부산의 피난지에 와서 돈벌이에 내몰린다.
- ⑤ '나'는 아이들의 미래의 삶이 자신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32

▶ 21051-027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초라한 거주 공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 주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아내'의 행위가 드러나 있다.
- ④ ㉣: 위계가 분명한 '이 댁'의 집안 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 불가피한 상황을 정리하려는 '나'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33

▶ 21051-027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대구'와 [B]의 '부민동'은 모두 피난지의 열악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이다.
- ② [A]의 대구에서의 '애늬들'과 [B]의 '부민동'의 '어린 피에로들'은 모두 피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의 '개천 독'과는 달리 [A]의 '안뜰'은 피난살이의 고달픔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⑤ [A]의 '나'의 가족이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이, [B]의 '나'의 가족은 변호사 댁 골목에 오면 아이들의 독창을 '뚝 그'쳐야 하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34

▶ 21051-0274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황순원의 「곡예사」는 자전적 서사 양식을 활용하여 피난민의 삶을 그려 낸 작품으로, 작가 황순원을 소설 속 등장인물로 직접 호명하여 그가 겪은 실제 피난지 체험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내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특히 인물이 처한 비참한 삶의 조건을 긍정함으로써 독자에게는 오히려 피난 생활의 고통을 부각하는 반어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서술 전략을 통해 직접적 고발이나 비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정 이입과 공감의 효과를 이끌어 내어 결과적으로 인물이 처한 열악한 삶의 현실을 더 실감 나게 드러낸다.

- ① ‘나’가 ‘안택에서 조반이 끝난 뒤에 점심 겸 조반을 해 먹’어야 하는 현실을 ‘그만’이라며 체념하는 것에서 피난지의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나’의 절망적 현실 인식을 실감 나게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나’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현실을 ‘사람이 하룻밤 물 몇 모금 못 먹었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피난지의 열악한 현실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극복해 내려는 ‘나’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나’가 용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실을 ‘좀 뺏혔으나 그 맛 짙은 하는 수 없었다.’라며 담담하게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한 감정 이입과 공감의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나’가 ‘인생이란 하다못해 요 맛 정도라도 안일하게 늘어 가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몰랐다.’라며 노파의 안일한 삶을 긍정함으로써 오히려 ‘나’의 열악한 삶이 더 부각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킴을 알 수 있겠군.
- ⑤ ‘나’가 자신의 가족을 ‘황순원 곡예단의 어린 피어로요, 나는 이들의 단장인 것이다.’로 서술하는 것에서 자전적 서사 양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5

▶ 21052-0275

〈보기〉의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그 도로는 얼마나 ㉠뽀니[널리]?
- 누가 ㉡앞일[암닐]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 ㉢서울역[서울력]에서는 기차가 9시에 출발한다.
- 그들이 늑대에게 ㉣잡힌[자핀] 토끼를 구해 주었다.

- ① 첨가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음운 변동 후에 전체 음운 개수의 변화가 있다.
- ③ 앞 자음의 영향을 받아 뒤 자음이 유음이거나 비음으로 바뀌었다.
- ④ 음절의 끝소리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났다.

36

▶ 21052-0276

〈보기 1〉의 ㉠~㉣에서 밑줄 친 부분이 지니는 의미를 〈보기 2〉의 ㉠~㉣에서 고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 ㉠ 그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 ㉡ 어제 학교를 가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
- ㉢ 바쁘시더라도 저희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 ㉣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늦잠을 잤어요.
- ㉤ 그는 책을 빌리려고 구청의 도서관에 들렀다.

보기 2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 주로 나열, 대조, 선택의 제한된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 앞 절은 뒤 절에 대해 ㉠선행 사건, ㉡사건의 중단, ㉢이유·원인, ㉣조건·가정, ㉤양보·인정, ㉥목적·의도, ㉦배경 상황 등의 더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면서도 형태 변화를 하지 않고, 어떤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우리말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이나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도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미는 단어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체언이나 용언은 관형사가 갖는 특징의 일부만을 가질 뿐 두 가지 특징 모두를 갖지 않는다.

관형사는 크게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 성상 관형사로 분류된다. 그런데 지시 관형사와 수 관형사는 대명사, 수사와 각각 그 형태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그 구별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에는 ‘이 책상’, ‘그 집’, ‘저 의자’ 등에서의 ‘이’, ‘그’, ‘저’ 등이 있다. 그런데 ‘이’, ‘그’, ‘저’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는 학생이다.’에서 ‘그’는 대명사인 데, ‘그 집’에서의 관형사 ‘그’와 형태가 동일하다. 이때 대명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 ‘그 집’처럼 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그’는 관형사인 반면, ‘그는’, ‘그가’, ‘그를’ 등과 같이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그’는 대명사인 것이다.

수 관형사와 수사는 형태가 유사하기도 하고 동일하기도 하다. 수사 ‘하나’와 수 관형사 ‘한’은 그 형태가 유사한 반면, ‘다섯’은 동일한 형태로 수사나 수 관형사로 모두 쓰일 수 있다. ‘하나에 빛을 더하면 다섯이다.’에서 ‘하나’는 수사인 반면, ‘한 사람이 서 있다.’에서 ‘한’은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이에 비해 조사 ‘이다’와 결합한 ‘다섯’은 수사인 반면, ‘다섯 사람이 서 있다.’에서 ‘다섯’은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관형사이다. 관형사 ‘한’, ‘두’, ‘세’, ‘네’까지는 각각 대응되는 수사 ‘하나’, ‘둘’, ‘셋’, ‘넷’과 형태가 유사한 반면, ‘다섯’, ‘여섯’, ‘일곱’ 등은 동일한 형태로 관형사나 수사 모두 쓰일 수 있다.

결국 관형사를 수사나 대명사와 구별하려면 ㉠ 특징을 활용해야 한다.

37

▶ 21052-0277

윗글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사와 수 관형사가 형태가 유사하다는
- ② 관형사는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 ③ 관형사는 관형어로 기능한다는
- ④ 체언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 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한다는

38

▶ 21052-0278

윗글을 참고할 때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관형사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셋에 다섯을 더하면 여덟이다.
- 저 사람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다.
- 곰 네 마리가 신나게 놀고 있다.
- 그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 ① 셋, 우리, 그
- ② 여덟, 저, 이
- ③ 저, 네, 이
- ④ 셋, 우리, 네, 그
- ⑤ 여덟, 우리, 네, 이

39

▶ 21052-0279

<보기>를 참고할 때,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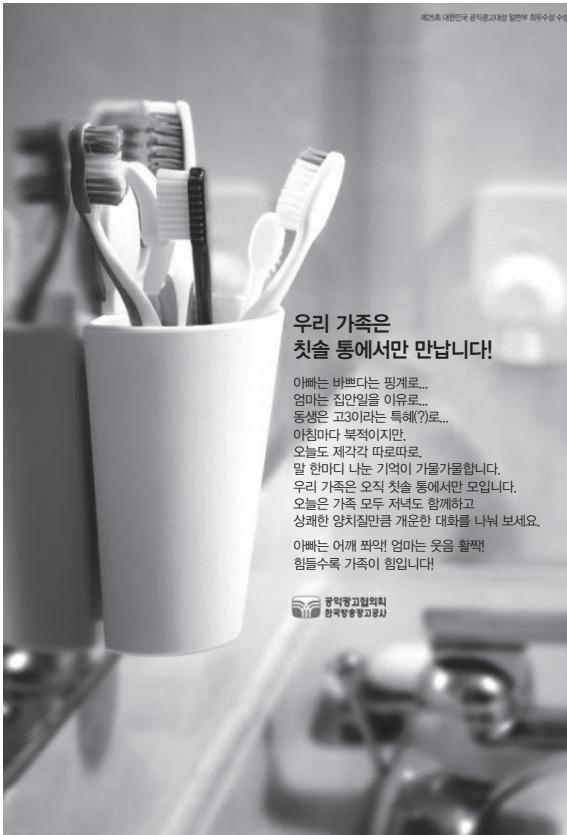
중세 국어로부터 현대 국어로 오면서 우리말의 대표적인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음운 변화를 하나만 겪은 단어도 있지만, 여러 음운 변화를 겪은 단어도 있다.

- (가) 모음 ‘ㄷ’은 단어의 첫음절이 아닌 음절에서 ‘-’로 변했다.
- (나) 자음 ‘ㄷ’은 소실되어 쓰이지 않게 되었다.
- (다) 모음 ‘-’은 ‘ㅁ, ㅂ, ㅍ’ 뒤에서 ‘-’로 변했다.
- (라) 자음 ‘ㄷ, ㅌ, ㅍ’은 모음 ‘이’나 반모음 ‘ㅣ’ 앞에서 각각 ‘스, 즈, ㅍ’으로 변했다.
- (마) 모음 ‘ㄷ’은 단어의 첫음절에서 ‘-’로 변했다.

- ① ‘플>폴’에서는 (다)가 일어났군.
- ② ‘스시>사이’에서는 (나), (마)가 일어났군.
- ③ ‘막딕>마딕>마디’에서는 (가), (라)가 일어났군.
- ④ ‘브티다>부치다’에서는 (다), (라)가 일어났군.
- ⑤ ‘막숨>마음’에서는 (가), (나), (마)가 일어났군.

[40~41] 다음 공익 광고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40

▶ 21052-0280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칫솔 통 속의 ‘칫솔’과 ‘가족’의 상황을 연결하여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칫솔 통 속 칫솔이 만나는 상황과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현실을 대조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잡다’와 ‘잡히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대조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사진 자료와 상반되는 의미를 담은 문자 언어를 제시 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광고에 제시된 글자 모양 및 크기를 다르게 하여 광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1

▶ 21052-028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공익 광고는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광고로, 국제 광고 협회에서는 이를 ‘대중의 일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사회적·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나 활동을 도와서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으로 정의한다.

- ① (가)는 가족 모두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져야 공공 위생이 향상됨을 강조하고 있군.
- ② (가)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우리나라 가구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군.
- ③ (나)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군.
- ④ (나)는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가족과 면대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 증진에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중이 실천해야 할 행동을 제목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42~45] 다음은 만화 동아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만화 동아리 학생들이 작성한 스토리보드의 대사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신문, 잡지, 단행본, 온라인 포털. 요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의 전유물로만 ㉠ 여겨졌던 만화가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장르로 발전한 것이지요. 작품성이 뛰어난 만화들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 여러분도 만화 한두 편은 접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2

좋은 만화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만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화의 구성 요소는 크게 작화와 스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창 인기를 끌다 사라진 이 만화를 한번 볼까요? ㉢ 우리 모두에게 익히 알려진 이 만화는 그림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스토리라도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 없다면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작화가 아무리 좋아도 스토리의 개연성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다면 그저 그림만 좋은 만화로 평가될 것입니다. 자, 자신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만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준비가 절반은 된 셈입니다.

#3

일반적인 책과 만화를 비교해 봅시다. ㉤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림이 내용을 이끌어 가는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작화의 ‘연출’이 만화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한정된 분량 내에 담아내야 하는 매체의 특성상 장면에 대한 설명을 전부 담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영상과는 달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화는 한 장면, 한 장면에 상황에 맞는 연출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크기 내에서 칸을 나누고, 인물을 배치하고, 대사를 넣고, 동작을 강조할 수 있는 효과를 넣는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작가가 나타내고 싶은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타내고 싶은 모든 것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 그릴 때는 이처럼 부분을 제시하면서 전체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장면을 보여 주면서 지금보다 더 나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죠. 이러한 연출에 대해 관심 있다면 우리 동아리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누군가의 특징을 포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자신 있다면 바로 당신이 우리 동아리에서 원하는 인재입니다.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만화의 매력이지요. 그저 평범하게만 보였던 인물이 실은 나쁜 사람이었다는 예를 생각해 볼까요? 작가는 앞부분에는 인물에 대한 과장된 표현 없이 다른 일반적인 등장인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 하지만 어느 순간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해당 등장인물의 작화가 조금씩 변화도록 그릴 수 있죠. 눈 주변을 검게 칠한다거나 눈매를 날카롭게 표현한다거나 다른 등장인물보다 더 짙은 그림자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 이런 방식의 표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지만, 만화라면 이러한 변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죠. 변화 무쌍한 작화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5

만화를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니, 여러분 모두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만화를 그리며 즐거움을 창조하는 재미를 함께 만들어 가지 ㉩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동아리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42

▶ 21052-0282

위 대사에 나타난 표현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화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② 만화 장면과 영화 장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만화가 이야기와 그림으로 이루어졌음에 초점을 맞추어 만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만화가 대중 매체로서 갖는 상업성을 환기하며 만화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만화를 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제시하며 만화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43

▶ 21052-0283

동영상에 만화 동아리에서 그린 다음 만화를 삽입한다고 할 때, ㉠~㉥ 중 가장 적절한 곳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4

▶ 21052-0284

동영상에서 각 장면의 대사가 진행될 때 제시할 자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 만화란 무엇일까?
- ② #2: 작화와 스토리, 만화의 필수 요소
- ③ #3: 만화의 핵심, 작화의 '연출'
- ④ #4: 무궁무진, 변화무쌍한 작화의 세계
- ⑤ #5: 우리 동아리는 여러분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45

▶ 21052-028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동 표현을 통해 '여겼던' 주체는 드러내지 않고 '여겼던' 대상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다면'을 써서 대상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 ③ ㉢: 비격식체 종결 형식인 '요'를 사용하여 바로 앞뒤의 문장과 다른 상대 높임을 보이고 있다.
- ④ ㉣: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된 정보들 간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⑤ ㉤: 선어말 어미 '-으시-'를 써서 청자들이 화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높임의 대상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